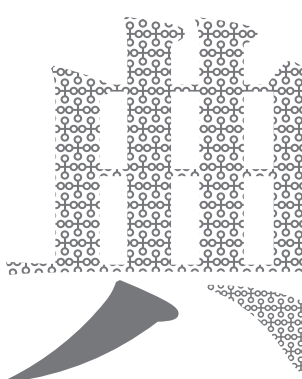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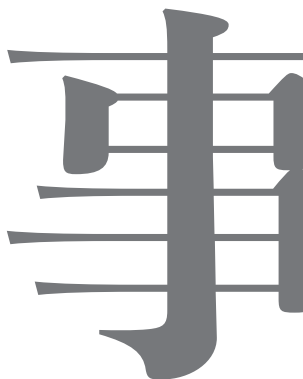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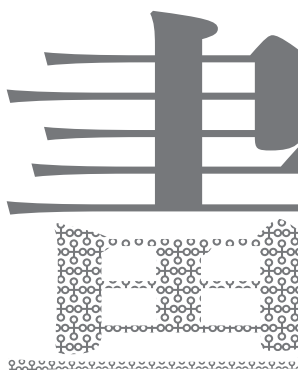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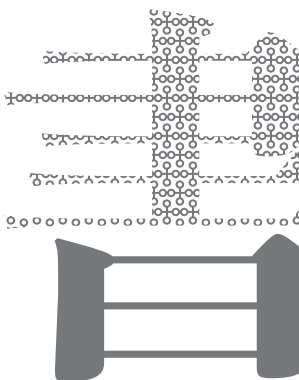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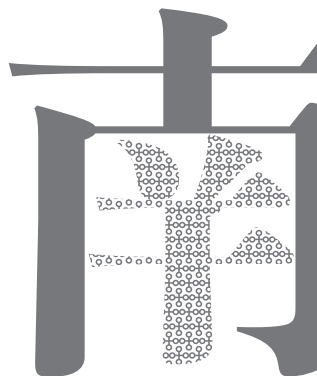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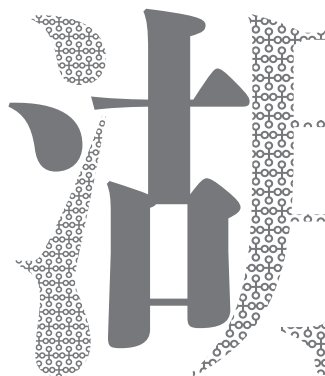


호남
서화가
사전



Dictionary of
Honam
painters and
calligraphers

이선옥·김소영 편저

호남
서화가
사전

호남
서화가
사전

湖 南

書 畫 家

事 典

Dictionary of
Honam
painters and
calligraphers

이선옥·김소영 편저

목차

일러두기	8
해제	
이선옥 호남 서화의 전통과 의미	10
김소영 광주·전남 전통 서화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과제	31
원색도판	50
ㄱ	68
ㄴ	147
ㄷ	151
ㄹ	159
ㅁ	184
ㅂ	226
ㅅ	314
ㅇ	358
ㅈ	380
ㅊ	
부록	
참고문헌	430
색인	442

일러두기

사전의 구성

- 이 책은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에서 태어났거나 호남을 근거로 활동한 417명에 달하는 화가·서예가의 약력과 대표작품 등을 수록한 사전이다. 서화가 선별과 설명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필하였고,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교열·편집·감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이다.
 - * 호남서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제에 해당하는 글 두 편을 실었다.
- 사전에 수록된 항목은 2022년~2024년 동안 추진된 호남서화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선정되었다.
 - * 서화가는 현존작품 또는 문헌에 의해 서화가로서 활동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인물을 위주로 하였다.
 - * 1946년까지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도 이에 포함하였다.
 - * 서화가로서 이름이나 호가 알려져 있으나 활동내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 * 서화가로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작가인 경우, 비록 역사적인 평가가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수록하였다.
 - * 2024년 10월 현재 작고작가만을 사전에 수록하였다.
 - * 호남에서는 불화를 그린 많은 화승(畫僧)이 활동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지만 책의 분량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른 기회에 별도의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원고는 집필자의 원안을 존중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계 및 서술상의 통일을 위해 부득이 교정진에서 수정·첨삭하였다. 또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작품 위주로 도판을 선정하였다.

항목명 및 표기 원칙

- 항목은 3개 분야(서예·서화·회화)를 망라하여 작가의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한문을 병기하였다. 국한문 병기시 한자는 일부 관행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 인명과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표기하였다.
 - * 이름을 기준으로 적었고, 자, 호는 알려진 경우에만 적었다.
 - * 이름과 자, 호의 한자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글로만 적었다.

- * 생졸년(生卒年)의 월(月), 일(日)이 확인되면 표기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만 표기하였다.
 - * 생졸년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의 경우 활동시기를 '세기(世紀)' 또는 미상으로 표시하였다.
 - * 갑오개혁(1894~1896)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의 생년월일은 음력, 이후의 것은 양력을 의미한다.
 - * 국왕 : 존호(尊號)로 기재
 - 예) 태조(太祖), 영조(英祖)...
 - * 종친 : 군호(君號)가 아닌 성명으로 표기
 - 예) 안평대군(安平大君) → 이용(李瑢)
 - * 동일인이나, 한자명을 다르게 쓴 인물일 경우, 가장 정확한 한자명을 먼저 쓰고 이어서 【】 표시를 하고 그밖에 함께 쓰인 한자명을 기입하였다.
 - 예) 尙言【相言, 尙彦】
- 용어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표기하였다.
 - * 난해한 한자식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썼으며, 인용 및 부가 설명 등은 [] 표기를 하고 내용을 첨가하였다.
 - 기타
 - * 비석(타본 포함)의 소재지는 확실한 경우 작품목록에 위치와 소장처를 함께 표기하였다.
 - * 서화작품명은 〈 〉(첩이나 병풍) 또는 〈 〉(단일 작품)로 표기하였고 문헌의 제목은 『 』, 문헌의 편명(篇名)이나 소재목은 「 」로 표시하였다.
 - * 본문의 주요작품 목록은 제작 연대 순으로 배열하였다.
 - * 작품의 크기는 세로×가로cm로 표기하였다.

이 책의 저자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모든 사진과 그림 자료의 출처 및 저작권을 찾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거나 착오가 있다면 다음 책을 찍을 때 수정하겠습니다.

“호남 서화가 사전”의 내용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 국학 종합 DB 사이트에 올리고,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료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여, 연구자와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서화의 전통과 의미

이선옥(의재미술관 관장)

I. 들어가며 - 예향 호남의 위상

예술의 고장이라는 '예향藝鄕'은 호남을 일컫는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다. 예향을 사전에서는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라고 정의한다. 호남이 오랫동안 '예향'으로 불렸던 것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통이 깊어 이를 즐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수 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향'이라는 이름을 호남에 대해 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 이는 최근들어 전통서화가 저평가되면서 전통서화를 기반으로 하는 호남의 상황이 과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서화를 포함한 문화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농업이 경제의 기반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화 이후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예향 호남'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화는 호남의 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회화사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뚜렷한 미술양식을 선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많은 화가들과 작품이 남아있다. 남도에서는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를 비롯한 해남 녹우당의 3대 화가,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9~1892과 그 후손들로 이어지는 진도의 화맥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전북의 서맥書脈이 있다.

물론 예로부터 전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서화가들이 있었다. 평양의 양기훈이나 개성출신 황성하 4형제, 진주의 황영두, 김해의 배전과 대구의 서병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호남을 유난히 예술의 고장이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 서화가들의 서화전통이 당대의 명성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과 후손들을 통해 현대 화단에 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의 황성하 4형제는 일제강점기에 군산으로 이주해 와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또한 대구사람 서석지가 전주의 이삼만으로부터 서예를 배워 대구에 전파함으로써 서병오를 비롯한 대구의 서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진위여부를 떠나 호남의 예술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1995년부터 광주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1997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2017년부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우리 서화를 알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국제행사 또한 우리 지역에 오랜 서화전통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호남서화의 전통과 흐름을 간략히 개괄하여 그 특징을 살핌으로써 『호남 서화가 사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로 전국의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오늘날에는 출신지역이나 활동지역을 한정하여 서화가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호남 서화가 사전』을 만든 것은 이 지역의 서화가가 다른 어떤 곳보다 많고 뚜렷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400여 명의 호남 서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대표작을 소개하였다. 잘 알려진 몇몇 서화가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료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간략한 소개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또 일부는 한때의 활동 기록은 있으나 이후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또 생몰년이 분명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호남 서화가의 행적을 모은 사전을 발간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라도 연구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단체나 혹은 단체의 후원을 받은 개개인에 의해 부분적이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들이 있었다. 이 사전은 이들 선행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전 또한 후일 더 탄탄한 연구의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

II. 호남 서화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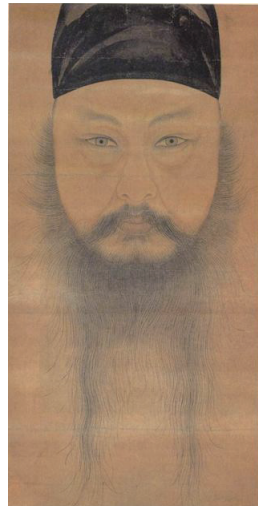
1. 광주·전남의 서화

1) 조선시대 광주·전남의 서화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한 서화가들은 있었을 것이다. 몇몇 화원화가들의 활동이 알려져 있으며, 호남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1480~1545은 묵죽을 잘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 화가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하천霰川 고운高雲, 1479~1530 또한 기묘사화로 낙향한 후 서화에 관심을 가져 당대에는 호랑이 그림으로 이름이 있었다. 서화가로서의 명성이 있거나 이후 화단과 연결 지을만한 구체적인 활동기록 등이 전해지는 것은 16세기 이후이다.

(1) 녹우당의 3대화가

조선 숙종 대에 활동했던 해남 출신의 서화가 공재 윤두서는 한국회화사에 있어서나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감평가들에 의해서도 '회화의 새 시대를 활짝 연' 화가로 평해진다. 최초로 풍속화를 그렸을 뿐 아니라 사물의 참 모습을 형상화하려는 태도로 자신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린 <자화상>을 남겼기 때문이다(도1). 실학자였던 그는 형사적形似的 전신傳神을 창작의 기본원리로 삼아 초상화, 산수화, 풍속화, 화조영모화, 도석화, 고사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가 추구한 문인화가상을 실천하였다.² 초상화에서 보여준 치



도1 윤두서, <자화상>, 지본담채, 38.5x20.5cm, 녹우당

1 오세창, 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근역서화정』 상(시공사, 1997), 297쪽.

2 윤두서의 회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근래의 주요 연구를 보면 박은순, 『공

밀한 묘사력은 말 그림에도 적용되어 대상의 실체를 정확히 묘사하는 사실적인 작품태도를 보였다.

윤두서는 그림 뿐 아니라 천문, 지리, 수학, 병법, 금석, 음악, 기예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져 그의 유품 중에는 지도와 천문, 수학에 관한 서적도 전해온다. 실학적 학문태도에 주변현실에 대한 애정을 담아 그린 <깊신삼기>와, <나물캐는 여인>, <돌깨기>, <목기 깎기>등에서는 처음으로 서민의 생활모습을 화폭에 담아내어 후기 풍속화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산수화에 있어서는 당시 새롭게 일기 시작한 진경산수 같은 새로운 경향보다는 중기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한편으로는 『고씨화보』를 비롯한 화보류를 통해 고전을 습득함으로써 조선 후기화단에서 크게 유행한 남종화법을 선구적으로 사용하였고, 서양화법을 통해 묘사법을 개량하기도 하며 후기 화단의 변화를 이끌었다.

윤두서의 화풍은 그의 아들인 낙서 윤덕희와 손자인 청고 윤용에게로 가전되었다. 윤두서에게서 전수받은 윤덕희의 회화는 '신선과 말을 잘 그렸다'는 화평처럼 중국적인 소재의 신선도나 도석인물을 잘 그렸다.(도2)³ <송하고사松下高士>, <기마미인騎馬美人> 등의 고사인물이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산수인물, 그리고 <기마인물>과 <말그림>들이 전한다. 종가에 소장된 그의 화첩 중에는 필력은 미흡하지만 <도담삼봉도>도 남아 있어 진경을 사생하는 일에도 관심을 보였음이 확인된다. 그의 작품 중에서 <공기놀이>에는 풍속화에 대한 그의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 있다.



도2 윤덕희, <선인도>, 1736년, 종이에 수묵, 75.7x49.5cm, 국립중앙박물관

재 윤두서』(돌베개, 2010); 차미애, 『공재 윤두서 일가의 회화』(사회평론, 2014); 이내옥, 『공재 윤두서』(시공사, 2003)의 다수가 있다.

3 『善書譜, 尤善畫馬畫仙』, 『震業續考』; 오세창, 동양고전연구소 역, 『국역 근역서화정』(시공사, 1998), 677~678쪽.

윤덕희의 차남 윤용은 서화 뿐 아니라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33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현존하는 유작이 많지 않다. 그것들은 대체로 산수·도석·인물·풍속 등 집안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남종화풍의 수용에 보다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그의 작품 가운데 시골 여인의 삶을 담은 간송미술관 소장 <협룡채춘(狹籠採春)>에는 풍속화의 생동감이 물씬하다(도3).

그 감각은 윤두서의 <나물캐는 여인>를 이은 것으로 오히려 윤두서의 풍속화보다 현실 인식은 질다.

해남 윤두서 일가의 회화와 실학적인 사상은 강진에 유배와 있었던 외증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윤두서에서 정약용으로,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로 이어지는 실학의 흐름, 그리고 김정희와 진도 출신의 화가 소치 허련과의 사승관계는 남도화단의 뿌리가 그만큼 깊었음을 보여준다.

(2) 소치 허련의 남종문인화 전통

윤두서 일가의 화맥을 이어 허련은 남도 근대 화단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화가이다.⁴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였던 허련은 28세 때인 1835년 해남 녹우당에 가서 윤두서의 『공재화첩』을 빌려 몇 달에 걸쳐 모사해보면서 본격적으로 그림공부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필력을



도3 윤용, <협룡채춘>, 종이에 담채, 27.6x21.2cm, 간송미술관

익힌 허련은 1839년 해남 대흥사 초의선사의 소개로 추사 김정희의 문하생이 되었다. 그로부터 ‘소치’라는 호도 받고, 중국의 대표적 문인화가인 북송의 미불(米芾), 원나라 황공망(黃公望)과 예찬(倪瓚), 청나라 석도(石濤)의 화법을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회화세계를 구축하여 19세기 김정희를 따랐던 많은 화가들 가운데 특히 김정희의 총애를 받으며 남종문인화풍을 토착화시켰다.

허련의 회화는 붓끝이 갈라진 듯한 독필과 청색과 담홍색의 설채 효과 등이 특징이다. 그러한 허련 산수화의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선면산수도>, <방예찬죽수계정도>·<방석도산수도> 등이 있다.

허련은 산수화 뿐 아니라 사군자, 인물, 화훼 등 각 분야에서 독특한 필치를 구사하였다. 허련의 사군자화는 그가 추구하는 문인화의 지향점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화목의 하나이다(도4).⁵ 만년에 허련이 ‘허모란’으로 알려진 것처럼 모란이나 소나무, 연 등 문인들이 즐겨 그렸던 화훼류에서도 개성 있는 작품을 남겼다.

허련의 회화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인 허은(許漣, 1848~1865)과 허형(許瀾, 1862~1938)을 통해 가전됨으로써 호남화단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소치 허련의 넷째 아들인 미산 허형은 부친을 이어 산수, 사군자 전반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겼다. 허련이 엷은 먹에 갈필로 뾰뚱한 느낌을 주는 필치를 구사한 반면, 허형은 부드러운 붓놀림으로 화면전체를 가득 메우는 구성과 수많은 미점으로 명암과 양감을 살리면서 포근



도4 허련, <수매도(수매도)> 1877년, 종이에 수묵, 109x57.1cm, 개인

4 허련에 대해서는 허련 저, 金泳鎬 편역, 『小癡實錄』(瑞文堂, 1981)을 비롯하여 김상엽, 『소치허련』(학연문화사, 2003); 同著, 『小癡 許鍊(1808~1893)의 生涯와 繪畫活動 研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국립광주박물관 편, 『소치허련 200년』(국립광주박물관, 2008)의 다수의 논문이 있다.

5 허련의 사군자화에 대해서는 이선옥, 『소치 허련의 사군자화 연구』, 『호남문화연구』 36호(호남문화연구소, 2005. 6월), 115~157쪽.

한 느낌을 자아내는 화법을 구사하였다.

허련의 직계 후손들 이외에도 허련의 제자로는 미방米舫 김익로金益魯, 1845~1915나 옥전玉田 임양재林陽載, 1848~1912, 호석湖石 임삼현任三鉉, 1874~1948 등이 알려져 있으나 다른 제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3) 사호 송수면 일가의 서화

19세기 화순 동북에는 문인화가 사호沙湖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이 있었다. 그는 사군자에 능하고 특히 나비그림을 잘 그려 송나비로 유명하였다. 현전하는 많지 않은 작품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의 장기로 알려진 화접도나 사군자류 이외에도 산수, 연, 송학, 소, 포도, 화조 등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다. 각 분야에 보인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 상당한 경지에 이른 화가임을 알 수 있다.⁶

송수면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접도십폭병풍》은 갖가지 종류의 나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나비그림에서의 명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더구나 나비와 함께 그린 갖가지 꽃의 화사함, 그리고 괴석의 독특한 필치는 그의 화법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묵죽에 뛰어났다”는 『근역서화징』의 기록처럼 묵죽과 묵매화 작품도 다수 전한다.⁷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매죽도십폭병풍》을 비롯한 송수면의 사군자화는 화보를 방하기도 하였고, 당대보다는 조선 중기나 후기 등 전통적인 화풍을 간직하고 있다.

송수면의 회화는 그의 조카 염재念齋 송태회宋泰會, 1872~1942와 아들 매사梅沙 송대회宋大會, 1882~1956에게 영향을 주어 남도 화맥의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였다.⁸

6 송수면의 생애와 회화에 대해서는 이선옥, 「사호 송수면(1847~1916)의 회화세계」, 『미술사학연구』 제28집(미술사학연구회, 2007. 6), 35~62쪽; 국립광주박물관 부국문화재단 편, 『사호 송수면의 회화세계』 국립광주박물관 2007 특별전 Ⅷ(국립광주박물관 부국문화재단, 2007) 전시도록 참고.

7 “畫長於竹”, 오세창, 앞의 책, 1044쪽.

8 송태회의 삶과 서화에 대해서는 박종석, 『세한을 기약하고-염재 송태회화의 삶과 예술』(굿디커뮤니케이션스,

2) 근·현대기 광주·전남의 서화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된 조선은 일제의 문화전반에 걸쳐 자행한 주도면밀한 일본화 정책에 따라 수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서화가들도 전통회화와 일제를 통해 유입된 일본화풍, 서양화 등 새로운 회화경향을 대하며 적지 않은 선택의 고민을 하였다.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직접적으로는 소치 허련 이후 허씨 집안의 3대화가인 남농南農 허견許健, 1907~1987과 방손인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1~1977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는 허련과 허형 회화에 영향을 받은 후대 화가들에 의해서 서화전통이 이어졌다.

(1)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鍊眞會

허백련은 근대 한국화의 6대가로 꼽히는 만큼 한국의 전통회화, 그 중에서 남종문인화풍이라 부르는 담담하면서도 품격 있는 화풍으로 근현대 화단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화가이다. 허백련의 화풍은 그가 어려서 미산 허형에게 묵화의 기초를 익혔던 만큼, 미산의 부친인 소치 허련의 문인화풍을 근간으로 한다. 이렇듯 어려서부터 익힌 화풍과 한문, 붓글씨 등이 그의 필력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바탕이 되어 한평생 남종문인화에 매진하였다.

허백련은 전통 남종화 정신과 그 기법을 철저히 고수하고 옛 법古法을 충실히 계승하여 자신의 세계로 심화시켰다. 역대 여러 명가의 화법을 두루 응용한 이상화된 산수화임에도 필치는 개성이 있고, 경물은 낮은 산과 계곡 등 남도지방 산야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친근한 느낌을 준다. 그는 주로 ‘의도인毅道人’으로 관서하던 60세 이후부터 원숙한 화풍의 진수를 보였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농업학교를 세우고 농업발전에 힘썼던 허백련은 일종의 ‘농경도인’인 발가는 그림들을 그렸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 기증한 <일

2010); 이선옥, 「문인화가 송태회(1872~1941)의 근대체험과 실경산수화의 근대적 요소」,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8권 1호(역사문화학회, 2015.5), 189~217쪽.

출이작)은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산수화 이외에도 사군자화나 화조, 영모화 등에서도 각 소재가 갖는 상징성을 살리면서 운치 있는 화격을 보여준다(도5). 그의 그림 뿐 아니라 서예작품이나 그림에 화제를 쓴 속기 없는 글씨 또한 일품이다.



도5 허백련, <위진팔황>, 1953년, 종이에 담채, 131.0x133.5cm, 의재미술관

의재 허백련의 화맥은 주로 연진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진회는 의재 허백련의 넷째 아우인 목재木齋 허행면許行冕, 1906~1966, 마치 서양의 점묘법을 연상시키듯 작은 묵점을 이용한 독특한 회화세계를 펼쳤던 동강東岡 정운면鄭雲勉, 1909~1948, 채색이 가미된 대담한 수묵화를 발전시킨 소송小松 김정헌金正鉉, 1915~1976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독특한 화풍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후 현대화단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그 전통을 이은 제자들로는 옥산沃山 김옥진金玉振, 1928~2017과 희재希齋 문장호文章浩, 1938~2014, 계산溪山 장찬홍張贊洪, 1944~, 금봉金峰 박행보朴幸甫, 1948~를 비롯하여 허백련의 장손자인 직헌直軒 허달재許達哉, 1952~ 등이 있어 전통서화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2) 남농 허건과 남화연구원南畵研究院

미산 허형의 다섯 형제 중 4남으로 진도에서 태어난 허건은 막내인 임인林人 허림許林, 1918~1942과 함께 가업을 이어 화가로서 성장하였다. 허건은 1930년 스물셋의 나이로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첫 입선하여 화단에 등단하였고, 해방 전까지 꾸준히 선전을 통하여 작가활동을 계속하였다. 해방 후에는 국전國展 추천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약하였다. 1957년에 '백양회白洋會'의 창립회원이 되는 등 목포를 거점으로 광주·전주·서울·제주 및 경향 각지에서 개인전 혹은 초대전을 통하여 활발한 전시 활동을 가졌다.

허건의 회화는 가풍을 이었으나 공모전에 출품하면서 일본 화풍 및 서구화법의 사생화寫生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도6). 그러나 금강산 여행과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묘길상妙吉祥> 등 '남농외사南農外史' 시절의 작품은 허건 회화의 새 면모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도6 허건, <목포교외>, 1942년, 171.5x137cm, 남농기념관

해방 후에는 다시 허련에서 이어온 남종화풍의 형식에 눈을 돌려 특유의 화법과 분위기를 모색하였다. 산수화를 중심으로 한 그의 작품은 속도감 있는 필치와 대담한 수묵의 농담, 설채로써 개성있는 화면을 연출하였다.

허건의 동생 임인林人 허림許林 또한 주목된다. 일본에 유학하였던 그는 20세 때부터 8년 동안 선전에 5회나 입선을 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1940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가와바타화학교川端畵學校에서 현대적인 채색 화법과 일본화풍을 배워 채색과 섬세한 화면구성, 부드러운 분위기 등으로 현대적 감각을 보인다. 그의 새롭고 감각적인 화풍은 형인 남농 허건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허림의 아들인 임전林田 허문許文, 1941~또한 화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특한 안개 표현으로 유명하다.

목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남농 허건의 제자들은 중견작가로 활약하는 사람만 해도 수십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발묵과 파묵에 의한 대담한 화면구성과 여백의 대비가 특징인 아산雅山 조방원趙邦元, 1926~2015, 온화한 화풍의 화조화에 특히 뛰어난 청당靑堂 김명제金明濟, 1922~1992, 섬세한 필치와 태점으로 잔잔한 분위기의 작품을 많이 남긴 도촌稻村 신영복辛永卜, 1933~2013, 남도의 전통남화풍을 벗어나 독자적인 실경산수화를 개척하였던 백포白浦 곽남배郭南培, 1929~2004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들의 문하에서 배출된 많은 화가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대학교육과 함께 광주 전남 화단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3) 근대 남도의 서예

19세기 말 보성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활동하였던 서예가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1874~1965는 서예의 각체에 모두 능했으나 주로 해, 행, 초서를 썼으며 그의 진초는 “선씨의 경지에 이른 신�필神筆”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의 글씨는 사심 없는 인품과 학문의 깊이가 바탕을 이루는 고졸古拙함을 특징으로 한다(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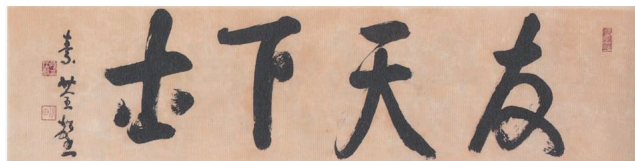


도7 설주 송운회의 작품첩들

송운회의 글씨는 같은 보성군 복내면에서 성장하였던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 1907~1987을 거쳐 근 현대 서단으로 이어졌다. 학정 이돈흥, 용곡 조기동, 백천당 고기임, 창석 김창동, 금초 정광주 등이 모두 안규동을 사사함으로써, 안규동을 거친 송운회의 서예는 근대기 광주·전남 서예의 근간이 되었다.

진도 출신의 소전素峯 손재형孫在馨, 1903~1981은 양정고보 3학년 때인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연이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젊은 나이에 중견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손재형은 각체를 두루 거처 예서·전서를 바탕으로 독특한 소전체素峯體로 발전하였다(도8). 특히 소전체로 한글서체를 창안한 것은 우리나라 서예사에 남을 획기적인 일이다.

손재형의 개성적인 서체는 한국 서단에서 서예를 새로운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일군의 서예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글 서예가로 알려진 평보 서희환, 한자 서체에서 소전을 많이 닮은 장전 하남호 등에게서 그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경암 김상필, 금봉 박



도8 손재형, <우천하사>, 종이에 먹, 32×129 cm, 전남대학교박물관

행보, 원당 김제운, 강암 송성룡, 남정 최정균 등이 그의 문하에서 서예를 배워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상과 같이남도 출신으로 각 시대를 이끌었던 서화가들의 서화풍은 그 자신에서 그치지 않고 자손이나 제자들을 통해 기법과 정신이 전수되었다. 이러한 서화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기 호남이 남중문인화의 고장으로서 그리고 오늘날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다.

2. 전라북도의 서화

1) 조선시대 전라북도의 서화

전주에 감영이 있어 전라도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전라북도는 예부터 맛과 멋의 고장으로 불렸다. 그러한 만큼 전북지역에는 선비정신을 살린 문인화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 시·서·화를 겸비한 서화가들의 활동이 이어졌다.

(1) 19세기 이전 전북의 서화

조선시대 이전에도 전북에 서화가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나 작품이 남아 있어 자취를 알 수 있는 예는 조선 초기 설씨부인薛氏夫人, 1429~1509이 쓴 《권선문첩勸善文帖》이라 할 수 있다. 순창에 살았던 설씨 부인은 문신 신숙주의 동생인 신말주의 처로 문장과 서화에 조예가 있었고, 불교와 유교에도 관심이 깊었다.

설씨부인의 《설씨부인권선문첩》은 1482년(성종 13)에 불교신도들에게 시주를 권하면서 쓴 권선문 14폭과 채색 산수화 2폭으로 되어 있는 16폭의 병풍 형식이다.⁹ 조선시대 여성 필적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일 뿐 아니라 사대부 가문 부인이 쓴 불교관련 글이며, 강천산에 세워질 암자의 설

⁹ 이성미, 「설씨부인 광덕산부도암도와 화조도」, 『미술사학연구』 209호, 한국미술사학회, 1996.3, 110~1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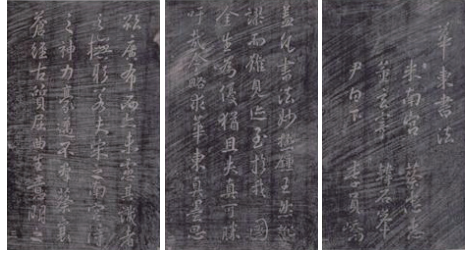
계도적인 건물을 아름다운 산수와 함께 그렸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 중기 전북의 서예가로서 특기할 만한 인물이 김재 출신 송재松齋 송

일중宋日中1632~1717이다. 그의 해서나 초서는 까칠한 풍미를 풍기며 당대 명서가들과는 다른 창의적 작품세계를 보인다.

전라도의 서예는 '동국진체東國眞體' 서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⁰ 동국진체를 제창한 인물, 보급한 인물, 완성한 인물이 다 전라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동국진체를 꽃피운 원고 이광사는 완도 신지도에 유배와 16년을 살며 호남에 동국진체의 씨를 뿌렸는데, 이광사의 서예를 전수받은 인물 중 한 사람이 전주의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1847이다. 이삼만은 전북 서예의 정점에 우뚝 선 인물로 특히 행초서를 발전시켜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는 듯한 유수체流水體'로 필명을 떨쳤다. 그의 글씨 뿐 아니라 서법 전수를 위해 인쇄하여 보급한 서결書訣 『화동서법華東書法』(도9), 후학들에게 서법의 가르침을 위해 쓴 <영자팔법> 등이 전한다.

이삼만의 서예는 호산湖山 서홍순徐弘淳, 1798~?, 대구사람 팔하八下 서석지徐錫止, 1826~1906, 기초箕樵 모수명牟受明, 생몰년 미상, 해사海士 김성근金成根, 1835~1919,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6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을 이어 석전石田 황옥黃旭, 1898~1991, 호암湖岩 박문회朴文會 등이 서예의 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도9 이삼만, 『화동서법 華東書法』, 1800년 이후, 목판본, 27.2x17.0cm, 국립중앙박물관

10 동국진체라는 말은 성재 허전(許傳 1797~1886)이 이서의 행장에서 이서의 글씨를 다음과 같이 평하면서 세상에 등장하였다. “선생(玉潤)은 필법에 있어서도 그 묘한 경지에 깊이가 나아갔으니 대개 매산공이 연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왕희지가 쓴 ‘악의론(樂毅論)’을 구입하여 왔기 때문에 선생은 실로 여기에서 필력을 얻은 것이다. … 중략 … 동국진체는 옥동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의 공재 윤두서, 백하 윤순, 원고 이광사 등은 모두 그 실마리를 이은 사람들이다.” 김남형 역주, 『옛날 우리 어른들의 서예비평』(한국 서예협회, 2002), 13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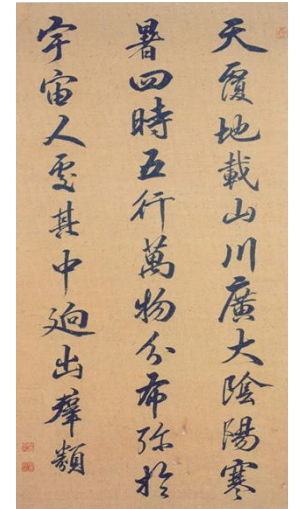
이들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지방지들 중에는 “글씨와 그림을 잘 하였다.”고 전하는 이 지역 문인서화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 출신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 부임해 온 여러 지방관들 중에도 서화에 특장이 있어 지역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들이 있었다. 이곳에서 언급하지 못한 서화가 또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19세기 전북의 서화

(1) 이정직의 문인서화

19세기 호남에는 남도에 소치 허련이 있었다면, 북도에는 석정 이정직이 있어 문인서화계를 이끌었다. 이정직은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 해학 이기海鶴 李沂, 1848~1908와 더불어 ‘한말 호남의 삼걸’이라 불렸을만큼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글씨와 그림 뿐 아니라 『석정이정직유고石亭李定稷遺藁』로 간행된 방대한 문집을 남길 만큼 시문에도 능한 이른바 시서화삼절이었다.¹¹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여 서양철학의 대가인 칸트Kant와 베이컨Bacon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근대적 의미의 철학자이기도 하다.¹²

이정직의 서예는 구양순의 해서에 미불과 동기창의 행서나, 안진경의 해서와 행서를 접목시킴으로써 개성있는 행초서의 세계를 창출했다(도10). 그는 서첩을 통해 고인古人の 글씨를 꾸준히 임서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글씨를 완성해갔는데, 이로 인해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법첩法帖 연구의 일



도10 이정직 글씨, <천복지재>, 종이에 수묵, 강암서예관

11 이선옥, 「호남 문인화의 전개와 회화사적 의미」, 『전주학연구』 창간호, 전주역사박물관, 2007, 317~358쪽.

12 박종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 『박종홍전집』 V, 한국사상사 2(민음사, 1998), 283~285쪽.

인자로 평가받는다.¹³ 다방면에 걸친 학문의 깊이에 서예로 숙련된 필치가 더해져 이정직은 사군자와 괴석怪石, 기명절지器名折枝 등 문인화의 다양한 소재를 두루 다루었다. 개인 소장 <사군자>는 이정직의 품격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강한 서예적인 힘이 느껴진다.

이정직은 그림을 그리고 이에 어울리는 제시를 손수 써서 시서화가 어울리는 문인화의 경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러한 그의 서화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전북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 최석환과 포도그림

19세기 전북화단은 고아한 문인서화가들 외에도 포도그림으로 유명한 낭곡浪谷 최석환崔奭煥, 1808~1889 이후이 있어 한층 다채로웠다.¹⁴ 현재는 군산시로 편입된 전라북도 임피에서 활동한 최석환은 수많은 목포도 작품이 전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호는 낭곡이며, 임피에 살았고, 포도를 잘 그렸다”라고 한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의 기록만이 전한다.¹⁵

최석환의 목포도는 그 구도가 다양한데, 작은 화폭에 한 줄기를 그린 것, 여러 줄기를 각 폭에 나누어 그린 것, 병풍에 연폭連幅으로 그린 것 등이다. 작품마다 다소 편차는 있으나 포도그림에서 만큼은 일가를 이루었다 할 훌륭한 작품들이 전한다.

최석환을 이어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전북에는 익산의 호운湖雲 서광표徐丙表, 1840~1910, 춘파春坡 강봉훈姜鳳薰, 19~20세기, 같은葛隱 오남운吳南運, 19세기 활동 등이 있어 우리나라 포도그림에 있어서 독특한 흐름을 형성하였다.¹⁶

13 박철상, 『첩화帖學의 대가 석정 이정직』,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국립전주박물관, 2019), 211쪽.

14 이선옥, 『조선의 목포도와 낭곡 최석환』, 『그림 글씨 그리고 전북』(전북대학교박물관, 2012), 81~96쪽.

15 오세창, 동양고전학회 역, 앞의 책, 921쪽.

16 강영주, <장수와 복락, 多子의 고상한 염원 : 19세기 전북지역 목포도도 전문화가의 활약>, 『한국민화』 vol. 17(한국민화학회, 2022), 89~109쪽.

2) 구한말~근·현대기 전라북도의 서화

(1) 이정직 문인들의 예맥藝脈

근대기 전북에는 수많은 서화가들이 활동하였다. 그들 중 가장 큰 흐름은 석정 이정직과 직·간접으로 닿아있다. 이정직의 제자들 중에서도 글씨와 그림을 함께 하여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문인서화가는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 1854~1903, 표원表園 박규완朴奎皖, 1868~1916,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1882~1956, 유하柳下 유명완柳永完, 1892~195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서화풍은 다시 조주승의 아들인 심농心農 조기석趙沂錫, 1876~1935, 그 제자인 효산曉山 이광열李光烈, 1885~1966, 송기면의 아들인 강암剛庵 송성용宋成鏞, 1913~1999 등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서화계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이정직과 마찬가지로 학문과 서화를 겸비한 문인들로서 작품의 소재나 세부 기법 등에서 서로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전라북도 서예의 한 줄기이자 전북 예술의 중요한 맥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정직의 제자들 중 벽하 조주승은 가장 연배가 높고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정직과 같은 김제 출신으로 만년에는 전주에 살면서 제자들을 모아 한학을 가르쳤는데, 아들인 심농 조기석과 효산 이광열, 유당酉堂 김희순金熙舜, 1886~1968 등이 조주승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조주승은 글씨와 함께 묵죽화에 뛰어났는데, 그의 묵죽은 줄기는 가늘고 유연하며 잎은 줄기에 비해 크고 날카로운 모양 등에서 이정직 묵죽과 연관을 보인다.

송기면 또한 이정직과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웃에 살면서 사숙私塾을 만들어 그의 제자가 된 인물이며, 유명완은 이정직 만년에 이정직에게 그림과 글씨를 배워 일찍이 청년명필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이정직과 조주승이 김제에서 서예의 바람을 일으킨 이후, 이정직의 영

17 석정 이정직과 전북 서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선옥, 『호남 문인화의 역사와 회화사에서의 의미』, 『전주학연구』 창간호(전주역사박물관, 2007), 317~358쪽, 전북지방 서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은혁, 『석정 이정직과 19세기 전북서단』, 『石亭 李定稷』(한국서예문화위원회, 2004), 51~56쪽; 이용엽, 『전북미술약사』, 전북역사문화학회, 2007) 외 다수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향을 받은 전북 서화가들은 주로 서예를 중심으로 삼고 그림은 대체로 사군자에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정직이라는 스승의 서화정신을 이으면서도 학문을 하고 글씨를 쓰는 문인으로서 각자 자신의 독특한 영역을 지키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순재李舜載, 유재호劉載鏞, 송태희宋泰會, 조기석趙基錫, 박호명朴浩秉, 강동희姜東曦, 최규상崔圭祥, 송수용宋守鏞, 김진민金璘珉, 김정희金正會, 윤제술尹濟述, 홍진표洪震杓 등은 비슷한 시기에 시문과 서화를 남긴 전북의 문인서화가들이다.

한편 이정직의 직접 제자들과 달리, 제2세대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조주승의 제자로서 전주에서 나고 자란 효산 이광열은 사군자화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다. 서화 뿐 아니라 이광열은 폭넓은 교유관계로 이응로, 이용우 등 어려운 시기 전북을 찾은 외지 서화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이들을 후원하여 전북서화계의 외연을 넓힌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서를 특히 잘 썼고, 전각과 사군자화도 빼어났던 최규상, 악필 전서로 유명한 고창의 석전石田 황욱黃旭, 익산의 고재봉高在燾, 권갑석權甲石, 입실 출신의 최정균崔正均 등이 서예로 유명하였다. 광복 후, 전라도 서예의 또 다른 맥은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 1913~1999으로 이어졌다. 유재 송기면의 아들인 송성용은 서예의 5체를 모두 다 잘 썼고, 격조 높은 문인화도 잘 하였다(도11). 송성용의 서예는 후손들로 이어졌고, 제자들의 모임인 연묵회를 중심으로 여러 서예가가 배출되었다.



도11 송성용, <묵죽도>, 1980년, 지본 묵화, 84.0x184.0cm,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라북도 서예의 풍부한 흐름에 부합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1997년부터 전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22년 동안 12회를 개최한 이 행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가 높은 종합적 성격의 국제서예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2) 근대 초상화의 대가 채용신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초상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다. 그는 조선시대 섬세하고 사실적인 초상화법을 이은 근대 초상화의 대가이다.¹⁸ 초상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본격적인 화가로 활동한 것은 중년 이후로, 무관벼슬을 하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채용신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향리인 전주에 머물렀다. 그 이듬해인 1900년 새로 건립한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할 태조 영정을 그릴 화사로 발탁되어 어진御眞화가가 되었다. 어진을 잘 그린 공로로 문관직인 칠곡도호부사를 제수받았을 뿐 아니라 어진을 모사한 화가라는 명예는 이후 화가로서의 그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어진모사 이후에도 고종어진과 대신들의 초상화 등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려 크게 이름을 얻었다.



도12 채용신, <고종어진>, 1913년, 비단에 채색, 38x30.5cm, 개인

채용신의 인물 초상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왕명에 의해 그린 어진 즉 임금님의 초상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1913년 그린 <고종어진>이다.(도12) 둘째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 우국

18 채용신의 생애와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는 정석범, 「조선 말기 초상화와 석지 채용신」, 『그림, 글씨 그리고 전북』, 전북대학교박물관, 2012, 117~130쪽 참조

지사 및 학자들의 초상이다. 조선 말기 유학자이자 항일 의병장인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 전주 출신의 항일 운동가였던 간재良齋 전우全愚, 1841~1922, 애국지사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 등의 초상화가 유명하다. 셋째는 <숙부인 91세영정> 등 주문을 받아 합당한 대가를 받고 제작한 그림들이다.¹⁹ 채용신은 만년에는 아들 상묵과 제자들과 함께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畫所라는 공방을 운영하며 대량의 주문에도 응하는 등 전문적인 화가로 활약하였다.

(3) 전람회와 서화교육을 통한 문인화의 발전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선전가 창립되면서 전통회화 부문에서도 많은 서화가들이 전람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함께 서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연구소가 개설되고, 서화교습과 화가로서의 활동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근대기 전라북도 화단에서 특기할 만한 일로 개성 출신으로 군산에 와서 활동하였던 우석友石 황종하黃宗河, 1887~1952를 비롯한 황씨 4형제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 황씨 4형제는 개성에서는 ‘송도서화연구회’를 운영하여 서화교육을 실시하였고, 1923년 경성에서 ‘황씨사형제전’을 열어 좋은 평을 받은 바 있다. 1924년에 군산으로 내려온 이들은 개북동에 ‘서화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 연구소에서 배출된 화가가 옥구출신 서병갑徐炳甲, 정읍 출신 이상길李相吉, 정복연鄭復然 등이다. 이로 인해 군산화단이라 할 만한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당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워 인물과 풍속화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한 경북 출생의 금주 이남호李南浩, 일본에 유학하여 서양화를 배웠으나 귀국하여서는 광주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문인화를 배운 순창 출신 임신

19 채용신이 대가를 받고 그림을 그려주었음은 구례 운조루에 소장된 유계양가의 일기와 편지에 <유계양(柳濟陽 상)의 주문 제작내력을 적은 문서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영숙, 「채용신의 초상화」, 『배종무총장 퇴임기념 사학논총』(목포대학교, 1994년), 245~267쪽.

林愼, 같은 시기 이당 김은호 문하에서 수학하여 선전과 국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김종현金鍾賢, 사생풍의 산수화를 그린 나상목羅相沐, 원광대학교에 서예학과를 만든 최정균崔正均, 허백련에게 그림을 배워 서예와 사군자, 화조도에 능했던 허산옥許山玉 등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각자 개성있는 활동을 한 많은 서화가들이 있어 전북화단은 매우 풍성하였다.

이들 외에도 한국전쟁 때에는 전란을 피해 전라북도로 피난 온 한국화가 목로 이용우, 운보 김기창, 우향 박래현, 문자 추상으로 유명한 고암 이응로 등 이름난 화가들이 전북지역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하였고 지역 화가들과 교류함으로써 문인 서화가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타지 출신으로 전북에서 활동한 서화가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술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고, 명실상부 예향으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갔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특별한 경계 없이 서로 간에 긴밀히 교류하며 호남화단이라는 독특한 예술 공간을 형성하였음도 주목할 만하다.

III. 나가며- 호남 전통서화의 의미

호남 서화의 흐름을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호남은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화가들이 서화의 전통을 이어왔다. 이러한 호남화단은 크게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각 시대마다 한국회화사를 이끈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특히 조선 숙종 대의 문인화가 윤두서는 사실적인 인물화와 본격적인 풍속화로 18세기에 조선후기라는 새로운 회화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세기 소치 허련은 당시 유행하던 남종문인화를 독자적인 필치로 토착화하였다.

둘째, 호남의 서화가들은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 활발한 교류로 호남화단이라 이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전라남·북도의 교류 뿐 아니라 전국의 서화가들이 서울과 전주, 광주, 목포에 모여 화회를 열었으며, 한 화폭에 모임을 기념하는 합작도를 그린 예도 매우 많다.

셋째, 호남의 서화는 지역화단의 구심으로서 지방화단으로서의 토착성을 공고히 하였다. 오랫동안 중앙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화단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회화사에 있어서 단절 위기에 놓인 문인화 전통을 현대에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외래 문명에 의해 급속히 변화되어 가는 요즈음에 전통회화의 맥이 이어져 오는 것은 이와 같이 유구한 문인화의 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호남에서의 서화애호 분위기는 전통 문인화 뿐만 아니라 미술 전반의 발전을 가져왔다. 근대기에 새로운 미술경향을 배워온 유학생이 남도에 가장 많았고, 이들 중 오지호, 김환기, 천경자 등 20세기 한국회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화가들이 배출되었다. 또한 1980년대 민중미술의 중심지로서 정채된 미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켰고, 현재도 서화 양 분야에서 비엔날레 국제전의 개최지로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이 지역 미술가들이 미디어 아트 등 새로운 매체의 활용에도 선구적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비록 형식은 달라졌지만 호남이 어느 곳 보다도 서화미술을 발전시켜왔던 바로 그 전통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호남의 전통서화가 현대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호남이 예향이자 남종문인화의 고장이라 불리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만약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지 못했을 때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여러 매체가 미술에 활용되는 시대에 전통서화는 자칫 고답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는 것이 전통이다. 급격한 서구화로 인한 여러 폐해가 속출하고, 여러 분야에서 한류轉流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요즈음 전통서화 또한 우리 미술의 주체성을 되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작가 개개인의 노력도 적지 않아 보이며, 세계시장에서도 호평받는 몇몇 선도적인 작가들의 작품에서 그 희망을 본다.

광주·전남 전통 서화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과제

김소영(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

I. 머리말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전통서화의 맥을 꾸준히 이어온 호남에는 많은 수의 서화가가 활동했다. 그럼에도 한국 회화사에서 지방의 서화가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18세기 공재 윤두서 일가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까지 이어온 소치 허련 일가 등 일부 작가에 주로 편중되어 소개되었다.¹ 최근 특기할만한 몇몇 서화가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주변으로 확대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단편적이며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등, 본격적인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²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2년 호남서화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호남 서화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서화가와 서화자료의 조사·수집, 더 나아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³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호남서화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사업을 통해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시기 호남에서 활동한 기존에 연구된 서화가를 비롯하여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선전鮮展), 국전國展,

1 호남화단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李龜烈, 「近代 湖南畫壇의 전개」, 『湖南의 傳統繪畫』, 국립광주 박물관(1984), 170~191쪽; 이태호, 「남도의 전통회화-전남화맥을 이룬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남의 문화와 예술』(1986), 전라남도: 원동석, 『풍부한 예술적 풍토, 호남화단』, 『계간미술』35, 중앙일보사(1985), 143~158쪽; 김상엽, 「남종화의 전개와 호남의 전통화단」, 『南農 許建』, 국립현대미술관(2007), 203~205쪽;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전라남도지회, 『광주전남 近代美術叢書』(1)(2007); 이태호, 「육자배기 가락이 너울대는 이상향: 진도 許門과 南農 許繼의 산수화」, 『탄생 100주년 기념 남농 허건』(2008), 광주시립미술관 부국문화재단, 83~95쪽; 김소영, 「근대기 광주 전통화단의 형성과 전개」, 『호남학』6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2020), 187~224쪽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이선옥, 「호남서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서화, 한국학의 가치를 모색하다』, 2022년, 한국학 호남진흥원 호남서화연구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9~19쪽 참조.

3 2022년 호남서화연구 심포지엄에서는 “호남서화, 한국학의 가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호남서화 연구의 현황과 방향, 호남의 전통회화 전시와 과제, 호남 서예의 연구현황과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전람회에서 수상한 작가들을 포함해 400여 명에 달하는 서화가를 조사하고 이들의 생애와 활동사항, 회화적 특성, 대표작품 등을 정리하여 『호남 서화가 사전』을 발간하게 되었다.

『호남 서화가 사전』은 그동안의 호남 서화가 연구 및 호남 회화사를 보완할 수 있는 서화가 개별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작품과 화맥 등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호남 서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화가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의 회화제작자로서, 이들의 활동은 호남화단이 형성되는 과정과 중앙화단과의 관계 속에서 화풍의 지방 확산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현재 호남 서화가의 연구는 시대가 올라갈수록 정보가 부족하고 작품이나 행적에 관한 단서가 없어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아무래도 자료와 작품이 남아있는 작가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6세기부터 호남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이 존재했고, 18세기에는 중앙에까지 알려진 화가들의 활동과 19세기~20세기 초 독자적인 회화활동을 했던 화가들까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가들과 작품을 발굴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각 시기별 호남에서 활동한 화가 중 심층연구가 필요한 서화가들을 시기별로 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백으로 비워져있던 호남 전통화단의 주요지점들이 채워질 것이라 여겨지며, 한국회화사에서 호남화단의 정체성과 위상이 재정립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조선시대 광주·전남의 서화

광주·전남 회화의 전통은 고려시대 도자기의 문양을 그리던 화공¹들의 활동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던 화가들은 초기와 중기에도 존재했으며, 조선 후기 호남의 회화전통은 일련의 화가들에 의해 뚜렷하게 확립되고 계승되기 시작

했다. 공재² 윤두서³ 尹斗緒, 1668~1715 일가의 화업⁴은 호남화단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윤두서 일가의 화맥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전통화단은 조선 말기의 소치 허련으로 이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윤두서 일가 이전에도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에 기반을 둔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이들은 호남회화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활동과 작품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1. 16~17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화가들

16세기와 17세기 광주·전남을 비롯해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있었다. 이들의 활동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나, 주요 작품이 남아있어 그 일부를 유추할 수 있다.

〈희경루방회도⁵喜慶樓榜會圖〉는 16세기 광주에서 제작된 작품이다(원색도판).⁴ 이 작품은 1546년(명종 1) 증광시⁶에 합격한 문무과 합격생 5명이 20여 년이 지난 1567년 전라도 광주의 희경루에서 모임을 갖고 기념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임의 주체와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주지역의 화사가 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은 16세기 방회⁷의 대표적인 기록화로서 당시 성행한 관료들의 계회문화를 잘 보여주며 특히 중앙이 아닌 지방의 계회도로서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⁵ 또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광주 희경루의 옛 모습을 고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⁶ 16세기에 그려진 대부분의 계회도나 방회도가 인물보다는

4 尹軫暎,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喜慶樓榜會圖〉 考察」, 『東岳美術史』3, 동악미술사학회(2002); 조규희, 「소유지(所有地) 그림의 시각언어와 기능-〈석정처사유거도(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2004), 8~37쪽; 박해훈, 「조선시대 瀟湘八景圖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김소영, 「18세기 호남의 방회화사 김익주(金翊胄, 1684~1739년 이후) 연구」, 『호남학』, 제75집, 호남학연구원, 2024 참조.

5 윤진영, 위의 논문(2002), 145~162쪽 참조.

6 광주광역시 2018년 전라도 定道 천년을 기념해 이 그림에 표현된 희경루의 경관을 바탕으로 1866년 소실된 희경루의 증건사업을 진행하여 2023년 9월 공사를 마쳤다. 광주일보, 2023. 9. 20일자 신문(<https://kwangjuilbo.tistory.com/14351>) 참조. 원래 희경루가 있던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옛 광주우체국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새로 중건한 건물은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에 있다.

산수를 주로 하고 수묵으로 그려진 것과는 다르게, <희경루방회도>는 행사 장면을 부각하고 채색을 가해 사실적으로 나타내려는 지방 양식 계획도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인다. 아직까지 화사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6세기에도 광주·전남지역 화단에 뛰어난 화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7세기 활동한 전충효全忠孝는 『근역서화집』에 “호는 묵호墨豪이고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출신과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⁷ 인조~현종 때 서화가인 조속趙肅, 1595~1668의 제자로 알려졌으며 조속의 사의적인 수묵화조화풍을 따랐다고 하였다.⁸ 조속은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1645년부터 1649년까지 5년간 김제군수로 있었다. 길지는 않지만 호남지역에서 잠시 활동했었고, 17세기 활동했던 전충효의 활동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조속과 전충효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한편 전충효의 행적과 활동지를 시사하는 기록들이 나오면서 그가 호남에서 활약한 화사였음이 확인되었다. 17세기에 그려진 <석정처사유거도 石亭處士幽居圖>는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에 있는 석정처사石亭處士 김한명 金漢鳴, 1651~1718의 은거지를 그린 작품이다(본문도판). 이 그림은 17세기에 그려진 호남의 실경산수도이며, 이 그림을 그린 묵호 전충효가 호남에서 활동하였던 화가라는 기록을 뒷받침한다.⁹ 유계兪棨, 1607~1664의 『시남

집市南集』에 1646년에서 1648년 자신이 전라도 나주의 무안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 화사 전충효로 하여금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이 금성, 즉 무안으로 만나러 오는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고 한 기록이 있다.¹⁰ 김하천金廈樵, 1621~1677의 『삼매당집三梅堂集』에도 ‘호남에 묵호자墨豪子라는 화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는데 장사長沙, 전라북도 고창에 와서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¹¹ 따라서 전충효는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곳에 부임한 지방관들이나 지역유지의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인 회화식 지도의 표현 방식으로 그려진 <석정처사유거도>는 당시 지방에 은거하던 문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전하는 전충효의 작품들은 많지 않지만 <석정처사유거도> 외에 <소상팔경도>, <괴석초충도>, <매조도> 등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충효 작품으로 네 폭의 <영모도 병풍>이 소개되었다. 전충효는 산수·화조·영모·초충 등 다양한 화목에 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화풍은 대체로 조선 중기에 유행했던 소재와 양식을 따르고 있다(원색도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묵매도墨梅圖>는 짙은 농묵으로 오래된 가지를 그리고 새로 돋은 잔가지는 담묵으로 그려 대조를 주는 등 조선 중기 매화도의 전통을 잇고 있다. 전충효의 산수화 작품으로 2건의 <소상팔경도>가 전한다.¹² 종이에 수묵담채로 그려진 <소상팔경도>는 6폭이며, 흑전에 송화가루로 그려진 <연사모종>과 <동정추월> 2폭이다. 이들 작품은 안견파 화풍과 절파 화풍이 절충된 양상이 나타난 과도기적인 작품으로, 17세기 활동한 이징李澄과의 화풍상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전충효 작품으로 <모자우도> 한 폭이 더 전하는데 이 작품은 <영모도 병풍> 중 <우도>와 같은 인장이 찍혀

7 오세창편, 동양고전학회역, 『국역 근역서화집』 하, 시공사(1998), 600쪽. 한편 『한국회화대관』에는 영모·절치에 능한 화가로 소개되어 있다. 유복렬편, 『한국회화대관』, 문교원(1979), 233쪽 참조.

8 조속은 호남출신은 아니지만 1645년(인조23)부터 1649년(인조27)까지 5년간 김제군수로 있었다. <滄江筆蹟>은 김제군수로 재임하던 1646년 가을에 만든 서첩이며, <이계맹신도비>는 조속이 김제군수 재임시기에 쓴 필적이다. 이은경, 「창강 조속의 회화·전진작을 통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용엽, 「김제군수로 금석학자이며 시서화 삼절인 창강 조속」, 『전라금석문연구』6, 전라금석문연구회, 2005; 유지복, 「호남 서예의 연구현황과 향후과제」, 『2002년 호남서화연구 심포지엄』발표집, 2002, p. 49.

9 김한명은 은거지에 석정정사를 세우고 학문을 수양하며 후학을 지도하였으며 많은 글과 시를 남긴 인물이다. 이 작품은 1982년 동산방화랑의 <續·朝鮮時代選名繪畫: 無落款繪畫特別展(II)>에서 처음 전시되었고 2002년 국립춘천박물관의 <우리 땅 우리의 진경>특별전에서 전충효의 작품으로 소개되었다.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우리 강산을 그리다>특별전에서 화순의 실경을 그린 작품으로 17세기 중요한 실경산수도로서 인정되었다.

10 兪棨, 『市南集』卷 1, 「使畫師全忠孝, 使李咸鄉一相, 時宰羅州, 錦城, 務安號, 赴會圖, 仍題一絕寄贈」,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4)』, 一志社(1996), 500쪽.

11 金廈樵, 『三梅堂集』卷 1, 「題畫師全忠孝軸, 並小序」, “余在嶺外, 已聞湖南有墨豪子, 及來長沙始見, 其人善談論, ……후략”,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8)』, 一志社(2002), 441쪽.

12 전충효의 <소상팔경도>에 대해서는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pp. 187~193 참조.

있으며, 필치와 화풍이 거의 흡사하다 (도1). 이처럼 전충효는 호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화사로 그의 작품과 행적에 대한 추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화가이다.

16세기 <경릉루방회도>의 작가, 그리고 17세기의 전충효의 활동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동안 공백으로 여겨져 왔던 16~17세기 호남화단의 양상은 중앙화단과의 관계 속에서 화풍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었다.



도1 전충효, <모자우도>, 17세기, 비단에 수묵 담채, 25.5×22.3cm, 40회 마이아트목록 경매도록

2. 18세기 호남의 화사 畫師들

수도인 한양을 제외하고 18세기 호남에는 윤두서 일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두드러질 정도로 많은 수의 화가들이 활약하였다. 조선후기 회화사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호남서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윤두서와 그의 일가에 대한 연구는 여러 편의 논문과 단행본이 출간되는 등 꾸준히 이루어지며 심화되었다.¹³ 이 장에서는 18세기 호남에서 활동한 화사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에는 어진 제작 등 궁정의 회화에 호남의 화가들을 차출하여 참여시키는 일이 빈번하였다.¹⁴ 도화서에 소속되지 않고 궁궐을 벗어나 방외 方外에 거주하며 활동한 화가들을 방외화사 方外 畫師라 하였고, 호남지

역 방외화사는 남중화사 南中 畫師라고도 불렸다. 18세기에 호남에서 활동한 화가들은 김익주, 이치, 양희맹 등이다. 이들은 호남에 거주하며 주로 관청이나 관료, 사대부와 부호들에 의탁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 외에도 호남에는 화사가 많다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18세기 호남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많았고 회화 또한 매우 융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치 李璫, 1677~?는 연산 漣山, 김익주 金翊胄, 1684~1739년 이후는 광주, 양희맹 梁希孟, 18세기 활동은 전주 출신으로, 호남에서 화명이 높자 추천을 통해 어진을 이모 移模하는 일에 차출되었다. 이들 이름은 1713년과 1735년 어진도감에 호남의 방외화사로 거론된다. 특히 1735년 세조어진의 모사로 전국에서 화사들을 모집할 때, 전라도 관찰사였던 조현명 趙顯命, 1690~1752은 이치와 김익주, 양희맹 등을 추천하며 호남에는 화사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각각 주관화사와 동참화사, 수종화사로 활약하고 그 공로로 관직을 제수받은 일이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들 화사에 대한 가계와 기록 등이 뚜렷하지 않아 이름과 활동상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이치는 1713년과 1735년 어진도감에 김익주와 함께 참여했던 인물로, 그의 행적은 기록을 통해 다소간 밝혀졌다. 이치는 1735년 『승정원일기』를 통해 생년이 1677년경이며, 서울 관상감현 觀象監峴에 살았으나 연산에 거주하며 활동하였다고 하였다. 연산은 지금은 충남 논산이지만 당시에는 호남에 속했기 때문에 이치를 호남의 화사로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치는 1713년 숙종의 어용도사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진도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1735년 세조의 『영정모사도 감의궐』 때 참여하면서 주관화사가 되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조의 이치에 대한 평가가 있으며, 함께 참여한 김익주와 비교하여 “정밀하고 익숙한 자, 만전을 취한다면 이치가 쓸만하고, 취재한 것을 보면 이치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이치가 주관화사가 되었고 모사가 끝난 후 가자 加資되었다. 이치의 성품은 차분하고 성실했으며 정밀하고도 숙련된 화법으로 영조로부터 인정받아 “필시 장래 유명해질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13 윤두서와 그의 일가에 대해서는 이내옥, 『공재 윤두서』(시공사, 2003)을 비롯해 박은순, 『공재 윤두서 조선 후기 선비그림의 선구자』(돌베개, 2010); 박은순, 『시대를 앞서간 선비화가 윤두서』(나무숲, 2014); 차미애, 『공재 윤두서일가의 서화활동』(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미애, 『공재 윤두서 일가의 회화』(사회평론, 2014) 등 단행본과 연구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14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영, 앞의 논문(2024) 참조.

이치의 작품은 남아있는 수가 많지 않지만 기록으로 전하는 작품 가운데 신정하申靖夏, 1680~1715의 『서암집愨菴集』에 중국 명나라의 화가 구영仇英의 <도원도>를 모사하여 병풍으로 제작한 이치의 작품이 가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신정하는 이 그림에 시 4수를 짓고, 이치가 원화源畵의 정교함을 잘 살렸다고 만족하며 가보로 소장하였다. 이치는 정교한 필선의 채색산수인물화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치가 그린 작품으로 1724년에 그린 <권섭초상>이 알려져 있다(본문도판).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문예가이자 회화애호가인 권섭權燮, 1671~1759의 『옥소고玉所稿』에는 이치의 산수화를 비롯한 다양한 화목의 작품이 여러 점 언급된다. 이치의 화명이 높았고 초상화를 비롯해 산수화에 뛰어난 지방의 화사였음이 분명하다.

양희맹(18세기 활동)은 전주에서 활동한 화가이다. 1735년 세조어진 모사 때 호남화사 중 한명으로 추천을 받았다. 조현명은 호남화사 중 양희맹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김취로는 양희맹의 사람됨을 신중하다고 하였다. 박동보, 장득만, 양기성, 이치, 신영 등과 함께 시재에 참여하여 이치 다음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양희맹은 어진 모사에서 수종화사가 되어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으로 아마兒馬 1필을 하사받았다. 이외에 양희맹에 대한 기록과 작품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전충효를 비롯해 이치, 양희맹 등의 활동은 18세기 호남 회화사의 공백을 메꾸는 주목해야 할 화가로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김익주는 18세기에 가장 눈에 띄는 광주의 화가이다.¹⁵ 호는 경암鏡巖이고, 1684년에 출생했으며 1739년에 제작한 작품이 있어 55세 이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 방외화사로 어진도사 등 궁중회사에 참여하였으며 중앙에서도 그의 화명이 높았던 것이 확인된다. 도화서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장이나 생애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도 극히 드물어서 가계나 본관

도 알 수 없다. 다만 『승정원일기』를 통해 김익주가 어진도사에 두 번 차출되었으며 왕이 그를 직접 챙겼던 기록은 그가 비록 지방에 거주하는 직업화가였으나 화명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익주는 산수화를 비롯하여 인물화, 영모·초충·어해화와 운룡도 등 다양한 화목에 걸쳐 작품을 남겼다(도2). 앞서 어진제작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으나 초상화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중기에서 후기로 전환되는 회화사적 전환기에 전통화풍을 고수하는 측면과 함께 조선 후기 회화의 제변화를 예시하는 일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화단의 주요화가였던 윤두서와 동 시기 화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윤덕희와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김익주의 여러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숭이나 말 그림, 그리고 절파화풍의 배경을 사용하면서도 풍속화적 소재를 다룬 <우수도鷹狩圖>와 같은 작품 등에서 김익주와 윤두서·윤덕희의 화풍의 유사성이 엿보인다(원색도판).

김익주의 활동은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과 더불어 지방의 회화제작자로서 호남지방 화사들의 양상과 작품을 통해 지방화단이 형성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헌자료와 작품을 통해 살펴본 김익주의 활동은 18세기 호남 전통화단의 주요한 전력이 분명하다. 더불어 이치, 양희맹 등 새로운 작가와 작품의 발굴과 중앙화단과의 관계 속에서 화풍의 지방 확산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으며 18세기 윤두서·윤덕희 일가 이외에도 호남화단의 풍성함과 정체성을 찾는 일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 <희경루방회도>를 제작했던 광주의 화사나 17세기 전충효의 활동, 그리고 18세기에 활동한 김익주와 이



도2 김익주, <노원도老猿圖>, 《화원별집畵苑別集》, 18세기. 종이에 색, 26.8×19.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 경암 김익주에 대해서는 김소영, 앞의 논문(2024) 참조.

치, 양희맹을 비롯한 이름만 전해지는 화가들, 오두상, 김승중, 박세린 등 호남회화사에서 빠져있던 새로운 화가들의 발견은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공백으로 비어있는 호남의 전통화단을 메꿔가는 작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에서 활동한 작가라는 1차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되나 18세기 회화의 경향이 지방화단에 이식되고 지방화풍이 형성되는 가능성 또한 제공한다.

3. 19세기 소치 허련의 장자 허은 許濼

잘 알려져 있듯이 진도 윤림산방은 '우리나라 전통남화의 성지'로 꼽힌다. 이는 호남 남종화의 실질적 종조라 할 수 있는 소치 허련이 1856년 김정희 사후 고향 진도에 윤림산방을 짓고 은거하면서 그림에 몰두하며 김정희로부터 배운 남종문인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회화세계를 이룩했기 때문이다. 그의 토착화된 화풍은 아들인 미산 허형과 손자인 남농 허건, 방계인 의재 허백련 등으로 계승되어 호남 서화전통을 이루었다.

허련의 '윤림산방 화맥'은 넷째 아들 허형에게 이어졌으나 원래는 큰아들 허은이 이었어야 했다. 허은 許濼, 1848~1865은 허련의 기대가 컸던만큼 총애했던 아들이었다. 그는 준수한 용모에 뛰어난 그림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련은 허은의 호를 북송대 미불 米芾의 성을 따서 '미산'이라 지어주었다. 허형과 구별하기 위해 '선미산 先米山' 또는 '대미산 大米山'이라 불린다. 허은이 35세에 요절해서 남아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별도의 연구도 없다. 허은의 작품으로 알려진 것은 1863년 <굴수 소조 橘叟小照>와 허련과 합작한 <능호거사진영 菱湖居士眞影> 등 초상화와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된 <괴석송도 怪石松圖>가 전한다(도3, 4).

허은이 남긴 인물화는 완성도가 높다. <굴수소조>는 '굴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허련이 찬한 작품이다. 허련은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되자 곁에서 수발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제주를 방문하였고, 이때 알고 지내던 굴수 橘叟 문백민 文百敏, 1810~1872의 초상화를 허은이 그렸다. 이 그림에 허련이 제발을 썼는데 다음과 같다.

“굴수는 탐라 사람으로 내가(허련) 십 수 년 전(1847, 39세)에 제주바다를 건너 세 번 들어왔는데, 이 사람(문백민)은 남달리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오늘 홀연히 내 처소에 찾아오시고, 또한 그 뜻도 남다른이 있어 내 아들 미산을 시켜 이 어른과 똑같이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였으니, 잘되고 못됨을 따지지 말자하여 나는 그림의 바탕에 다음과 같이 쓴다… 계해(1863, 55세) 이른 봄 완성 完成의 선교교사 仙橋僑叟에서 소치.”

위 내용을 보면 1863년 이른 봄에 허련은 허은과 함께 제주를 방문했으며, 그때 허련 부자가 묵고 있는 객사에 문백민이 찾아와 초상화를 부탁했다. 허은이 그림을 그리고, 제발은 허련이 지어 최초로 제주사람의 초상을 남겼다.¹⁶

이와 함께 <능호거사진영>은 허은이 그린 그림에 허련이 글을 써서 완성한 것이다. 화면 중앙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부채를 든 능호거사를 그리고 화면 상단 전체에 걸쳐 허련의 필치로 제를 썼다. 능호거사는 허련의 사촌으로, “몇 년 전에 죽은 아이 미산에게 부탁하여 자기(능호거사)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면서 “죽은 아들의 손이 지나친 그 흔적을 차마 버릴 수가 없고 완연해서 지금도 보는 듯하다”며 그리움을 담아 쓴 글이다.

초상화에도 뛰어난 허은이 남긴 <괴



도3 허은, <능호거사진영>, 비단에 수묵채색, 85×37cm, 진도현대미술관

16 <굴수소조>의 문백민의 얼굴과 후에 허형이 그린 <소치 허련 초상>의 얼굴이 매우 닮아있는데, 두 그림의 유사성이 찾아진다.



도4 허은, <괴석송도>, 종이에 채색, 국립광주박물관

석송도)는 미숙하지만 허련의 필치를 배운 흔적이 역력하다(도4). 이 그림은 화면 가운데에 곧게 선 괴석을 그리고, 뒤에 소나무를 배치하였다.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가 화면을 가로지르게 그려져 화면을 채우고 있다. 먹으로 윤곽을 그린 후 붉은색과 푸른색의 담채를 가하여 불규칙한 태점을 찍어 바위의 질감과 소나무 줄기를 표현하였다. 바위의 사이사이로 영지와 난초가 그려졌다. 허련도 괴석도를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화풍은 아들인 미산 허은에게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허은 이후 허형은 허련의 화법을 계승하며 산수·묵모란·사군자 등 남종문인화의 맥을 이어나갔으나 아버지 허련의 화격畵格에는 못 미친

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직업 화가로 허형의 작품이 1923년 선전에 입선한 후 화명을 얻고 광주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아버지의 화업을 이어 갔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남종문인화의 정신을 아들 남농南農 허건權, 1908~1987과 방계인 의재 허백련에게 전승시킨 점은 호남 회화사의 큰 의미로 부각된다. 현재 허련의 집안은 5대째 계승되고 있다.

III. 목포 미술 동맹과 초상화가 최광익

광주·전남의 전통화단이 화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이 각각 광주와 목포에 기반을 두고 정착하면서부터이다. 광주에는 연진회, 목포에는 남화연구원을 개설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소치 허련에서부터 시작하여 미산 허형을 거쳐 전통서화 최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허백련 계열은 정운면, 허행면, 구철우 등의 활동과 이후 김옥진, 장찬홍, 이상재, 문장호 등 연진회로 이어져 광주화단을 이루고, 허건 계열은 김명제, 신영복, 곽남배, 조방원으로 이어지며 '신남화'를 개척한 목포화단을 형성하였다.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시회와 논문을 통해 계보가 정리되고 연구되었으나 그 외의 화가들에 대한 조명은 부족하다. 특히 목포화단에서 허건만큼 일찍부터 활동했던 취봉 이종원과 취당 장덕의 경우는 활동상에 비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목포에는 해방 전에 미산 허형의 활동과 더불어 목포미술동맹이 1945년 결성되어 전통회화는 물론 서양화, 조각을 모두 아우르며 근대적 면모를 갖추며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화단에서는 일본풍의 배경과 동양화의 한국적인 지향이 논의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예술이 목포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목포에서도 목포미술동맹이 결성되었는데 허건을 중심으로 소송 김정현, 취봉 이종원, 취당 장덕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목포미술동맹의 동양화부에 참여하면서 지방화단으로서 목포화단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취봉崔峰 이종원李鍾元, 1910~1971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청전 이상범을 사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1934년 13회 선전에서 <강촌만조>로 입선하였다. 이후 1939년 제18회에 <맥량>, 1940년 제19회 <만하>로 입선을 차지하였다. 이종원은 임인 허립과 교류하면서 이상범의 영향을 받아 실경을 통한 근대성을 모색하며 새로운 화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방 직후 만들어진 목포미술연맹 동양화부에 남농 허건과

함께 참여하여 시민미술교육을 담당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는 여수와 군산에서 미술교사를 지냈다. 그는 남종화 계통의 산수에 능하였으나 해방 이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작품 수는 많지 않다. <산수8폭>은 이종원의 화풍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단서이다.(본문도판) 전체적으로 근경, 중경, 원경의 전통적인 구도를 사용하였으며 미점과 피마준을 사용하고 있다. 화면에 쓰인 푸른색과 황색, 붉은색의 담채와 운무의 표현은 일본화풍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취당翠堂 장덕張德, 본명 장운봉 張雲鳳은 서울출신이지만 해방 이후 목포에 정착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1892~1979의 화숙인 낙청헌絡靑軒에서 그림을 배웠으며, 1935년 낙청헌 제자들이 조직한 후소회後素會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선전에서 6번 입선하였다. 1933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여 3년간 일본화를 연구하였으며 귀국 후 서울에서 개인전을 가진 뒤 목포로 이주하였다. 1946년 한국예술협회 목포지부를 창설하였으며 1950년 대한미술협회 창설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장덕은 해방 전에는 호분을 쓰는 공필 채색화를 그렸으나 이후 수묵을 사용한 화훼나 기명절지, 화조화를 주로 그렸다.

한편 20세기 광주에서 초상화가로 활동한 설산 최광익이 주목된다. 최광익은 전북의 석지 채용신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다수의 고승 진영과 광주전남지역 유학자들을 비롯한 일반초상화를 제작한 인물이지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다. 다만 20세기 근대 불교진영을 다룬 논문에서 언급되었으나 그의 생애와 그 밖의 일반초상화나 다른 작품에 대해 연구된 것은 없다.¹⁷ 따라서 광주 근현대 화단에서 초상화가로 활동했던 최광익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광익崔光益, 1891~1970의 호는 설산雪山이며 전남 해남 출신으로 동경미

17 최엽, 「한국 근대 불교진영」, 『불교미술사학』 제6집, 2008, 41~63쪽; 이예성, 「선암사 소장 극사실주의 진영 연구」, 『호남문화연구』 50집, 2011, 165~208쪽; 김소영, 「채용신필 송사 기우만 초상 연구-고산서원본과 부국문화재단소장본」, 『역사학연구』 94호, 65~96쪽.



도5 최광익, <경봉당익은>, <함경당두운>, <운악당돈각>, <청호당화일>, <경운당원기>, 1917년, 비단에 채색, 순천 선암사 소장

술학교를 다녔다. 졸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일본에서 초상화가로 활동하였다. 최광익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순천 선암사 진영들이다. 선암사에는 최광익이 그린 5점의 진영이 전해온다. 이중 4점은 반신상이며 1점이 전신상이다.(도5) 대체로 진영은 전신상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들은 특이하게 반신상을 그렸다. 세로로 긴 화면의 아래 부분에 인물을 배치하였으며, 배경에는 특별한 경물이 없이 상반신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두었다. 얼굴은 사진을 이용하여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서양화법으로 옷주름 등을 묘사하였다. 이전의 진영과는 다른 특징이다. 이와 함께 수덕사 만공당과 경허당의 진영을 남겼다.

이들 진영은 전통적인 불화기법이 아닌, 사진을 기반으로 정밀한 묘사로 객관적 사실성을 획득한 일반초상화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외에 일반초상화로 <오병남초상>(1928)을 비롯해 <사대부상>(국민대박물관 소장), <고종황제어진>, <단군영정> 같은 작품들이 전해지며, <기낙도초상>, <오현수초상>, <오동수초상>(1954), <심종대초상>(1957)이 남아 있다.

<기낙도상>은 정자관을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의자에 정면으로 앉아있는 모습이다(원색도판). 얼굴과 손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의습의 옷주름은 매우 단순한 선묘로 표현하였다. 특히 얼굴은 붓터치 없이 면위주의 채색과 음영을 통해 입체감을 살렸다. 의습을 표현할 때는 단순한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고 옷주름에는 음영을 주지 않아 전체적으로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 최광익은 후석 오준선의 아들 <오현수상>과 조카 <오동수상>도 제작하였다.¹⁸(도6, 7). 정자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몸은 정면이지만 얼굴을 왼쪽으로 살짝 돌렸다. 앞서 <기낙도상>과 마찬가지로 얼굴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흰 두루마기의 옷주름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음영을 더하여 입체감을 주려 했다. <오동수상>은 1954년 기년이 있어 오동수 사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오동수의 모습은 정면상으로 정자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두 손은 모아서 무릎 위에 두었다. 흰 수염은 가슴께까지 내려와 있으며 세필로 묘사하였다. <오현수상>에 비해 옷주름은 더 간략해졌고 입체감은 사라졌다. 꿇어앉은 무릎도 부피감이 들지 않는다. 두 작품의 표현방식에서 시기적 간극이 엿보인다.

최광익의 또다른 작품으로 심원표의 아들 <심종대상>은 1957년에 제작되었다(도8). 심종대沈鍾大, 1882~1959의 초상화는 남동영당에 <심원표상>



도6 최광익, <오현수상>, 연도미상, 비단에 채색, 개인

도7 최광익, <오동수상>, 1954년, 비단에 채색, 개인

도8 최광익, <심종대상>, 1957년, 비단에 채색, 개인

18 용진영당 내에 중앙에 <오광선상>과 왼쪽에 <오현수상> 오른쪽에 <오동수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영인본이 걸려 있다.

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서 모으고 있는 모습이 <오동수상>과 거의 유사하다. 이처럼 최광익이 유학자들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방식은 대체로 전신상의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진을 기반으로 묘사한 얼굴은 매우 사실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의습 등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처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초상제작 방식은 채용신 이후 광주전남지역 유학자를 비롯한 문인초상화 제작방식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광익은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초상화가로, 진영과 단군 초상, 일반 유학자들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그는 전통 양식을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화면 구성과 제작 기법을 통해 근대적인 화풍을 선보였다. 20세기 초중반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그의 존재는 호남 전통 화단의 인물화 영역에서 주목할 만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호남의 서화가 가운데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작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18세기 윤두서 일가 외에도 호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존재감을 보여주는 화가들과 19~20세기를 거치며 형성된 호남 전통화단의 특성을 뚜렷하게 하는 서화가의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화가들의 활동도 호남 서화사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촘촘하게 채우며 지방화단의 회화제작자로서 화단이 형성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화가 연구는 그의 활동상과 작품세계를 통해 화단의 한 단면을 재구성한다. 즉 따라서 호남서화사를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호남화단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호남 서화가 사전』은 호남 서화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전통서화

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사항을 집적하여 심층연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작가, 장르와 작품의 분석 외에도, 화단의 제양상이나 화맥의 계승과 대외 영향관계 등 호남서화사의 주제와 내용으로서 향후 연구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호남의 전통회화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돕고 향후의 조사와 연구과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호남서화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문화콘텐츠로서 확장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호남 서화가 사전

원색도판



작자미상 | 희경루방회도 | 1567년 | 비단에 채색 | 98.5×76.8cm | 동국대학교박물관 | 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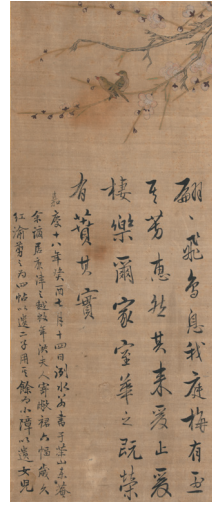
김익주 | 응수도 | 1739년 | 종이에 수묵담채 | 118.5×77.3cm | 국립중앙박물관



전충효 | 영모도 병풍 | 17세기 | 종이에 먹 | 각 폭 50×33.2cm | 아산조방원미술관



윤두서 | <분향고천도>, <산수도>, <가물첩> 중
종이에 수묵 | 각 폭 30×17cm | 국립중앙박물관



정약용 | 매조서정
1813년 | 비단에 수묵담채 |
45.9×19cm | 고려대학교박물관



허련 | 선면산수도 | 종이에 수묵담채 | 21×60.8cm | 서울대학교박물관



윤덕희 | 마상인물도
종이에 수묵담채 | 84.5×70cm | 국립중앙박물관



윤용 | 행려도
18세기 | 종이에 먹 | 26.8×17.7cm | 부국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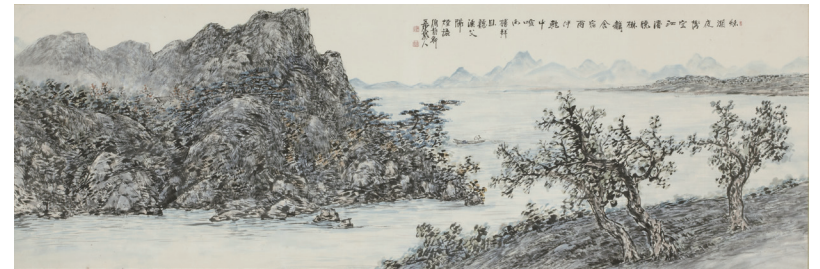
허형 | 산수도 팔폭병풍 | 종이에 수묵담채 | 각 폭 108×32cm | 국립광주박물관



송수문 | 화점도 십폭병풍 | 종이에 채색 | 각 폭 100.9×28.5cm | 국립중앙박물관



허백련 | 강산무진 | 종이에 수묵담채 | 108×240cm | 전남대학교박물관



문장호 | 산수도 | 종이에 수묵담채 | 68×201cm | 전남대학교박물관



김옥진 | 산수화 | 종이에 수묵담채 | 69×134cm | 전주대학교박물관



허행면 | 세계군방도 | 1958년 | 종이에 수묵담채 | 123.5×127cm | 의재미술관



최광익 | 기낙도상
비단에 채색 | 119×52cm
개인(한국학호남진흥원 기탁자료)



정운면 | 죽림청우
종이에 수묵담채 | 166×146cm | 부국문화재단



허건 | 금강산보덕굴 | 1940년 | 종이에 채색 | 150×130cm | 성옥기념관



김명제 | 등나무 | 종이에 수묵담채 | 67×272cm | 전남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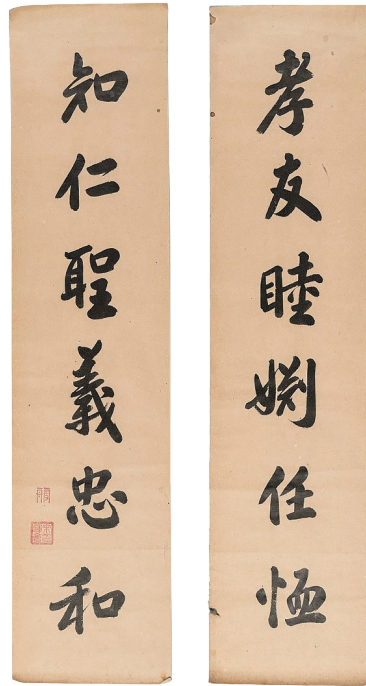
조방원 | 도강도 | 1980년대 | 종이에 수묵담채 | 125.3×161cm | 부국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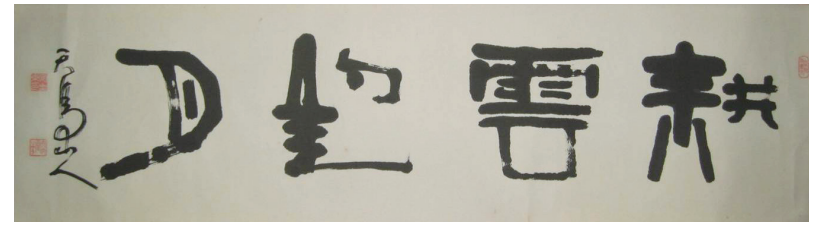
곽남배 | 한거장락 | 1975년 | 종이에 수묵담채 | 42×65cm | 전남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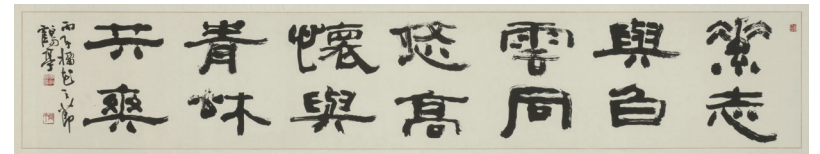
천경자 | 길레언니
종이에 채색 | 46×34cm | 부국문화재단



송운희 | 행서대련
종이에 먹 | 각 폭 93.8×21.7cm | 개인(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탁자료)



안규동 | 경운조월 | 종이에 먹 | 미상



이돈흥 | 예서 칠언절구 | 종이에 먹 | 33×200cm | 전남대학교 박물관



허소 | 전서8폭병풍 | 종이에 먹 | 각 폭 102.5×30.5cm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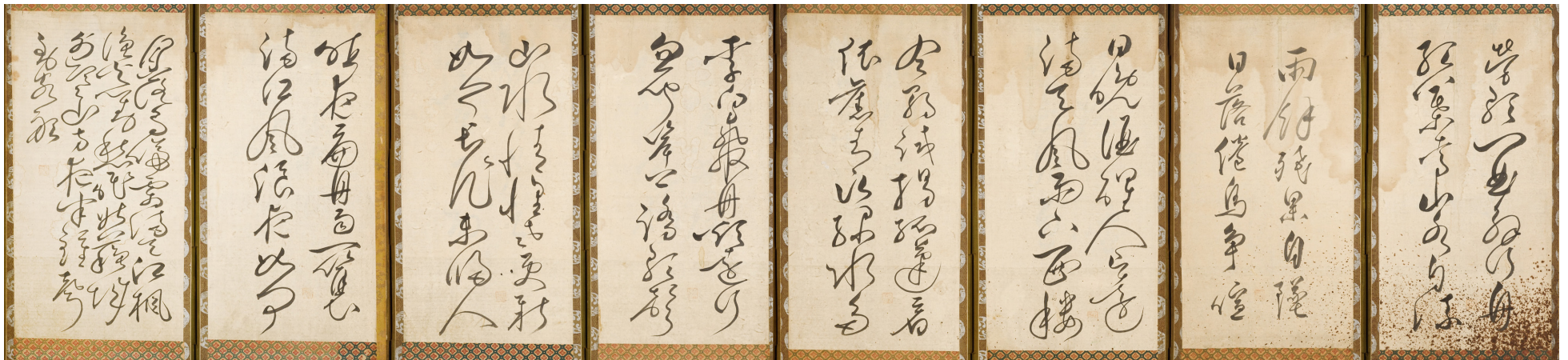


이정직 | 대나무 6폭 병풍 | 종이에 먹 | 각 폭 160×32cm | 국립전주박물관



유영완 | 괴석묵매도 노안도 2폭 병풍

종이에 수묵담채 | 각 폭 184×52.7cm | 국립전주박물관



이삼만 | 8곡 병풍 | 종이에 먹 | 85.5×268cm | 국립전주박물관



최석환 | 목포도도 12폭병풍 | 종이에 수묵담채 | 119×365cm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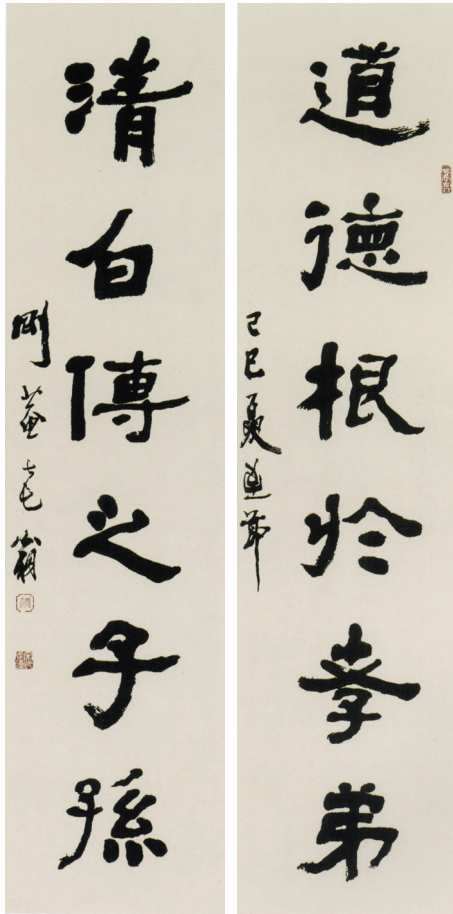
채용신 | 황현상 | 1911년 | 비단에 채색 | 95×65.5cm | 개인(한국학호남진흥원 기탁자료)



배정례 | 미인도
종이에 채색 | 90×64cm | 영남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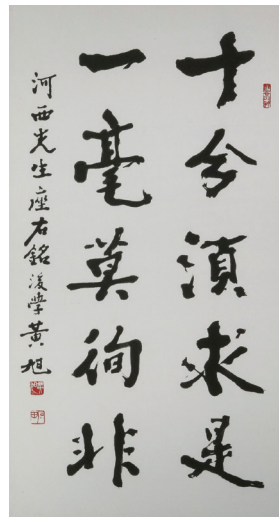
남궁훈 | 산수화
종이에 수묵담채 | 43×67cm
전주대학교박물관



송성응 | 예서대련
종이에 먹 | 각 폭 122×33cm | 개인



최규상 | 전서대련
종이에 먹 | 120×30cm | 전주대학교박물관



황욱 | 해서선생좌우명
종이에 먹 | 104×55.5cm |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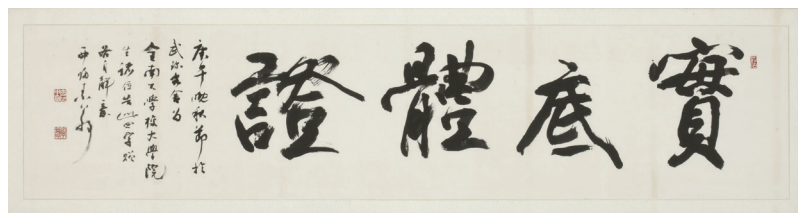


황종하 | 맹호도 猛虎圖
비단에 채색 | 117×54cm | 국립민속박물관

호남 서화가 사전



김중현 | 산수화 | 종이에 수묵담채 | 32×110cm | 국립민속박물관



현중화 | 행서 실저체증 | 종이에 먹 | 43.5×197cm | 전남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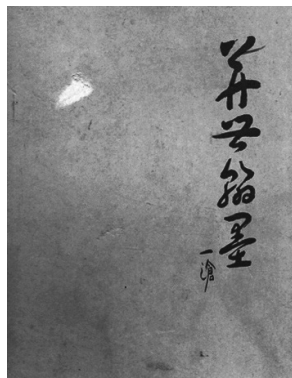
홍종시 | 글씨-유복방독서 | 종이에 먹 | 28.5×119cm | 제주대학교박물관

본 저작물은 각 소장 기관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로 개방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공누리 이용 대상이 아닌 일부 자료는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공공누리로 개방된 자료는 공공누리 및 E유지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강동희 姜東曦

호 오당 吾堂 생몰년 1886~196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강동희는 근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출신으로 본관은 진주 晉州이다. 자는 영찬 榮燾이며 호는 오당 吾堂 또는 초연재 超然齋라 하였다. 석정 石亭 이정직 李定稷. 1840~1910의 문하에서 한학과 서화를 배웠다. 구한말에 군주사 郡主事와 군서기 郡書記를 지낸 후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증추원 참의 등을 지냈다.



초연재유고간행위원회 편, 『병세한묵』, 보진재, 1991년.

강동희는 이정직의 문하에 있을 때 서예가 석촌 윤용구, 이정직의 제자 유재 송기면, 김제의 부호 인촌 김성수, 서예가

설주 송운회,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석전 石顛 박한영 朴漢永, 1870~1948 등과 교류하였다. 당시 교류하면서 주고받았던 자료들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 1991년 『병세한묵 病世翰墨』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강동희 개인 뿐 아니라 근대기 주요 서예가들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어 전라북도를 비롯해 한국 서예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알려져있다.

그의 저술로는 현재 장서각에 『초연재유고 超然齋遺稿』가 소장되어 있는데, 1986년 손자 강재균 姜齋均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어 『초연재미정고 超然齋未定稿』로 간행되었다.

강명구 姜明求

호 금파 錦波 생몰년 1937~2023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회화

강명구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영암에서 출생하였으며 광주와 전



〈소나무〉, 종이에 수묵담채

남지역에서 활동했다. 호는 금파 錦波이다. 그는 초기에 스스로 기술을 익혀 도장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장을 파는 사이사

이 한 번씩 그려 본 난 그림이 사람들 눈에 띄어 인기를 끌었고, 광주의 유명한 서화가들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한국화를 배우며 화가로 입문하였다.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국내·외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강명구는 십군자, 산수화 등을 모두 잘 그리기는 하지만 주로 난과 소나무를 즐겨 그렸고, 난과 소나무 그림으로 꾸준히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강봉훈 姜鳳薰

호 춘파 春坡 생몰년 19~20세기 초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강봉훈은 19~20세기 초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주로 전라북도에서 활동하였다. 호는 춘파 春坡이다.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원광대학교박물관에 《목포도도10폭병풍》이 남아있고, 화풍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 전라북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낭곡 최석환이나 호운 서병우의 포도 그림과 여러 면에서 연관을 보인다.

원광대학교박물관 소장 《목포도도10폭병풍》은 마지막 폭인 제10폭 하단에서 포도 줄기가 시작하여 한 가지는 둥글게 원을 그리며 너울지듯 뻗어 나가고 한 가지는 위로 펼쳐져 있다. 병풍의 맨 오른편인 제1폭에는 제시를 적었다. 이 제시에 의하면 제목은 ‘만가포도 滿架葡萄’이며 ‘응제 應製’ 즉 임금의 명에 의하여 시문을 지었다고 적었다. ‘덩굴시렁에 가득한 포도’를 주제로 ‘용수 龍鬚’, ‘흑수정 黑水精’, ‘영근 靈根’ 등 포도와 관련된 시어를 써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는 시이다. 그런데 이 제화시의 끝부분에 이 시

는 강극성姜克成의 ‘만가포도 장원시滿架葡萄壯元詩’를 기사년(1869) 10월 하순에 춘파가 그린다고 적었다. 이에 찍힌 주문방인이 ‘강봉훈姜鳳薰’이며, ‘백파’라는 백문방인이 찍혀있다. 정조 9년(1785)에 알성시에 급제한 청양 출신의 강극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관도 같고 활동 지역도 전라북도와 가까운 지역인데다, 그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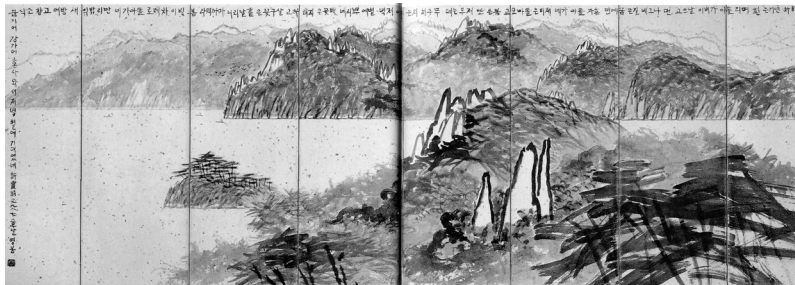


《목포도도10목병풍》, 종이에 수묵, 163x422cm, 원광대학교박물관

강영봉 姜榮奉

생몰년 1934~200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강영봉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1978년부터 1999년 퇴임할 때까지 전주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강영봉은 순박한 필치로 광활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주로 제작했다. 1999년 전주대 화랑에서 열린 정년퇴



《산수도팔곡병》, 종이에 수묵담채, 117x327cm, 전북도립미술관

임 기념 전시에서 강영봉은 “자연과 인생에서 가장 원천적이고 생육적이며 근원적인 산과 물을 중심으로 한 경景과 심간深簡한 형태, 골법적骨法的이고 형성형形成形을 주로 한 작업”이라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였다. 전북도립미술관에 《산수도팔곡병》이 전한다.

강용범 康用範

호 수암 修庵 생몰년 1900~1953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예

강용범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호는 수암修庵 혹은 소석小石으로 제주도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였는데, 7~9세 무



《글씨-팔곡병풍》, 종이에 먹, 각 폭 95.2x24.6cm, 제주대학교박물관

렵에 전주의 한학자 간재長齋 전우田愚, 1841~1922 문하에 입문하여 한학을 수학하였다. 그의 글씨 쓰는 방의 태호宅號는 무본재務本齋이다.

수암 강용범의 글씨는 대부분 행초서이며, 속도감 있는 필치로 활달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필법을 구사하였다. 그러한 특징은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글씨-팔곡병풍》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초서로 활달하게 써내려가는 중에 간혹 한 획을 길게 빼어 써 변화를 주었다. ‘소석’이라는 호를 쓴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글씨-기석수천고》는 마치 막대기로 쓴 것처럼 붓끝은 몽툰한데도 필세가 활달하고 힘이 있어 글자가 날아갈 듯하다. 제주도 기당미술관에는 미술관 기증자이자 강용범의 동생인 강구범 선생의 뜻에 따라 ‘수암상설전시실’이 마련되어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용자 姜龍子

생몰년 20세기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목국〉, 104×64.5cm, 종이에 먹, 의재미술관

강용자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의재 허백련의 1950년대 제자 중 한 명으로, 그림을 배운 후 일본에 건너가 활동하여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이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의재미술관 소장 〈목국〉은 춘설현에서 허백련에게 그림을 배우던 때의 작품으로 제자들이 기거하는 방에 걸려 있던 것이다. 낮은 울타리가 있고 몇 송이 색이 다른 국화가 피어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하였다. ‘동리가색東籬佳色’이라 쓴 화제는 도연명의 시 「음주飲酒」에 나오는 시구에 따른 것이다. 후대의

많은 화가들이 울타리 가에 핀 국화를 그렸는데 이 작품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담았다.

강항 姜杭

호 수은 睡隱 생몰년 1567~161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강항은 조선 중기의 문인서화가이다. 본관은 진주이며, 자는 태초太初, 호는 수은睡隱, 사숙재私淑齋이다. 세조 때의 문신 강희맹姜希孟의 5대손이며, 강극검姜克儉의 아들이다. 1593년 전주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자, 박사, 전적을 거쳐, 공조·형조 좌랑을 지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남원에서 군량 보급에 힘쓴 그는 남원이 함락당하자 고향인 영광에서 김상준과 함께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해 싸웠으나 영광마저 함락되면서 가족을 데

리고 해로로 탈출하려다 포로가 되어 일본 오쓰성大津城에 유폐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이즈시사出石寺의 승려 요시히토好仁와 친교를 맺고 그로부터 일본의 역사·지리·관제 등을 알아내어 조선으로 보냈다. 1598년 오사카大阪를 거쳐 교토京都의 후시미성伏見城으로 이송되어, 후지와라藤原醒窩·아카마쓰赤松廣通 등과 교유하면서 그들에게 학문적 영향을 주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1600년에 풀려나 가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후 고향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동국문헌화가편』에 의하면 그는 인물과 소나무를 잘 그렸다고 전한다. 또한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에도 조선 중기의 서화가로 이름이 올라 있다. 현전하는 그림은 없으나, 예서로 쓴 편액 〈중오소호〉, 해서로 쓴 『간양록』, 유학 서적에 행초서로 쓴 발문 등이 있어 그의 서체의 특징을 살필 수 있다. 강항의 글씨에 대해 “당대 성리학자들의 경직된 서풍과는 달리 물 흐르듯 한 유창함과 강건함이 있다.”고 하며, “경직된 석봉풍이 성행하던 시기에 독특한 자신만의 서풍을 구사하여 서예사적 의의도 크다”는 평이 전한다.

주요 저서에 『운제록雲堤錄』, 『강감회요綱鑑會要』, 『좌씨정화左氏精華』, 『간양록看羊錄』, 『문선찬주文選纂註』, 『수은집睡隱集』 등이 있고, 일본 내각문고內閣文庫에 『강항휘초姜沆彙抄』가 소장되어 있다. 1882년 이조판서·양관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영광 용계사에 제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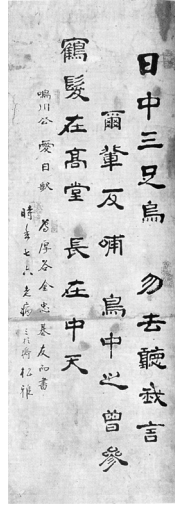


〈중오소호〉, 17세기 초, 55×150cm, 영광 내산서원

고광은 高光殷

생몰년 1908~198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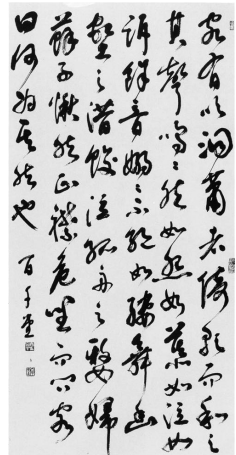
고광은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하였다. 정읍시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서예가로서 활동하며 각 서체를 고루 잘 썼다. 같은 정읍출신으로 1920~1930년대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항일의사 구파歐波 백정기白貞基, 1896~1934 선생을 추모하는 <백정기의사순국기념비白貞基義士殉國紀念碑> 비문을 썼다. 주로 예서로 쓴 작품이 남아있다.



<예서 일중삼족오>, 종이에 먹

고기임 高奇壬

호 백천당 百千堂 생몰년 1930~2010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행서 적벽부절록 赤壁賦絕錄>, 종이에 먹

고기임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완도 출생으로 호는 백천당百千堂이다. 광주에 살면서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 1907~1987이 1965년에 세웠던 광주서예연구원에서 글씨를 배웠다. 2000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한·중·일 서예교류전 등 중국, 일본의 서예 대가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통해 한국 서예의 예술성을 알렸다. 고기임은 대한민국 서예대전, 전남도전, 광주시전 등에서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 서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고기임은 북송대 서예가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서체를 연마하며 운필의 강약과 강직한 느낌의

글씨를 썼으며, 육체六體의 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특히 행초서는 그 기세가 웅혼하면서도 행운유수行雲流水의 자연스러움을 얻었다고 평가된다.

고석진 高錫震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고석진은 근대기에 활동한 문인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활동하였다. 본관은 제주로, 고려말 문신 문충공文忠公 경慶, 1276~1342의 후손이다. 1935년에 발간된 『조선훈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고수갑 高守甲

호 계고 繼皐 생몰년 19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고수갑은 구한말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본관은 제주이며, 자는 일명 日明, 호는 계고繼皐로 전라북도 옥구 출신이다. 문경공文敬公 조기兆基의 후손이다. 송성담宋性潭의 문인으로 임피 흥학당에 친필이 있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의하면 “필법이 정밀하고 무르익었으며, 육체六體 팔법八法에 정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고순흙 高順欽

호 죽암 竹峯 생몰년 1893~1977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예

고순흙은 근현대에 활동한 항일 운동가이자 서예가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성균관 교수를 지냈던 능봉菱峰 고성겸高性謙의 아들이다. 고순흙은 9세 때부

터 한문으로 문장을 지을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났다. 사립 의신학교를 거쳐 1912년에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전수학교 졸업 후



〈글씨-삼성재〉, 종이에 먹, 각 폭 28.5×81cm, 제주대학교박물관

대동청년당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항일운동과 노동운동 등에 투신하였다.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조선인여공보호연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1928년 신진회新進會를 조직해 사상운동에 전념했다. 1937년 3월 조선서도연구회를 마련하여 추사체, 창암체 등 민족서체 보급에 힘썼다. 8·15 해방 후 1946년 2월 재일본 조선인연맹, 1946년 9월 25일 재일 한국거류민단 결성 등 일본과 서울을 왕래하며 활동을 하다 1963년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여 서예 활동에 전념하였다. 고순흙은 한시에 능했고, 글씨를 잘 써 김문준의 묘표, 해강 김운배의 묘비, 김시성의 묘비, 김시숙의 묘비 등 항일 인사들의 비문을 썼다. 제주, 부산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활동하였다.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한 〈삼성재〉는 편액 글씨인 듯, 단정한 해서체로 반듯하게 쓴 반면 관지에 쓴 '죽암서竹巖書'는 행초서로 활달하게 써 변화를 주었다.

고운 高雲

호 하천 霞川 생몰년 1479~1530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화

고운은 15~16세기에 활동한 문인 서화가이다. 자는 언룡彦龍이며, 호는 하천霞川,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고운은 오늘날에는 화가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당대에는 호랑이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던 문인화가이다. 『동국문헌록』 화가편에 “호랑이 그림을 잘 그렸다善虎畫.”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작품 또한 몇 점이 전한다.

고운의 출생지는 분명치 않으나 광주 압보촌鴨保村, 지금 광주 남구 압촌동에서 성장했음이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부친 고자검高自儉 대에 세거했던 영광(현재 장성군 삼계면)에서 압보촌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9세 때인 1507년(중종 2) 생원, 진사 시험인 사마양시司馬兩試에 합격하였고 41세 때인 1519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낭관에 임명되었으나, 기묘사화의 중심인물인 조광조·박상과의 친분 때문에 사회에 연루되어 낙향하였다. 이후 환로에 재진출하기는 하나 크게 활약하지는 못하고 52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고운의 작품으로 두 점의 호랑이 그림이 전한다. 개인 소장 〈송호도松虎圖〉는 뒤편 휘어진 소나무 아래에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반대편을 응시하는 호랑이 한 마리를 그린 것이다. 〈백액대호白額大虎〉는 〈송호도〉와는 다른 화풍을 보이지만 전래 경위나 함께 장첩된 다른 그림의 화격 등으로 보아 그의 대표작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암반 위에 서서 몸을 틀어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송호도〉의 호랑이와 방향만 반대일 뿐 비슷한 자세이다. 호랑이의 자세뿐 아니라 꼬리를 구부려 치켜세운 모습, 줄무늬를 그리는 방식 등이 위 그림과 같아 진작 여부를 떠나 고운 그림의 특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왼편에는 ‘금빛 눈동자는 섬광이 일고, 흰 이마의 기세는 포효하는 듯하다金睛光閃爍, 白額勢咆哮’라는 화제와 ‘하천霞川’이라는 호가 적혀있다. 도장도 ‘하천’이다.

두 점의 호랑이 그림이 서로 화풍이 달라 고운 호랑이 그림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러한 호랑이 그림이 고운의 작품으로 전할 만큼 고운이 호랑이 그림에 능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백액대호〉, 종이에 수묵, 21.5×23.5cm,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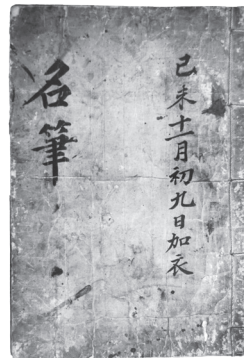
문장에도 뛰어났던 고운의 시문은 『하천유집霞川遺集』으로 묶여 출간되었는데, 친구 윤지화를 비롯하여 같은 기묘사림인 박상, 윤구 등과 주고 받은 시문 또한 상당하다.

고인후 高因厚

호 학봉 鶴峯 생몰년 1561~1592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고인후는 조선 중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의병장이다.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선건善建, 호는 학봉鶴峯이다. 형조좌랑 고운高雲의 증손이며, 의병장이자 문신인 고경명高敬命, 1553~1592의 아들이다. 1577년 진사가 되고, 158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학유에 이르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광주에 있다가 아버지 고경명이 흠어진 군사를 수습하자 이에 종군해 수원에서 권율의 휘하로 들어갔고 제2차 금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 전사했다. 사후 예조참의에 추증되고 광주의 포충사褒忠祠, 금산의 증용사從容祠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의열毅烈이다.

고인후의 작품으로 전하는 『명필名筆』이라는 제목의 서첩은 귀거래사歸去來辭와 전적벽부前赤壁賦 일부를 각각 해서와 행서로 쓴 것이다. 해서에 가까운 행서로 왕희지, 구양순과 소식의 필법으로 썼다. 관지에 소우정消憂亭 주인에게 써 주었다고 하였다.



『명필』, 1592년, 종이에 먹, 30.2×20.8cm, 개인

고재봉 高在烽

호 석당 石堂 생몰년 1913~196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고재봉은 현대 서예가이다. 본관은 제주이며 전북 옥구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석당石堂이다. 익산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그는 소전素筌 손재형孫在馨의 제자로 1964년 제 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문교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이리시 문화장 1호 수상자이다. 1938년 전주시 북창동(현 창인동1가)으로 이사를 한 후 광고회사 청조사靑鳥社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는 당대 서예가로 명성을 얻었으나 젊은 나이에 작고하여 서예사에서 거의 잊혀져 있다. 1964년 예서로 쓴 표지석 <전라북도 도로 원표>와 1963년 건립된 정읍의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의 기단부에 전서로 쓴 갑오동학혁명기념탑甲午東學革命紀念塔이라는 탑명이 고재봉의 글씨로 전해진다. 전면 상단부에 쓴 “제폭구민 保國安民 除暴救民 保國安民”이라는 글자는 강암 송성용의 글씨이다. 그 외 부안 고려자기 도예지(1963), 군산 옥구군 충현탑(1963), 고창 신오위장비문(1963), 익산역 4·19 학생의거 기념탑(1963), 전주종합경기장 수당문 휘호(1963) 등도 그의 글씨로 전해져 그의 활동상황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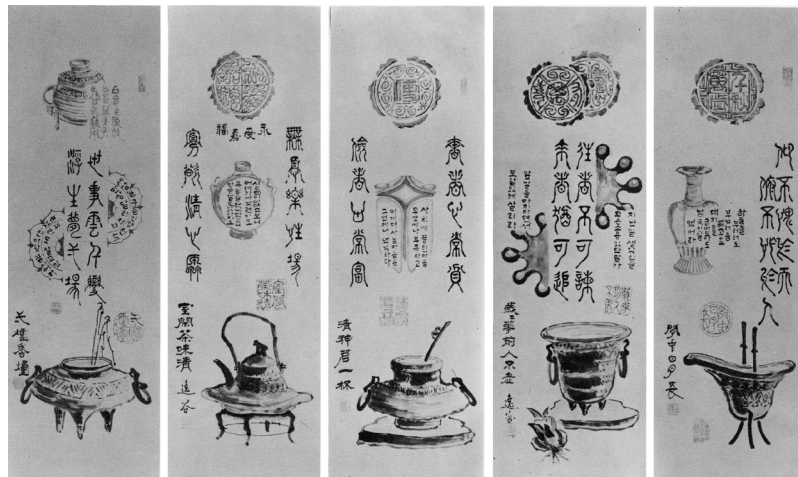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기단부 전서>

고정흠 高廷欽

호 일곡 逸谷 생몰년 1903~198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고정흠은 근현대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구례 출신으로 호는 일곡 逸谷이다. 1923년 경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 공무원으로 40여년을 봉직하면서 서예와 문학을 겸하였다. 1930년 동아일보에 「기원」이라는 시조로 특선을 하였다.

소전 손재형과 의재 毅齋 허백련 許百鍊, 1891~1977을 짧게나마 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전을 1회 하였으며 1963~1970년 사이에 국전에서 7회 입선하였고, 1967~1970년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연 4회 특선을 하였다. 전남도전 심사위원을 지내며 영·호남 교류전 등에 출품하였고, 1976년 삼락서예원을 개설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1974년에 제작된 광주 사직공원의 고산 윤선도 시비의 글자를 썼다.



《외당10곡병》중 5폭, 종이에 수묵

곽국환 郭國煥

호 현원 玄園 생몰년 1928~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곽국환은 현대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생으로, 호는 현원 玄園이다. 근원 權園 구철우 具哲祐, 1904~1989를 사사했다. 제23회 국전을 시작으로 제30회까지 5회에 걸쳐 입선하였다. 전남도전 추천작가를 지냈으며, 1979년 여수에서 열린 전국회화대회에서 특선, 1981년 한국미술대상전 초대작가상, 1982년 단원미술대상전 초대작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주, 부산, 광주에서 작품발표전을 가졌다.

곽국환의 작품으로 전하는 〈모란〉은 전통적인 묵란기법을 사용하면서도 긴 화폭을 폭넓게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을 준다.



〈모란〉, 종이에 수묵, 개인

곽권옥 郭權玉

호 야정 野丁 생몰년 1933~200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곽권옥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야정 野丁이다. 백포 곽남배의 동생이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남농 南農 허건 許健, 1907~1987과 아산 雅山 조방원 趙邦元, 1927~2014, 그리고 백포 白浦 곽남배 郭南培, 1929~2004를 사사하였다.

1974년 제23회 국전 사군자부에서 입선하였고, 1974년부터 1981년까지 동양화부에서 7회에 걸쳐 입선, 1979년 제28회 국전에서 특선을 하였다. 그 외 다른 공모전에서도 다수 입상하였다. 남인회, 백미회 회원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유명 미술관과 기념전시회에서 초대전

을 가졌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2002), 전남미술대전 등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을 지냈다. 광권옥은 산수화와 화조화 작품을 주로 제작하였는데 그의 산수화는 긴 피마준(披麻皴)을 써 산과 언덕의 질감을 나타내었고, 곳곳에 태점을 두드러지게 찍는 경향을 보인다.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듯 뻗은 가지의 나무 형태도 독특하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정>



<정>, 한지에 수묵담채, 140×110cm, 광주시립미술관

은 갖가지 나무가 백백이 자란 숲의 한 부분을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그의 다른 산수화에서는 볼 수 없는 섬세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곽남배 郭楠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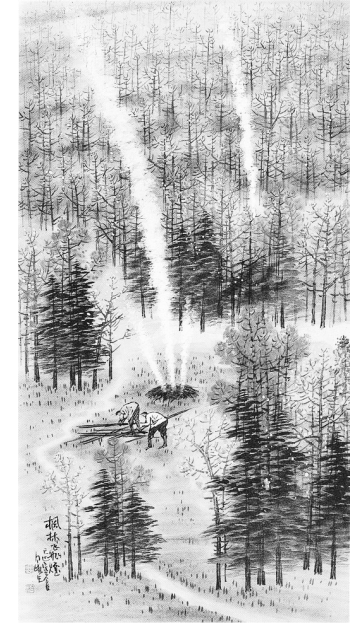
호 백포 白浦 생몰년 1929~200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곽남배는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백포(白浦)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1952년 조선대 화공과를 수료하고 남화연구원에서 남농 허건에게 그림을 배웠다. 1961년 국전 제10회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특선 4회, 입선 10회 입상하였다. 1965년에 전남도전 초대작가, 1977년에는 국전 추천작가, 1982년 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으며, 전남도전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동아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1959년 전남문화상, 1998년 대한민국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곽남배는 1963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전국 곳곳에서

초대전을 가지며 화명을 알렸다. 특히 일본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여 일본화단에 많이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다. 1999년 중앙일보사 초대로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고희기념 백점백경전(百点百景展)을 가지면서 『백경화집』 발간과 함께 7백여 곡이 실린 『백포 작사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허건의 영향 아래에 있었으나 전통 남종화풍을 벗어난 독자적인 산수화풍을 구사하였는데, 특히 <모닥불>이나 <원두막>, <청해소견> 같은 작품은 실경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채색과 농담을 자유롭게 사용해 개성적인 화풍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는 특히 깃별이나 오두막 등 그동안 동양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독특한 소재를 선택하여 화면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대표작인 <한거장락>은 대각선의 강변을 따라 서 있는 오두막과 원경의 먼 산이 표현되어 있으며, 초록과 갈색의 담채를 사용하여 짙은 향토성이 보인다.



<몽림비연>, 1965년, 종이에 채색, 145×73cm, 조선대미술관

구서칠 具書七

호 장석 丈石 생몰년 1921~200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구서칠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장석(丈石)이다. 합천 출신의 서예가 유당(惟堂) 정현복(鄭鉉福, 1909~1973)을 사사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전국 서도백일장에서 특선, 전국재향

경우회 작품전에서는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동경 한일문제연구회 초대전을 비롯하여 개인전을 17회 개최하였다. 여러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서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행서 수복〉, 종이에 먹, 호남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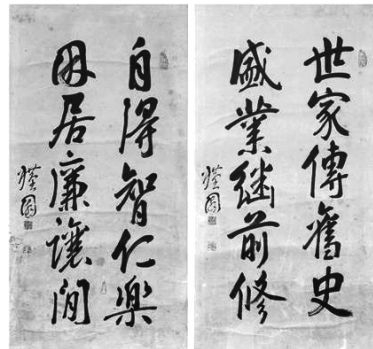
구서철의 직업은 경찰이다. 일본군으로 징집되어 부산 육군 병마참 기병대에서 기마병으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아 군정경찰 1기생으로 입교하여 순경이 되었다. 보성과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6·25전쟁 당시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 때 구례경찰서장을 지냈는데, 무공훈장 23개, 전쟁 금메달 2개를 받기도 하였다. 노년에는 인천에 거주하며 화랑을 경영하였다.

구철우 具哲祐

호 근원 權園 생몰년 1904~1989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서화

구철우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화순출신으로 자는 명숙(明淑)이며, 호는 근원(權園)이다. 어려서 능주의 양곡(良谷) 이승복(李承福, 1886~1961)과 나주의 후석(後石) 오준선(吳駿善, 1851~1931)의 문하에서 한문을 배웠다. 16세 때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서울의 배재학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중등학교로 옮겨 2학년까지 다녔다.

26세에 광주로 이거한 구철우는 허백련을 비롯한 광주의 서화계 인물들과 두루 교유하였다. 1938년 연진회가 창립된 후 1940년 1월 통상회원이 되었고, 1942년에는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예를 주



〈해서〉, 종이에 먹, 62.5×32.5cm, 의재미술관

로 하다가 해방 후 허백련으로부터 회화를 배웠다.

1955년 국전에 출품한 구철우는 묵죽으로 특선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연이어 사군자로 특선을 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1960년에는 국전 초대작가로 추대되었고, 국전 서예 부분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직을 7차례나 지냈다. 이러한 공로로 1961년 전라남도 문화상을 받았고, 1975년에는 한국예술원의 원로작가로 추대되었다. 허백련이 타계한 1977년부터 말년까지는 연진회 회장직을 맡아 연진회를 이끌기도 하였다.

구철우는 해서, 행서, 초서, 전서, 예서 등 다섯 가지 서법을 두루 구사했으나 해서와 행서를 주로 하였다. 서첩을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하여 조맹부와 구양순의 서체를 바탕으로 특유의 서체를 이루었다.

사군자화 중 구철우의 매화도는 매화 즐기는 습윤한 먹으로 거침없이 뿔어 올라가게 그리고, 꽃도 속도감 있는 붓질로 분방하게 그려 개개의 형태미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재빨리 그렸지만 오랫동안 글씨를 써 길러진 필력으로 작은 꽃송이 하나하나마다 힘이 느껴진다.

근원 구철우의 서맥을 이은 작가들로, 그의 비문을 쓴 전명옥을 비롯하여 시·도전 추천작가로 활동한 장은정, 강동원, 오명렬, 손호근, 김정희, 박춘희 등이 있다. 이들은 근문회(權文會)를 만들어 그의 예술의 맥을 이어 활동하고 있다.

권갑석 權甲石

호 여산 如山 생몰년 1924~200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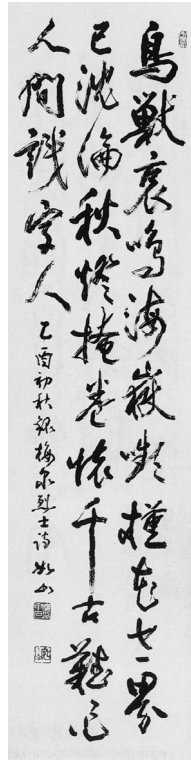
권갑석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호는 여산(如山)이다. 1944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예를 시작하였다. 소전(素絜) 손재형(孫在馨, 1902~1981) 문하에서 서예를 연마하였다. 1964년 제13회 국전에서 입선을 시작으로 1972년 제21회 국전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6회에 걸쳐 특선을 하였다.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익산, 군산교육장 및 도내 초·중등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46년 동안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1989년 정년퇴임하기까지 평생 붓을 잡았다.

권갑석은 2001년 창암 이삼만 기념 사업회를 발족하고 그 이듬해에는 전국에 흩어진 창암의 글씨 120여 점을 모아 유목첩을 펴냈다. 한국서예연구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서예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라북도 서예발전에 헌신했다. 권갑석의 제자들로 구성된 여산묵연회(如山墨緣會)를 이끌면서 제자들을 길러냈고 여산묵연전은 2024년 현재 50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주 적상산 안국사의 극락전 현판, 남원 실상사 천왕문 현판을 비롯해 전라북도 곳곳의 명소에는 권갑석이 쓴 현판이 있다.

그의 글씨를 모아 『여산 유목』을 발간하였는데 한문과 한글 각체로 쓴 권갑석의 글씨는 특별한 기교가 없으면서 강한 힘이 느껴진다. 사군자화를 비롯한 간단한 문인화도 운치가 있다. 큰딸 권영수씨가 아버지를 이어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매천황현선생절명시〉, 종이에 먹, 140×35cm, 개인

권경승 權景升

호 심곡 心谷 생몰년 1931~201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권경승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충청남도 금산 출생으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활동하였다. 호는 심곡(心谷)이다. 대전공고를 졸업하였고, 1951~1971년 전북일보 기자 및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장을 지냈



〈새벽〉, 종이에 수묵담채, 57.5×57.5cm

면서 예리한 감각과 정확한 소묘력을 바탕으로 전북일보 만평가로도 활동하였다. 전북일보 네컷 만화 「하여간(何如間)」의 저자로서 전북 시사만화 1세대 작가이기도 하다.

권병렬 權炳烈

호 청곡 靑谷 생몰년 1924~202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권병렬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호는 청곡(靑谷)이다. 어려서 한문을 배웠으며, 일본 히로시마(廣島) 산요(山陽)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大阪) 문과대학을 나온 후 귀국하여 1948년부터 1969년까지 30여 년간 교사생활을 하였다. 광주의 의재 허백련을 찾아가 사사하였고, 1970년 화가로 등단하였다.

한국서화예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세종문화회관, 덕수궁미술관 등의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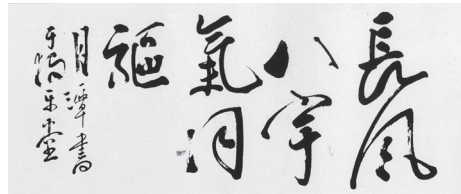
〈천지의 장구한 기운〉, 2010년대, 종이에 수묵담채, 77×239cm, 전북도립미술관

단체전과 개인전을 가졌다. 저서로 수필집 『추초秋草』가 있고, 전주예총 초대회장 재임 시 예술문화월간지 『전주예술』을 발행하였다. 전국한지공예대전을 전주에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전라북도 미술을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서화가 어울린 문인화를 그린 그는 자연의 기운을 마음에 담아 수묵을 위주로 한 사의적인 산수화를 주로 제작하였다.

권영도 權寧燾

호 월담 月潭 생몰년 1915~2004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행서〉, 종이에 먹

권영도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호는 월담 月潭이다. 10세에 전라북도 정읍으로 옮겨 서당에 다니던 중 15세에 담당 澹堂 송우용 宋

友用에게 서예의 기초를 배우고, 해강 海岡 김규진 金圭鎭, 1868~1933에게 문인화를 배웠다. 이후 당시 전주에서 활동하던 효산 이광열, 유당 김희순, 설송 최규상 등에게 글씨와 사군자 등을 배웠다.

1978년 첫 개인전 이래 모두 14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이 외에도 1970년 월담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서예 문화의 저변확대에 힘썼다. 전북도민문화장을 수상하였다.

권영도는 추사체와 문인화에 능했는데, 특히 행서와 난을 잘 그렸다. 그는 “글씨를 쓰는 데는 서법 書法, 서도 書道, 서기 書氣의 3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운 없는 글씨는 모방에 그치고 자신의 글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필휘지 하는 휘호 揮毫라야지 붓을 질질 끄는 예호 曳毫는 서예라고 할 수 없어요.”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서체는 자유분방하면서 독창적 운필의 묘를 보인다.

그림에서는 스승 해강 김규진의 화법이 두드러지며, 글씨는 추사체의 기미가 보인다. 1990년에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조까지 명필들을 가문별로 선정, 시대순으로 소개한 『역대명가필적선집』을 펴내기도 하였다.

기대승 奇大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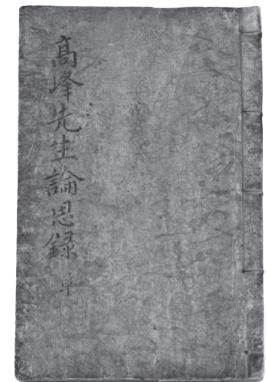
호 고봉 高峰 생몰년 1527~157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기대승은 조선 초·중기에 활동한 문신이며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본관은 행주 幸州이며,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명언 明彦, 호는 고봉 高峰, 존재 存齋이고 시호는 문헌 文憲이다.

1549년 진사를 거쳐 1558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이 되었다. 1563년에는 사가독서 賜暇讀書를 하였다. 사정 司正으로 있을 때 훈구파로부터 신진사류의 영수로 지목되어 권신 이량 李樾에 의해 한때 삭직되기도 했다. 1567년 복직되어 원접사 遠接使의 종사관이 되었다. 응교, 직제학, 대사성 등을 거쳐서 대사간을 지냈고 후에 부제학, 이조참의, 대사간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낙향하는 도중 병이 악화되어 46세로 세상을 떠났다.

기대승은 32세에 퇴계 이황의 문하에 왕래하면서 성리학을 담론하였고, 이황의 사단칠정 四端七情을 주제로 8년 동안이나 편지 왕복으로 논쟁을 펼친 일은 지금도 유명하다. 이황도 사제 간이 아니라 대등한 학자의 입장에서 그와 학문적 토론을 하였다.

기대승은 시문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글씨도 잘 썼다. 그는 글씨에 인위적으로 기교를 가하지 않으려 하였다. 오세창의 『근묵 槿墨』에 실린 해행 楷行으로 쓴 시고 詩稿를 보면 조맹부체로 썼는데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우며



『고봉선생 논서록』, 종이에 먹, 21.5×32.5cm, 국립광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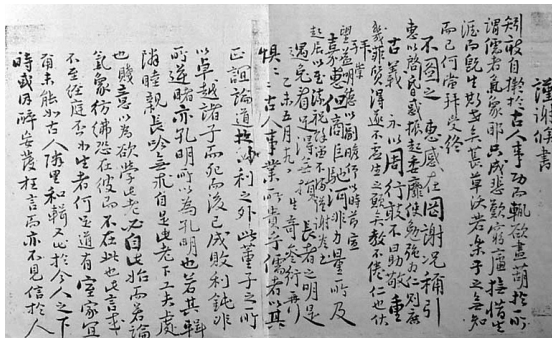
답답한 서풍書風이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고봉집』 15책과 『논사록論思錄』 『주자문록朱子文錄』 4책 등이 있다.

기삼연 奇參衍

호 성재 省齋 생몰년 1851~190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기삼연은 구한말 활동한 문인이자 의병장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본관은 해주幸州이며 자는 경로景魯, 호는 성재省齋이다. 별명은 백마장군白馬將軍으로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재종숙再從叔인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에게서 글을 배웠다.

1896년 2월 기우만奇宇萬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다가 정부가 신기선申箕善 등을 보내 해산을 권유하자 이에 따랐다. 1902년(광무 6) 다시 의병을 일으키려다가 체포되어 평리원에 갇혔으나, 원장 이용태李容泰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1907년 영광 수록산隨錄山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김용구金容球·김엽중金燁中·김준金準 등과 합류하여 '호남창의회맹소' 湖南倡義會盟所의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고창 문수사文殊寺의 적진을 야습하여 크게 무찔렀다. 이어 영광·고창·부안·정읍 등지에서 이기고, 최상진崔相鎭 등 관리들의 내응으로 광주까지 영역을 넓혔다. 그 뒤 군량을 마



〈간찰〉, 1895년, 종이에 먹, 25.5×41.5cm, 독립기념관

련하기 위해 법성포를 습격하기도 하는 등 유격전을 전개했다. 이해 12월 설을 쇠려고 담양의 추월산성秋月山城에 들어갔다가 적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 순창의 복흥산福興山에 숨었다가 체포되어 광주에서 총살당했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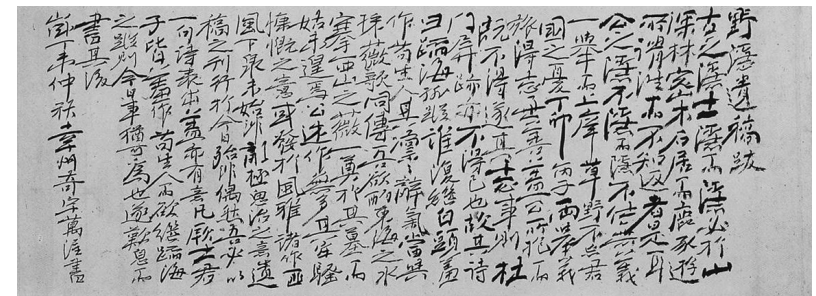
기삼연의 글씨를 살펴볼 수 있는 간찰이 남아 있다. 수신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의병의 계기가 된 을미사변이 발생하기 몇 달 전으로 보인다. 내용은 안부를 주고받은 것이다.

기우만 奇宇萬

호 송사 松沙 생몰년 1846~191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기우만은 구한말 활동한 문인이자 의병장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전라남도에서 활동했다. 본관은 해주幸州,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이다. 참봉벼슬을 하여 기참봉으로 불렸다. 호남 유학의 거봉인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손자로서 그의 학문을 이어받아 일찍이 문인文儒로 추앙받았다. 1881년(고종 18) 김평묵金平默과 함께 정부의 행정개혁을 주장하는 만인소를 올려 호남소수라 불렸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에 이어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통분의 상소를 올렸고, 고향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896년 3월 광주향



〈간찰〉, 종이에 먹, 개인

교光州鄉校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규칙을 정하고 전략을 의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며 의병의 세를 넓혔고, 호남창의 총수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해산할 것을 명하자 이에 응했다. 5월에 장성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으나 10월 16일 왜군에게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1897년(고종 34) 4월에 석방되었다. 1908년 2월 순천 조계산의 압자에서 동지·문인들과 재거사를 피하던 중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을 향하여 통곡한 후 해산하고 은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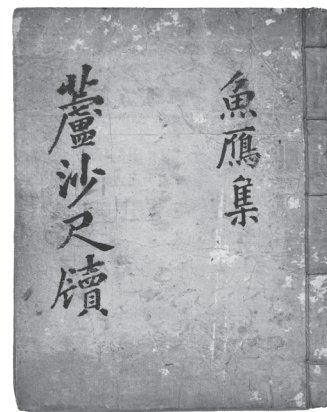
이후 호남지역에서 활약한 12명의 의병에 대한 전기인 『호남의사열전湖南義士列傳』을 저술하였다. 유저로는 『송사집松沙集』이 있다.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기우만이 남긴 <간찰>은 해서와 행서로 쓴 것으로 독특한 그의 서체를 볼 수 있다. 자간을 고려하지 않고 빼곡하게 써 마치 예서와 비슷한 자형을 보여준다.

기정진 奇正鎭

호 노사 蘆沙 생몰년 1798~187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기정진은 조선시대 학자이며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순창 출신으로 본관은 해주幸州이다. 초명은 기금사奇金賜, 자는 대중大中, 호는 노사蘆沙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17세 때인 1815년에 전라남도 장성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1831년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하였다. 병



「어안집(魚鴈集)」, 1845년, 종이에 먹, 26.6×20.8cm, 개인

인양요 때 외침에 대한 방비책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주장한 「육조소六條疏」중 첫 번째인 「병인소丙寅疏」를 썼다. 이는 당시의 쇠국정책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의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사상은 이 소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었다. 1878년 장성 하리 월송月松: 지금의 高山里에 담대헌澹對軒이라는 정사를 짓고 여러 문인과 함께 거처했다.

기정진은 성리학에 대한 독창적인 이력의 철학 체계를 수립하여 조선 성리학의 6대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기정진은 성리학의 중요한 저술들을 남겼다.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나오는 ‘정定’자에 대한 해설인 「정자설定字說」, 사단칠정四端七情을 논한 『우기偶記』(1845), 이기理氣 및 이이의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에 대해 평론한 「이통설理通說」(1852), 그의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납량사의納涼私議」(1874, 초고는 1843년에 작성)와 「외필獨筆」(1878) 등이 대표적인 저술이다. 그의 철학사상은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답문유편答問類編』에도 잘 드러나 있다.

기정진의 학문과 사상은 손자인 기우만奇宇萬과 김녹휴金錄休·기문현奇文鉉·조성가趙性家·정재규鄭載圭·이희석李僖錫·이최선李最善·기삼연奇參衍 등의 제자에게 전수되었으며, 그밖에 많은 학자들이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저서로 1882년에 『노사집』 22권, 1890년에 『답문유편』 15권이 간행되었다. 이후 1976년 본집 22권, 부록 2권의 영인본이 나왔다. 1927년 고산서원高山書院이 건립되어 그 사우에 조성가 등 문인 6인과 함께 봉안되었다.

기정진은 학문뿐 아니라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특히 창암 이삼만을 통해 이어져 온 동국진체를 배웠다. 그의 글씨는 단아하면서도 굳센 획의 사용으로 굳터더기 없는 강직한 글씨체를 보여준다. 노사 기정진의 여러 종류의 편지 예문을 적어 놓은 책인 『어안집魚鴈集』이 전해져 오는데, 책의 표지에 ‘어안집’과, ‘노사척독蘆沙尺牘’이라 써놓았다. 중년시기에 쓴 이 어안집 또한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단아한 그의 서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김강노 金康老

호 취성 翠星 생몰년 1904~1977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김강노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본관은 광산이며 호는 취성 翠星이다. 김제의 유하 柳下 유명완 柳永完, 1892~1953과 금산의 원재 元齋 정해준 鄭海駿, 1902~1993을 사사하였다. 묵란과 묵모란 등을 잘 그렸다. 만년에는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활동하였다.



〈묵매〉, 종이에 수묵

김경희 金景熹

호 노계 蘆溪 생몰년 1515~157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경희는 16세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본관은 광산이며, 호는 노계 蘆溪이다. 장영공 章榮公 진穰의 후손이다. 16세기 문인 학포 양팽손이 외삼촌으로 조광조와 양팽손에게 성리학을 배웠으며,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나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1545년 고창읍 화산리에 취석정 翠石亭을 지었다. 고창 노산사 蘆山祠에 배향되어 있다.

김관옥 金琯玉

호 만경 晩耕 생몰년 1928~2013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예

김관옥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제주도 애월읍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만경 晩耕 혹은 석암 石庵이다. 그는 한시 漢詩 작가이기도 하다. 1924년에 결성된 제주도 한시동인회인 영주음사 瀛洲吟社 회원으로 시작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시조창 명인으로 후진을 양성하였다.

김관옥의 생업은 경찰로서 1982년 말부터 제주 경찰국 경비과장, 수사과장, 정보과장, 경무과장을 두루 지냈다.

김관옥은 1977년에 비석 〈조설대 朝雪臺〉와 항일의사 12인을 기리는 비 〈대한광복의사 大韓光復義士〉 글씨를 썼다. 같은 곳에 있는 〈선서문비〉는 소암 素菴 현중화 玄仲和, 1907~1997가 쓴 것으로 김관옥은 현중화와 함께 당시 제주를 대표하는 서예가였음을 알 수 있다.

저서로 『한시강좌』 전5권, 한시집인 『만경집』과 『우석헌집』이 있다.



〈행서 운중백학〉, 종이에 먹

김광추 金光秋

호 청탄 聽灘 생몰년 1905~1983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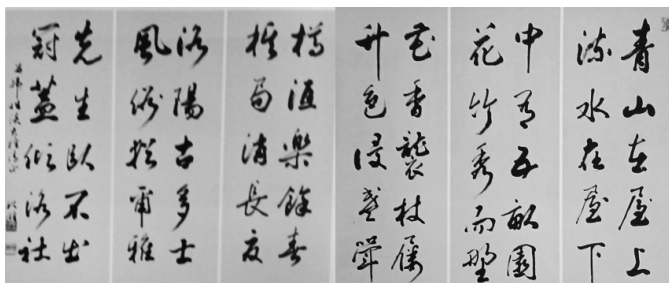
김광추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제주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김해 金海, 자는 익진 益鎭, 호는 청탄 聽灘이다. 김광추는 회화, 조각, 서예뿐 아니라 사진,

언론 분야에서도 활약한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다.

1923년 서울 배재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춘곡春谷 고희동高羲東과 김복진金復鎭, 삽화가 석영夕影 안석주安碩柱 등에게 배웠다. 1928년 배재고교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가 오사카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32년 귀국과 동시에 모교인 화북 사립 보통학교 교사로 1년을 재임한 후 다시 일본에 건너갔다. 1936년 이후 주로 서예 활동에 몰두하였는데, 그의 글씨는 원만하고 작은 글씨에 능하였으며 초서에 뛰어났다. 1942년 일본 '아사히 카메라'誌 주최 사진콘테스트에서 작품 '나루터'를 출품해 입선하기도 하였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되자 제주신문 창간에 참여했으며 1948년 제주4·3 사건으로 혼란해지자 광주로 올라와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천경자 등 예술인들과 교류했다.

1949년 일본에 건너갔다가 1957년 다시 귀국, 1960년 4·19가 일어난 후 동년 12월에 제3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제주시 제1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제주를 대표하는 서예가 소암素菴 현중화玄仲和, 1907~1997 와 교류하였고, 1963년 서예 동호인 모임인 담담회澹澹會와 영주연묵회瀛州研墨會를 창립하는 등 제주 문화예술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77년 제주도 문화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금으로 청탄상淸灘賞이 제정되었다.



〈글씨-청산재옥상〉, 종이에 먹, 66.7×25.5cm, 제주대학교박물관

김교현 金敎鉉

호 춘사 春史 생몰년 미상(조선시대)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교현은 광양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호는 춘사春史이며, 제숙공濟肅公 인穉의 후손이다. 『조선훈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김규완 金圭浣

호 치당 痴堂 생몰년 1930~201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규완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부안출신으로 호는 치당痴堂이다. 전주사범학교와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서 활동하였다.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 1913~1999에게 서예를 배웠다. 김규완은 국전에 제18회부터 제29회까지 8회에 걸쳐 입선한 이후 대한



〈행서 舉世皆濁〉, 종이에 먹, 69×68cm

민국미술대전에서는 제1회와 제3회, 제4회 등에서 입선하였다. 전북도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강암연묵회 회장, 강암 서예학원 재단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교육자로서 그는 광주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교감, 전주 완산고 교장을 역임하였다.

김규태 金奎泰

호 고당 顧堂 생몰년 1906~196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규태는 근현대에 활동한 유학자이자 서예가이다. 경상남도 현풍 출신으로 자는 경로 景魯이며 호는 고당 顧堂·이고당 二顧堂·백강 百剛·방장산인 方丈山人·헌중주인 軒中主人 등이며 당호는 고경중마실



〈물염정〉, 화순

古鏡重磨室·소용산방 笑蓉山房·천마산방 天馬山房·호계지동백정 虎溪之冬栢亭·봉성지구룡동 鳳城之九龍洞·청하루 聽荷樓·육영재용암초당 育英齋龍巖草堂·강수재 講修齋 등이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활동하였다.

김규태는 20대에 스승인 율계 栗溪 정기 鄭琦, 1879~1950를 따라 전라남도 구례로 이주했다. 김규태의 스승 정기 역시 경상남도 출신이었으나 호남의 거유 巨儒 노사 盧沙 기정진 寄正鎭 1798~1879의 학통을 잇기 위해 구례로 이주해 왔다. 구례로 이주한 후 평생지기인 효당 曉堂 김문옥 金文玉, 1901~1960·유당 惟堂 정현복 鄭鉉福, 1909~1973과 함께 학문을 익혔다. 김문옥은 문장에 뛰어났고 김규태는 시부 詩賦에 뛰어나 당시 인근의 향유 鄉儒들이 앞을 다투어 교유하려 했으며, 서예에도 정현복과 함께 당대의 명필로 세인들의 인정을 받았다.

1930년에 매천 황현의 아우 석전 石田 황원 黃瑗이 황현의 매천집 梅泉集 서문을 담원 蔭園 정인보 鄭寅普에게 받기 위하여 서신을 김문옥에게 부탁하였는데, 이 일이 인연이 되어 김규태는 김문옥과 함께 구례 화엄사에서 정인보, 만해 한용운을 만났다. 대구의 석재 石齋 서병오 徐丙五, 1862~1935와도 교유하였다. 1936년 김규태는 용암재 龍巖齋를 짓고 후학들을 길렀으며 장천재 莊泉齋, 강수당 講修堂 등에서 후학 양성과 저작에 주력했다.

김규태는 스승 정기가 세상을 떠나자 「율계선생 만환」을 지어 바쳤으며

평생지기 효당이 죽었을 때도 「만 효당」이라는 칠언율시를 6수나 지어 평생 830편의 시를 남겼다.

김규태의 글과 작품들은 제자들과 자제들에 의해 16권 6책, 별집 3권 1책 등 모두 19권 7책의 『고당유고 顧堂遺稿』로 발간돼 구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김규태는 시부 詩賦와 서예 書藝로 이름이 높았으며 전라도 일대와 경상남도 일원 누각의 많은 현판과 묘비명에 그의 글씨가 남아있다.

김기유 金基兪

호 도헌 圖軒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기유는 문인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함평출신으로 본관은 천안이다. 호는 도헌 圖軒이며, 참봉 상복 相復의 손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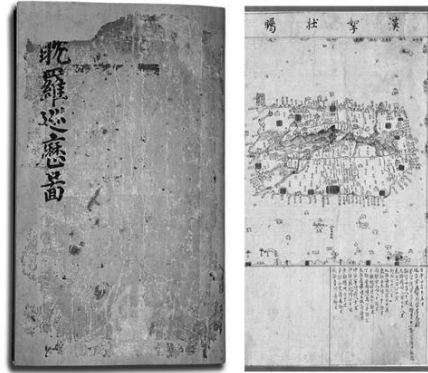
김남길 金南吉

생몰년 18세기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회화

김남길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제주목 소속의 지방 화원이다. 제주에서 활동하였다. 본관이나 생몰년은 명확하지 않다.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 李衡祥, 1653~1733의 명을 받아 그린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가 남아 있다.

《탐라순력도》는 이형상이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하던 해에 제주의 각 고을을 순력하는 행사 장면을 김남길이 그린 기록화첩으로 이듬해인 1703년 봄에 완성되었다. 전라도 관찰사를 대행하여 제주목사가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제주 삼읍인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을 순력하였는데, 1702년 가을 10월29일 출발하여 11월 19일까지 21일 동안 순력을 시행하였다. 이때 제주도 관내를 순회하면서 자연·역사·산물·풍속 등을 40여

쪽의 채색화로 그린 것이다. 그림 41면과 서문 2면 등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면은 순력 행사 장면을 담은 그림 28면, 평상시의 행사 장면을 담은 11면, 제주도과 주변 도서 지도인 <한라장축도漢拏壯囑圖>을 비롯해 <호연금서도浩然琴書圖>로 이루어져 있다.



이형상 편찬, 김남길 그림, <탐라순력도>〈한라장축>, 1703년, 종이에 먹과 채색, 56.7×36cm

회화식 지도에 기록화가 융합된 형식의 이 화첩에는 실제 성곽 시설물 및 주변 지리를 기반으로 각종 행사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평면성이 강하고 반복적이며 형식적인 묘사가 많지만 제주도 경물 및 경승에 대한 묘사는 19세기 제작된 제주십경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중앙 화단과는 다른 화풍이 제주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장축漢拏壯囑圖>은 한라산 주변의 장대한 장관을 한껏 바라본다는 뜻을 담은 그림으로 18세기 초반의 제주도를 포함하여 제주도 주변 상황을 개략적으로 나타내어 그렸다. 지방 화원 김남길의 꾸밈없고 담박한 사생寫生으로 18세기 초 제주목사 이형상이 순력 과정에서 살펴본 제주목의 실경과 주요 사건 및 행사 등을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김남전 金藍田

생몰년 1852~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남전은 19세기 한국화가이다. 소치 허련의 제자로 목모란을 잘 그렸다고 전한다. 그의 생애나 화풍에 대해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어 남전이 호인지 이름인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소치 허련의 넷째 아들 미산 허형이

그림에 입문한 경위를 얘기할 때 김남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김남전이 허형이 그린 목모란을 스승인 허련에게 보이며 아드님이 그린 것이라 하자 허련이 아들을 불러 다시 그려보게 하였고, 그 재주를 인정하여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로 보아 김남전은 1862년생인 허형이 붓을 들 수 있었던 10대 무렵 허련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목모란도>를 보면 각이 진 괴석의 형태감이나 모란꽃의 부드러운 선과 음영 처리, 굵고 가는 획의 변화가 큰 화제 글씨 등에서 소치 허련의 영향이 뚜렷하다.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않으나 당대에는 미방 김익로와 더불어 화명을 날렸다고 전한다.



<목모란도>, 종이에 수묵, 95.5×29cm, 목포대학교 박물관

김달석 金達錫

호 정원 靜園 생몰년 1926~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달석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정원靜園이다. 남농南農 허견許權을 사사하였다. 제10회 전남도전에서 입선, 제23회 국전에서 입선하였다. 이후 많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화가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소나무>, 1988년, 종이에 수묵담채, 70×135cm

김도숙 金道淑

호 가석 可石 생몰년 1872~194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김도숙은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화가이자 의병지사이다. 1872년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생하였다. 이명은 제현濟現이고 호는 가석可石으로, 남호南湖, 무령선진조수武靈仙津釣叟, 무령거인武靈居人, 남극재南極齋 등을 함께 썼다.

김도숙은 28세 때인 1900년 남평 향교에서 도유사都宥司를 맡았는데, 이때 이미 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1907년 9월 남평 향교 유림들에게 거의學義를 위한 사발통문을 보냈고, 그해 12월 함평군 신광면에서 심남일沈南一이 의병을 일으켜 남평, 보성, 장흥 등지에서 600여 명을 소집할 때 입진하였다. 1908년 3월 심남일 의병장과 의진義陣에서 도통장都統將으로 활약하며 전라남도 곳곳에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1909년 일본의 '남한폭도대토벌작전'에서 죽봉 김태원 의병장과 김울 의병장, 심남일 의병장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한 가운데 그도 10월 17일 체포되었다.

7년 동안 광주 감옥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후 의병을 재조직하려 하였으나 비밀이 누설되어 발각되었고, 이듬해 3·1 민족해방운동에 거의學義를 계획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로 인해 일본 헌병대의 감시를 받았고, 이를 피해 지리산, 함경도, 금강산 등 전국 팔도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43년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조동일 집에서 별세하였다. 김도숙은 그간 작가로 알려진 바도 없고, 또 해방 뒤 간행된 여러 종류의 미술사전이나 애국지사 유목첩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다. 2022년 11월



《홍매도팔폭병풍》, 1939년경, 비단에 수묵담채, 각 폭 59×35cm, 개인

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가 석주石洲 박종석朴鍾錫 화백이 남도 의병들을 그린 작품으로 광주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면서, 그와 함께 『사생취의捨生取義-의병지사 김도숙의 삶과 예술』이라는 책을 펴내 김도숙의 의병으로서의 행적과 서화를 소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박종석이 위 책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김도숙은 25년간의 도피 생활 중에도 의병 활동에 대한 여러 기록을 남겼고, 서화도 함께 남겼다. 그의 유고집인 『남호찬록南湖纂錄』이 있고, 당시 의병들의 활동을 적은 『거의일기學義日記』가 있어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다. 그의 서화 작품으로는 1937년 작 〈괴송도怪松圖〉, 1939년 작 《노안도십폭병풍蘿雁圖十幅屏風》를 비롯하여 10여 점이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 중 《노안도십폭병풍》은 제10폭 말미에 “무령선진조수 가석시묵 武靈仙津釣叟 可石試墨”이라 적었다. 무령武靈, 즉 영광 신선나루에서 낚시하는 늙은이 가석이 먹을 시험하여 그렸다는 것이다. 병풍을 조사한 박종석 화백에 의하면 배접지로 사용한 신문지의 제작연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1939년 이전 영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홍매도팔폭병풍》역시 제8폭 말미에 “무령선진조수 가석이완시묵 우남극재북창하武靈仙津釣叟 可石以腕試墨 于南極齋北窓下”이라 적혀있다. 앞의 《노안도십폭병풍》처럼 영광에서 그렸고, 더 구체적으로 머물던 집이 ‘남극재’임도 밝혔다. 이 작품 외에도 서예, 사군자, 괴송도 등 문인들이 즐겨 그리던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전한다. 대부분 의병으로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며 그린 작품임에도 서화가 어우러져서 담백하면서도 수준 높은 문인화이다.

김동협 金東俠

호 각포 覺浦 생몰년 1937~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동협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여천 출생으로 호는 각포覺浦이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을 수료하였다. 그림은 순천의 화가 청당靑堂 김명제金明濟, 1922~1989를 사사하였다. 제 23회 국전을 시작으로 연 7회 입선과 특선을 하였다. 한·중·일 교류전에 출품하였고, 한국미술대상전 초대작가로 출품하는 등 초대전 출품과 함께 여러 미술상을 받았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995년 운현궁미술관에서 가진 개인전에서는 꽃과 새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염원〉, 종이에 수묵담채, 143×109.5cm

김명제 金明濟

호 청당靑堂 생몰년 1922~199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명제는 근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호는 청당靑堂이며 당호는 정석헌眞石軒이다.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순천 출신 독립운동가 벽소碧笑 이영민李榮珉에게 한학과 서예를 배웠으며, 20대 후반에 남농 허건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사군자와 산수화를 배우고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 1912~2005에게 화조화와 정물화를 배웠다. 1957년 국전에 입선한 후 연 3회 입선했으며, 국전 특선과 초대작가를 거쳐 여러 차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981년 국전이 대한민국미술대전

으로 바뀐 뒤에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김명제는 아산雅山 조방원趙邦元, 1922~2014, 도촌稻邨 신영복辛永卜, 1933~2013과 함께 남농 허건의 3대 제자로 불렸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공부했는데 김명제는 화조화, 조방원은 수묵산수, 신영복은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산수화로 이름을 알렸다. 김명제는 1974년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이를 극복한 이후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으며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도 하였다. 1967년 첫 개인전(서울 신문회관)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일본 등지에서 개인전도 10회 이상 가졌다. 많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김명제는 산수화에서 특유의 문기 어린 수묵화풍을 보여준다. 〈송광사일우〉 같은 작품은 심하게 뒤틀린 나무들의 긴 그림자 사이로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가 주로 그린 소재는 석류와 박새, 등나무, 참새, 장미 등이며, 자유로운 운필과 맑은 먹의 사용 등 작품에 단아한 격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담묵과 다채로운 푸른색의 〈등나무〉는 섬세한 필치와 담백한 색채로 안정된 구도 속에 등나무 넝쿨과 새의 동세가 잘 표현되었다. 만개한 등나무꽃은 초여름의 정취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힘찬 등나무 가지의 필치와 참새는 동적인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송광사일우〉, 종이에 수묵채색, 69×137cm, 국립현대미술관

김문옥 金文錡

호 효당 曉堂 생몰년 1901~196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문옥은 근현대 시기 활동한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전라남도 화순에서 활동했다. 자는 성옥 聖玉, 호는 효당 曉堂, 본관은 광산 光山이다. 김문옥은 서예가인 벽강 碧岡 김호 金灝, 1922~1982의 부친이다. 구례의 고당 顧堂 김규태 金圭泰, 진주의 유당 惟堂 정현복 鄭鉉福과 함께 시서 詩書의 삼당 三堂으로 불렸다. 율계 栗溪 정기 鄭琦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화순으로 거처를 옮겨 학문 활동을 했다.

김문옥은 흥명사립학교(이후 합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자퇴하고 희당 希堂 김수 金銖에게 한학을 배웠다. 1927년 전라남도 구례로 이거한 후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호남을 중심으로 교육에 열중하여 윤정복 尹丁鏞, 나갑주 羅甲柱, 위계도 魏啓道 등 200여명의 문생 門生을 양성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효당집』 30권이 있으나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8책 16권이 화순군 남면 절산에 있는 효당 사당에 보관되어 있다. 김문옥이 쓴 <숙비정>의 글씨가 장흥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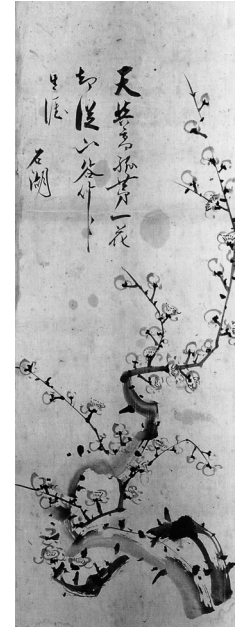


<숙비정(宿篋亭)>, 장흥 어산리 비정(篋亭)

김병수 金柄洙

호 석호 石湖 생몰년 20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김병수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으로 호는 석호 石湖, 또는 향곡 香谷이다. 한국 서예작가협회전과 전남도전에 입선하고, 현대 일본서가회대전과 아시아현대미술전에서 특선하였다. 한국서예작가협회 초대작가를 지냈다. 김병수의 생몰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재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묵매>가 20세기 초 묵매화풍을 띠고 있어 그 무렵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묵매>는 담묵과 진한 윤묵을 사용하여 꿈들거리듯 올라가는 매화 한 줄기를 표현한 것으로 상단에는 화제가 있고 석호 石湖라는 관지가 덧붙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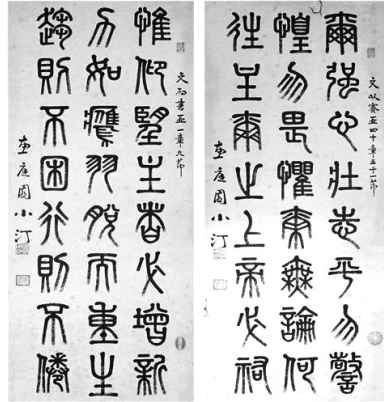
<묵매>, 종이에 수묵, 76.5×26cm, 목포대학교박물관

김병용 金柄用

호 소정 小汀 생몰년 1912~1997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병용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호는 소정 小汀이다. 조부는 서예가 가석 可石 김용태 金溶泰, 1858~1934이며, 부친은 서예가 한정 荷汀 김한규 金翰圭이다. 어려서부터 조부에게서 글씨를 배웠다. 이후 서울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으나, 공모전에는 한번도 출품하지 않았다. 1970년 이후 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몇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기에 대통령 조찬기념 병풍작

품을 7회 썼으며, 1974년 미국 포드대통령 방한기념 병풍도 그가 썼다. 예서와 전서에 특히 능했다.



〈전서〉

김봉관 金奉官

호 거암 居巖 생몰년 1923~201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봉관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진안 출생으로 호는 거암居巖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혔고, 국전 초대작가인 석당 고제봉으로부터 서예를 사사받았다. 전라북도 진안, 고창 등지의 경찰서장 등을 역임하였고 행초서를 잘 하여 서울, 부산, 전주 등에서 10여 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마이산 탐사 산신각, 적상산 안국사 등 전라북도 일대의 여러 사찰에 많은 편액과 서예 작품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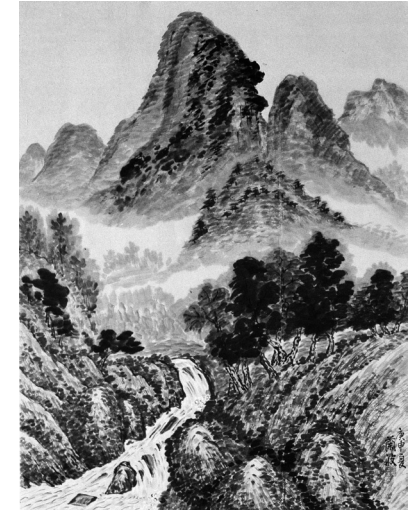


〈적상산안국사〉 편액, 무주 안국사

김삼수 金三洙

호 난파 蘭波 생몰년 1924~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삼수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호는 난파蘭波이다. 광주 사범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79년 국전에 입선하였다. '1979 소천 김천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장흥군 출신 화가 초대전'에 소천 김천두, 매정 이창주, 관산 이창현, 계산 장찬홍 등과 함께 출품한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서화문화교류협회초청으로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나고야名古屋 등 전시회에 초청되어 전시를 하였다. 이후 여러 전시회에 초대작가로 참여하였다. 김삼수는 산수화를 주로 그렸는데, 미점*點을 활용한 〈하경산수〉, 거친 부벽준을 쓴 각진 산의 〈추경산수〉 등 전통적인 산수준법을 활용하여 산과 계곡 풍경을 그린 작품을 남겼다.



〈하경산수〉, 종이에 수묵담채, 128×9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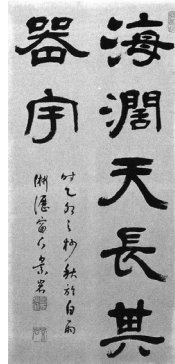
김상필 金相筆

호 경암 景峯 생몰년 1914~199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상필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 호는 경암景峯이다. 글씨는 소전 손재형을 사사하였다.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를 졸업하고 1951년부터 1961년까지 정부 행정 서기관을 지냈다. 1956년부터 1973년

까지 국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했고, 1960년 전국서화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1970년에는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64년 여수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1965년 목포, 1967년 광주 등에서 10여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1982년부터 여러 초대전과 전시에 참여하였다.

김상필의 글씨는 행서에서는 소전 손재형 풍의 부드러운 필획의 느낌이 있으며, 예서는 둥글고 부드러운 면에서도 단정하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있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을 모신 충장사의 <충용문忠勇門>과 <익호문翼虎門> 세 글자도 김상필의 글씨이다.



<예서축자>, 종이에 먹, 60.5×20cm, 목포대학교 박물관

김상현 金象絃

호 석우 石友 생몰년 1854~191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상현은 근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석우石友이다. 그의 행적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여수 진남관 현판 글씨를 썼다. 그의 문하생으로 추수秋水 김중호金仲祐가 있다.



<진남관 현판>

김석곤 金哲坤

호 동초 東樵 생몰년 1871~195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석곤은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자는 처안處按, 호는 동초東樵이다. 말이 어눌하다하여 늘오訥語라 자호

하였고, 말년에는 팔조거사八曹居士라는 별호를 사용하였다.

어려서부터 여러 스승을 모셔 학문을 익혔고, 성장하면서는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였다. 시서화 삼절로 불렸는데, 글씨는 오체五體에 능하였고 문자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김석곤은 1928년에 금천계원 14명과 정읍 산의면에 청계정淸溪亭을 세웠는데 청계정의 편액은 미수 허목의 전서체 필의를 가미한 글씨이다. 당대 여러 문인들과 이곳에서 교류하였고 수당秀堂 김교윤金敎潤이 쓴 '청계정기'와 교류하던 계원들이 지은 시를 걸었다. 이 청계정 앞 시냇가에는 계원들이 쓴 암각서가 많이 남아있다.

그는 묵화도 많이 그렸다고 하였으나 남아있지 않고 대신 도처에 암각서가 산재해 있다. 김제 황산 문수산 뒤에 해서로 쓴 <죽실암竹實窟>과, 정읍 시 녹동마을 입구에 초서로 쓴 <세현암洗現巖>, 부안 직소폭포 가는 길가 바위에 1m가 넘는 초서 큰 글씨로 <봉래구곡蓬萊九曲>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다. 이외에도 내장산 <제일봉악第一楓巖>과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 수왕사 뒤 암벽에 <무량굴無量窟>을 초서로 바위에 가득 차게 새겼다. 그 옆에는 칠언시를 새겼는데, 말미에 작은 글씨로 <을축乙丑 맹춘孟春 김석곤金哲坤>이라 새겨져 있고 <동초우제東樵又題>라 적혀 있어 1925년 봄에 김석곤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계정계비>, 탁본, 150×70cm, 개인

김석익 金錫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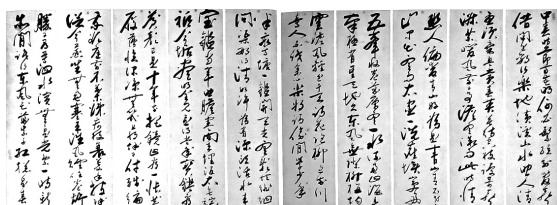
호 심재 心齋 생몰년 1885~1956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예

김석익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하였던 문인 서예가이다.

제주도의 석학으로 호는 심재心齋이다. 그는 유배인이었던 이용호李容鏞에게 수학하였고, 다시 광주에 있던 부해浮海 안병택安秉宅을 찾아가 배웠다. 이후 그는 노사 기정진-송사 기우만-부해 안병택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김석익은 1909년에 있었던 제주 무장 항쟁에 깊이 관여했고,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집필에만 매진하게 된다. 그는 조선시대 문물과 제주도에 관한 제반 기록을 『탐라기년』이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그의 저술에는 일제에 대한 제주 무장 항쟁의 실패에서 비롯한 조선유민의식과 함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담겨있다.

김석익은 왕희지의 필법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김석익의 글씨에 대해 소암 현증화도 독보라 논평했다.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전시된 《글씨 10폭병풍》은 왕희지의 기상이 엿보이고 한 점의 꾸밈이 없으며 전통적인 선비의 글씨 같으면서도 변화가 있다.



《글씨 10폭병풍》, 종이에 먹, 각 폭 107×28.6cm, 제주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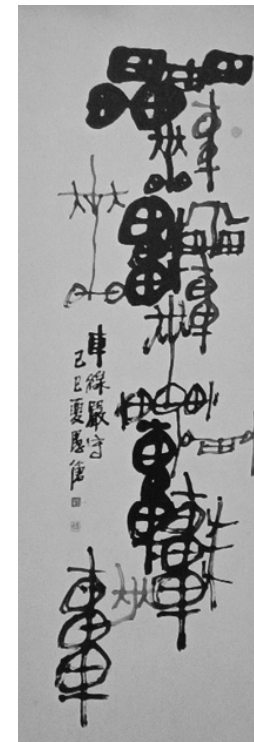
김세길 金世吉

호 위당 渭堂 생몰년 1947~199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세길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호는 위당渭堂, 우창愚尙, 심농心農, 백천白川이며, 재호를 이소헌以素軒, 무계현無界軒, 고비원高鼻園이라 하였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나와 전주한방병원을 지냈다. 한약방을 운영하였던 부친 영재 김형운金炯云과 강암 송성용에게 서법을 전수받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하였고, 대한민국의예대전 초대작가가 되었다. 한국서예협회 이사과 전북서예협회 지부장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장을 지내며 각종 전시에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현대서예협회 창립에 참여하여 개성적이고 현대적인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1995년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각 체에 능하였고, 문인화에도 탁월한 기량을 보였다. 서풍은 골기가 강하며 특히 행초서는 개성 있는 필치를 보였다.

원광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차선염수〉는 차車자를 중심으로 몇 글자를 변형하여 도로에 차들이 뒤엉켜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제목을 ‘차선염수’라 하여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한 현대 서예의 색다른 묘미를 보여준다.



〈차선염수〉, 종이에 먹, 196×70cm, 원광대학교미술관

김수 金澗

생몰년 조선시대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수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계림군鷄林君 君繩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헌어승람』 「선필善筆」조에도 “해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김옥진 金玉振

호 옥산 沃山 생몰년 1928~2017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옥진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옥산沃山이다. 그는 의재 허백련이 무등산에서 운영하던 농업학교 졸업 후 20세 때 허백련 문하에 들어갔다. 김옥진은 의재 허백련의 수제자로 불리는 만큼 허백련 타계 후 1979년부터 15년여 동안 연진회 회장을 맡았고 연진회를 이어 아마추어 작가를 길러낸 연진미술원을 운영하며 스승의 뜻을 이었다.

1955년 국전에 입선하였으며, 1957년에는 향토적인 시골 풍경을 주제로 삼은 〈8월의 전가田家〉로 특선을 하였다. 이후 전통 남종화풍의 〈창취蒼翠〉(1958), 〈풍악楓岳〉(1959) 등으로 국전에서 연이어 특선을 하였다. 이러한 국전에서의 활동으로 1960년대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김옥진은 1957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13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화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01년 허백련미술상, 2008년 한민족미술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3년에는 자신의 작품 140점과 제자들의 작품 163점 등 총 303점을 진도군에 기증하여 진도군립



〈하산욕우(夏山欲雨)〉, 한지에 수묵담채, 74×139cm, 진도향토문화관

옥산미술관을 개관하였으며, 2014년 진도 군민의 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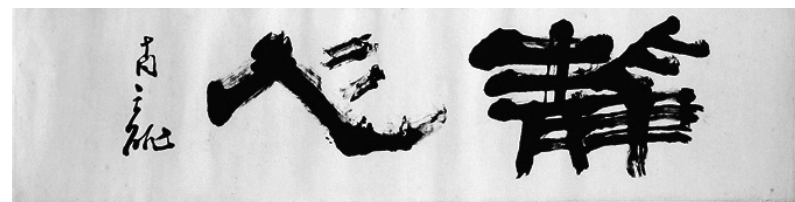
김옥진은 초기에는 의재 허백련을 이어 남종문인화풍의 산수화풍을 보였으나 점차 산수의 이상향보다는 산수를 직접 보고 거기에 관념을 가미하는 사경산수寫景山水를 제작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산정〉(1985)이나, 진도향토문화관 소장 〈하산욕우夏山欲雨〉 등은 남종문인화풍의 산수와 비교했을 때 주산을 크게 부각하여 구성이 단순하고, 중묵을 문질러 산의 양감을 살린 후에 그 위에 태점墨點을 간간히 찍어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1970년대 말 이후부터 김옥진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김용구 金容九

호 남룡 南龍 생몰년 1907~1982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김용구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는 남룡南龍이다. 어려서 고운 최치원의 신주를 모신 광주 남구 소재 지산재芝山齋에서 서예 수업을 받았다. 광주고보를 졸업하고 성인토목건축 전문학교를 수료하였다. 대한민국 서예 대전에 입선과 특선을 하고 전국 공무원 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전남도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국내의 중요 비문을 다수 집필하였다.

김용구는 자연스러움이 담긴 개성 넘치는 글씨로 남도의 동국진체 전통을 전승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는 1963년 전국 최초로 서예원 '남룡서도원'을 개원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했으며, 1959년부터 1978년까지 정기



〈정심〉, 종이에 먹, 33×129.5cm, 의재미술관

적으로 서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현대에 남도의 동국진체를 화려하게 꽃피운 서예가로 존경을 받았다.

김용구는 서예가로서도 유명하였지만, 건축가로서 전일빌딩과 의재 허백련의 무등산 춘설헌春雪軒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의재 허백련과의 돈독한 관계로 허백련에게 써준 의재미술관 소장 <백련단야百鍊澱冶>는 독특한 서체와 함께 허백련의 이름인 백련百鍊을 응용해 쓴 재치가 돋보인다. 해서로 쓴 <정심靜心> 두 글자는 거친 듯 끌기가 있는 개성 있는 작품이다.

김용태 金溶泰

호 가석 可石 생몰년 1858~1934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용태는 근대의 서예가이자 문장가이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호는 가석可石이다. 기독교 장로로 계문학교啓文學校 설립자이다. 전 이리중학교장裡里中學校長 하정荷汀 김한규金翰圭의 아버지이며 서예가 소정小汀 김병용金炳用, 1912~1997의 할아버지이다.

김용태는 정치·경제·문화에 해박했고, 시문과 글씨로 당대를 풍미했다. 경성대동시사京城大東詩社가 주최한 현상 시에 응모해 수상하였다. 대인관계도 폭이 넓어 박기순朴基順, 박성중朴性重, 서동준徐東俊, 백남주白南住, 김화형金和炯 등과 교우했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식음을 전폐한 채 45일간을 슬피 울었다. 만년에는 나라 잃은 통한을 술로 달래며 살았다. 유고에 『가석시문집可石詩文集』이 있다.

김용휴 金容休

호 우재 愚齋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용휴는 전라남도 광양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김해이다. 호는 우재愚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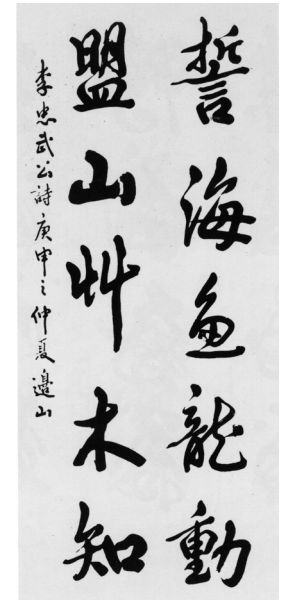
이며, 탁영 김일손金駟孫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김윤길 金允吉

호 변산 邊山 생몰년 1930~2004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윤길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호는 변산邊山이다. 강암 송성용을 사사하였다. 국전과 전북도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하고 전북도전에서 추천작가, 초대 작가,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전주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전주 교대와 전주대 교수를 지냈다.

전북 문화상 휘호, 내장산 국립공원석비연혁, 내장산 경내 망부석탑 및 정읍사 시비, 임실 공원에 건립된 3·1독립선언문석비 등을 썼다.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자연보호 현장비>, 임실향교 <영모정永慕亭> 등도 김윤길의 작품이다.



<행서 서해어룡동>, 종이에 먹

김은섭 金殷燮

호 월파 月坡 생몰년 1924~198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은섭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으로, 호는 월파月坡이다. 작품에는 강진의 옛 지명을 따 '도강인道康人'이라는 관지를 쓰기도 하였

다. 서예는 선친인 향곡香谷 김병수金炳洙에게 전수 받았고, 백화재柏花齋 선생에게 한문을 수학하였다.

1972년 목포에 개원한 청호서예원에서 강사로 서예를 가르쳤고, 이후 월파 서예원을 개원하였다. 목포의 서예가 우하宇下 김정재金正財, 평전 정진동 등이 그의 제자이다. 이 무렵 남정 최정균과 교유하였다. 우하 김정재도 초기에는 월파 서예원에서 김은섭에게 글씨를 배웠고, 이후 남정 최정균을 사사하였다. 작품으로 전서와 예서 작품이 전한다.

김은섭은 광복군 출신으로 1946년 6월 중국에서 귀국하였다.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으로 사후인 1990년 독립유공자 애족장을 받았다.



〈전서 승풍파랑〉, 1980년, 종이에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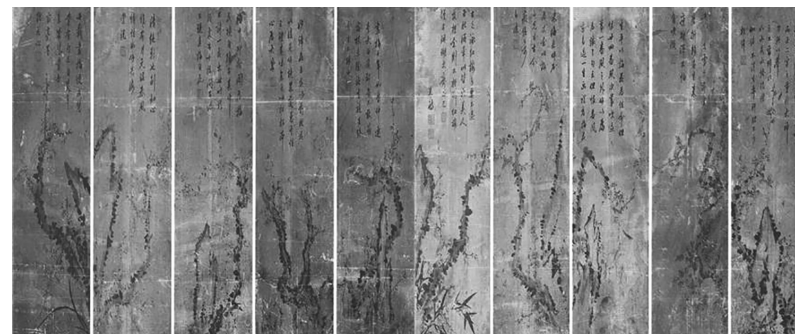
김익로 金益魯

호 미방 米紡 생몰년 1845~191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김익로는 조선 말기 서화가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백언伯彦, 호는 미산眉山, 또는 미방米紡이다. 전라남도 순천과 해남에서 살았다. 소방小紡 김홍주金洪柱, 1864~?와 난원蘭苑 김환주金煥柱, 1877~?가 아들이다.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8~1893과 초의선사에게 서화를 배웠으며 진도의 윤림산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허련이 서화수련기에 참고하였던 공재 윤두서의 작품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서울을 왕래하며 문인화가들과도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8으로부터 북송대 미불米芾의 미를 배紡에 가득 실었다는 뜻으로

미방米紡이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순천대학교박물관에 김익로의 작품으로 《석매도10폭병풍石梅圖十幅屏風》이 남아있다. 각 폭에 괴석과 함께 한 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불거리며 뻗어나간 매화 줄기를 배치하고 그에 어울리는 제시를 함께 적은 형식이다. 이러한 구성이나 매화 화풍은 매화도로 유명한 19세기 문인화가 이공우李公愚, 1805~1877의 매화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석매도십폭병풍(石梅圖十幅屏風)〉, 종이에 수묵, 각 폭 84.9×33cm, 순천대학교박물관

김익주 金翊胄

호 경암 鏡巖 생몰년 1684~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김익주는 조선시대 화가이다. 호는 경암鏡巖이다. 17세기 광주를 중심으로 방외화사方外畵師로 활동하였으며, 어진도사御眞圖寫 등 중앙의 궁중 회사繪事에 두 번 참여한 기록이 남아있다. 1713년(숙종 39) 숙종 어진의 제작 때에는 시재試才에만 참여하였으며, 1735년 세조의 어진을 모사하는 일에 동참화사同參畵師로 참여하였다. 이때 윤덕희尹德熙, 이치李璠와 함께 영조를 배알하기도 하였다.

18세기에 이름난 수장가이자 감식이었던 김광국金光國, 1727~1797의 《석농화원石農畵苑》에 수록된 김익주의 그림에 “김익주의 호는 경암이니 영묘조英廟朝의 화사畵師이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화품畵品은 남리南里 김두량金斗

樑, 1696~1763보다 낫다고 들 한다. 내가 보기에는 씩씩하고 굳센 것은 미치지 못하나 구도는 자못 더 낫다. 장점과 단점을 서로 견주어보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석농 김광국”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수목산수도〉, 18세기 후반, 종이에 먹, 26.7×17.8cm, 선문대학교박물관

김익주는 직업화가로서 산수화를 비롯하여 인물화, 영물·초충·어해화와 운룡도 등 다양한 화목의 작품을 남겼다. 김익주의 화풍은 대상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작화 경향과 일부 남종화풍의 작품을 제외하면 보수적이고 보다 전통적인 화풍을 보인다. 〈응수도〉같은 풍속화적 소재들은 윤두서·윤덕희의 화풍과 연관이 있으며 18세기 과도기적 화풍을 보여준다.

김익주의 작품은 개인소장의 〈산수도〉를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응수도〉,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한산귀어〉,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초충영모어해산수도첩草蟲翎毛魚蟹山水圖帖》이 남아있다. 모두 11면에 걸쳐 채색으로 초충도와 영모, 어해, 산수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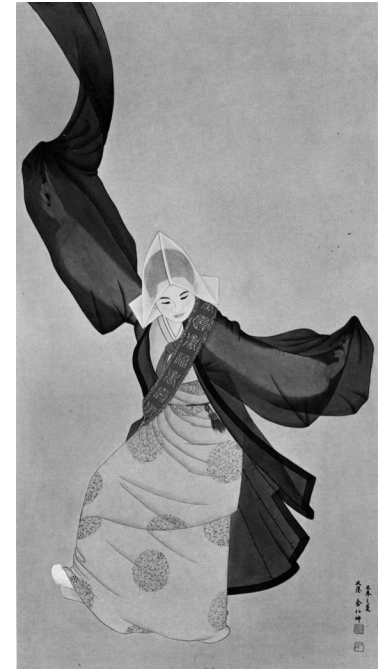
김인곤 金仁坤

호 우은 又隱 생몰년 1919~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김인곤은 근현대 시기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호는 우은 又隱이다. 이리 농림학교를 졸업하였고, 1940년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 부문에서 〈대성전大成殿〉으로 입선하였다. 김인곤은 일본대학 법과에 들어갔으나 동양화의 매력을 버릴 수 없어 이당 김은호를 사사하였다. 김은호에게 미인도, 신선도 등 공필화를 지도받는 한편 묵매화도 열심히 그려

자신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그의 묵매화를 본 일본 남화원 부이사장의 초대로 일본 남화원전에 초대받기도 하였다. 김인곤의 〈매화도〉에 대해 남화원 부이사장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칼날을 보는 것 같다고 하였다고 한다. 1944. 10. 2. 주간여성

일본 청령사靑埜社, 한중일 삼국전, 대한미술원전에 초대를 받았다. 동양화 3인전에 출품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그림뿐 아니라 20년 동안 시조를 써 시조 시집 제1, 2집을 발표한 시조 시인이기도 하다. 그의 시집으로 『우은 김인곤 시조 시집』 형제문화사, 1990이 있다.



〈승무도〉, 종이에 채색, 135×69cm

김인후 金麟厚

호 하서 河西 생몰년 1510~156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인후는 조선 중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장성현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울산이다.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이다. 시호는 문정文靖이었다가 문정文正으로 고쳤다. 조부는 금구훈도 金溝訓導를 지낸 김환金丸이고, 부친은 의릉참봉을 지낸 영齡이며, 어머니는 옥천 조씨玉川趙氏로 훈도 조적趙勛의 딸이다. 처는 여흥윤씨麗興尹氏로 현감 윤임형尹任衡의 딸이다.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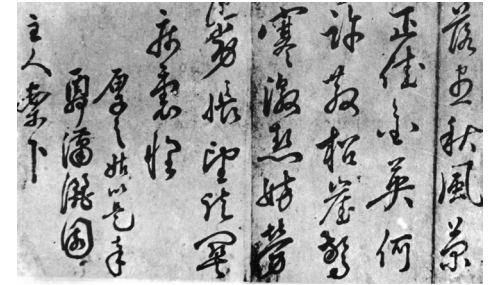
열 살 때 김안국金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고, 1531년에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이황李滉 등과 교유하였다. 1540년(중종 35)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가 되고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에 뽑혀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승문원정자, 홍문관저작,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 홍문관부수찬 겸 경연검토관 등을 역임하였고, 옥과현감으로 있으면서 춘추관직을 겸하였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한 뒤, 이듬해 명나라 사신 장승현이 국상 조문을 오자 제술관으로 임명되어 상경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인종의 승하소식을 듣고 벼슬을 그만두어 6년여 간의 짧은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이후 두문불출하고, 도학,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김인후는 인종의 세자 시절, 세자를 모시고 공부하는 곳인 세자시강원에서 세자보도世子輔導라는 직책으로 인종에게 글을 가르쳤다. 인종은 하서의 강의에 매료되었고, 인종은 직접 친 목죽도를 하사하였다. 하지만 인종이 재위 9개월 만에 병사하자 김인후는 그 충격으로 낙향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고향 장성으로 내려온 김인후는 인종이 서거한 음력 7월 초하루가 되면 술병을 가지고 집 남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 ‘한 잔 마시고 한 번 곡하고....’를 거듭해 밤을 지새우고 내려오기를 평생 거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김인후는 1519년 전라감사로 부임한 김안국에게 『소학』을 배웠는데, 김안국이 김인후를 보고 ‘나의 작은 벗吾小友’ 또는 ‘삼대상 인물三代上人物’이라고까지 찬탄하였다. 18세 때에는 기묘사화로 동북에 귀양 와 있던 최산두崔山斗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으며, 이어 광주에 들어와 있던 박상朴祥을 찾아가 학문의 폭을 넓혔다.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 노수신과 함께 수학하면서 서로 뜻이 맞아 깊은 친교를 나누었다. 1541년 사가독서로 뽑혀 호당에 올랐을 때 함께 공부한 13인과 더불어 수계修禊를 맺었는데, 이황을 비롯하여 임형수林亨秀, 나세찬羅世繼 등과 더불어 이후에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온 이후로는 송순宋純의 면앙정과 양산보梁山甫의 소쇄원을 출입하면서 호남의 명사들과 시가를 주고받으며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

김인후는 당시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태극음양설에 대해 기대승에 동조하여, 후일 기대승의 주정설主情說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차소쇄원시 행서〉

저서로는 문집 『하서전

집河西全集』(1802)과 한시를 우리말로 옮긴 『백련초해百聯抄解』가 있다. 그 외에도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를 저술한 것으로 연보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연고지인 옥과와 순창에 각각 영귀서원詠歸書院과 화산사華山祠에 향사되었고, 출생지인 장성에는 필암서원筆巖書院이 건립되어 현재까지 배향되고 있다. 필암서원은 1662년 현종 임금 때 ‘필암筆巖’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헐리지 않은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행서와 초서에 모두 능통했으며 행서체로 쓴 『하서필적일책河西筆跡一冊』과 담양의 소쇄원에 그의 필적이 남아있다.

김일 金駟

호 노봉 老峰 생몰년 미상~192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일은 20세기 초반 전라남도에서 활동한 작가로 생각되나 정확한 생애나 활동은 알 수 없다. 그의 작품은 간간히 전하며, 관지 밑에 찍혀있는 인장으로 보아 호는 노봉老峰이며, 성명은 김일金駟로 보인다. 반도일민半島逸民이라는 별호를 썼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울분의 표현인 듯하다.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산수도〉는 화제가 “봉강조람鳳岡朝嵐”으로 아침 안

개에 둘러싸인 산봉우리와 산을 향해 난 양 언덕 사이의 길을 묘사한 작품이다. 앞쪽 삼각형의 산에 찍은 미점이나 태점 등 남종문인화풍을 보인다.

호남지방문헌연구소 소장 <노안도>는 기러기 한 마리와 갈대 한 줄기를 간략히 그리고 “다리가 있지만 구름 밖의 뜻은 전하지 않는다有足不傳雲外詔”는 화제를 적었다. 김일의 영모화는 산수에 비해 격조가 있지는 않으나 기러기를 그린 필치가 숙련되어 있고, 담묵으로 간략히 그린 갈대는 운치가 있다.



<노안도>, 종이에 수묵담채, 84.7×29.8cm, 호남지방문헌연구소

김재봉 金宰奉

호 양촌 陽村 생몰년 1927~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재봉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호는 양촌陽村이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원동향약源洞鄉約』에 의하면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주천면 장안리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왔으며, 전주의 서예가인 소남素南 이규진李圭鎭을 사사하였다.

1981년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서예부문 특선을 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전 서예부문에서 1982년 특선, 1984년 입선, 1983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84년과 1985년 아세아 미술 중국전에 초대되어 출품하였고, 1984년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 서예가로서 뿐 아니라 남원군정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남원시 주천면 외평마을에는 <양촌김재봉선생송덕비陽村金宰奉先生頌德碑>가 세워져 있다.

김재욱 金在勗

호 취백당 翠柏堂 생몰년 19~20세기 초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재욱은 19~20세기 초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함평출신으로 본관은 광산이다. 자는 홍거洪擧, 호는 취백당翠柏堂이며, 교리 석원錫元의 후예이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문인이다. 그의 필명이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등재되어 있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김정기 金正基

호 운호 雲湖 생몰년 1904~195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정기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 출신으로 본관은 언양彦陽이다. 초명은 병익炳翼이며 자는 성일成一, 호는 운호雲湖, 난사蘭史이다. 모악산장母岳山長이라는 별호를 사용하였고, 자신의 사랑채를 종호당從好堂이라 하였다. 사후에도 상당 기간 그의 생가가 남아있었는데, 1998년 화재로 없어졌다.

그는 한말 유학자인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1882~1956 으로부터 학문과 글씨를 배웠고, 효산曉山 이광열李光烈, 1885~1966과 설송雪松 최규상崔圭祥, 1891~1956 등과 교유하였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내에 글씨로 이름난 사람들을 적은 「선필善筆」조에 의하면 “어려서 필법을 익혀 묘격妙格을 이루었고, 육법六法和 팔체八體가 각각 주옥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글씨는 물론 문인화에 뛰어났음은 그의 유작을 통해서 볼 수



<매화>, 종이에 먹, 125.5×32cm, 개인

있다. 전각에도 능했다고 한다.

남아있는 작품으로 정갈한 예서로 쓴 <유인송씨묘갈명 孺人宋氏墓碣銘>이 알려져 있다. 이외에 유려한 해서로 『반야심경 般若心經』을 쓴 12곡 병풍이 있다. <매화도>도 한 폭 전하는데, 종으로 긴 화폭에 굵은 매화 줄기를 일필로 그린 후 드문드문 꽃가지를 그린 것으로 글씨에 능한 그의 필력을 보여준다.

김정재 金正財

호 우하 宇下 생몰년 1930~199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정재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났다. 호는 우하 宇下이다. 1945년 비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동강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광주사범학교(현 광주교육대학)를 수료했고 영암의 서호북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68년 목포 중앙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던 한글서예로 유명한 평보 平步 서희환 徐喜煥, 1934~1995의 영향으로 1973년 청호서예원을 다니며 글씨 공부를 하면서 남정 南丁 최정균 崔正均, 1924~2001을 만났다. 소전 손재형의 제자이며 나중에 원광대 서예과를 설립한 최정균이 익산에서 내려와 서예 지도를 해주었다. 교직에 있으면서 서예에 매진한 김정재는 1972년 전남도 전 서예부 입선을 시작으로 1974년에는 제1회 한국서예공모전에서 특선을 하고, 1975년에는 국전 서예부에 입선했을 뿐만 아니라 전남도전에서 처음으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1977년, 78년 국전에서 연속 입선을 하고 1982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상을 수상했고, 이후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까지 역임했다. 목포에서 '우하서예연구실'을 마련하고 문하생들의 모임인 청목회 회원들과 작품 활동을 하였다.

김정재는 여러 법첩을 섭렵했지만, 전서와 해서에서 특별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1986년 두 번째 개인전에 남농 南農 허건 許健은 “우하는 끝

없는 서법 연구와 실 새 없는 연서는 물론이거니와 『대학』과 『채근담』을 좌우에 두고 인격도야에도 소홀함이 없다”라고 특별히 칭찬했다.



<행서 횡액>, 종이에 먹, 44×66cm, 목포대학교박물관

김정현 金正炫

호 소송 小松 생몰년 1915~1976 출생·활동지역 전남·서울 분야 회화

김정현은 근현대기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이다. 16세에 허백련 문하에서 그림수업을 받았다. 1938년에 연진회가 창립될 때 회원으로 참여하며 전통화풍을 익혔다. 김정현은 1942년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석절장石切場>을 출품하여 입선하면서 본격적인 화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1943년 <기영機影>과 1944년 <맥청麥靑>까지 세 번 연달아 입선하면서 화가로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김정현은 광주와 목포를 오가며 남농 허건의 화실에 자주 출입하면서 허건, 허림 형제와 교류하였고, 화풍상으로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허건의 동생인 임인 林人 허림 許林, 1918~1942과 함께 도쿄의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에 입학하여 일본화의 채색화풍을 배웠다. 이 시기 김정현은 서양화적 사실미와 채색을 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에 김정현은 1946년부터 목포여자중학교 미술교사를 하면서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기기 전까지 목포와 광주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꾸준히 허백련을 찾아가 전통화를 배웠으나 당시 광주 전통화단의 동향인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산수화 대신 남종화풍을 바탕으로 실경을 묘사한 작

품들을 주로 그렸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김정현은 활동기반을 서울로 옮겼으며 이후 백양회白陽會에 참여하는 등 근현대 한국 화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며 이후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그는 상명여자 사범대학교와 성신여자사범대학교 등에서 후진을 지도하였다.

1960년대 이후 김정현은 전통 남종화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며 붓과 먹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조형 방법을 시도해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먹의 번지는 효과나 담채와 농묵濃墨을 통해 추상화로의 변모를 꾀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현의 작품들은 독특한 현대적 표현의 자연경을 추구하였다고 평가되며, 전통적인 화조화도 즐겨 그려, 많은 작품이 전한다.



〈녹음-추〉, 1960년, 종이에 수묵담채, 126×68cm, 국립현대미술관

김정희 金正會

호 보정 普亭 생몰년 1903~197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정희는 현대의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립中立이며 호는 보정普亭이다. 조선 개국공신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으로 회천晦泉 김재종金在鍾의 아들이다. 기우만奇宇萬에게 한학을

배우고 1931년 29세 때 명륜전문학원에 입학하여 학문을 익혔다. 당시 서화로 유명한 해강海岡 김규진金奎鎭, 1868~1933의 문하에서 글씨와 그림을 배웠다.

김정희는 사군자 중 난과 대나무 그림을 잘 그렸다. 1938년에 일본 문부성전람회文部省展覽會에 〈풍죽風竹〉을 출품하여 특선하였다. 1941년 39세 때 성균관의 경학원經學院에서 경학을 가르쳤다. 일제가 우리나라 지식인을 모아 일본 유람을 시켰는데 그 일원으로 일본에 가서 당시 그들의 사정과 외국 문화 수입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때 일본에서 〈해국풍광최승두海國風光最勝頭〉라는 시구를 짓자 일본인이 보고 ‘해海’자를 ‘내內’자로 고치라고 요청했으나 그는 정색하고 응하지 않았으며, 그때 지은 시가 동아일보에 발표되어 국내의 유학자들이 그의 시를 음송하였다고 한다.

김정희는 일제강점기에 지방의 교육에 힘썼으며 고당 김규태·효당 김문옥 등과 시문과 서화로 서로 교류하였다. 저서로 『연연당문고淵淵堂文稿』 10권이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에 그의 〈목죽도〉와 글씨가 소장되어 있다.



〈목죽도〉, 종이에 먹, 33×125cm, 전북도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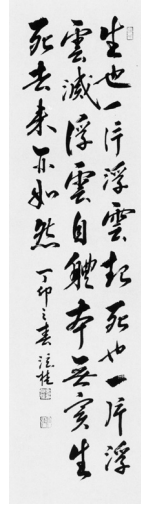
김정희 金貞姬

호 현계 玗桂 생몰년 1941~2012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서예

김정희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호는 현계玗桂이다. 순천사범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예가 근원權園 구철우具哲祐, 1904~1989를

사사하였다. 1977년부터 국전을 시작으로 전남도전 등에서 입선과 특선을 하며, 추천작가와 1986년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

1981년부터 여러 곳에서 서예 지도를 하였으며, 광주 서구에 현계서예원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의 글씨로 행서 작품이 남아있다.



〈행서 無想〉, 1987년, 종이에 먹

김종현 金鍾賢

호 토림 士林 생몰년 1913~199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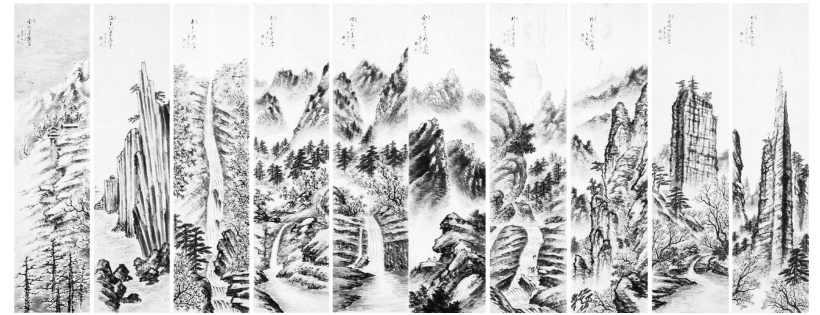
김종현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호는 토림 士林이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했다. 보통학교를 다닐 때 미술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18세 때 이당 以堂 김은호 金殷鎬, 1892~1979의 화숙에 입문하였다. 이곳에서 운보 雲甫 김기창 金基昶, 1913~2001, 월전 月田 장우성 張遇聖, 1912~2005과 동문수학했다. 김기창, 장우성과 함께 후소회 後素會에 참여하여 중앙화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44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성지 城址의 황혼 黃昏〉이라는 작품으로 입선하였으며 이후 국전에도 입선하는 등 전업 화가로서 화명을 알렸다. 하지만 이후 전람회 등에 출품하지 않고 전주에 내려와 후진 양성과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였다. 전주시 문화상과 전북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종현은 산수, 화조, 영모, 인물 등 다양한 화목을 다루었다. 특히 산수화 중 겨울 산을 배경으로 한 한적한 농촌의 풍경을 잘 그렸다. 그의 실경산수는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취향이 잘 나타나는 화재 畵材를 선택하여 사실

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의 설경은 눈 쌓인 들판에 몇 그루의 눈에 덮인 나무와 그 뒤로 가옥 몇 채가 그려져 있고, 전경에는 뿔감을 짚어지고 눈길을 헤치며 걸어가는 인물을 그려 넣어 목가적이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주로 담았다. 이 외에도 금강산의 사계를 그린 작품이 대표적인데, 전체적인 구도나 표현에서 이당 김은호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실경산수의 맛을 살리려고 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한 벽천 나상목의 채색화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수묵산수화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산10폭〉,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130×32.5cm, 1957, 개인, A-육선 제공

김중호 金仲祐

호 추수 秋水 생몰년 20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중호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추수 秋水이다. 여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듯 여수 진남관에 남아있는 〈여수 공립보통 표지석〉의 글씨를 썼다. 그의 스승은 석우 石友 김상현 金象絃, 1854~1919이며, 제자로는 일정 一丁 정우종 鄭祐宗, 1938~1993이 있다.



〈여수공립보통학교 흔적〉

김지수 金地粹

호 태천 苔川 생몰년 1585~163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지수는 조선 중기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본관은 의성이다. 자는 거비 去非, 호는 태천 苔川, 태호 苔湖, 천태산인 天台山人이다.

1616년(광해군 8)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교서관교감 校書館校勘에 올랐다.

1617년 기자헌 奇自獻·이항복 李恒福·이원익 李元翼 등이 이이첨 李爾瞻이 제기한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생모 인목대비 폐모론을 강력히 반대해 회령·경원으로 귀양갈 때 김지수도 부령으로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국이 바뀌자 귀양에서 풀려나 정자 正字 및 예조·병조의 낭관 郎官을 지냈다. 1626년 서장관이 되어 정사 김상헌 金尙憲을 따라 명나라에 가는 도중 평양의 부벽루에 제 題한 시를 보고 감탄하여 연로에서 시를 수창 酬唱하였다. 이를 엮어 『조천록 朝天錄』이라 하였는데, 이를 본 명나라 사람들이 경모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사헌부의 지평 持平·장령 掌令을 거쳐, 시강원의 문학·필선 弼善·보덕 輔德이 되어 세자를 가르쳤다. 1628년 종성부사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때 송광유 宋光裕의 무고한 옥사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자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 고부 古阜로 돌아갔다. 시와 그림에 능하였다. 저서로 문집 『태천집 苔川集』 3권이 있다. 시호는 정민 貞敏이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고부의 도계서원 道溪書院에 제향되었다. 1935년에 발간된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태천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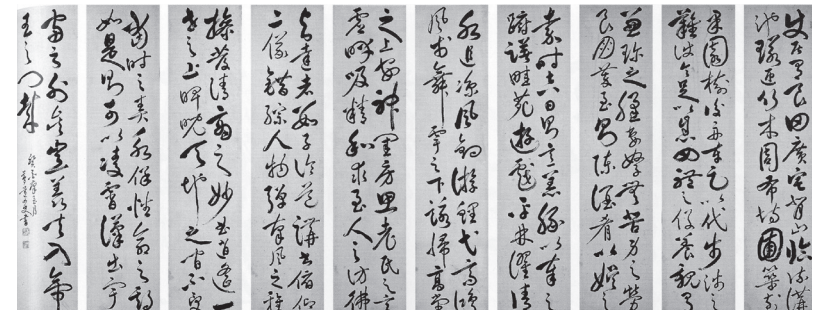
김진민 金璿珉

호 몽연 夢蓮 생몰년 1912~199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진민은 근대기 전라북도에서 활동했던 여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호남의 갑부 가산 迦山 김수곤 金水坤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의 호는 몽연 夢蓮, 불하 不暇, 불하자 不暇子라 하였다.

김진민은 어릴 때부터 한학과 서예교육을 받았다. 부친은 딸이 글씨에 소질을 보이자 당대 최고의 서화가였던 성당 惺堂 김돈희 金敦熙, 1871~1936을 초빙하여 학문과 서예를 사사받게 하였다. 또한 이당 以堂 김은호 金殷鎬, 1892~1979 화백 등 많은 문인 묵객들과 교유하며 서예 이론과 실기를 연마하였다.

11세에 백양사 우화루 雨花樓 편액을 썼다. 이 편액에는 ‘불하당 不暇堂’이라는 호를 썼다. 12살 때인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당시 唐詩〉 행서를 출품하여 선전 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으로서 입선하였다. 4회부터 10회까지 꾸준히 입선과 특선을 하였다. 선전에 출품할 무렵부터 김진민은 호를 몽연이라 하였다. 선전 제3회 12세 때부터 제10회 20세 때까지 총 16점을 출품하여 4등상 1점, 특선 6점, 입선 9점을 수상하여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선전에 서예부가 없어지자 더 이상 출품하지 않았다. 그는 주로 사찰의 편액이나 비문 등을 많이 남겼다. 1935년에 쓴 금산사 미륵전의 대자보전 大慈寶殿 편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초서10폭병》, 종이에 먹, 각 폭 84×33.5cm, 개인

태인 김재일 기적비문이 있고 부안 월명암 등에 많은 유묵이 있다고 하며, 속리산 법주사 미륵불상 복장에 금강경을 써서 넣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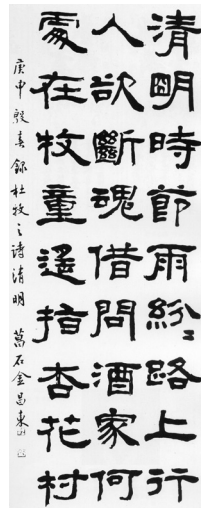
황산곡 서체를 근간으로 자신의 독특한 서체를 구사하였던 김진민은 10대부터 20대까지 서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30대 이후에는 활동이 끊겨 잊힌 서예가로 남아있었다. 『전북예술약사全北藝術略史』를 쓴 이용엽에 의해 그의 문헌 자료들이 상당히 알려졌다.

김창동 金昌東

호 창석 蒼石 생몰년 1947~2019 출생·활동지역 전남·서울 분야 서예

김창동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구한말의 한학자이자 서예가 고당 顧堂 김규태 金奎泰의 일곱째 아들로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여승 汝承, 호는 창석 蒼石, 방장고택 方丈古宅, 구룡서실 九龍書室, 남한산인 南漢山人, 대모현대 大母軒 등이다. 유년 시절 아버지인 고당으로부터 한학과 글씨를 배운 그는 광주의 송곡 松谷 안규동을 사사한 뒤, 서울로 가서 일중 一中 김충현 문하에서 공부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하였으며 창석서예원 蒼石書藝院을 운영하였다. 2016년 9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석 김창동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초서천자문』, 『에서 천자문』 2종의 천자문을 출간하였다. 김창동 타계 후 유족은 그가 필생 써 모은 육필 서예 작품과 필가 筆架, 지필묵 紙筆墨 등 유품 250여 점을 화엄사華嚴寺 성보박물관 聖寶博物館에 기증하였다. 2020년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창석 김창동 특별전을 열어 그의 작품과 유품을 일반들에게 공개하였다. 김창동은 각체의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예서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다.



〈에서 두목시 정명〉

김천두 金天斗

호 소천 小天 생몰년 1928~2017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김천두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광산 光山으로 본명은 김석중이며, 호는 소천 小天이다.

김천두는 유년 시절 김광흡 金光治, 1684~1752이 세운 서실 書室 유천재 柳川齋에서 한서와 시·서·화를 수업했다. 한학자인 다초 茶樵 위복량 魏福良, 1897~1979과 잠계 潛溪 백형기 白亨幾, 1881~1948 문하에서 학문과 서예를 익혔다. 그때에 왕희지체와 구양순, 황산곡, 추사체를 그의 서예의 규범으로 삼았다.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 규슈 九州대학 문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유학 중 일본 다케우치사부로 竹內三郎 미술학교를 다녔다. 1952년부터 1953년까지 금강제도공사 미술부 부장을 지냈다. 국내에 돌아와서는 1954년부터 의재 허백련과 동생인 목재 허행면, 그리고 목포의 남농 허건 등을 사사했고, 1956년부터 서울의 월전 장우성에게서 인물, 화조 등을 사사 받았다.

1961년부터 국전에 참여하여 7회 입선하였다. 여러 초대전과 미술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각종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개인전을 39회 가졌을 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대표작으로 1967년 작 〈추경산수 秋景山水〉를 비롯해 1966년 작 〈추일농가 秋日農家〉, 1969년 〈월하범영 月下帆影〉, 1970년 작 〈산운 山韻〉,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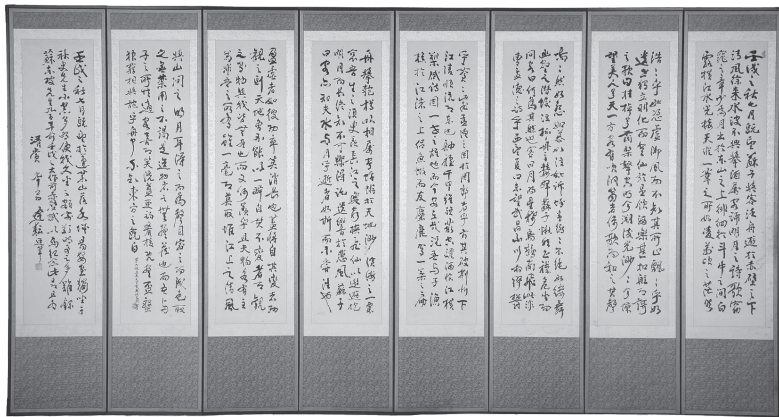
〈산중수복(山重水復)〉, 1981년, 종이에 수묵담채, 132×120cm, 소천화실

작 <구룡봉九龍峰>, 1978년 작 <십리평호十里平湖>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소천 한시집』, 『詩·書·畫 삼절과 남종화 이론』 등을 남겼다. 소천 김천두는 차남 김선두가 중앙대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3남 김선일이 한국 산수화의 대표작가로 주목받고 있고, 김선두의 아들 김중일도 동양화의 길을 걷고 있어 3대가 화가의 맥을 잇고 있다.

김철수 金鐵洙

호 지운 遲耘 생몰년 1893~198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김철수는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만년에 서예가로 활동하였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했으며 호는 지운 遲耘이다. 1912년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과 전문부에 입학하여 이 무렵 사회주의를 접하였다. 유학 시절 재일유학생들과 잡지 『학지광學之光』을 만들고, 단지동맹을 결성하였다. 1919년 재일유학생들에 의해 결행된 2·8독립선언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20년에는 '사회혁명당'을 결성하였고, 중국, 소련 등에서 활동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10년형을 살기도 하였다. 해방 후 혼란 속에서 그는



《적벽부 병풍》, 종이에 먹, 개인

'사회노동당'을 창당하고 좌우익의 가교역을 자임하였으나 1947년 '사로당'이 해체되자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은퇴 후 그는 고향 부안에 지운당 遲耘堂을 짓고 의재 허백련, 오지호 등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하였다. 김철수에게 허백련은 늦게나마 고향에 내려와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지운 遲耘'이라는 호를 주었다. 전문서예가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김철수의 서예작품은 상당수 전하며, 몇 차례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중 2021년 의재 미술관 문향전의 일환으로 열렸던 지운 김철수 서예전에 《적벽부팔폭병풍赤壁賦八幅屏風》을 비롯하여 <국화>, <증별인贈別人>, <모란牧丹> 등 허백련의 시를 쓴 작품이 있고, 당나라 시인 유우석 劉禹錫의 <누실명陋室銘>, 노동 盧仝, 795~835의 <다가茶歌>, <난지귀하蘭之貴何> 등 작품들을 출품하였다.

지운 김철수 서예는 개성 있는 필치가 돋보이며, 또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서 드물게 1986년까지 생존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의 산증인이었던 인물의 서예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태석 金台錫

호 성재 惺齋 생몰년 1874~1951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 분야 서예·전각

김태석은 근대의 서예가이자 전각가이다. 서울 출신으로 본관은 낙안 樂安, 자는 공삼 公三, 호는 성재 惺齋이다. 서울과 전라북도 등에서 활동하였다. 김태석은 대한민국 국새 1호의 인고 印稿를 작성하였고, 중화민국의 임시 초대 총통을 지낸 위안스카이 袁世凱의 옥새를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새 1호〉,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김태석은 전문 기술관을 세습한 중인 가문에서 태어나 30세에 궁내부 통신사 전화과 주사를 시작으로 궁내부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한때 평장군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35세에 궁내부 미술 시찰 위원으로 일본을 잠시 다녀온

뒤 바로 청으로 건너가 20년 가까이 중국의 인주국印鑄局 관원으로 활동하다 귀국하였다.

김태석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역관 출신인 소당小棠 김석준金奭準, 1831~1915에게 배웠다. 헌종 때 신위申緯와 조두순趙斗淳이 편집하여 만든 인보印譜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에 찍힌 인장들이 대한제국기에 화재로 소실되자 그 모각본을 제작하는 사업에 참여하였다.

1908년(융희 2)에는 궁내부 미술 위원으로서 일본 궁내성 시찰관으로 파견되었을 당시 『승사인보乘槎印譜』를 제작하였고, 같은 해 가을에 청에 파견되었을 때에는 『청유인보淸遊印譜』를 제작하여 영인하였다. 신해혁명(1911) 후에는 중화민국 국무원 인주국에 근무하며 임시 초대 총통으로 있던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인장을 다수 새겼고, 1928년에 중국에서 귀국하여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약 10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남유인보南遊印譜』를 제작하는 한편 전주와 김제 출신의 이광열李光烈과 최규상崔圭祥 등에게 전서와 전각으로 영향을 끼쳤다.

1938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귀국하기까지 제일 체류 시기에 『동유인보東遊印譜』를 제작하였고, 귀국한 뒤 1946년에는 전국 단위의 서예 조직체인 '대동한묵회大東翰墨會'를 결성하여 활발한 서단 활동을 펼쳤다.

저서로는 1909년에 청 연경에서 습자習字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김성재사체서법金惺齋四體書法』이 있으며 『승사인보乘槎印譜』, 『청유인보淸遊印譜』, 『남유인보南遊印譜』 등 다수의 인보를 남겼다.

김한규 金翰圭

호 하정 荷汀 생몰년 1889~198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김한규는 근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완주에서 한학자인 가석可石김용태金溶泰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하정荷汀이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한문학과 글씨를 배웠고,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등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1916년 익산에 북신서당北新書堂과 1920년에는 사립 계문국민학교를 설립하여 1944년까지 교장을 역임하였다. 1946년에는 기독교 장로로 이리중학교를 설립하였고, 1951년에는 지역 유지들과 더불어 북창교회 내에 대성학원을 설립하였다. 그해 이리 농과대학(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설립위원회 회장직을 맡아 농과대학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문과 서예에 능하여 다섯 차례 서예전을 가졌으며 『하정설교집荷汀說教集』 등의 저서를 남겼다. 그림은 신선도나 도석인물화를 잘 그렸다. 인물의 배경으로 노송이나 기암절벽 등을 잘 그렸고, 폭포나 갈대 등을 표현하여 웅장하고 기이한 화면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행서〉, 종이에 먹, 124×34cm, 개인

김한영 金漢永

호 현당 玄堂 생몰년 1914~1988 출생·활동지역 광주·서울 분야 회화

김한영은 근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호는 현당玄堂이다.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933년에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1892~1979 문하에서 그림을 공부하였으며 이후 김기창, 안동숙, 장우성 등과 함께 후소회後素會 회원으로 활동했다.

1939년 조선미술전람회 제17회와 1940년 제18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1974년에 광주로 내려와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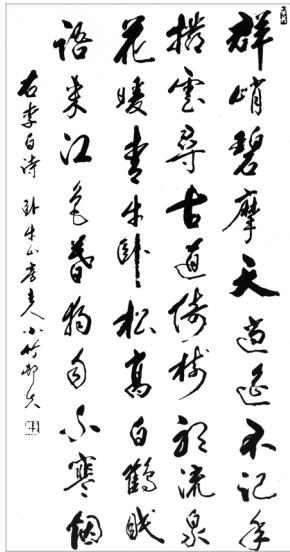
〈노안도(蘆雁圖)〉, 1971년, 종이에 수묵담채, 90×121cm, 개인

동하면서 전남미술대전 등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동시에 미협전美協展과 후소회전後素會展에도 참가하였다. 1984년에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김한영은 남화 계통의 인물이나 질박하고 야일한 분위기가 감도는 작품을 주로 그렸으며 호남의 전통 남종화 흐름과는 다른 느낌의 작품 활동을 하였다. 신선도, 기명절지와 영모도, 화조도, 신선도 등에 능했다. 김한영의 노안도와 기명절지도는 활달한 붓놀림과 함께 먹색의 변화를 섬세하게 다룬 작품으로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현장 金炫漳

호 소죽 小竹 생몰년 1917~1981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행서 이백시〉

김현장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으로 호는 소죽小竹이다. 김현장은 강진의 지주로 1933년 이당 김은호를 초청하여 김제진과 아들 김방식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였다. 김은호가 초상화를 그리고 있던 때에 친구인 의재 허백련과 심향 박승무가 강진에 내려와 이당은 참새를, 의재는 대나무를, 심향은 바위를 함께 그린 합작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김현장의 딸 향설당香雪堂 김승희金承喜, 1940~가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그림을 배워 화가로 활동하였다.

김현장은 1938년 일본법과대학 법과를 졸업하였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힌 서예를 평생 연마하였다. 활쏘기에도 능하여 당시 사수로 이름이 났었는데, 1964년 강진을 남성리에

지는 양무정陽武亭을 지을 때 기금을 희사하기도 하였다. 강진에 살면서 고려청자재현위원, 다산초당복원위원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1973년에는 김현장과 향설당 김승희가 합동으로 부녀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김형교 金炯嶠

호 소하 小荷 생몰년 20세기 초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형교는 20세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구례 출신이다. 본관은 금녕金寧이며, 호는 소하小荷이다. 생애나 활동에 대해



〈봉덕정〉 현판

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그의 작품으로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 동쪽 기슭에 있는 활터인 〈봉덕정鳳德亭〉 현판이 있다. 1924년 세워진 봉성루鳳城樓를, 1933년 김광훈·김재호·고광수 등이 주축이 되어 사정을 신축하면서 봉덕정鳳德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외에도 〈예서〉, 〈행서〉 작품들이 전한다.

그는 서체書體가 창건蒼健하고 필법筆法이 정교精巧하여 수용풍발水湧風發-물이 용솟음치고 바람이 일어남한다는 평을 들었다.

김홍주 金洪柱

호 소방 小舫 생몰년 1864~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김홍주는 19세기 후반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호는 소방小舫이다. 추사 김정희의 문하생으로 화명을 떨친 미방米舫 김익로金益魯, 1845~1915의 큰아들이다. 일찍이 산수화를 잘 그렸던 부친으로부터 그림을 배웠고, 소치小癡 허련許鍊을 사사하였다. 사군자를 잘 그렸으며, 글씨는 행초서에 능했다. 추사체를 따라 쓰기도 하였다.

현재 전하는 작품 중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목모란도>는 괴석과 함께 모란을 그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먹을 변화 있게 잘 사용하였고 상단에 쓴 화제시의 글씨체도 능숙하여 상당한 수준의 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화제시 아래 '소방小舫'이라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있다.

<목모란도>와 같은 인장이 찍혀 있는 순천대학교박물관 소장 <노송도>도 김홍주의 작품으로 글씨체가 같다. 목모란이나 노송 등 문인화 화제를 즐겨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홍주의 작품에 쓰인 화제를 동생인 김환주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으며 필치가 유사한 점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함께 활동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전남대학교박물관 소장 《십군자십폭병풍十君子十幅屏風》이 전한다.



<목모란도>, 종이에 수묵, 140×30cm, 목포대학교 박물관

김홍현 金泓炫

호 소완 素阮 생몰년 1903~198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김홍현은 근현대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 호는 소완素阮이다. 고흥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 제1고보를 다닌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 농대에서 공부하였다. 학교 전공과는 별개로 어려서부터 서예를 배웠고, 추사 김정희의 서체를 좋아하여 이를 공부하였기에 추사체 서예가로 유명하다.

김홍현이 서예를 배우게 된 것은 거제 출신 서예가 성파星坡 하동주河



<행서>

東州, 1896~1944의 영향이다. 진주에서 활동하던 하동주는 1916년 어느 날 진주민란을 피해 고흥에 들어왔는데, 당시 김홍현의 부친 김상익의 사랑채에 식객으로 거주하면서 어린 홍현에게 글씨를 가르쳤다. 성파 하동주가 거제에서 유명한 추사체 서예가였던 만큼 김홍현이 배운 서체도 추사체를 주로 하였고, 이후 추사체 서예가로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김홍현은 고흥에서는 서예가로서 크게 알려지지도, 또 전시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해방 후 그의 친구들이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어주었고, 경기도 동창들이 주선하여 미국에서 뉴욕서예전을 열기도 하였다. 김홍현의 작품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미국에 사는 장녀의 소장품이 다소 전한다. 그의 예술적 기량을 이어 여섯째 아들인 김을^{1954~}이 홍익대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호 金灝

호 벽강 碧岡 생몰년 1922~198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모선문(慕先門)>, 장홍 위씨 고택

김호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호는 벽강碧岡이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활동했다. 아버지가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鈺, 1901~1960이며 아들은 목원 김

구이다. 서예가인 유당惟堂 정현복鄭鉉福, 1905~1973을 사사했다.

김호는 순천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순천 최초의 서예원을 개설하였다. 문인화가 정응균, 목인 전종주, 우보 김병규 등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대한민국전람회에서 특선 1회, 입선 13회를 했으며, 1980년 동덕미술관에서 벽강 김호 서예전을 개최했다.

장흥 용산면 계산리 사월재沙月齋와 장흥읍 평화리 하산사霞山祠의 액호 편액을 썼다. 행서와 예서를 비롯한 작품이 남아있으며 <목죽도>가 전한다.

김화래 金和來

호 오죽헌 烏竹軒

생몰년 1943~202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김화래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오죽헌 烏竹軒이다. 그는 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부산 동아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지운 김철수의 손녀이기도 한 그는 사회주의자의 손녀라는 사정 때문에 일찍이 진로를 그림으로 정하였다. 13세때부터 광주 의재 허백련을 찾아가 서화를 익혔다. 조부인 김철수와 허백련이 일본 유학시절부터 친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당 김은호 화백을 사사하기도 하였다.



〈산의 심오함과 인간의 미미함〉, 종이에 수묵, 개인

19세때인 1964년 제13회 국전에 〈목란〉으로 입선한 후 제16회에서는 〈야국〉으로 특선을 하는 등 국전에서 11차례에 걸쳐 입상을 하였다. 1980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백산고등학교 미술교사와 가전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지냈다.

김화래는 전반기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전통문인화의 정수를 이어 사군자와 문인화를 주로 하였고, 중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수묵담채로 공작, 학, 닭 등 조류를, 후반기에는 마음속에 그리던 수묵산수, 인물, 누드, 동물 등을 주로 그렸다. 김화래의 화풍은 오랫동안 연마했던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응용하여 문인화의 현대화를 추구하였다.

김환주 金煥柱

호 난원 蘭院

생몰년 1877~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김환주는 19세기 후반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호는 난원 蘭院 혹은 난재 蘭齋이다. 추사 김정희의 문하생으로 19세기에 활동한 미방 米舫 김익로 金益魯, 1845~1915의 작은 아들이자 소방 小舫 김홍주 金洪柱, 1864~미상의 동생이다. 그의 작품은 전라남도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비해 상당한 필력을 보인다.

호남지방문헌연구소 소장 《문인화 10폭》은 그의 묵화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오동, 매화, 난, 모란, 파초, 연, 백합, 국화, 소나무, 대나무를 그린 이 작품에는 각각의 폭에 소재에 어울리는 화제를 쓰고 '김환주 인 金煥柱印'이라 새긴 네모난 음각 도장과 '난재 蘭齋'라 새긴 양각 도장이 찍혀 있다. 묵법이나 필법에 있어서 형인 김홍주와 유사할 뿐 아니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남도에서 유행했던 문인화풍의 일면도 보인다.



〈문인화 10폭〉, 종이에 수묵, 각 폭 106×36.5cm, 호남지방문헌연구소

김희순 金熙舜

호 유당 酉堂

생몰년 1886~196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김희순은 근현대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본관은 김해 金海, 호는 유당 酉堂이다. 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어려서 부



〈목난도〉〈목죽도〉, 종이에 먹, 125×52cm, 전북도립미술관

친으로부터 한학과 서화를 익히고 벽하齋 조주승趙周昇, 1854~1905에게 서화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이때 함께 수학한 화가가 효산曠山 이광열李光烈, 1885~1968이다. 산수, 화조, 사군자 등을 다양하게 그렸다. 특히 사군자를 잘 그려 1924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였다. 제4회에 〈묵란墨蘭〉으로 4등상을, 5회에서 12회

까지 주로 사군자로 입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1929년 제9회 서화협회전에도 출품하는 등 중앙화단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꾸준한 활동을 하였다.

김희순은 1930년 3월 전주공회당에 변관식卞寬植·이경배李慶培 2인전을 유치하여 다른 지역 서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5년에는 이광열, 설송 최규상과 함께 이광열의 전주 다가동 자택에 전주 서화가 모임 겸 서예학원의 효시인 한묵회翰墨會를 개설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또한 허백련은 물론, 김은호·이상범·변관식·박승무 등과 폭넓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들과 함께 그린 합작도도 많이 남겼다.

이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한 후, 1959년부터 추천작가로 활동하는 등 호남과 전주지방의 서화 활동에 큰 기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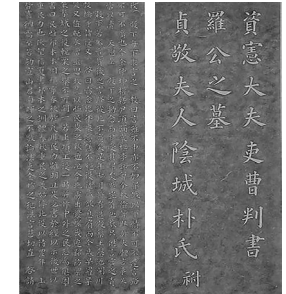
나갑순 羅甲淳

호 이운 怡雲 생몰년 1885~194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나갑순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호는 이운怡雲이다. 본관은 나주이다.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고 유재 송기면, 동년배인 효산 이광열 등과 함께 활동하며 각기 개성 있는 예술세계를 펼쳐나갔다. 그 후 간재長齋 전 우田愚, 1841~1922를 만나 학문의 폭을 넓혔

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그가 찬하고 쓴 묘비명이 곳곳에 남아있다. 검산劍山の 〈흥학당중건상량문興學堂重建上樑文〉도 그가 찬하고 글씨를 쓴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비문을 보면 구양순 풍의 해서와 한나라 예서 필의에 가까운 예서를 볼 수 있다. 이외에 자신이 찬한 글을 모아 놓은 『이운수록怡雲隨錄』과 『이운과록怡雲課錄』 등의 필사집이 전한다.



〈나옹삼묘비명〉, 탁본, 25×20cm, 개인

나상목 羅相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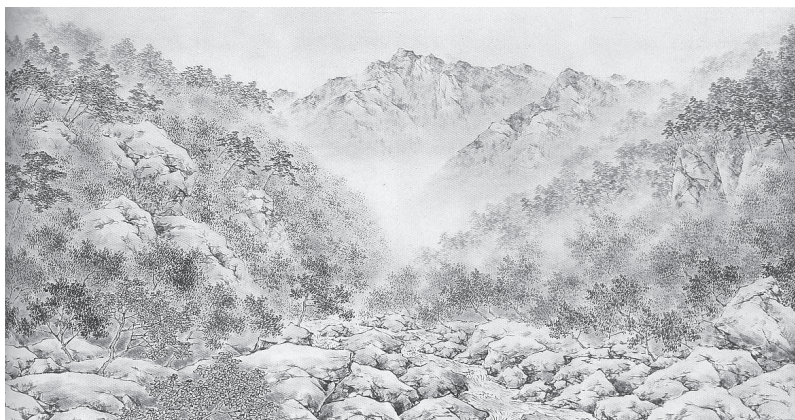
호 벽천 碧川 생몰년 1924~199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나상목은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호는 벽천碧川이다. 김제 중앙보통학교와 이리(지금의 익산) 농림학교 농업과에 진학하였다.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독학으로 한국화 기법을 스스로 익혔다. 모교인 이리 농림학교에 미술 교사로 부임하면서 미술교육가이자 화가로서 활동하였다. 1949년 이리 매일신문사 후원으로 모교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하며 화명을 알렸다. 1951년 한국전쟁으로 전주에 피난 왔던 묵로墨鸞 이용우李用雨, 1902~1952

에게 1년 정도 임모臨幕, 모사, 사생 등의 전문적인 회화 수업을 받았다. 1952년 김제여고 미술 교사를 지내며 개인전을 열었다.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작품 2점을 출품하여 입선하면서 1957년까지 국전에서 특선을 하였고 국전의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 1967년부터는 국전 심사위원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다. 1975년부터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를 지냈다.

나상목은 1958년 전라북도 출신 동양화가들의 연목회繼墨會 전시회와 전북 동양화 합동전을 개최하였고, 1967년에는 전라북도 미술전람회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이후 주로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지역 미술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라북도 미술상(1957), 대한민국 사회교육문화대상(1980), 남산문화상대상(1982), 국민훈장 석류장(1989) 등을 받았다.

나상목은 주로 향토적 실경을 그렸는데 금산사, 설악산 등의 정경을 마치 실제 경관을 보는 듯한 구도와 표현법으로 담아냈다. 특히 얇은 담채에 윤치 있는 간결한 구도와 부드럽고 습윤한 감각이 느껴지는 필법으로 남도 지역 특유의 온화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리산 한신계곡〉, 1986년, 종이에 수묵채색, 94×184cm, 개인

나세찬 羅世瓚

호 송재 松齋 생몰년 1498~1551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서예

나세찬은 16세기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금성錦城이며, 자는 비승丕承, 호는 송재松齋이다.

1524년(중종 19) 초시에 합격하였고, 1525년(중종 20) 사마시에, 1528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나주·황주의 훈도訓導, 성균관학유를 거쳐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534년(중종 29) 정시庭試에서 지은 예양禮讓에 관한 책문策文 내용에서 권신 김안로金安老 등의 전횡과 비리를 통박한 것이 문제가 되어 김안로 일파의 탄핵을 받고 고성固城에 유배되었다.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다시 예문관 봉교 겸 춘추관기사관에 복직되었다. 1538년(중종 33) 불시에 시행한 입시과거시험인 탁영시擢英試 문과 증시에서 장원급제하여 문명을 떨쳤고, 이후 수년 간 병조정랑, 홍문관의 수찬, 승정원동부승지 겸 경연삼찬관, 성균관대사성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대사간재직시 백인걸白仁傑, 유희춘柳希春, 정황丁煥 등의 구제 상소를 올렸다가 체직당했다. 1546년 사헌부대사헌이 되었지만, 권신 이기李璣와의 알력으로 일시 면직됐다. 뒤에 한성부우윤으로 문소전文昭殿에 인종을 부모祀廟하려다가 전주부윤으로 좌천되어 재직 중 병으로 죽었다. 두 차례의 장원급제로 문명을 떨쳤으며, 권신을 서슴지 않고 탄핵하는 기개가 있었다. 나주의 송재사松齋祠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송재선생유고松齋先生遺稿』 4권이 있다. 시호는 희민僖敏이다.



〈유묵 묵판〉, 1927년, 23.5-29.7×43.8-53.2cm

그의 서예 자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송재사에 소장된 유묵 목판 24매가 남아 있다. 이 목판들은 특정 서체에 국한되지 않고 해서, 행서, 초서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기 지정된 유묵 목판과의 비교 연구 자료로도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남궁훈 南宮勳

호 석정 石丁 생몰년 1929~1984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남궁훈은 근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호는 석정 石丁이다. 학교 서예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하였는데, 그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윤효중이 그에게 그림 그릴 것을 추천하여 윤효중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 후 남궁훈은 벽천 碧川 나상목 羅相沐, 1924~1999을 만나 지도를 받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심산 心汕 노수현 盧壽鉉, 1899~1978과 제당 齋堂 배렴 裴濂, 1911~1968에게 다년간 지도를 받았다. 이때 그는 남종문인화풍의 산수화를 주로 그렸으며, 산과 물, 그리고 바위와 들, 구름 등의 소재를 즐



〈철쭉〉. 종이에 수묵담채, 33x47cm, 1979년, 개인

겨 다루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교내 미술대회에서 최고상인 문교부장관상과 총장상을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국전에서 연 5회 입선하였다. 1955년에는 서울미술대전 최고상을 받았으며, 1982년에는 전북문화상을 수상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1960년에 창립된 묵림회 墨林會에서 활동하며 동양화의 순수한 전통정신을 견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현대의 형식을 추구하고자 했다. 1969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이 창설되자 교수로 취임하여 1984년까지 재직하였다. 조선일보사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20여 회의 초대전을 가졌으며,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수차례 열었다.

1970년대부터 그는 한국의 현실적 풍경을 사생풍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산수를 주로 소재로 삼았다. 대표작으로는 〈산수〉, 〈설경〉 등이 있으며 전북도립미술관과 고창판소리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남한철 南漢哲

호 세심 洗心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남한철은 순천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의령이며, 사천 沙川의 수령을 지낸 을주 乙珠의 후손이다. 자는 관일 冠一, 호는 세심 洗心이다. 『조선환여승람』에 의하면 “성품이 강직하고 재예가 탁월하며 풍취가 있었다.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고, 진사 박문회체 글씨를 잘 써서 이름이 있었다.”고 하였다.

만공 滿空

호 만공 滿空 생몰년 1871~194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만공은 근현대기의 승려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본관은 여산 송씨 礪山宋氏이며 속명은 송도암 宋道巖이다. 법호는 만공 滿空, 법명은 월

면月面이다. 경허鏡虛 선사의 제자이다.

1883년 공주 동학사東鶴寺로 출가하여 진암眞巖 문하에서 행자생활을 하였다. 공주 마곡사麻谷寺 토굴에서 보경普鏡과 함께 계속 수도하다가 경



〈세계일화〉, 수덕사

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경허를 따라 서산 부석사浮石寺와 부산 범어사의 계명암雞鳴庵 등지에서 수도하였다. 1937년을 전후하여 잠시 마곡사의 주지를 맡았던 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애를 예산 덕숭산에 머물렀다. 말년에는 덕숭산 상봉 가까이에 전월사라는 초암을 짓고 생활하였다. 이곳에서 선을 지도하면서 선불교를 중흥시켜 현대 한국불교계에 큰 법맥을 형성하였다.

1927년에 지은 「현양매구懸羊買狗」라는 글의 끝에 자신을 ‘임제32대 만공臨濟三十二代滿空’이라 하여 그의 지도방법이 임제종풍을 계승한 것임을 밝혔다. 사후에 『만공어록滿空語錄』이 나왔다. 제자로는 비구 보월寶月·용음龍吟·고봉古峰·서경西耕·혜암惠庵·전강田岡·금오金烏·춘성春城 등과 비구니 법희法喜·만성萬性·일엽一葉 등이 있다.

만공은 글씨에 능했는데, 계송을 적은 필적이 많이 남아 있다. <내금강마하연內金剛摩訶衍>의 해행楷行에서는 가는 필획을 구사하였는데 강철 같은 강인함이 엿보이며, 결구에서 관서와 조밀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비범한 경지를 발휘하였다. <세계일화世界一花>는 자유분방함과 함께 붓끝의 예리한 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서체이다. 서산 간월암에 현판 글씨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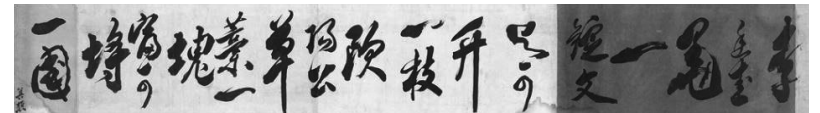
모수명 牟受明

호 기산箕山 생몰년 18~19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모수명은 조선 후기~말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함평 출신으로 호남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본관은 함평이며, 호는 기산箕山, 기초箕樵이다. 초서와 해서에 뛰어났다. 18~19세기에 활동하였지만 생몰년은 불분명하다. 그의 활동상이나 행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모수명은 창암 이삼만李三晩, 1770~1845에게서 해서와 초서를 배웠다. 만년에는 호남과 호서지방을 두루 다니며 서법을 가르쳤다. 서법을 익히는 기간을 3개월씩 단계를 정하고 그동안 가르친 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2백금의 사례를 받았다고 하며, 이때 3개월 내에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만년에 그의 필체를 ‘모체牟體’라 하였다.

모수명의 서맥은 전라북도에서는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8~1993과 성재醒齋 황방연黃邦衍으로 이어지며, 전라남도에서는 박문회林文會와 설주雪舟 송운 회宋運會, 1874~1965, 송곡 안규동安圭東, 1907~1987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서풍은 다시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조용민, 조기동, 이주연, 이돈흥, 정광주 등으로 이어졌다.



〈행초서 시고〉, 종이에 먹, 26.5×187cm, 미술관 슐

문맹종 文孟種

호 송오 松塢 생몰년 19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문맹종은 19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본관은 남평이며 호는 송오松塢이다. 연당蓮塘 시묵始默의 아들이며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문인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초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문장호 文章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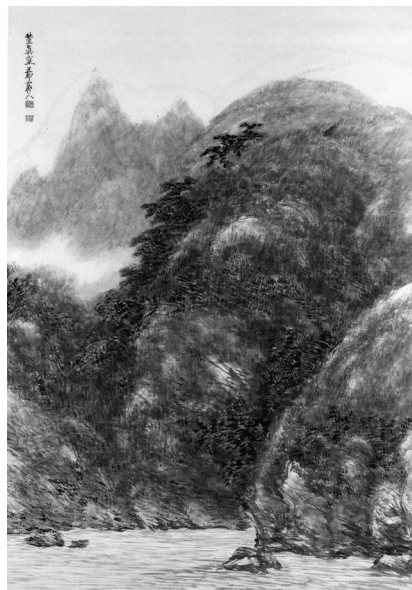
호 희재 希載 생몰년 1938~201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문장호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호는 희재希載이다. 어렸을 때부터 조부인 한학자 울산栗山 문창규文昌圭, 1869~1961에게 한학을 배웠다. ‘희재’라는 호도 조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1957년 광주로 나온 문장호는 목재 허행면에게 사군자를 배우면서 산수의 기초를 닦았고, 1959년부터는 의재 허백련을 사사하여 그의 대표적 제자로 꼽힌다. 그는 충실하게 스승의 필법을 익혀 전통남종화의 맥을 이으면서 현대적 감각을 수용하는 화풍으로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문장호는 허백련의 문하에 있던 1959년 제8회 국전에서 <분지유록盆池遊鹿>으로 입선한 후 국전에서

만 16번의 입선, 2번의 특선을 하였다. 1977년 국전 추천작가, 1981년 국전 초대작가가 되면서 작가로서 입지를 넓혔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1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특히 1977년 진화랑에서 40여 점의 실경산수 작품으로 개최한 전시회와 197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개인전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완성한 작가로 주목받았다. 허백련 사후 연진미술원이 설



<추운(秋雲)>, 1991년, 한지에 수묵담채, 96×69cm, 광주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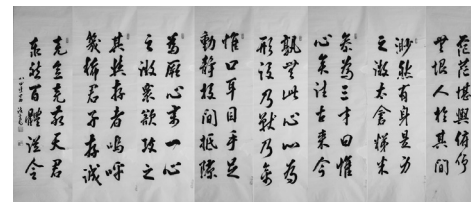
립되자 회장을 역임하였고, 1965년 삼희화실三希畫室을 열어 남종화의 전통을 후학들에 전했다.

문장호의 1950년대 화풍은 대체적으로 스승 허백련의 필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도 실경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며 1960년대에는 실경적인 요소와 남종화적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청묵법과 모아준법募冪法을 사용하여 실경을 근간으로 하는 사경산수를 그렸다. 1980년대 선보이기 시작한 ‘모아준법’은 선도 아니고 점도 아니면서 붓을 부셔서 필법을 구사하는 기법으로 이를 자신의 주요 준법으로 사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경향으로 자신의 화풍을 이루었다. 그의 화풍에 대해 최병식은 “관념과 실경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였고, 새로운 필법으로 독자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허백련을 잇는 호남 전통화단의 리더로서 그가 배출한 후학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그의 작품을 통해 1950년대 이후 남도화단의 변천사를 읽을 수 있다.

문태석 文泰錫

호 우당 迂堂 생몰년 1902~198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문태석은 근현대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다. 호는 우당迂堂이다. 본관은 남평으로, 삼우당 문익점의 후손이며, 문기호文基鎬의



<맹지구필묵>, 종이에 먹, 각 폭 135.8×35cm, 호남지방문헌연구소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같은 고장에 살며 활동하였던 설주雪舟 송운회宋雲會, 1874~1965의 문하에서 학문과 글씨를 배웠다.

처가 동네인 벌교에서 살다가 고향 울어 진천으로 들어와 평생 글씨를 쓰면서 제자 교육에 힘썼다. 해·행·초서를 모두 잘 썼다. 그의 문하에는 보성

미력의 조득승, 정철수, 겸백의 정익환 등 수많은 제자가 있다. 1987년 제자들에 의해 미력면 도개리 딱진개에 '우당 문태석 선생 강학비'가 세워졌다.

문흥록 文興錄

호 송농 松農 생몰년 1927~1978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회화

문흥록은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목포 출신으로 호는 송농松農이다. 주로 목포와 광주에서 활동하였다. 남농 허건 아래서 그림을 배웠다. 국전 2회부터 12회까지 입선 8회, 특선 2회, 무감사 1회 수상하였으며 호남화단의 중진화가로서 재야에서 활동하였다. 광주, 목포, 진주, 여수에서 각각 개인전을 가졌으며 산수, 화조, 인물을 즐겨 그렸다. 아들인 문인상이 화업을 잇고 있다.



〈하일(夏日)〉, 1957년, 채묵, 40×62cm

민경갑 閔庚甲

호 유산 酉山 생몰년 1933~201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민경갑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충청남도 논산 출신으로 호는 유산酉山이다. 원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1956년 국전에서 특선하며 등단하였다. 그 후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원광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후진을 양성했으며 상파울루와 중국, 프랑스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대한민국예술문화상과 은관문화



〈산〉, 2005년, 종이에 채색, 129.7×161.3cm, 영남대학교박물관

훈장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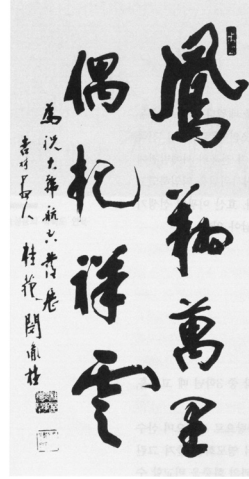
민경갑은 민족적 정서가 짙은 작업을 하며 독특한 발염법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였다. 대표작으로 〈얼〉, 〈생잔〉 등이 있다. 초기의 화풍은 발묵의 전개 속에 숲, 산, 복숭아 나무 등 전통적인 소재를 주로 다루었다. 1960년대에는 화면의 평면성은 줄이고 입체적인 형태감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는 초기에 많이 썼던 발묵과 번지기를 이용한 작품으로 회귀하였는데, 초기의 우연에 의한 과격성을 다듬어 절제된 미학으로 표현하였다.

민윤식 閔胤植

호 계원 桂苑 생몰년 1919~200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민윤식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호는 계원桂苑이다. 전주에 살면서 독학으로 한의술을 익혀 동양당 한약방을 운영하였다. 효산曺山 이광열李光烈, 1885~1966의 한묵회에서 서화를 배웠다. 한민서화회 회장으로 사재를 내 전라북도 지역 문화예술제인 풍납제 때 전국 최초의 휘호 대회인 '전국서화백일장전'을 열었으며 전라북도의 서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이 백일장전의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전주시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전시회도 여러 차례 가졌다. 스승인 효산 이광열 선생 기적 비문을 썼다. 추사체의 힘찬 필체로 쓴 글씨는 지금도 전국 곳곳에 걸려있다. 개인 소장과 화랑 등에도 많은 작품이 남아있다.



<행초>, 종이에 먹

민일호 閔一鎬

호 두남 斗南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민일호는 광주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흥이며, 호는 두남斗南이다. 현재 알려진 작품은 없으나 『조선후남지』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민제익 閔濟益

호 경은 耕隱 생몰년 17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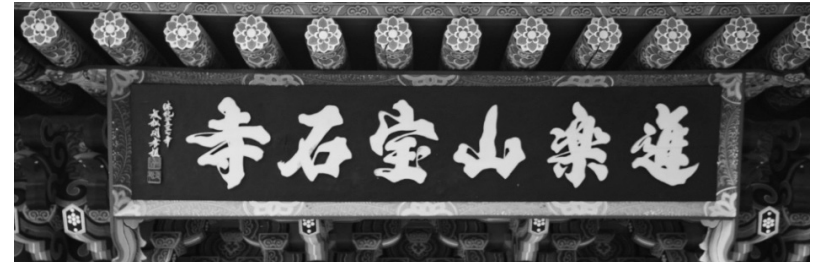
민제익은 17세기 문인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능주, 지금의 화순 출신으로 본관은 여흥이다. 호는 경은耕隱이며, 병자호란 때 의병활동을 한 월파月坡 팽령彭齡의 손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민효식 閔孝植

호 우송 友松 생몰년 1926~2012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민효식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는 우송友松이다. 근원 구철우를 사사하였다. 여러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미술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광주 대의동에서 우송 서예학원을 운영하였다.

민효식의 작품은 상당 수 전국 유명사찰의 현판글씨로도 남아있다. 태화산 마곡사 <매화당梅花堂> 현판, 하동 쌍계사 일주문과 <금강문 주련>,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진악산 보석사의 일주문 현판 <진악산보석사進樂山寶石寺> 등도 민효식의 작품이다.



<진악산보석사> 일주문 현판

박규환 朴奎皖

호 표원 表園 생몰년 1868~191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박규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문인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출신으로 자는 향집鄉執이며 호는 표원表園이다. 박규환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으며,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 문하에 입문하여 글씨와 문인화를 공부하였다. 같은 스승의 문하에 있었던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 1854~1903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박규환은 문인화에 두루 능통하였는데, 특히 서예와 사군자에 뛰어났다.

그의 묵매화는 주로 담묵을 위주로 한 고풍스러운 형태를 보여주며, 다양한 구도로 표현 방법을 달리하며 화면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유려한 필치의 화제가 어울려 고졸미를 더하였다.

대표작인 《문인화이곡병》의 〈오동도梧桐圖〉화제에서 “임금을 위하여 가지는 높고 긴데, 봉황이 그 위에 날아 온다. 한 번 우니 임금의 영화가 나고, 명이 산과 더불어 같을 수 없구나 爲君長高枝 鳳凰上頭鳴 一鳴君葛華 壽與山不傾.”와 같은 화제書題에서도



《문인화이곡병》, 종이에 먹, 각 폭 88×29.5cm, 개인

알 수 있듯 괴석怪石과 매梅, 난蘭, 죽도竹圖에서 문인화적인 선비의 기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 소장 무리지어있는 여러 난의 〈목란도〉에서는 다양한 구성과 난 잎의 유려한 필치가 돋보인다.

박득봉 朴得鳳

호 효강 曉崗 생몰년 1920~199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박득봉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호는 효강曉崗이다. 정읍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였고, 고창의 덕헌德軒 정익환鄭益煥에게 서예를, 의재 허백련에게 문인화를, 서예가 강암 송성용으로부터 해서를 배웠다. 전북도전 입선 5회, 1975년과 1980년에 특선 2회, 1975년 국전 입선을 하였다. 수 차례 개인전과 초대전 등을 하였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며 1986년 국가문화예술 창달유공문공부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음악·서예 등 예술 활동 뿐 아니라 운동을 하고,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



〈목죽도〉, 종이에 먹, 65×123cm, 전주대학교 박물관

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다. 전북예총회장을 지냈으며, 한국 100대 예술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군사학전문가인 아들 성재成齋 박광철이 문인화가로서 화업을 잇고 있다.

박래현 朴峽賢

호 우향 雨鄉 생몰년 1920~1976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 분야 회화

박래현은 현대기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으로, 호는 우향雨鄉이다. 전라북도와 서울에서 활동했다. 군산으로 이주하여 일본인 미술교사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郎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1937년 경성관립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전라북도 순창공립보통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년 만에 사임하고 1943년 9월 일본 도쿄의 여자 미술전문학교 사범과 일본화부에 입학하였다.

도쿄 유학 시기에 제작한 〈부인상〉(1941)으로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으며 1943년 검정색 기모노 차림의 일본 소녀를 모델로 한 〈단장袴〉(1943)으로 다시 입선하였다.

초기에는 사실 묘사를 기초로 한 화조, 인물, 산수 등을 그렸으나 1950년대

부터 동양화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 실험을 전개하였다. 1946년 한국화가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1914~2001과 결혼한 후 그와 더불어 국내외에서 모두 10여 차례의 부부전과 개인전을 가졌다. 이 시기 박래현의 화풍은 남편과 같이 입체파적 양식을 가미한 반 추상화로 변화되었다. 전통적인 동양화 재료를 사용하면서 서구적인 공간 설정에 감각적인 색채와 대담하고 강렬한 화풍을 이룩하는 등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후 1956년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와 제8회 대한미술협회전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국전 초대 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백양회白陽會의 창립 회원으로 활약하였다. 1967년 상파울루비엔날레Sao Paulo Biennale를 계기로 서구 미술의 방법론과 판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뉴욕의 밥 블랙번Bob Blackburn 연구소와 프랫Pratt 그래픽 센터에서 판화와 타피스트리tapestry를 공부하였다. 1940년 선전 최고상(창덕궁상), 1956년 제8회 대한미술협회전 대통령상, 1956년 제5회 국전 대통령상, 1972년 문화공로상, 1974년 제6회 신사임당상 등을 수상하였다. 1978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작전이 개최되었으며, 2020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렸다. 대표작으로 <단장>(1943), <노점露店>(1956), <이른아침>(1956), <작품 19>(1965년), <작품 F>(1973년) 등이 있다.



<노점(露店)B>, 1956년, 종이에 수묵채색, 264×209cm, 삼성미술관 리움

박문회 朴文會

호 호암 湖巖 생몰년 19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북·경남 분야 서예

박문회는 조선후기~말기의 서예가이다. 경상남도 남해 출신으로 순조대에 활동하였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보여輔余, 호는 호암湖巖이다. 창암蒼巖 이삼만 李三晩의 제자인 모수명牟受明에게 글씨를 배웠다. 1859년(철종 10) 고금의 법첩法帖을 모아 목판에 새겨 문생 몇 사람과 함께 모간模刊하여 『역대고금법첩歷代古今法帖』을 완간하였다.



<고금역대법첩 목판>, 1859년, 53.4×26.9×3.8cm, 유교문화관

『역대고금법첩』의 서문에서는 역대의 명적名蹟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비록 진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배우는 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는 중국 하우夏禹의 전서를 비롯하여 진나라 이사李斯의 소전小篆 등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필적을 수록했고, 한국의 서예가로 신라의 김생金生을 비롯하여 최치원崔致遠, 이제현李齊賢, 이광사李匡師 등 조선 경종景宗 때까지 80여 명의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 상단에 서체를 남긴 사람을 표기하고 본문에 서체를 소개하고 있다. 또 서법에 관한 이론으로 파필법把筆法·사법寫法·건묵법乾墨法·차력법着力法·추전법推展法·굴곡법屈曲法·의재필선意在筆先·계완揭腕 등 여덟 가지 법을 들어 밝혔다. 목각본인 이 첩의 상태는 매우 거칠고 총 82장의 분량이 들어 있다. 마지막 82쪽에는 “惑從取妍 荒出放意” 8자의 대자해서大字楷書가 있다.

박병수 朴秉洙

호 초산 蕉山 생몰년 1859~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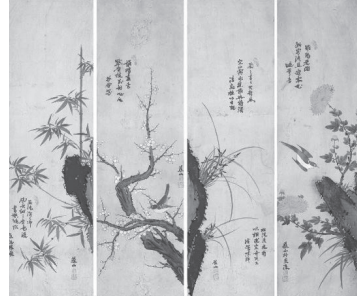
박병수는 조선 말기에 활동한 낙화가이다. 전라북도 진안에서 거주하였

으며 본관은 밀양, 호는 초산蕉山이다. 조선 후기 낙화烙畵로 유명했던 박창규의 손자로 조부를 이어 낙화를 잘 하였으며, 산수와 화조화도 잘 그렸다.

박병수는 조부의 낙화 기법을 근본으로 삼았으나 인두로 지져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종이를 살짝 태

우듯이 그리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매일신보(1918년 11월 5일자) 기사에 박병수의 낙화기법에 대해 '나무나 대를 인두로 지지는 기술은 비교적 쉽지만, 종이에다 종이 상하지 않게 그림을 그린 것은 '특별한 묘득妙得'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소개되었다.

조부인 박창규의 낙화는 그의 종제와 후손을 중심으로 150여 년 동안 전승되었다. 사촌동생인 송암松庵 박복규朴復珪, 1819~1859, 박복규의 아들인 죽파竹坡 박진호朴鎭灝, 1842~미상와 이를 계승한 운포雲浦 백학기白鶴起, 1895~미상, 설봉雪峯 최성수崔聖洙, 1920~1985와 뒤이어 전통기법을 전수받은 전원田園 전창진田昌鎭, 1947~미상이 맥을 이어오고 있다.



〈사군자〉, 종이에 수묵채색, 95×30cm, 미술관 솔

박상학 朴相鶴

호 취석 醉石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상학은 보성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함양이며, 호는 취석醉石이다. 조선 성종대의 청백리 수지遂智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박성우 朴成宇

호 소산 嘯山 생몰년 1871~194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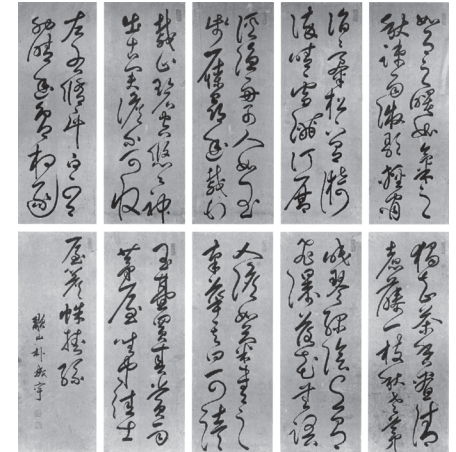
박성우는 19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성우成宇, 성은成殷, 성종成宗이며, 호는 소산嘯山, 또는 예정藝庭이다. 전라북도 무주에서 은둔하며 작품활동을 하였다.

박성우에 관한 초기 자료는 없으나 외손서인 최연성崔然聖, 1930~에 의하면 그는 구한말 대과에 급제한 조정의

관료였으며, 글씨에 능하여 창경궁 내 어수문魚水門 현판 글씨를 어전에서 썼다고 한다. 구한말 관료로서 대한제국 탁지부度支部 참서관參事官으로 봉직하던 중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기자 항일로 맞서다가 무주 구천동에서 서예에 전념하면서 지방 유지 유림들과도 친교를 맺어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박성우의 작품으로는 진안 마령 강정리 암벽에 새겨진 강정대江亭臺의 큰 글씨 〈각자刻字〉를 비롯하여 마이산 이산묘驕山廟에 〈이산정사驕山精舍〉, 〈이택헌驕澤軒〉, 〈인지재仁知齋〉 등 다수의 현판이 남아있고, 무주 안성 사전리에 〈제월정齋月亭〉 편액, 그리고 개인소장 《초서10폭병풍》 등이 전한다.

그의 아들 병규炳奎, 병성炳星 형제 중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큰아들 병규는 부친을 이어 서예가로 활동하였으며, 외손녀인 김용범金容範도 전북 미술대전 서예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행초십폭병풍》, 종이에 먹, 각 폭 82×29cm, 개인

박숙진 朴淑鎭

호 농암 農巖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박숙진은 옥구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밀양이며, 자는 내경^{乃京}, 호는 농암^{農巖}이다. 문인으로 판윤을 지낸 송원^{崇元}의 후손이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필법이 정밀하고 무르익었으며, 여러 서예가들의 각종 서체를 두루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필첩이 집안에 전한다.”고 하였다. 벼슬은 증^贈 통정^{通政}을 지냈다.

박영수 朴榮壽

호 학하 鶴下 생몰년 1837~189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박영수는 19세기에 활동한 한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호는 학하^{鶴下}이다. 성균관^{成均館} 진사로 서예에 능하였다. 그의 필첩^{筆帖}이 전하는 데 내용은 수양론^{修養論}으로 그 필력이 뛰어났다는 평이 있다.

박윤부 朴允溥

호 외암 畏菴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윤부는 장성 출신의 문인서예가이다. 본관은 태인이다. 호는 외암^{畏菴}이며, 일참^{逸參} 수온^{守溫}의 증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초서·예서·진체^{眞體}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박윤수 朴尹秀

호 남곡 南谷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박윤수는 조선시대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본관은 태인이며 호는 남곡^{南谷}으로, 생원 호현^{瑚玄}의 손자이다.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 제가감역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박은용 朴銀容

호 석현 石峴 생몰년 1944~200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박은용은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출신으로 호는 석현^{石峴}이다. 박은용은 광주에서 조대부중을 다니며 미술부 시절 ‘청자학생 미술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며 대작의 수묵화를 그렸다. 서라벌예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4년간 진도 의신중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교직 생활을 접고 목포로 옮겨 1970년대 후반 전업 작가로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통해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술바람》, 1983년, 수묵담채, 113×383cm, 광주시립미술관

1963년부터 국전에 4차례 입선했으며 1980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비엔날레 기념 남화전(1997)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국문화예술원장상(1980) 등을 수상했다. 1983년 동덕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을 통해 그의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은 시골의 평범한 일상과 농촌풍경을 소재로 화면을 짙은 구성에 짙은 먹과 채색으로 투박하면서도 정겹게 담아냈다.

박익준 朴益俊

호 시경 是耕 생몰년 1910~199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박익준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시경是耕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남농 허건과 소산小山 정규원丁圭原, 1899~1972을 사사했다. 1955년 제4회 국전 입선을 시작으로 1962년까지 연 8회 입선하였다. 1979년 덕수미술관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5년 진양 가양화랑의 개인전 등 모두 13회에 걸친 개인전과 8회의 초대전을 가졌다. 그밖에 교류전이나 초대전 등에 참가하였고 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하경산수(夏景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64.5×124.5cm, 광주시립미술관

박익준은 산수화에서 허건의 필법, 구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근경 언덕을 농묵의 짙은 갈필로 표현하고, 나무와 토파의 표현이나 중경에 수변을 두는 구도 등 유사한 면이 많지만 작품 전체에 넉넉한 멋과 분위기를 풍긴다. 사군자를 비롯한 모란, 수선화 등 묵화와 화조화를 잘 그렸다. 광주에서 많은 후진을 양성했다.

박인혁 朴仁赫

호 죽곡 竹谷 생몰년 1929~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인혁은 현대의 서예가이자 교육자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죽곡竹谷 혹은 지산芝山이다. 국전 서예부분에 제22회, 제23회, 제28회, 제29회, 제30회에 입선하였고,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두 차례 입선하였다. 전남도전에서 6회 입선과 4회 특선상을 수상한 후 추천작가로 활동하였다. 한국서예가협회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교원서예가협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광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였다. 진도 곳곳에 필적을 남겼는데, 진도 침찰산 쌍계사에 〈원통전圓通殿〉 현액 등이 전한다.



〈전서 등석어〉, 종이에 먹

박장현 朴章炫

호 죽하 竹下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장현은 보성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함양이다. 호는 죽하竹下이며, 청백리 수지遂智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박제환 朴濟煥

호 성재 惺齋 생몰년 18~19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제환은 장성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진원이며 호는 성재惺齋이다. 참판 경무慶茂의 증손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성리학자인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1728~1807 의문인이다.

박종만 朴鍾萬

호 호영 湖影 생몰년 1922~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박종만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완주 출생으로, 호는 호영湖影이다. 국제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북서도회 부회장, 사군자를 주로 하는 임지회臨池會 회장을 역임하였다. 전국서화백일대상전 운영위원을 지냈으며 국내 여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및 특선 등을 수상하였다. 일본 공모전에서도 수상하였고, 일본, 홍콩, 태국, 프랑스 등에서 열린 초대전에 출품하였다. 국제현대미술선발전 추천작가, 제3회 울곡서화대전 추천작가, 제21회 국제문화미술대전 추천작가 등으로 활동하였다.

박중구 朴重龜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중구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진원이다. 사석斯錫의 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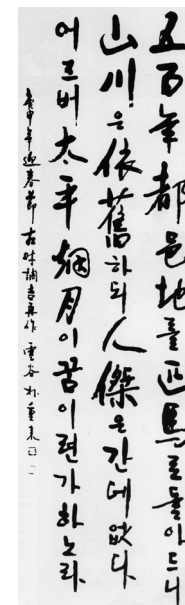
박중래 朴重來

호 운곡 雲谷 생몰년 1925~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중래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광양 출신으로 호는 운곡雲谷이다. 남용 김용구 문하에서 서예수련을 하였다. 1965년부터 1979년까지 국전에 3회 입선하였고, 전남도전 추천작가와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공직자로서 1977년부터 1978년까지 광주시 동구청장, 제27대 광양군수, 순천시장, 대한적십자사 전라남도 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퇴임 후 순천에서 운곡서예원을 운영하였다.

89세 때인 2014년에 쓴 상촌 신희의 시 〈동천년노향장곡桐千年老恒藏曲〉이 있어 노년까지도 활발한 서예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혼용 행서〉, 1980년

박진수 朴鎭燧

생몰년 미상(1897년 무렵 활동)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박진수는 19세기 활동하였던 낙화烙畵 작가이다. 전라북도 남원 운봉에

거주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활동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으나, 구한말 임실군수를 지낸 박시순(朴始淳, 1848~1907)의 일기인 『운불일기(雲緋日記)』 중 정유년(1897) 4월 4일 운봉읍에서 박진수를 만났다는 내용이 있다. 이 일기에서 “이웃마을 박진수(朴鎭澗)가 와서 보았다. 이 사람은 박진도(朴珍島)의 아들로 낙화(烙畵)로 세상에 알려진 자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북도립미술관에는 낙화(烙畵) 《영모도십곡병》이 전한다. 낙화로 각종 식물과 새를 그린 것으로, 문인화의 주제였던 사군자와 모란, 포도, 버드나무 등을 괴석과 함께 그리고 이에 평과 제비 등 각종 새를 그렸다. 각 쪽에는 시를 쓰고 인장도 찍어 문인화로서의 격조를 갖추었다.



《영모도십곡병》, 종이에 낙화, 각 폭 72.5×32cm, 전북도립미술관

박진주 朴鎭注

호 남계 嵐溪 생몰년 1929~2004 출생·활동지역 전남·서울 분야 서화

박진주는 현대의 서화가이자 고화 감정가이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다. 호는 남계(嵐溪)이다. 진도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중퇴한 그는 목재(木齋) 허행면(許行冕),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소전(素筵) 손재형(孫在馨)에게서 남종문인화와 서예를 배웠다.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과 국립중앙도서관 고서감정위원을 지냈으며, 미협 서예분과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중국과 일본 미술계를 시찰하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넓혀 동양화 개인전

을 수차례 하였다. 그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으로서 서화감정에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고서감정위원을 지낸 뒤 서울 세운상가에 연구실을 차리고 서예가이자 골동품 감정가로 활동했다.

그의 작품으로 꾸밈없는 서체의 해서와 예서, 문인화 등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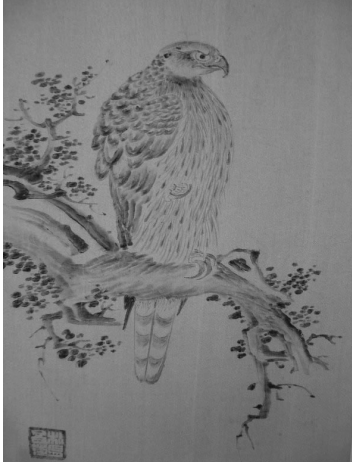
〈전가풍취〉, 1980년

박창규 朴昌珪

호 낭간 琅玕 생몰년 1796~185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박창규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낙화가이다.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본관은 밀양이며 자는 성민(聖旻), 호는 낭간(琅玕), 수산(遂山, 垂山), 화화도인(火畵道人)이다. 1822년 27세에 동지사(東使)로 가는 김노경(金魯敬)을 따라 북경에 다녀왔으며, 1837년에 참봉을 지냈다. 조각을 잘하였고 ‘낙죽(烙竹)’ 즉 대나무 표면을 인두로 지져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중국 무풍자의 낙화가 훌륭한데, 동방에서는 박창규가 유명하여 고금에 제일이라 일컬어졌으니 무풍자의 적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이름이 높았다. 1846년에 궁에 들어가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1849년 겨울에 중국에서 온 사신 서상(瑞常)이 그의 낙화를 보고 훌륭하다고 평하고 시를 지어주었다. 중국사신 병부시랑 전경(全慶) 또한 손뼉을 치며 칭찬하여 중국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한다.

박창규는 일찍이 이하응(李和應)과 전원용(全元用)·조두순(趙斗純)·권돈인(權頓仁)·김정희(金正熙) 등 세도가와 예



〈고목서응도〉, 견본낙화, 27.7×20.2cm, 간송미술관 소장

술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영향을 받고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정희와는 오랜 인연이 이어져 그의 영향을 받았으며, 〈화화도인실〉이라는 편액을 받았다. 김정희가 글씨를 쓰고 박창규는 그 글씨를 받아 각을 하였으며, 낙화와 낙죽을 비롯해 옥과 금속에까지 영역을 넓혔는데 이러한 내용이 김정희의 서찰에 남아있다. 1847년에 수원감목관이 되고 낙죽으로 용을 휘감아 시

문한 담뱃대를 헌중에게 올렸다. 박이규, 박훈규, 박진호, 박계담, 박상전 등이 1950년대까지 박창규의 낙화·낙죽의 맥을 이었다.

작품으로는 간송미술관에 〈고목서응도 枯木棲鷹圖〉가 있다. 화면 왼쪽에서 뻗어 나온 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단 바탕에 인두로 지져서 그렸는데, 농담의 변화감이 수묵화에 버금가게 다채로우며 활달한 묘사로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이다.

박춘희 朴春熙

호 계원 桂苑 생몰년 1927~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박춘희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는 계원 桂苑이다. 광주옥고 光州旭高, 현 전남여고를 졸업하였다. 1977년 제3회 국전에서부터 1979년 제5회까지 연 3회 입선하였다. 1983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하였고,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전남도전에 연 9회 입선하였다. 1983년 전남도전 추천작가와 초대작가가 되었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갔다. 전서와 행서에 특히 능하였다.

박호병 朴好秉

호 추당 秋堂 생몰년 1878~1942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 분야 서화

박호병은 근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호는 추당 秋堂, 추운 秋雲이다. 초명은 호병 鎬秉이다. 주로 서울과 전라북도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박호병은 이하응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안중식, 조석진 등 중앙화단의 서화가들과 교류하였다. 1927년에 조선미술전람회 서부 부문에서 〈초서 草書〉로, 사군자 부문에서 〈풍죽 風竹〉으로 입선한 후 1928년에는 〈대나무 竹〉로 특선을 하였다. 이후 1930년까지 사군자로 연속 4회 입선을 하면서 서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1930년에 전주에서 서화전을 가졌다. 이후 전라북도 지역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대나무를 특히 잘 그렸고 산수화와 행서에도 능하였다. 전북도립미술관에는 《사계산수도팔곡병》(1925)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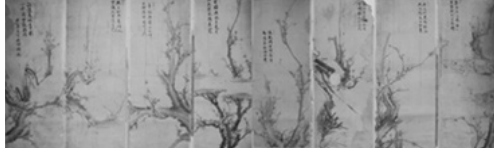
〈사계산수도팔곡병〉, 비단에 수묵담채, 각 폭 127×37cm, 전북도립미술관

박홍주 朴鴻周

호 소련 小蓮 생몰년 미상(20세기 초 활동)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박홍주는 근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담양 출생으로 호는 소련 小蓮이

다. 매화로 이름을 얻었다. 동강 정운면의 어릴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가 없다.



《매화도팔폭》, 종이에 먹, 각 폭 96×37.5cm

박호 朴翊

호 노서 蘆西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호는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태인이며, 호는 노서蘆西이다. 판관 윤준允漣의 증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박희중 朴熙中

호 위남 葦南 생몰년 1364~144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박희중은 고려말 조선 초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본관은 진원이다. 자는 자인子仁, 호는 위남葦南이며, 현감 온溫의 아들이다. 조선 전기에 동궁서연관, 예문관지제교, 영암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진체眞體를 잘 썼다.”고 한다. 『해동필원海東筆苑』에 이름이 오른 명필로, 하륜의 아버지 하윤린河允潣의 신도비를 쓰고 음기蔭記: 비의 뒷면에 기록되는 글을 짓기도 하였다. 『위남선생문집葦南先生文集』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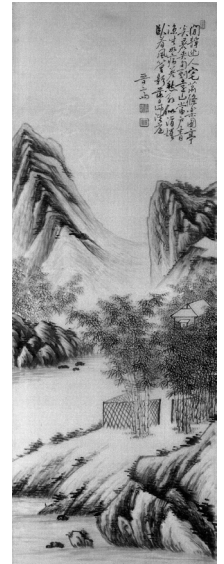
배석린 裴錫麟

호 진재 晉齋 생몰년 1884~1957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배석린은 일제강점기 서화가이다. 충청북도 영동永同에서 태어났으나 전라북도로 거주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본관은 성산星山으로 호는 진재晉齋이다. 그는 독학으로 서화를 익혔다.

배석린은 1906년 초에 일어 강습소에, 1907년 보명의숙普明義塾에 들어갔으나 학교가 폐지되어 1908년 장흥의숙長興義塾을 졸업하였다. 1908년 9월에는 내각위원사무촉탁시무內閣課員事務囑託視務로 일하였다. 1911년 총독부 경찰관 통역생으로 채용되어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에 배치받았다. 이후 대구경찰서, 영천경찰서, 청송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라북도 전주군 서기가 되어 거주지를 옮겼으며, 1924년부터 무주·고창·김제·남원의 군수, 전주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이 무렵 배석린은 효산 이광열, 유당 김희순 등과 각별히 교류하면서 서화활동에 몰두하였다.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묵죽>으로 입선하고 <묵란>으로 3등상을 받았다. 제5회 선전에서 <안노공삼표顔魯公三表>라는 서예작품으로 입선하였고, 1929년 제8회 선전에서 <조춘우의무春雨意>, <벽산고루碧山高樓> 등의 산수화로 입선하였다. 남원 향교의 진남루鎮南樓에 그의 편액이 있다.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장을 지낸 조각가 배형식1926~2002이 그의 아들이다.



《산수도》, 비단에 수묵담채, 127×46cm, 전북도립미술관

배정례 裴貞禮

호 숙당 淑堂 생몰년 1916~2006 출생·활동지역 전남·경기도 분야 회화

배정례는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충청북도 영동 출신으로 본관은 성산 星山, 호는 숙당 淑堂이다. 전라남도 와 경기도에서 활동했다. 부친은 한국화가인 진재 晉齋 배석린 裴錫麟, 1884~1957이다. 배정례는 일본에서 가와바 타화학고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일본미술학교를 수료한 뒤 귀국하여 운보 김기창, 월전 장우성과 함께 이당 김은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920년에서 30년대에는 일본화풍의 영향을 받아 꽃을 배경으로 장식성이 강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이후 과일이나 꽃 바구니를 든 여인을 주로 그렸다. 섬세한 필치로 묘사된 여인들은 젓가슴을 반쯤 드러낸 관능적이면서도 모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940년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당 김은호의 낙정헌 화실 문하생 모임인 후소회에 1943년부터 참가하였다. 1945년에 박래현, 이현욱 등과 함께 여류 5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천경자, 박래현, 이현욱 등과 함께 한국 4대 여류화가로 꼽히기도 한다. 개인전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는데 1954년 화신백화점 화랑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달하였다. 1947년 혜화동에서 여자동양화연구소를 경영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남편과 사별 후 해남 대흥사 입구에 화실을 짓고 칩거했으나 1992년부터 의정부에 거주하며 작



〈봄〉, 1950년대, 종이에 채색, 136×102cm

품활동을 하였다. 현재 의정부에 숙당 배정례선생 미술관이 지어져 있으며 2004년 숙당 배정례 화백 가족전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배정례의 동생인 배릉은 판화가이며, 조카 배형식은 원광대 미술대학장을 지낸 조각가이다.

배정례는 특히 미인도를 많이 남겼다. 화려하고 섬세한 채색과 인물의 평면적 묘사, 단조로운 윤곽선의 인물 표현을 보여준다. 화면의 하단부에 영경귀, 양귀비 등과 같은 장식성이 강한 꽃을 배치하여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묘사 방법도 화려한 채색과 세밀한 필치로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며 도안화된 특성이 강하다.

백광훈 白光勳

호 옥봉 玉峯 생몰년 1537~158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백광훈은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본관은 수원이며, 자는 창경 彰卿, 호는 옥봉 玉峯이다. 아버지는 부사과 副司果를 지낸 세인 世仁이며, 「관서별곡 關西別曲」으로 유명한 광홍 光弘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후백·박순에게 수학했으며 22세에는 진도에 귀양와 있던 노수신에게 배웠다. 28세인 1564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정치에 참여할 뜻을 버리고 시와 서도를 즐겼다. 당풍의 시를 잘 지어 최경창·이달과 함께 삼당시인 三唐詩人이라 불린다. 그의 시는 대체로 삶의 한 국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현실의 고통과 관직생활의 불만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안정과 평화로운 분위기의 전원에서의 삶을 다룬 시로 표출하였다.

1572년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노수신의 천거로 백의제술관 白衣製述官이 되어 시와 글씨로 사신을 감탄하게 해 명성을 얻었다. 1577년 선릉참봉 宣陵參奉이 되었으며, 이어 정릉 靖陵, 예빈시 禮賓寺, 소격서 昭格署의 참봉을 지내면서 서울에 머물렀다.

글씨에도 일가를 이루어 왕희지풍의 행서에 빼어났다. 1590년 강진의 서

봉서원瑞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옥봉집』이 전한다.

백상빈 白尙賓

호 천송 泉松 생몰년 17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백상빈은 조선 중기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본관은 수원이며, 옥봉 백광훈의 손자이자, 호진湖振의 아들이다. 호는 천송泉松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백상현 白尙賢

호 월주 月洲 생몰년 미상(조선시대 중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백상현은 조선 중기의 문인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본관은 수원이며, 호는 월주月洲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백순기 白順基

호 면당 勉堂 생몰년 1922~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백순기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호는 면당勉堂이다. 일본 동경 본메지로상업학교目白商業學校 5년제를 졸업하였다. 글씨는 전주의 서예가 소남 이규진을 사사하였다. 여러 미술대전과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 제4회 88미술대제전에서는 추천작가로 제4회 한국예술문화협회 추천작가, 한·중·일 87신춘초대회원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백진남 白振南

호 송호 松湖 생몰년 1564~161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백진남은 조선 중기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본관은 수원이며, 자는 선명善鳴, 호는 송호松湖이다. 시인이자 서예가인 옥봉 백광훈의 아들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세에 한성의 중, 동, 서, 남부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인 사학四學의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課試에서 시·부詩賦로 뛰어난 재능을 보여 이이李珣의 총애를 받았다. 정유재란 때에는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진중에 피란하였는데, 그 당시 조선에 와있던 명나라 장수 계금피季金皮·승덕承德 등이 그의 시초詩草를 보고 크게 칭찬하였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왔을 때는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임시 벼슬에 있었던 유근柳根의 천거로 백의종사白衣從事하였다. 문장과 필법으로 유명한 주지번이 백진남의 묵적墨蹟을 절찬하였으며, 주지번도 <옥봉서실玉峯書室>, <옥동연하玉洞煙霞> 8자와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를 써주었다.

백진남은 평소에 김상헌金尙憲, 조희일趙希逸과 서로 이웃하며 가까웠다. 별서別墅를 송호松湖에 짓고 살다 55세에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송호유고』 1권이 있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백학기 白鶴起

호 운포 雲浦 생몰년 1895~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백학기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낙화가이다. 전주에서 활동했다. 호는 운포雲浦이다. 백학기는 19세기 순조년간 활동했던 박창규를 계승한 초산 박병수의 제자이다.

백학기의 행적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데, 그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화

회화畫會' 혹은 '낙화회烙畫會'라 해서 낙화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를 벌였던 내용이 1924년 9월 7일자 「시대일보」에 '조선낙화회朝鮮烙畫會'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백형은 白亨垠

호 향산 香山 생몰년 1956~202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백형은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호는 향산香山이다. 고당顧堂 김규태金奎泰, 1902~1966의 아들 창석蒼石 김창동金昌東, 1947~2019의 문하에서 서예를 익히며 공모전 등에 출품해 실력을 인정받아 서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김창동의 서체 중 예서를 익힌 작품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림은 사군자를 주로 그렸다. 이중 <묵죽>은 대나무 줄기의 중간부분을 포착하여 그리고, 먹의 농담을 달리해 죽순과 댓잎을 다채롭게 표현한 작품이다.



<묵죽>, 종이에 수묵, 30.6×53.9cm,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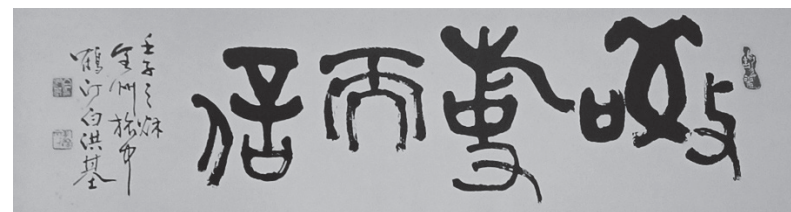
백흥기 白洪基

호 학정 鶴汀 생몰년 1913~198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백흥기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호는 학정鶴汀이다. 설송 최규상으로부터 서화와 전각을 지도 받았다. 국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여러 번 하여 1976년 초대작가가 되었고, 심사위원, 운영위원도 역임하였다.

1982~1987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화랑 초대전도 여러 차례 하였으며, 4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서예가이면서 전각에서도 일가를 이루어 한국 전각협회와 한국서화작가협회전에 참여하였다. 보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였다.

초서를 잘 써 《초서10폭명》〈경사이신敬事而信〉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이고 회화적인 느낌의 전서 작품도 있다.



<경사이신(敬事而信)>, 1972년, 종이에 먹, 33×127cm, 개인

변치현 邊致賢

생몰년 18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변치현은 18세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본관은 황주黃州이며, 자는 사희士希이다. 조선 후기 유학자 궤係, 1723~미상의 아들이다. 일찍 문장을 이루어 향리에 명성을 드러내었고, 해서解書를 잘 써 유명하였다. 증 좌승지 승기昇基의 현손으로 그의 묘비문을 찬하였다.

변치현의 아들은 기옹^{基翁} 변종락^{邊宗洛}이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해서^{楷書}를 잘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경보 徐京保

호 일봉 一鵬 생몰년 1914~1996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예

서경보는 현대의 승려이자 서예가이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일봉^{一鵬}이다. 독특한 선 수행과 포교활동으로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19세에 제주도 산방굴의 혜월스님을 은사로 불가에 입문하여 구례 화엄사, 완주 위봉사, 서울 개운사 등에서 수도하였다. 22세에 유춘담 스님으로부터 ‘일봉’이라는 법호^{法號}를 받



《가리개 2폭병풍》

았다. 일본 교토의 임제종 임제전문학교 전문학부를 졸업하였고, 귀국 후 다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1950년에 졸업하였다. 1953년 해인대학(지금의 경남대학교)을 비롯하여 동아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해외포교에 주력하여 1964년 승려로서는 최초로 미국으로 가 미주한국 불교의 최초 포교를 시작했다. 1988년 조계종에서 갈라져 나와 일봉선교종^{一鵬禪敎宗}을 새로 설립하고 종정^{宗正}에 올랐으며, 1992년에는 세계불교 법황청을 설립하고 초대 법왕이 되었다.

주요저서로 『불교입문강화^{佛敎入門講話}』(1948), 『불교사상』(1979) 등 다수와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1979) 등의 번역서가 있다.

서예가로서 그는 활달한 필치로 국내외 각계 인사들에게 도자기글씨를

선물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글씨들은 해서와 행서가 대부분이다. 달마도를 그린 것도 있다.

서병갑 徐炳甲

호 난곡 蘭谷 생몰년 1900~193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서병갑은 한국 근대기에 활동했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옥구 출신으로 호는 난곡^{蘭谷}이다. 우석^{友石} 황종하^{黃宗河}, 1887~1952가 지도하는 군산서화연구소에서 서화를 배웠다. 황종하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서병갑은 사군자, 산수, 화조 등을 잘 그렸고, 스승이 잘 그렸던 호랑이 그림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면서 기량이 뛰어난 화가로 인정받았으나 병약하여 39세로 세상을 떠났다.

서병갑의 호랑이 그림은 독특한 운필법^{運筆法}을 보여준다. 대체로 호랑이의 표현은 농묵과 농채를 써 섬세하게 묘사하였고 배경의 암석과 나뭇잎, 풀 등은 갈필법과 담묵으로 소략하게 표현하였다. 화면 전체에서 호랑이가 차지하는 공간은 비교적 작지만, 포효하며 내려오는 호랑이의 동세가 전방으로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원근법적 특징을 보인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전북도립미술관 소장 <맹호도>가 있으며 그 외 호랑이 그림이 여러 점 전한다.



《맹호도》, 비단에 수묵담채, 102.5×40.5cm, 전북도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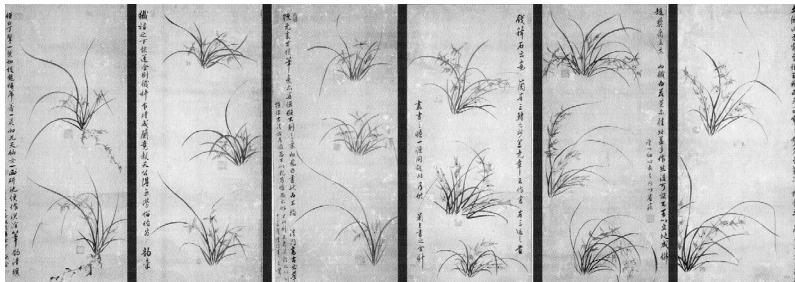
서병우 徐丙于

호 호운 湖雲 생몰년 1850년대~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서병우는 조선 말기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조선 후기의 서예가 호산 湖山 서홍순 徐弘淳, 1798~1876의 손자이다. 다른 이름은 광표 光表라고도 하였다. 자는 학내 鶴乃이며 호는 호운 湖雲이다. 해서와 행초서에 능해 큰 현판 글씨를 잘 썼으며, 묵란과 죽석을 잘하였다고 전한다.

그는 효자로 이름났는데, 조부 서홍순의 상을 당하자 3년간 시묘를 하였다는 사실이 『소치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1878년 어느 날 상주 서병우댁을 방문했는데 여막에서 시묘를 살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오세창의 『근역서화징』과 『소치실록』에는 호산 서홍순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서병우의 아들 우운 又雲 서정민 徐廷珉, 1875~1959이 석지 채용신의 제자였던 인연으로 채용신이 그린 서병우의 초상화가 원광대학교박물관에 남아 있다. 서병우의 작품으로는 여러 서예 작품과 함께 《묵란도병풍》, 《묵죽도》, 《묵포도8폭병풍》 등이 전한다. 묵란과 묵죽에 쓴 필치는 매우 유려하며, 남아있는 작품으로 보아 다양한 화목에 두루 능했음을 알 수 있다. 포도 병풍의 제8폭에는 ‘호운노초 湖雲老樵’라는 관지가 있으며, 그의 호인 호운 湖雲을 쓴 네모난 음각 도장과 그의 자인 학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학 한 마리와 내 乃자를 양각한 도장이 찍혀있다.



《묵란도6폭》, 종이에 수묵, 각 폭 89×39cm, 개인

서영로 徐永魯

호 창봉 蒼峯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서영로는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이천이다. 호는 창봉 蒼峯으로, 알려진 작품은 없으나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 善筆」조에도 “왕희지 필법에 정미하였다.”라고 전한다.

서정민 徐廷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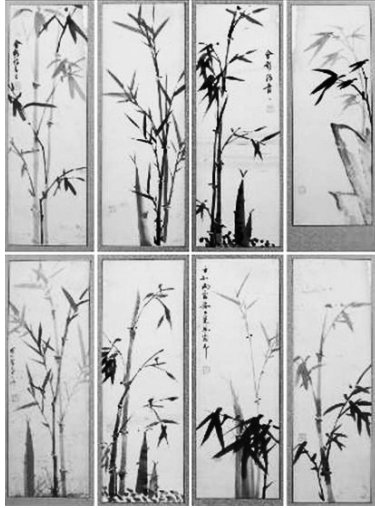
호 우운 又雲 생몰년 1875~195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서정민은 근대기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호남 3대 명필로 불리는 조선 후기의 서예가 호산 湖山 서홍순 徐弘淳, 1798~1876의 증손자이자 호운 湖雲 서병우 徐丙于의 아들이다. 호는 우운 又雲이다. 4대를 서화가로 알려진 집안에서 태어난 서정민은 호를 집안의 서풍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또 우운 又雲을 써 우운이라 하였다.

동생 소운 小雲 정현 廷玟도 매화를 잘 그렸으나 54세에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서정민은 익산 금마에 낙향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석지 채용신에게 그림을 배웠는데, 이러한 사실이 채용신의 기록에서 찾아진다. 채용신은 1917년 일본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때 서정민이 동행하였고, 서정현도 동행하여 통역을 맡았다는 것이다. 1918년 일본에 다녀온 채용신은 우운에게 부친 호운 서병우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으며, 이 초상화가 현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정민은 익산에 머물면서 집안의 서법을 이어 글씨와 사군자, 문인화 작품을 남겼다. 회갑을 맞은 1935년, 초대 춘포면장 박상현 朴象鉉, 1865~미상과 금강산을 동행하였고 금강산 산성도를 완성하였다. 1959년 85세로 세상



《묵죽도팔폭》, 종이에 수묵, 각 폭 72×25.5cm, 미술관 소장

을 떠났는데 그의 묘비에 ‘통훈대부충주교관대구서공 정민지묘 通訓大夫忠州教官大邱徐公 廷珉之墓’라 쓰여 있다.

서정민은 글씨뿐 아니라 난죽석과 산수를 잘하였다. 그의 서화는 같은 시기 전라북도에 살면서 전국에 이름을 날렸던 석지 채용신과 소치 허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문인화풍을 띠고 있어, 인물화를 잘하였던 채용신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필 수는

없다. 개인소장 <금강산 산성도> 등이 알려져 있어 산수에도 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한주 徐漢周

호 동초 東樵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서한주는 전라남도 광양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이천이며, 제주 의림의 후손이다. 자는 겸락 兼洛, 호는 동초 東樵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재주가 뛰어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널리 구하였고, 원근의 학자들이 날마다 찾아왔다. 『조선환여승람』 「선필 善筆」조에 “고금의 각 문인들의 필첩 筆帖을 공부하여 해서와 전서 각체에 정밀하고 완숙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였다.

서홍순 徐弘淳

호 호산 湖山 생몰년 1798~187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서홍순은 조선 후기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본관은 대구이며 자는 경삼 敬三·경범 景範, 호는 호산 湖山·진사 晉史·서진사 徐進士이다. 서충보 徐忠輔의 5남 가운데 1남으로 태어났다. 1822년(순조 22) 임오 壬午 식년시 생원이 되었다. 창암 蒼巖 이삼만 李三晩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서홍순은 특히 각체에 능하였고 큰 현판글씨를 잘 썼으며 헌종에게 축수 祝壽의 글을 올려 헌종으로부터 특별히 벼루를 하사받았다고 하였다. 초서를 잘 썼는데 글자를 작게 쓰는 태서 薺書에 뛰어났다. 그의 글씨는 가늘게 쓴 것은 획 굵기가 머리카락처럼 가늘지만 획은 온전히 갖추어져 있었다고 한다. 함열 함라산 咸羅山에서 『호산필첩 湖山筆帖』 6권을 목판본으로 찍어냈다. 서홍순의 작품으로는 전북도립미술관에 《초서 8곡병》이 전하는데, 이 초서 병풍은 그의 초서에 뛰어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흐르는 듯 부드러운 붓의 운용과 그림 같은 획의 구성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이 외에도 전주 풍남문의 <호남제일성 湖南第一城> 편액 등이 남아 있다.

그의 손자 호운 서병우가 가업을 이어받아 글씨를 잘 썼고, 증손자 우운 又雲 서정민도 글씨와 그림을 잘 그렸다.



《초서 8곡병(草書八曲屏風)》, 종이에 먹, 각 폭 120×48cm, 전북도립미술관

서희환 徐喜煥

호 평보 平步 생몰년 1934~199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서희환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함평 출신으로 호는 평보平步이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했다. 1955년 광주 사범 학교를 졸업하고 소전素峯 손재형孫在馨, 1903~1981의 문하에서 글씨를 배웠다. 국전에 출품하여 4차례 특선을 수상했으며, 1968년 제17회 국전에 이은상李殿相의 시를 쓴 한글 작품 <애국시愛國詩>를 출품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후 서희환은 한글 판본체를 바탕으로 예스러운 풍격을 갖춘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갔다.



<조국강산>, 1990년, 종이에 먹, 개인

그의 한글 서예는 질박하면서도 굳센 필치로, 장중한 필력을 느낄 수 있으며 끝부분이 둥글어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흘림을 가미한 필사체에서는 더욱 고졸한 서풍을 이루며 한글 서예의 미학적 영역을 새롭게 넓혀갔다. 전각篆刻도 잘했는데 한글 글씨와 잘 어울리는 특유의 각풍刻風이 돋보인다.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동아미술제 심사위원, 대학미전 운영위원, 수도여자사범대학(세종대) 교수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국민교육헌장(1968년)>, <행주산성 전첩비문>(1970년), <칠백의총 비문>(1971년), 대전의 <윤봉길 의사 동상문>, 익산과 황성의 <三一운동 기념비문>, 구미의 <구미공업단지 준공비문>, 서울의 <백제토성 사적비문>, 경주의 <석가탑 다보탑 신건기 비문> 등 곳곳에 많은 편액 글씨를 남겼다. 대작으로 1974년 『화엄경』 10,915자를 쓴 《화엄경십곡병풍》, 성경의 시편과 요한복음, 그리고 찬송가를 쓴 《성경십이곡병풍》, 예술의 전당에 소장된 <용비어천가>등이 전한다.

선중수 宣重洙

호 노재 蘆齋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선중수는 전라남도 보성출신의 서화가이다. 본관은 보성이다. 호는 노재蘆齋이며, 퇴휴당 윤지允祉의 후손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서화를 잘 하였다.”고 전한다.

설씨부인 薛氏夫人

생몰년 1429~150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설씨부인은 조선 초기의 서화가이자 여류 문장가이다. 본관은 순창으로 설백민薛伯民의 딸이다. 세조대 훈신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아우 귀래정歸來亭 신말주申末舟, 1429~1503의 처이다. 신말주는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벼슬을 사임하고 처가가 있는 순창에 살면서 귀래정을 짓고 산수를 벗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설씨부인은 결혼 전부터 서화를 익혀왔는데, 신말주와 결혼 후 학문과 서화가 더 성장했다고 알려져 온다. 그는 불교와 유교에 조예가 깊었고, 문장과 서화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설씨부인의 작품으로는 《부도암(현 순창 강천사) 중수 권선문첩》이 전해온다.

이 문첩은 설씨부인이 당시 병조참판이었던 시아버지 엄헌공을 위해 불경 1권을 써서 부도암에 희사한 뒤, 강천산에 사찰을 세우는데 도와달라는 승려 악비의 청에 의해 신도들에게 시주를 권하는 글을 짓고 사찰의 설계도를 그린 것이다. 붉은 종이를 붙인 16폭의 절첩折帖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4폭에는 총 1,103자로 된 권선문이 먹으로 쓰여 있고, 나머지 2폭에는 사찰의 채색도가 그려져 있다. 이 절첩의 뒷면에는 설씨부인 후손들의 가전 서찰과 권선문에 관한 글이 있고, 서첩의 끝에는 성화 18년(1482) 7월 정부인貞夫人 설薛이라는 작성 연대와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서첩은 원래는 한 폭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후손

이 보관하기 쉽도록 한 폭에 4줄 혹은 다섯 줄로 나누어 16폭으로 만들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 사대부 집안에서 불사에 관심을 보인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보물 7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설씨부인은 조선시대 여류 서화가로 유명한 신사임당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조선조 여류 문인 서화가로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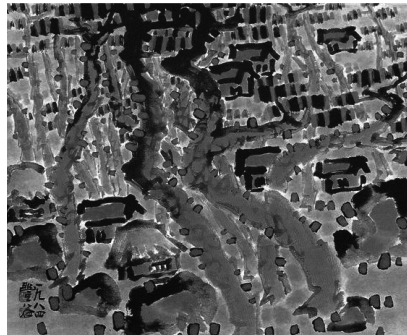


《설씨부인권선문첩》, 종이에 채색, 19.8×40cm, 보물 728호, 국립전주박물관

성재휴 成在休

호 풍곡 豊谷 생몰년 1915~1996 출생·활동지역 경남·광주 분야 회화

성재휴는 현대에 활동한 한국 화가이다. 경상남도 창녕 출신으로 본관은 창녕 昌寧, 호는 풍곡 豊谷, 야운 野雲, 운당 雲塘이다. 대구에서 서병오 徐丙五에게 사군자 등 묵화를 배우다가 1934년에 광주에서 허백련 許百鍊에게 약 3년간 전통 산수 화법을 익혔다. 1949년의 제 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 동양화부에 작품을 출품하여 제3회 전까지 계속 입선하면서 동양화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1955년의 제4회전에서 부당하게 낙선을 당한 뒤로는 국전을 외면



《송림촌》, 종이에 채색, 45×54cm, 개인

하고 독자적 작품 활동으로 일관했다. 허백련의 문하에서 전통 문인화를 공부했으면서도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필치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했다. 1950년대 이응로 李應魯의 필법에서 받은 영향을 자신만의 현대적이고 독특한 수묵화로 소화해내었으며,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조선일보사 주최의 『현대작가초대전』에 이응로와 더불어 초대될 만큼 큰 평가를 받았다.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활발하고 생동적인 필법과 묵법 墨法으로 단순화된 형상과 선명한 색채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현대적 감각의 청록산수를 그렸다. 1987년 호암갤러리에서 풍곡 성재휴 회고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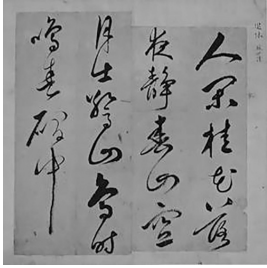
소세양 蘇世讓

호 양곡 陽谷 생몰년 1486~1562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소세양은 조선 초 문신이자, 문장가이며 서예가이다. 부친은 의빈부 도사 소자파 蘇自坡로, 익산에서 태어났다. 자는 언겸 彦謙, 호는 양곡 陽谷 또는 퇴휴당 退休堂, 청심당 淸心堂, 겸재 謙齋라 하였다.

소세양은 19세 때인 1504년(연산 10)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이듬해 1505년 연산군이 시율 詩律로 선비를 선발하자 이에 중형 곤암 소세량 蘇世良과 함께 참가하여 장원의 영예를 안았다.

1509년(중종 4)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수찬을 지냈고 1541년 사가독서 賜暇讀書를 하였다. 이후 이조정랑·교리·직제학 등을 거쳐 종3품 관직인 사성 司成이 되었다. 그 뒤 왕자의 사부 師傅와 승지 등을 지내고,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1533년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38년 성주사고 星州史庫가 불에 타자 중종의 명으로 춘추관 春秋館의 실록을 베껴 다시 봉안했다. 명종대에 좌찬성을 지내다가 사직하고 익산에 은퇴하였다. 소세양은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을 지낼 만큼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율시에 뛰어났고 글씨를 잘 써서 이름이 높았다.



〈오언절구〉, 종이에 먹, 30.5×28.5cm, 개인

1521년 영접사 이행李符의 종사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아 시문詩文으로 응답하여 문명을 떨쳤다. 홍섭洪瀾이 지은 묘비명에 이르기까지 “시구詩句는 사람을 놀라게 했고 필법은 또한 송설체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의 저술로 『양곡선생문집』 20권 10책이 전한다. 문집에는 1,500여 수의 시편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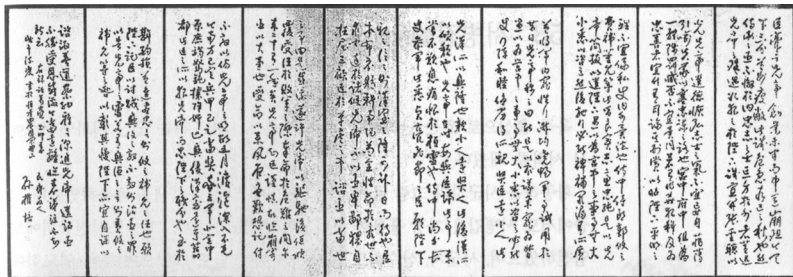
으며, 연행사로 중국을 다녀온 후 쓴 『부경일기赴京日記』는 한중문화교류의 소중한 자료이다. 유묵으로 〈5언절구〉, 〈유백사정기遊白沙汀記〉, 〈신잡선정비〉 등이 남아있으며, 개인 소장 〈오언절구〉에서는 활달하면서 힘 있는 그의 필체를 볼 수 있다.

손권배 孫權培

호 민재 民齋 생몰년 1916~199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손권배는 현대의 서예가이자 정치가이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민재民齋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한학과 서예를 익혔다. 여러 서체를 썼지만 행초서를 특히 잘 썼다.

삼남일보 사장을 역임하였고 완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예로 1978



〈행초서 10폭병풍〉

년부터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 외에 한일교류전, 한중교류전, 미국 대만전 등 10여 회의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손재형 孫在馨

호 소전 素筌 생몰년 1903~1981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손재형은 근대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소전素筌이다. 손재형의 조부 손병익孫秉翼은 당시 진도에 유배와 있던 문인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 1858~1936를 사랑채에 모셔와 1908년, 해배되기 전까지 손재형의 집 사랑채 뒤에 서당을 열고 한학과 서예를 지도하였다.

손재형은 공립진도보통학교를 거쳐 1920년 18세 때 서울의 양정의숙에 입학하였다. 이때 서예가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 1871~1936의 상서회尙書會에 가입하여 김돈희로부터 여러 서체를 공부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황정견黃庭堅의 해서·행서체를 쓰다가 각체를 두루 거쳐 예서·전서를 바탕으로 독특한 소전체素筌體로 발전하였다. 특히 소전체로 한글 서체를 창안한 것은 우리나라 서예사에 남을 획기적인 일이다.

손재형은 양정고보 3학년 때인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예서赫書 〈안씨가훈顔氏家訓〉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그때 벌써 한나라 예서와 당나라 예서의 장점과 추사 김정희, 스승인 성당 김돈희의 특징점까지 취해서 독자적인 예서체를 개발해 나가고 있었다.

조선미술전람회 제4회에 해서楷書 〈낙지론樂志論〉, 제5회에 전서篆書 〈당시唐詩〉, 제6회에 예서 草書 〈산거유취山居幽趣〉, 제7회에 해서楷書 〈운중안기雲中晏起〉, 예서 草書 〈애오지려청명愛吾志廬清明〉, 제8회에 〈오체서五體書〉로 입선하여 20대에 이미 각체를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이후 1930년 제9회,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하였으며, 같은 해 제10회 조선서화협회전朝鮮書畫協會展에서도 특선을 수상하였다. 1932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가 제외되어 조선서도전朝鮮書道展이 별도로 개최되었는

데, 손재형은 제1회 조선서도전에서 특선을 하는 등 젊은 나이에 중견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예가로 성장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손재형은 조선서화동연회朝鮮書畫同研會를 결성하여 창립 서화전을 열었다. 이때 중국에서는 '서법書法', 일본에서는 '서도書道'라 불리는 글씨를 '서예書藝'로 쓸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생각에 전 서예인이 찬동하여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서예'라는 이름이 일반화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출품에 관여하였으며, 이후 30년 동안 국전에서 심사위원, 고문,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꾸준히 참여하였다. 그 후 1966년 대한민국 예술원 부회장, 1971년 제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서예를 예술의 한 분야로 유지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196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였다. 그가 일본에서 <세한도>를 되찾아 온 일은 그의 문화에 대한 집념과 높은 감식안을 전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손재형의 서예는 일찍이 김돈희로부터 익힌 서체와 서법을 바탕으로, 이른바 '소전체'를 창출해 내었다. 이 때문에 '추사 이래의 대가', '1세기 안에 나타나기 힘든 서예가', '한국 현대 서예의 개척자'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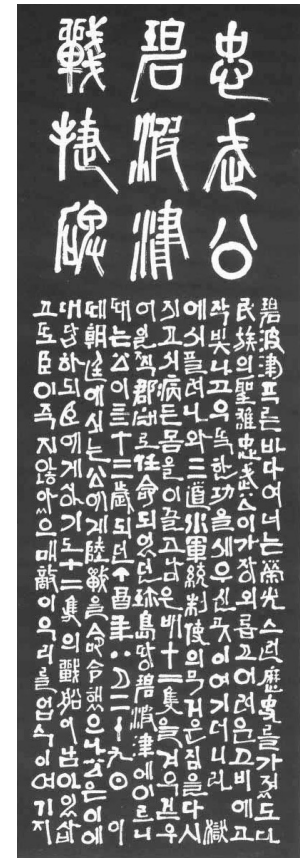
손재형의 서예에서 특히 극치를 이룬 것은 한글 서예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글에 전서와 예서의 서법을 적용시켜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글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궁체나 판본체 외에 서예 하면 으레 한문으로, 중국 역대 서예가들의 글씨만을 쓰는 것으로 알았던 것에서 한글을 독자적인 예술세계로 승화시킨 것이다. 1955년에 노산 이은상이 지은 <충무공벽파진전첩비忠武公碧波津戰捷碑>를 처음으로 국한문혼용으로 써 한글 서예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었다. 손재형의 고향인 진도 벽파진에 세워져 있는 <충무공벽파진전첩비>는 국한문을 혼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체도 전서와 예서를 함께 써 새로운 법도를 개척한 작품이다. 소전체는 1970년대 국정교과서 표지에 적혀 있던 '국어' '수학' 등의 과목 이름과 '쌤터'

'현대문학現代文學' 등의 잡지 표제, 법전 표제 등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여 익숙한 글씨체이다.

손재형은 국한문서예뿐만 아니라 산수, 기명절지, 사군자, 소나무, 포도, 연, 괴석 등 다양한 소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그의 문인화는 서예의 필력에 색채 감각이 더해져 모두 담박澹泊하면서도 문기文氣가 넘친다. 글씨는 특유의 소전체로 독특하면서도 멋진 멋이 있다.

그의 개성적인 서체는 일군의 서예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글 서예가로 알려진 평보平步 서희환徐喜煥, 한자 서체에서 소전을 많이 닮은 장전長田 하남호河南鏞 등에게서 그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경암景岩 김상필金相筆, 1904~1995, 금봉金峰 박행보朴幸甫, 원당元堂 김제운金濟雲, 강암剛菴 송성룡宋成鏞, 남정南丁 최정균崔正均 등이 그의 문하에서 서예를 배워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77년, 동아일보에서 소전素箋 손재형孫在馨 선생 회고전을 개최했다. 그의 사후 수많은 추모글과 논문, 서화집 등이 발간되었다. 현재 진도읍 성내리에는 2003년 4월 소전기념관이 문을 열고 후손이 소장한 작품 300여 점을 비롯하여 그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충무공벽파진전첩비> 부분, 1956년

손태현 孫泰鉉

호 석계 石溪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손태현은 전라북도 임실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밀양이다. 호는 석계 石溪이며, 문효공 순의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송계상 宋啓商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계상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판관 계훈 機勳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송기면 宋基冕

호 유재 裕齋 생몰년 1882~195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송기면은 근대기에 활동했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여산 礪山으로 자는 군장 君章, 호는 유재 裕齋, 겸산 兼山, 기산 崎山, 병암 屏巖 등이다. 13세에 석정 石亭 이정직 李定稷, 1841~1910을 스승으로 맞이하여 그가 타계할 때까지 이정직의 문하에서 문장·서화·역산 曆算 등을 두루 배웠다.

1910년 스승 이정직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뒤를 이어 향리에 요교정사 蓼橋精舍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39세 무렵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도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며 후진을 양성한 간재 艮齋 전우 田愚, 1841~1922를 만났다. 간재는 송기면에게 자신의 스승인 임헌회 任憲晦 선생의 묘비를 써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송기면의 글씨를 보고 ‘은 갈고리 같이 빛나고

쇠로 끈 새끼 같이 튼튼한 필획이 찬영하게 사람을 비추는구나 銀鉤鐵索 燦然映人’라고 평하였다. 이후 송기면은 간재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송기면은 서예에 뛰어났는데 해서는 구양순체에 뿌리를 두고 행초서는 미불 米芾·동기창 董其昌의 글씨를 주로 배웠으며, 예서와 전서는 한비 韓碑를 바탕으로 두고 청나라 등석여 鄧石如를 좋아하였다. 송기면의 작품은 많은 편액과 주련이 전한다. 대표적으로 부안군 계화면에 있는 간재사당인 <계양사 繼陽祠> 현판, 전주 유씨 대종증 제실의 <시사재 時思齋>, 부안 개암사 입구 김유신 장군 사당인 <보령원 保寧院>의 주련, 부안 진서면에 있는 고려 말 평장사 문정공 김구 金丘를 중시조로 모신 부안 김씨 제각인 <경지재 敬止齋>의 주련 등이 있다.

비문으로는 간재의 스승 임헌회의 신도비를 비롯하여 정읍에 있는 <무계정사 武溪精舍 유적비 遺蹟碑>, 완주 소양의 <유극수 신도비>, 완주 구이의 <이신회 신도비> 등이 전한다. 이외에도 행초서 병풍이나 족자 등이 주요 기관과 개인 소장이다. 회화로는 수묵으로 그린 사군자화가 있는데, 이정직의 영향이 엿보이나 힘 있는 필치와 농담의 필묵에서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송기면의 묵죽은 이정직의 묵죽에 근원을 두고는 있으나 붓에 물기가 많아지면서 마치 바람결의 떨림을 표현한 듯 댓잎의 번지는 느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삼남인 송성용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지면서 회화적인 표현 효과를 보인다. 그의 문집으로는 요교정사에서 펴낸 『유재집 裕齋集』 4책과 부록 1책이 있다.

송기면의 학문과 서화는 아들 송수용 宋守鏞, 1906~1946과 송성용 宋成鏞, 1913~1999으로 이어졌으며 송성용은 광복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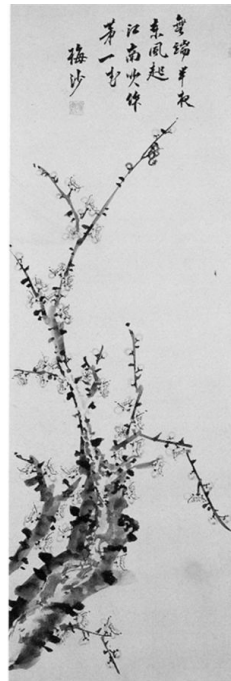
<묵죽도>, 종이에 수묵, 96×31cm, 개인

한 사람이 된다. 송성용이 창설한 연묵회(緣墨會)에 전국의 서화인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고, 송기면의 장손자인 송하영의 제자들로 구성된 묵지회(墨池會)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대회 宋大會

호 매사 梅沙 생몰년 1882~195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송대회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여산(礪山), 호는 매사(梅沙)이다. 19세기 문인화가였던 사호(沙湖)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의 아들이다. 그는 매사라는 호를 쓸 만큼 매화 그림에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작품도 대부분이 매화와 대나무 등 사군자 작품이다.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목매도〉는 하단에서부터 곡선을 그리며 비스듬히 올라가는 구도나, 중간 먹으로 굵은 줄기의 형태를 잡고 농묵의 태점으로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송수면과 송대회 부자간의 화풍 상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 소장 《목죽도 10폭병풍》의 대나무도 마디 사이가 길고 가지 끝부분에 잎이 소략하게 나있어 깔끔한 문인화풍을 보인다. 송대회의 작품은 송수면의 화풍과 매우 닮아 그의 작품 전반에 부친 송수면의 영향이 컸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목매도〉, 종이에 수묵, 78.5×27cm, 목포대학교박물관

송명석 宋明錫

호 근암 勤菴 생몰년 1944~201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송명석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했다. 본관은 여산(礪山)이고 자는 사현(思賢), 호는 근암(勤菴)이다. 남정(南丁) 최정균(崔正均, 1924~2001) 문하에서 글씨를 배웠다. 당대(唐代) 안진경의 해서 「안근레비」를 오랫동안 입서하였다. 전북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입선과 특선을 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가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전주에 전북서예학원을 개원하여 후학을 지도했다. 만년에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 선생을 사사하며 한문을 공부하였다. 송명석이 남긴 작품은 해행초가 대부분으로 당대 우세남의 〈필수론(筆髓論)〉의 일부를 쓴 작품은 스승 최정균의 필법을 그대로 취하여 제작하였다. 최정균에 비해 서풍이 부드럽고 필획과 자형의 대소와 강약을 조절해 전체적인 어울림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송성용 宋成鏞

호 강암 剛庵 생몰년 1913~199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송성용은 한국 근현대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1882~1956)의 삼남이다. 자는 사언(士彦), 호는 강암(剛庵)이다. 일찍이 부친으로부터 한학과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여 16세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독창적인 강암 서체를 확립하였다. 일제강점기 단발령에 항거하여 보발과 한복을 고집하고 평생 한복을 입었다. 44세 때 처음으로 국전에 출품하기 시작한 후로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로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그는 연묵회를 창립하여 후진을 지도하였는데, 이후 1968년에 열린 연묵회(緣墨會)전은 1969년 전북도전의 기초가 되었다. 1993년에는 재단법

인 강암서예학술재단을 창설하여 소장 작품과 재산을 전주시에 기부하였고 전주시에서는 강암서예관을 건립하여 개관하였다.

송성용은 50세 전까지는 주로 글씨를 즐겨 썼으나 60세 이후에는 사군자를 많이 그렸으며 특히 대나무를 즐겨 그렸다. <풍죽도>, <《풍죽도팔곡병》 등 묵죽 작품이 강암서예관, 전북도립미술관, 순천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송성용의 명성은 전주로 들어서는 틀게이트에 쓴 <호남제일문>의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글씨에서 증명된다. 글씨의 내용이나 쓰임에 따라 각 서체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묵죽도>는 괴석, 난과 함께 대나무를 그린 것으로 풍죽의 잎새에서 느껴지는 강한 동세와 함께 습윤한 담묵과 농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깔끔하다. 그림의 상단에는 이와 어울리는 화제를 적었다.

송성용의 서예 세계에 대해 김병기는 “고도의 문인 정신으로 서양식 현대 문명 이후 퇴색되어 있던 서예의 본질미를 재확립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범고적法古의 본질미 확립뿐 아니라 부단한 창신 추구로 서예의 현대미를 개척했으며, 조화로운 범고창신法古創新으로 우리의 서예를 세계 예술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여 서예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고 평하였다.



<묵죽>, 종이에 먹, 83×45cm

송세림 宋世琳

호 취은 醉隱 생몰년 1479~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송세림은 조선 중종때의 문신이며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며, 자는 현중獻中, 호는 취은醉隱, 고은孤殷, 고송孤松, 놀암訥庵이다. 송계성宋繼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송복리宋復利이고, 아버지는 여원군礪原君 군수 송연손宋演孫이다.

1498년(연산군 4) 진사가 되고, 1502년 알성시調聖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과거에 급제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모친상을 당한 뒤 병을 얻어 벼슬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1504년에 있었던 갑자사화를 면하였다. 이후 스스로 호를 ‘취은’이라 하였다.

여러 벼슬을 거쳐 1516년(중종 11) 능성현령綾城縣令으로 재직 중 방납防納 폐단을 제거하였고, 책 인쇄로 인한 과중된 잡세雜稅를 폐지하였다. 또한 여러 제도의 폐해에 대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을 상소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 상소로 중종으로부터 포상을 받고 벼슬도 가자加資되었다. 홍문관 정5품 벼슬인 교리校理를 지내다 병으로 사퇴하였다. 당대 문명을 떨쳤고, 그림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다. 태인의 무성서원武成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음담패설집 『어면순鸚鵡橋』이 있다. 1935년에 발간된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와 그림을 잘 하였다.”고 전한다.

송수면 宋修勉

호 사호 沙湖 생몰년 1847~191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송수면은 조선 말기의 문인화가이다. 본관은 여산礪山으로 정가공파正嘉公派 25대손으로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났다. 자는 안여顔汝, 호는 사호沙湖이며, 화순군 동북면(현재의 남면) 사평리에서 살았다. 부친 인만仁萬, 1806~1880은 순조 대에 감역 벼슬을 지냈으며, 조부 주순周純, 1786~1852은

진사, 고조부 제원濟元, 1730~1807은 종4품 조봉대부동몽교관朝奉大夫童蒙敎官을 지낸 문인이었다.

송수면의 형 공면兢勉, 1839~1922 또한 정5품 통덕랑을 지낸 문신으로, 문집을 남겼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공면의 첫째 아들 재회在會는 16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校理를 지냈고, 셋째 아들 염재念齋 송태회宋泰會, 1872~1941 또한 16세에 최연소로 사마시에 급제하여 형과 함께 성균관에서 동몽진사童蒙進士로 불린, 서화로 이름난 문인이다. 19세기 말 보성에 거주하였던 문인 소파小派 송명회宋明會, 1872~1953와 서예가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1874~1965 형제와는 송수면의 7대조 담택 이후 갈라져 내려온 한 집안사람이다. 이렇듯 송수면의 집안은 대대로 시서화로 이름을 낸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 가문으로 그러한 전통에서 송수면의 서화가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송수면의 아들 매사梅沙 송대회宋大會, 1882~1975 또한 그림에 일가견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작품이 전한다.

송수면의 생애를 알려주는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그의 회갑 때 송수면의 삼종제인 규사圭沙 송주면宋宙勉, 1857~1910이 쓴 시에서 ‘천성이 견개獨介하여 세상일에 간여하지 않았다’거나 ‘덕을 좋아하였고, 회갑이 될 때까지 건강하였으며, 집에는 도서圖書가 많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서화를 즐기며 자신의 세계에 천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수면의 작품으로 전하는 것은 문인들이 주로 하는 묵죽이나 묵매 이외에도 나비그림과 산수, 연, 송학, 소, 포도, 화조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송수면은 송나비로 불렸던 만큼 나비 그림을 잘 그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접도십폭병풍花蝶圖十幅屏風》은 나비와 화훼, 괴석을 함께 그린 것이다. 《화접도십폭병풍》은 갖가지 종류의 나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송나비라 불렸다는 그의 명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더구나 나비와 함께 그린 갖가지 꽃의 화사함, 그리고 괴석의 독특한 모양과 필치는 그의 화법의 다양성을 새삼 확인케 한다.

송수면의 산수화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화보풍의 산수화 수 점이 남아있다. 그 중 《산수화육폭병풍》은 대체로 『고씨화보』에 실린 중국 역대 문인화가들의 작품을 참고하여 완성하였다. 때문에 그가 활동하던 구한말의 일반적인 화풍에 비해 고식古式을 띠고 있다.

송수면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수가 전하는 것은 사군자이다. 그 중에서도 묵매와 묵죽이 주를 이룬다.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에도 송수면이 “대 그림을 잘 하였다畫長於竹.”고 하여 당시 묵죽으로 이름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사군자 각각을 그린 경우도 있지만 매화와 대나무를 번갈아 그려 병풍을 이룬 예가 많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매죽도십폭병풍》의 매화꽃 그리는 방식은 17세기 매화로 유명한 어몽룡魚夢龍이나 조지운趙芝耘 매화도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전통적인 표현법이다. 대나무 또한 조선 중기의 묵죽화가 이정李暹, 1554~1626이나 조선 후기 유덕장柳德章, 1694~1774의 묵죽과 유사한 고식古式 표현이다. 간혹 줄기는 가늘고 마디 사이는 긴 수죽修竹을 그려 대나무의 사의적인 면을 강조한 작품도 있으나 대체로 전통적인 묵죽화풍을 고수하고 있다.

송수면 회화에서 보이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특성은 송수면의 특징이자 당시 지방 화단에서 보이는 보수적인 일면이기도 하다. 묵매나 묵죽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묵란이나 묵국도 전하며 이 또한 화보풍의 전형성과 함께 소박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

송수면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2007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사호 송수면 특별전이 열렸고, 2012년에는 화순군에서 열린 화순 출신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전시에서 송수면이 중점적으로 조명되었다. 그럼에도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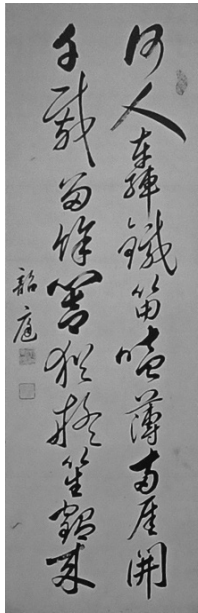


《매죽도십폭병풍》, 지본수묵, 각 폭 95.2x29.9cm, 국립중앙박물관

대 초반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던 200여 년이 넘었을 생가 건물은 허물어져 터만 남아있어 안타깝다.

송수용 宋守鏞

호 소정 詔庭 생몰년 1906~194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오언절구〉, 종이에 먹, 102.8×33cm, 개인

송수용은 일제강점기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하였다.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의 4남 1녀 중 장남이며,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 1913~1999의 형이다. 자는 정보正甫이며 호는 소정詔庭이다. 16세에 간재良齋 전우田愚 문하에 들어가 서예와 한학 공부에 열중하여 문장가로 문필가로 크게 이름을 떨쳤다. 당시의 학자들은 선생을 “한묵사치翰墨詞致가 유족동인야有足動人世”라 하면서 글씨와 문장이 모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평하였으며, 스승인 간재도 그의 순리를 따르는 바른 심성을 칭찬하며 단편문을 손수 써주기도 하였다. 한편 송수용은 18세 때 한의학을 배우고 한의사가 되었다.

송수용은 동기창과 구양순의 행서를 유려하게 썼으며, 여러 편의 한시漢詩와 금일급무今日急務, 온고지신溫故知新 등 여러 편의 산문, 문인화에도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재능이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장남 송하영宋河英, 1927~1992이 가학을 이어받아 학문과 서예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송영승 宋榮承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영승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문인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종호 鍾浩의 후자後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송옥형 宋玉衡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옥형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문인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충강공忠剛公 간佩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송운회 宋運會

호 설주 雪舟 생몰년 1874~196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운회는 근현대기 서예가이자 문인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자는 세경世卿,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호는 설주雪舟이다.

설주 송운회의 7세조인 송정협宋廷協, 1679~1749이 서울에서 보성으로 옮겨온 이래, 그 후손들은 보성과 화순 등지에서 살았다. 조부 송후만宋厚萬, 1829~1908은 통정대부를 지냈고, 그의 형도 시문詩文으로 유명한 소파小波 송명회宋明會, 1872~1953이다. 뿐만 아니라 고조부 송억宋億, 1774~1835과 증조부 송형순宋亨純, 1799~1850이 특히 문장에 조예가 깊어 시문 수백 편이 『울옹공부휴공양세유고栗翁公浮休公兩世遺稿』라는 이름으로 송운회 형제에 의해 편집되기도 하였다. 설주와 소파의 문예적 성향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문풍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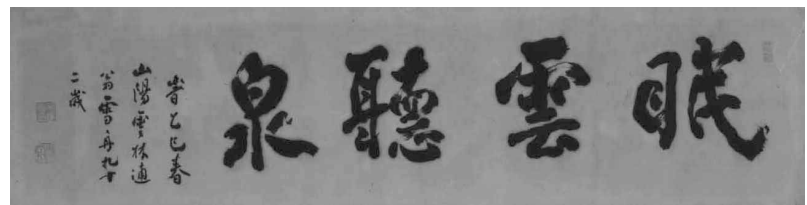
송운회는 6세가 되자 형 송명회와 함께 조부인 파수波叟 송후만宋厚萬에게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8세 되던 해에 당시 보성에 유배와 있었던 영재甯齋 이진창李建昌, 1852~1898에게 경서와 서예를 배웠다. 이진창에게 학문과 서예에 임하는 자세를 배웠을 뿐 아니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어수선한 시대 상황 속에서 유배를 거듭하다 결국 세상을 떠난 스승을 보면서 송운회는 세속에 뜻을 접고 평생 야인으로 살았다. 설주라는 아호도 이진창이 지어준 것이다.

송운회는 중국과 우리나라 이름난 서예가들의 필법을 두루 섭렵하는 한편 명나라 문인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의 필법에 심취했다. 각체에 모두 능했으나 주로 해, 행, 초서를 썼으며 그의 진초는 “선仙의 경지에 이른 신평神筆”이라는 평을 받았다.

송운회는 보성 죽곡정사竹谷精舍의 회봉晦峰 안규용安圭容, 1873~1959, 충청남도 보은에 있는 관선정 서당에서 함께 교육을 담당했던 겸산兼山 홍치유洪致裕, 1879~1946, 서화가인 효봉曉峰 허소許昭, 1882~1942 등과 교유하였다. 특히 안규용과는 서로 자식을 바꿔 교육을 부탁할 만큼 절친한 평생지기였다.

송운회는 광복 전의 조선미술전람회, 그 후의 국전 등에서 그의 작품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았지만 출품하지 않았다.

송운회의 아호는 설주이지만 작품에는 빙설氷雪, 설주노인雪舟老人, 설인雪人, 노설老雪, 설옹雪翁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빙설, 설주라는 호에서 느껴지듯이 한평생을 청빈으로 일관한 그는 행여 자신이 죽은 뒤 지나친 미사여구로 비문을 장식할까 저어되어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써놓는 이른바 ‘자찬



〈면운청천〉, 1965년. 종이에 먹, 32×125cm, 전남대학교박물관

묘비명’을 남겼다. 이 비문에는 그의 인품과 예술혼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람마다 힘써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어져 마음의 참모습을 잃으리라. 내 본시 발같이 힘쓰지 않아 가난을 달게 받아들였고, 동창 아래서 졸다가 문득 꽃을 보고 봄이 왔음을 깨달았다. 옛것을 좋아하고 새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의관을 고치지 않았으며, 설한강산이 없어짐을 아쉬워하다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몰랐다. 이제 이를 어찌할까. 어제의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 또한 오늘의 세상과 맞지 않으니 저 흰 구름을 타고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

그의 도가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면운청천眠雲聽泉〉이다. “구름 위에서 자고 샘물 소리를 듣는다.”는 뜻으로 그가 지향했던 삶의 한 부분이 담겨 있다. “세을사춘 산양운림포옹 구십이세歲乙巳春山陽雲林逋翁九十二歲”라는 관지로 보아 그의 출년인 1965년 봄에 쓴 작품이다. 약간 떨리는 듯 기운 해서로 쓴 이 글씨는 그의 만년작이자 탈속한 문인의 마지막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송운회는 《금강첩金剛帖》, 《빙설첩氷雪帖》 등의 많은 서첩과 병풍 글씨 등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문집 『설주유고』는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서예의 폭과 깊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인가를 알려준다. 송운회의 서예 세계는 근대 호남 서예의 근간이 되었다.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 1907~1987을 거쳐 근·현대 서단으로 이어졌다. 안규동을 거친 송운회의 서예는 근대기 광주·전남 서예의 주요 흐름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가법으로도 전수되어 그의 집안에는 3대째 서예에 정진한 후손들이 그 맥을 잇고 있다.

후손들과 서화 애호가들에 의해 1965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유작전이 열렸으며, 같은 전시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광주 YMCA 강당에서 열렸다. 그 후 1996년에 그의 30주기 회고전이 열린 바 있다.

송윤덕 宋潤德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윤덕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남양이다. 판관 덕徳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송인호 宋寅浩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인호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학린學麟의 손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해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송일중 宋日中

호 송재 宋齋 생몰년 1632~1717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송일중은 조선시대 문인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김제시 백산에서 감역 벼슬을 한 시헌時獻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의 7대손이다. 자는 문명文明, 호는 송재宋齋이다. 사계 김장생의 문인 유집柳緝, 1585~1651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김제군수로 내려와 있던 창강滄江 조속趙淶의 문하에서 제자백가서와 창강이 수집한 금석 자료를 보며 자신의 서체를 완성할 수 있었다.

1669년(현종 10)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682년(숙종 8)에 천거로 북부참봉北部參奉에 제수되었다.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를 지내고 사직하였다. 통정대부通政大夫와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이르렀다. 김제 벽골제의 둑이 무너져 전답이 침수되자 수령 방백의 도움을

얻고 사재를 털어 이를 수리하였다. 이 때문에 송일중을 송공거宋公渠라 불렀다.

그는 큰 글씨大字에 능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으나 해인사, 흥복사의 편액, 전주감영 증진영에 걸렸던 ‘간검당’, ‘제남정’, ‘호경루’ 등 많은 편액이 있었다고 전한다. 유일하게 부안 객사 현판인 <부풍관扶風館>이 현재 부안 국악원에 걸려있다.

금석문으로는 송일중이 1667년에 36세의 나이로 쓴 <한산이씨 이흥발 선산관리비>가 전한다. 한산이씨 이흥발李興發, 1600~1673이 찬하여 자신과 기발起發, 생발生發 3형제의 가계와 행장, 그리고 선대 5세의 증손이 제례를 주관하는 절차 등을 적은 내용이다. 전주에 전하는 이 비문은 보존 상태가 좋아 서체 연구뿐 아니라 비문 내용의 사료적 가치도 인정된다. 이 비문을 찬한 이흥발은 병자호란 때 송일중의 스승 유집과 함께 남한산성에 진군한 바 있어 그러한 인연으로 이 비문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일중의 글씨는 당대에 이름이 나 중국 사신들이 오면 그의 글씨를 본국으로 가져갔고 청나라 강희제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매천 황현은 호남 서예를 논하면서 “송재 송일중과 후의 창암 이삼만, 벽하 조주승이 끼어 정족을 이루며 천년 조선의 서단을 논정하니 우리 호남의 서단은 적막하지 않네宋松齋後 李蒼巖 鼎足參差碧下 三論定 千秋東筆苑 未應寂 莫我湖南”라 하였다. 송일중과 이삼만, 그리고 조주승을 조선의 국필로 인정하였고, 송일중이 조선 중기 호남의 서맥을 형성하는 근원이라 한 것이다.



「송재진적」

송주숙 宋柱瑋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주숙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충양공씨 襄公 순례純禮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어려서 과거공부를 하였다. 시와 문을 잘 지었다. 세상의 명리를 사양하고 고요한 심성을 기르며 전원생활을 즐겼다.”라고 하였다.

송주환 宋柱煥

호 이국당 以菊堂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주환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호는 이국당 以菊堂이다. 판관 의호義浩의 조카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송지의 宋志懿

호 운암 雲庵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지지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호는 운암 雲庵이며, 구룡재 龜龍齋 정현廷賢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그가 “효행을 돈독히 행하였고 일찍이 도를 밝히는데 … 그 뜻이 고상하였다.”고 적혀있다.

송진순 宋鎭順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진순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태환台煥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송태동 宋泰東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태동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만징萬澄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行誼篇에는 “문예가 빠르게 나아갔으나 힘써 과거시험을 보지 않았고, 언제나 패부를 몸에 찬 손님처럼 행동하였다 文藝驟進 不事學業以敦 尙行賓爲持身 佩符.”라고 하였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송태회 宋泰會

호 염재 念齋 생몰년 1872~1942 출생·활동지역 전남·전북 분야 서화

송태회는 근대기 문인 서화가이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평숙平淑이며 호는 염재念齋로 말년에는 염재옹念齋翁, 염재거사念齋居士라 하기도 하였다. 화점도와 사군자로 유명한 19세기 문인화가 사호沙湖 송수면宋修勉, 1847~1912의 조카이다. 송수면의 형이자 통덕랑을 지낸 호은湖隱 송공면宋兢勉 1839~1922의 셋째 아들로 화순군 동북면 사평리에서 태어났다. 자손을 늦게 본 송수면의 양자 노릇을 잠시 하면서, 송수면의 문하에서 서화를 익혔다. 송태회는 어려서부터 시문詩文과 글씨에 뛰어났다. 10세 때 ‘녹괴서실綠槐

書室'이라 쓴 글씨에 대해 칭찬이 자자하였고, 중국인 석범凡 陳衍 庶와 송광사의 금명대사 김보정金寶鼎의 찬시가 남아있다. 30여 년이 지난 후 송태회는 두 분께 찬시를 받은 내력을 적어 첩을 만들고 '영금편옥零金片玉'이라 표지를 하였다. 송태회는 16세 때 최연소로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동몽진사童蒙進士로 불렸다. 성균관에서도 시작詩作 경연에서 자주 장원을 하여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를 짓고 쓰는 일은 주로 그의 몫이었다고 한다.

시문은 18세 때부터 소아小雅 조성희趙性憲에게 배웠다. 조성희는 1885년 동복 현감에 부임한 후 옥천 현감과 임실 현감 등 전라도 일대에서 현감을 지낸 인물이다. 22세 때인 1893년 11월에는 내한來韓한 원세개를 따라 청나라에 유학생 자격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1909년 잠시 '대한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고향에 내려와 보성군 사립보성학교와 능주군 사립육영학교, 순천군 송광사의 사립보명학교 등에서 한문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교류하였던 지역 고승과 문인들의 비문과 편액 등 수많은 유필은 전라남도 지역 유명



《죽수십이경도병풍》, 20세기 전반. 비단에 수묵담채, 각 폭 59.3x27.5cm, 개인

사찰에 보존되어 있다.

1920년 고창 오산고등보통학교(현 고창중고등학교)에 한문 교사로 초빙된 것을 계기로 고창으로 이주하여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송태회는 고창 고보 교사를 하면서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를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서예와 묵매, 산수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이후 그는 전국에서 전시회를 하며, 고창과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송태회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군자이다. 그의 사군자화는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이름을 얻고 활동하였던 여러 화가들의 사군자 화풍이 두루 드러난다. 시문에 능한 학자였던 만큼 주희朱熹의 「무이구곡도가武夷九曲權歌」에 맞춰 그린 <무이구곡도>가 남아있다.

송태회의 작품 중에는 실경산수화도 여러 점 전한다. 1921년에 20여 년 전에 했던 금강산 유람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 《금강산도십곡병》이다. 이 그림의 화재畵材는 실경산수이지만 전통적인 산수화풍에 보덕굴이나 신계사, 해금강 등의 특징을 약간씩 가미한 독특한 그림이다. 1929년 화순의 정경을 그린 《죽수십이경도병풍竹樹十二景圖屏風》과 고창고보와 고창 인근의 명소를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소나무, 매화, 국화, 파초를 비롯한 버드나무, 연, 석류 등에서는 각각 소재에 맞는 다채로운 경향을 보여 그의 화풍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다. 송태회는 당시 호남의 유지들뿐 아니라 전국의 서화가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여 여러 화가들과의 합작도도 남기고 있다.

송태회의 시문은 미간행본 『염재유고念齋遺稿』 전 7권에 남아있고, 염재유고간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부 번역 출간되었다.

송표 宋杓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표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남양이다. 첨추兪樞 석

규錫奎의 증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후남지』 「선필善筆」조에도 “왕희지체를 잘 썼다.”고 하였다.

송하영 宋河英

호 운곡 芸谷 생몰년 1927~1992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송하영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호는 운곡芸谷 또는 아산我山이다.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1882~1956의 장손이며, 소정詔庭 송수용宋守鏞, 1906~1946의 장남이자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 1913~1999의 장조카이다. 조부 유재와 부친 소정에게 유학과 한의학, 서예 등을 배웠고, 작은아버지인 강암 송성용의 영향을 받았다.

김제에서 백제한의원百濟韓醫院을 운영하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하면서 서단활동을 시작하였다. 1961년 제10회 국전에 출품하여 입선한 후 30회까지 10회에 걸쳐 입선하였으며 제26회와 제27회에는 특선을 함으로써 현대미술관 초대작가가 되었다. 198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전북미술대전 심사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송하영의 작품은 행서가 주류를 이루는데 강건한 결구로 단아하면서도 온유한 서풍을 보이고, 고박古朴한 예서와 해서 작품도 간혹 있다.

한학과 시문에 뛰어나 「유재선생가장」, 「지음서원묘정서문芝陰書院廟庭序文」, 「남산서원지서문南山書院誌序文」 등 찬문과 잡저, 시문 등이 다수 전한다. 글씨로는 <전주예술회관 건립비문> 등이 남아있다.



<행서오언율시>, 202×70cm, 개인

송현 宋鉉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현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남양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후남지』 「선필善筆」조에도 “난정체蘭亭體를 잘 썼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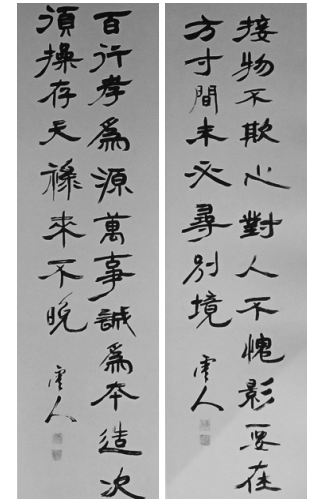
송홍 宋鴻

호 운인 雲人 생몰년 1872~194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홍은 근대기에 활동한 교사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신평新平, 자는 익중翼中, 호는 운인雲人이다. 구한말 유학자였던 송병선에게 글을 배웠다.

1904년 일제가 황무지 개척권을 강제로 요구하자, 송홍은 전 승지 윤병과 이범창, 전 군수 홍필주, 전 주사 이기 등과 함께 남촌의 초당에 소청疏廳을 설치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그 불가함을 상소하였다. 그럼에도 임금의 확답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전 참판 홍종영 등 5인과 함께 대한문 앞 광장에서 복합상소를 하다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갇은 고초를 당했다.

일본 헌병대에서 풀려난 송홍은 중국으로 건너가 톈진, 베이징, 상하이 등을 다니며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힘을 기르는 일이 중요함을 절감하였다. 향교재단을 기금화하여 향교를 신식 학교로 개편하고 신교육을 담



<접물불기심>

당할 교육자를 양성할 사범학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발의했으나 유림들의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다. 광주보통학교(현 서석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광주 농업학교, 사범학교를 거쳐 1920년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일고)가 설립되자 1924년 광주고보로 옮겨갔다. 1924년부터 1930년 2월 19일까지 광주고보에서 한문과 국어(조선어) 교론(教論)으로 있으면서 광주고보의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서 한국 역사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검거되고 퇴학을 당하자, 장기 결근으로 항거하였고, 퇴직하였다. 송흥은 서동의 자신의 집을 '고분당(孤憤堂)'이라 이름 짓고, 해방이 될 때까지 칩거하면서 독서와 집필, 서예에 전념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다시 광주 서중학교 교단에 서게 되었고, 광주의학전문학교(현 전남대의대)에서 한국사를 강의하였다. 1967년 후학들에 의해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 교정에 운인선생의 동상이 세워졌다. 운인 송흥의 서예 작품으로 획이 부드러우면서도 끝은 날카로운 해서 작품이 다수 전한다.

송후 宋候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송후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남양이다. 검정 선(楶)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신공제 申公濟

호 이계 伊溪 생몰년 1469~153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신공제는 조선초기 문인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순창 출신으로 본관은 고

령, 자는 희인(希仁), 호는 이계(伊溪)이다. 조부는 전주부윤을 지낸 귀래정 신말주(申末舟)이며, 부친은 여절교위를 지낸 신흥(申洪)이다.

1486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5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승문원 부정자, 예문관검열을 거쳐 1498년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으며, 무오사화시 공을 인정받아 낭관(郎官)으로 가자되었다. 여러 벼슬을 거쳐 1531년 우참찬·평안도관찰사, 1533년 지중추부사·한성부판윤, 1534년 함경도관찰사, 1536년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그는 고향인 순창의 산수를 좋아하여 정자를 짓고 스스로 이계주인(伊溪主人)이라 하였는데 그의 호 이계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고 조맹부의 송설체를 잘 썼으며, 또한 우리나라 서예 명인들의 필적을 모아 『해동명적(海東名蹟)』이라는 책을 간행하였다. 글씨는 광주(光州)에 있는 참판 안침의 묘비(墓碑)와 남원에 있는 판서 윤희손의 묘비(墓碑)가 있으며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신명숙 申命淑

호 정재 靜齋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명숙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호는 정재(靜齋)이며, 문행(文杏)한장(漢樺)의 아들이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해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신방우 申芳雨

호 호당 浩堂 생몰년 1912~1973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서울 분야 회화

신방우는 근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광주·

전남지역과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다. 호는 호당浩堂이다. 1930년대에 조석진과 안중식이 결성한 '경성서화미술원京城書畫美術院'에 입학하여 3년여 수학하였으며 정재 최우석 문하에서 공부했다.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화단에 등단하였으며, 1938년 연진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신방우는 1948년부터 한국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광주여중과 여고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1950년대에 신방우는 서울로 주거지를 옮겼다.

허백련과 함께 연진회에서 활동하였으나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산수도는 남도 산수화와는 다르게 채색화와 장식적인 작품을 주로 제작하였다. <산수도>는 근경 언덕에 수 그루의 잡목과 몇 채의 가옥과 돌담을 두른 기와집을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현대적 표현에서 개성을 보이며 이와 함께 드물게 호랑이 그림도 전한다



<산수도>, 1951년, 종이에 수묵담채

신성구 申性求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성구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영모永模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성리서와 상위문에 깊이 통찰하여 정미한 핵심을 잘 알았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 온공함을 지녔다.”라고 하였다.

신성록 申星祿

호 성암 誠庵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성록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호는 성암誠庵이며, 제주祭酒 석顛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라고 전한다.

신수목 申壽睦

호 근원 權園 생몰년 1909~199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신수목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진안 출신으로 호는 근원權園이다. 전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미술전문학교를 수료하였다. 고국에 돌아와서는 농민학교를 세워 농민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방 후 진안중학원(진안중학교 전신) 설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 학교에서 20여 년 동안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술의 불모지였던 진안에 미술을 소개하고 제자를 길러냈다. 1973년 정년퇴임 후 서울에 올라가 '서화곡서실'을 열고 10년 동안 후학을 길렀다. 그 후 전주에 내려와 가정에서 문인화를 지도하면서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자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산수화 몇 점이 있고, 문인화도 수 점 전한다. 말년에는 젊은 시절부터 쓴 글을 모아 『근원문집』을 발간하였다.

신시택 申時澤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시택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명순命詢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어려서부터 문장과 필법에 능해 당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치를 잘 궁구하여 행동을 바르게 하였고 규범을 잘 따랐다”고 하였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신영복 辛永卜

호 도촌 稻邨 생몰년 1933~201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신영복은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호는 도촌 稻邨이다.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하였다. 이후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강진의 서예가이자 성리학자였던 이백련李白蓮 문하에서 한학 수업을 시작했으며 남농 허건에게 정식으로 그림을 배웠다. 목포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전국 미술전람회와 조선대학 미술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과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1953년 이후 국전에서 3회의 입선과 3회의 특선을 하였다. 신영복은 허건의 문하에서 공부했지만 이와 함께 의재 허백련과 월전 장우성, 소전 손재형 등 당시 서화계의 대가들에게도 수업을 받았다.

신영복의 호 도촌은 남농 허건이 지어준 것으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성공할수록 겸허하라’는 뜻을 담아 벼 稻자를 써 도촌이라는 호를 주었다고 한다. 1976

년과 1979년에는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한국현대화가 100인전(1973년), 한국현대미술대전(1976), 동양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자연전(1979), 한국현대미술초대전(1982~1989),



(우후(雨後)), 1985년, 화선지에 수묵 채색, 100×130cm, 광주시립미술관

한국전통산수화전(1995) 등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꾸준히 출품하였다.

〈우후〉는 구름에 싸여 있는 깊은 계곡 이끼 낀 산사와 그 옆에 하얀 폭포가 내리는 풍경을 그린 것이다. 수묵과 담채로 그린 그의 화풍은 허건을 이어받아 남종화의 새로운 맛을 재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신장 申樞

호 암헌 巖軒 생몰년 1382~143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장은 15세기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본관은 고령이며, 자는 제부濟夫, 호는 암헌巖軒이다.

조선 태종 2년(1402)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여 상서녹사가 되었다. 이후 예조정랑 겸 춘추관기사관을 거쳐 춘추관동지사로서 『정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뒤에 중군도총부총제, 세자우부빈객을 거쳐 공조좌참판에 이르렀다. 집현전제학을 오래 맡아, 당시 유학에 통달한 권위있는 학자로 추앙받았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신제모 申濟模

호 병호 屏湖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제모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호는 병호 屏湖이며, 노암 신희모申曦模의 동생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홍매산洪梅山의 문인이며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신직구 申直求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직구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구택龜澤의 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신철휴 申喆休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철휴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오헌梧軒 여정汝楨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배고픔을 참고 배움에 힘썼으며 학식이 넓고 풍부하였다.”고 하였다.

신현록 申見祿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현록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증 사복정司僕正 섭涉의 증손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문장에 숙달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다. 급함을 당하여 도를 즐거워하여 성현의 삶을 살았다文章風達履入公車見屈樂道誦法聖賢”라고 하였다.

신희모 申曦模

호 노암 魯庵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신희모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호는 노암魯庵이며, 세록世祿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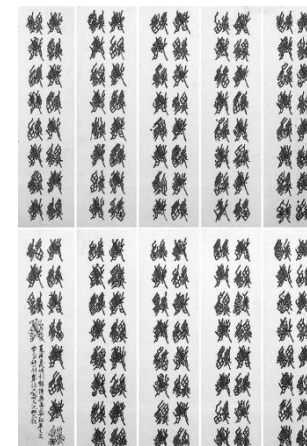
심상운 沈相允

호 가석 可石 생몰년 1877~194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심상운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옥구 출생으로, 본관은 청송이다. 자는 윤필尹弼, 호는 가석可石이다. 안효공安孝公 심온沈溫의 후손으로 부친은 심기택沈基澤이다. 어려서부터 글씨에 재능이 있었으며 글씨를 연마하여 종정문자와 전서를 잘 썼고 육서六書와 팔체八體를 겸하였다. 시서화에 두루 능하였으며, 필력이 노경에 이르러 더욱 견고해졌는데, 한석봉의 윤필법을 모방하였다.

그는 당대의 대학자인 최병심과 절친하게 지냈으며 참봉 벼슬을 하며 일생을 군산에서 지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전국 129개 군의 인문 지리 현황을 조사하여 1931년에 간행된 지리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선필善筆」 조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당시 장수를 뜻하는 ‘수壽’자와 ‘복福’자를 반복해서 쓰는 ‘백수복百壽福’ 병풍이 유행하였는데 ‘서울에는 위당 김문제가 있고 호남에는 가석 심상운이 있다.’라



《백수복명품》, 종이에 먹, 각 폭 100×27.5cm, 순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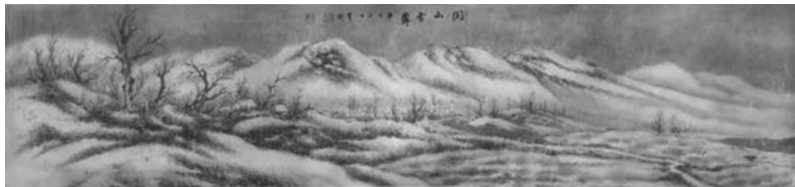
할 만큼 백수복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산수화도 잘하였다. 그의 서첩으로 『가석첩』이 전한다.

심은택 沈銀澤

호 청헌 淸軒 생몰년 1887~194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심은택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출신으로 호는 청헌淸軒이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1897~1972에게 그림을 배워 이묵회以墨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38년 제17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정교>를 출품하여 특선을 하였으며, 제18회 제19회에서 입선을 하여 화단에 이름을 알렸다. 이상범 문하에 있어 청전 이상범과 제당 배렴, 송석 박흥진, 송재 조동욱 등과 함께 그린 합작도가 전한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관산설제關山雪霽>는 성관城關이 있는 강변에 눈이 쌓인 풍경을 그린 것으로 습윤한 먹을 통해 눈 내린 어두운 하늘과 강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잔 붓질을 반복하여 산의 주름과 들판의 눈 쌓인 모습을 그린 것이 이상범과의 연관성이 느껴진다.



<관산설제>

안규동 安圭東

호 송곡 松谷 생몰년 1907~1987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서예

안규동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



<명부전(冥府殿)>, 편액, 광주 원효사 명부전

며 호는 송곡松谷, 천마산인天馬山人, 호남거사湖南居士이다.

당호는 육문서재六文書齋, 육문당六文堂, 오인당五仁堂, 완

학당阮鶴堂 등이 있다.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글씨는 부친인 안덕형과 설주 송운회, 효봉 허소 등에게 익혔는데 부친에게는 해서를, 송운회에게는 행서와 초서, 허소에게는 전서를 이어받았다. 1963년 근원 구철우, 지봉 정상호 등과 더불어 광주 서예연구회를 설립해 활동했다. 1965년에는 광주 서예연구원을 개원해 제자들을 배출하며 남도 서예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배출된 주요 문하생으로 백천당 고기임, 창석 김창동, 송파 이규형, 학정 이돈홍, 금초 정광주, 용곡 조기동, 운암 조용민 등이 있다. 1967년 광주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과 일본, 대만에서 초대전을 열었고 『서예오체천자문』, 『오체법첩』, 『서예역사』, 『한글서예』 등을 출간했다.

안규동은 오체에 두루 능했으며 특히 행초에 일가를 이루었다. 그는 남도 서체의 근간을 이루는 동국진체의 계승자인 이광사와 김정희의 필법을 익히는 데 주력했으며 기정진奇正鎭, 모수명牟受明, 송운회宋運會로 이어지는 호남 서맥을 계승하였다고 평가된다.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 안규동의 기적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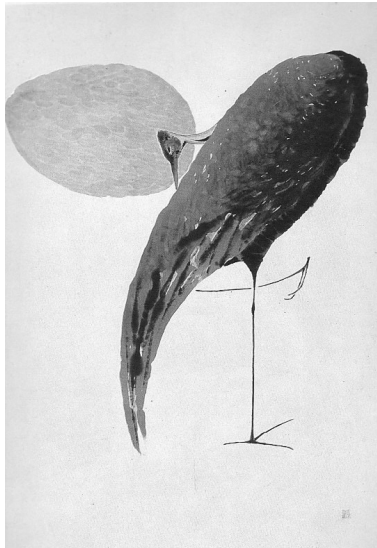
안동숙 安東淑

호 오당 吾堂 생몰년 1922~2016 출생·활동지역 전남·서울 분야 회화

안동숙은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함평에서 출생했다. 호는 오당吾堂이다. 우연히 김은호를 만나 1936년 김은호의 사숙인 낙정헌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4년 동안 수학하였다. 1940년 제19회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에 채색의 화조영모화인 <군계群鷄>를 출품하여 입선

을 하였다. 안본동숙安本東淑으로 창씨개명을 한 후에 몇 차례 선전에서 입선하였다. 해방 이후 성균관대학교 예과에서 잠시 수학하였고, 1948년 낙청헌 선배인 장우성張遇聖, 1912~2005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졸업하지 못했다. 이화여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고향인 함평에 2011년 함평군립미술관이 설립되면서 작품을 기증하였고 현재 그의 작품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안동숙의 화풍은 1940년대 선전에 출품할 당시 일본화를 연상케 하는 화풍으로, 해방 이후에도 낙청헌 양식의 그림을 그렸다. 1950년대는 아교를 활용하여 번짐, 얼룩을 토대로 한 기법을 주로 사용한 수묵담채화를 꾸준히 발표하였다. 1960년 서세옥徐世鉉, 1929~2020이 결성한 묵림회墨林會에 발족부터 가담하면서 기하추상 양식의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안동숙은 화조영모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다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반추상에서 벗어난 추상 작품을 제작하였다. <한국의 상-태고의 정1>은 화문석 같은 재료의 물성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1969년 제 10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재료와 기법을 적극 사용하였는데, 특히 유화 물감을 활용한 평판화, 모노타이핑 monotyping을 시도하였다. 안동숙은 수성 미디엄을 섞어 화판에 이미지를 그린 다음 종이에 찍어내는 모노타이핑에 농묵의 거친 파필과 비백을 연상시키는 필묵을 가미하였다. 1960~1970년대에 독자적인 추상영역을 확고히 하였으며 여기에 섬세한 육리법에 의한 질감표현을 더하였다. 1980년대에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섭렵하고 동시에 전통의 영역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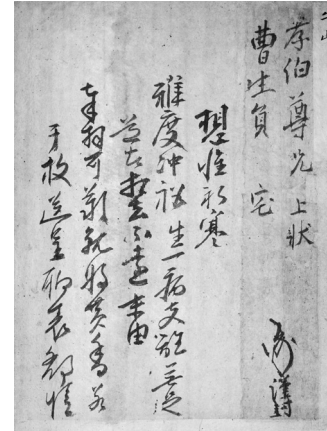


<한월>, 1958. 종이에 수묵담채, 100×67cm, 함평군립미술관

할 수 있는 수묵 담채의 서화를 함께 보여주었다.

안방준 安邦俊

호 은봉 隱峯 생몰년 1573~165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편지>, 종이에 먹, 은봉중가 소장

안방준은 조선 중기의 의병장,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이며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峯, 우산牛山, 빙호자氷壺子, 우산병복牛山病覆, 은봉암隱峰菴, 매환옹買還翁, 대우암大愚庵, 왈천거사吐川居士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어려서 박광전朴光前, 박종정朴宗挺을 수학하였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중봉中峯 조헌趙憲의 호를 한자씩 따서 호를 은봉이라 하였다. 1591년 성혼成渾의 문인이 되었으며, 오윤겸吳允謙, 황신黃愼, 신응구申應樂, 권극중權克中, 한교韓嶠, 등과 교유하였다.

임진왜란 때 박광전과 의병을 일으켰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1614년에 안방준은 보성 우산에 정착하여 학문연구와 후진 교육을 시작하였다. 서인계인 정철鄭澈, 1536~1593, 조헌趙憲, 1544~1592 등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김유, 이귀李貴, 1557~1633, 성문준, 송준길 등과 친교가 있어 서인 집권하에서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학자로 대두되었고, 조정에 거듭 천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뒤에 교유했던 공신 김유에게 글을 보내 당쟁을 버리고 인재를 등용하여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할 것을 건의하였다. 1624년 동몽교관 사포서별제 등에 임용되었으나 사퇴했다. 인조 후반에 전쟁서주부, 찰방, 좌랑 등을 제수받았지만 나아

가지 않았다. 효종이 즉위한 뒤로 좌의정 조익趙翼의 천거로 공조좌랑, 사헌지평, 장령을 거쳐 공조참의를 지냈다. 효종 초 선우협鮮于浹, 1588~1653, 최온崔濬, 1583~1659, 조극선趙克善, 1595~1658, 권시權謬, 1604~1672, 이유태李惟泰, 1607~1684 등과 함께 천거되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보성의 대계서원大溪書院, 동북의 도원서원道源書院, 능주의 도산사道山祠에 제향되었다. 시문은 『은봉전서』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안방준은 글씨도 잘 썼는데 『근묵權墨』에 간찰이 전한다. 은봉종가 소장 <초서>와 <간찰> 등의 유묵이 여러 점 전해온다. 초서와 해행서 등으로 쓴 유묵에서 자유로운 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안지 安止

호 고은 皋隱 생몰년 1384~146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안지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탐진으로, 자는 자행子行, 호는 고은 皋隱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414년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박사가 되었고, 1416년 다시 문과 증시에 을과 2등으로 급제하여 예문관의 수찬修撰, 제학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1445년(세종 27) 공조참판으로서 정인지鄭麟趾, 권제權躋 등과 함께 용비어천가를 지어 올렸다. 이듬해 호조참판으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집현전부제학, 이조참판을 거쳐 공조판서에 올랐으나 사필史筆로 인해 직첩을 환수당했다.

1455년(세조 1)에 다시 소환되어 지중추원사에 복관되고, 이어 영중추부사에 올랐다. 세조 즉위 후 관작을 받을 때 안지의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강건하므로 세조가 시를 지어 하사하였다.

안지는 시를 잘 지었고, 해서를 잘 써 세종의 명으로 태종을 위하여 『금자법화경』을 썼다고 한다. 전해오는 작품은 없으나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양계남 梁桂南

호 월아 月娥 생몰년 1945~2023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양계남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호는 월아月娥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근원 구철우에게 서예를 지도받았다. 1963년 춘설현을 찾아가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그림공부를 시작했다.

1966년 전남도전을 시작으로 도전과 국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수 회 수상했다. 베를린, 파리, 워싱턴 D.C., 뉴욕, 콜롬비아, 서울 및 광주에서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1992년 서울 화랑미술제, St'art'99프랑스, Art Paris'99프랑스에 참가하였고, 국내외에서 400여 회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대학교(1990~1991)와 미국 포리테크닉 대학교(2003~2004) 객원교수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30여년 동안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퇴임후에는 명예교수로서 후학을 위한 월아미술상과 장학회를 운영하였다.

광주와 전라남도,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미술대전의 운영에도 참여하였다. 2007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의재 허백련으로부터 배운 전통남종화를 바탕으로 국제적 현대미술의 폭넓은 회화성을 수용하여 정교한 세필묘사에 의한 리듬감있는 색채의 향연을 보여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형성하였다.



<세월이 흐른다해도>, 2004, 한지에 채색, 210×140cm, 광주시립미술관

양성운 楊聖雲

호 설봉 雪峰 생몰년 1925~201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전서〉 병풍, 종이에 먹

양성운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호는 설봉雪峰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양성운은 보성에서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1874~1965와 효봉曉峰 허소許昭, 1882~1942에게 글씨를 배웠다. 송운회의 호인 '설주'에서 '설雪'자를, 허소의 호인 '효봉'에서 '봉峰'자를 따 '설봉'으로 호를 삼았다. 송운회에게서는 행서를 배우고 허소에게서는 전서를 배웠는데, 양성운은 특히 허소의 전서와 백수백복을 잘 써 유명했다. 양성운의 전서와 백수백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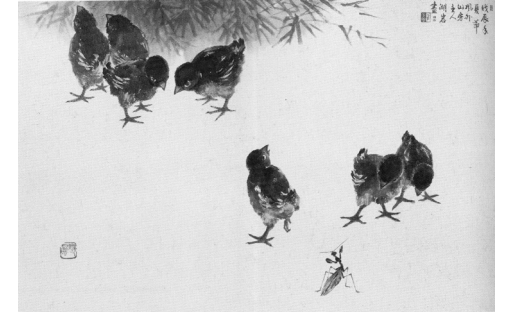
에서는 허소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허소의 조적체鳥跡體를 연구하여 자신의 서체로 만들었다. 현재 그의 글씨는 무등산 국립공원 입구 '국립공원 무등산' 표지석에 새겨져 있다.

양창보 梁昌普

호 호암 湖巖 생몰년 1937~2007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회화

양창보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제주 출신으로 호는 호암湖巖이며 당호는 풍외산방風外山房, 뇌벽헌磊壁軒, 백벽헌栢壁軒 등이다. 관념산수풍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였고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73년부터 2년간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설립에 참여해 제주도 미술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추사 적거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추사관을 건립하는데도 앞장섰다.

양창보의 작품은 인물, 영모, 화훼 등 다양하지만 특히 제주의 산하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제주 산수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고고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묵을



〈영모도〉, 종이에 수묵담채, 58.5×89.5cm, 제주대학교박물관

기본으로 하면서도 적절한 채색을 가미하고 먹의 농담과 갈필의 효과를 살려 안온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두루 표현하였다. 2006년에는 북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북제주십경〉으로 그렸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영모도〉는 대나무 아래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병아리 일곱 마리를 그린 것으로 한가로운 농가의 일상 풍경을 보여준다.

양팽손 梁彭孫

호 학포 學圃 생몰년 1488~154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양팽손은 조선시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화순 능주 출신으로, 본관은 제주濟州, 자는 대춘大椿이며 호는 학포學圃이다. 부친은 이하以河이다. 양팽손은 1510년(중종 5)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1516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정언·수찬·교리 등을 지냈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김정 등을 위해 항소하다 삭직되었고 고향에 돌아와 능성현 쌍봉리에 학포당學圃堂을 짓고 독서로 소일했다. 1544년 김안로가 사사된 후 용담 현령으로 잠시 있었지만 곧 사임했다. 1630년(인조 8) 능주 죽수서원竹樹書院에 배향되었으며, 1818년(순조 18) 순천 용강서원龍岡書院에 추향되었다. 시호는 혜강惠康이다. 저서로 『학포집學圃集』이 전한다.

양팽손은 사화 이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 그곳으로 유배 온 조광조와 학문을 논하였고, 유배 온 지 한 달 만에 그가 사약을 받아 임종을 지켜보고 손수 염습까지 하였으며,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정치적 사건으로 사사된 죄인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이를 감행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의리를 지키는 선비정신이 투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목죽도〉, 지본수묵, 75×40cm, 개인

양팽손은 당대에 화가로 이름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한때 필자 미상의 〈산수도〉가 그의 작품으로 알려지기도 했었고, 4점의 〈목죽〉이 그의 작품으로 전한다. 양팽손의 작품으로 전하는 네 폭의 〈목죽도〉는 시련을 이겨낸 대나무의 강인함을 나타내고자 한 듯 바람을 맞고 줄기가 부러진 대가 그려져 있다. 양식상 조선 중기 작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가 “목죽에 능했다”는 『동국문헌』 화가편의 기록이 있다. 조선 시대 목죽으로 유명한 이정李霆, 1541~1622이나 유덕장柳德章, 1675~1756의 목죽과 표현상 유사한 부분이 많아 선후관계는 분명치 않지만 이들 작품과 연관이 있는 시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양희맹 梁希孟

생몰년 미상(18세기 활동)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양희맹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가이다. 본관이나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전주에 거주하며 18세기에 활동하였다. 1735년 세조어진 모사 때 호남 화사 중 한명으로 추천을 받아 서울에 올라갔다. 『승정원일기』에 조현명趙顯命은 호남 화사 중 양희맹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김취로는 양희맹의 사람됨이 신중하다고 하였다. 박동보, 장득만, 양기성, 이치, 신영 등

과 함께 시재試才에 참여하여 이치 다음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양희맹은 세조어진 모사에서 수종화사가 되어 참여하였다. 모사가 끝나고 공으로 아마兒馬 1필을 하사받았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 양희맹에 대한 기록과 작품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엄우섭 嚴于燮

호 석로 石老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엄우섭은 전라남도 곡성 출신의 서예가이다. 호는 석로石老이고 효자孝子 주식柱植의 아들이다. 영민英敏한 재주가 빼어나서 힘써 배우고 돈독히 행하였으며 또한 필법이 정묘精妙하였다. 해서楷書를 잘 써서 비석碑石과 묘갈墓碣에 각자刻字하는 것과 명銘을 쓰는 것이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와 당시에 추앙을 받았다. 그의 필명이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등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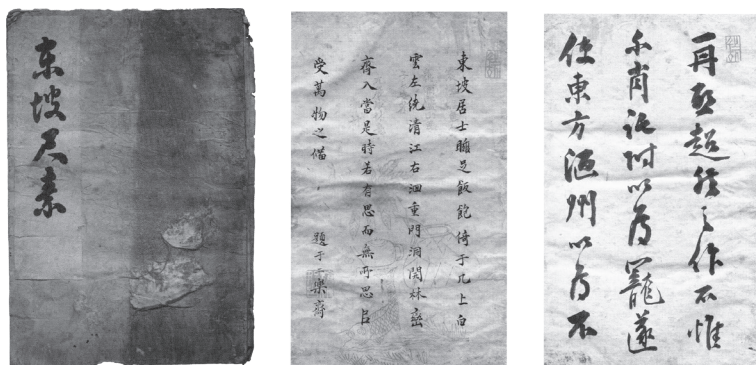
오기두 吳基斗

호 창범 滄凡 생몰년 1865~193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오기두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본관은 보성寶城이며 호는 창범滄凡 또는 창범滄岬이다. 당호는 이락재二樂齋이다.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0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오기두는 글씨 각 체를 잘 하였으며 특히 안진경의 서체를 즐겨 썼다. 목죽에도 능했다. 큰 글씨에 능해 현액縣額을 많이 썼는데 현재 세효각世孝閣, 영모재永慕齋, 일심재一心齋 등의 액자첩이 전한다. 또한 김제에 사는 증손 오영수씨가 소장하고 있는 친필서첩으로 《폐목일상閉日一想》, 《유능운의기외즉미능有凌雲意氣飯則未能》, 《동파척소東坡尺素》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00

년 스승인 석정 이정직의 친필 시문을 첩으로 엮은 《조기식견심유목상助其識見心遊目想》의 표제도 오기두의 글씨이다. 이정직 문하에 있으면서 받은 시문을 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진우씨 소장. 일설에 의하면 남원 광한루에 위치한 조선시대 마지막 암행어사인 고종대의 이면상李冕相의 공덕을 기리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썼다고도 전한다. 그에 대한 기록은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선필善筆」 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파척소》, 서첩 종이에 먹, 25×17cm, 개인

오기주 吳箕柱

호 도석 陶石 생몰년 1928~198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오기주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무안 출신으로 호는 도석陶石이다. 목포상과를 졸업하였고, 의재 허백련을 사사하였다. 일본 오카야마현 岡山縣에 초대출품하였고, 일본 미에현 三重縣 한일교류전, 미국 워싱턴 합동전에도 초대되어 출품하였다. 호남작가 50인전에 출품하였고, 동아미술전 금상, 중앙일보주최된 특선상을 수상하였다. 서울 신문회관에서 개인전 4회, 각 지방에서 5회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서화가협회 이사, 한국 문화진흥회 초대작가, 한중서화문화운영위원, 한국서화가협회 한국화 분과위원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 전북서화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추경산수》, 종이에 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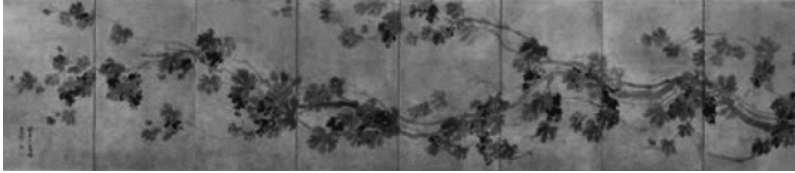
오남운 吳南運

호 같은 葛隱 생몰년 1753~1827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오남운은 18~19세기의 화가이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했으며, 호는 같은 葛隱이다. 그는 포도와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했고, 최근 옥션에서 그의 그림으로 생각되는 《금강산도팔폭병풍》이 알려져 산수화도 많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1979년 동방화랑에서 발행한 『한중고서화명품선』에는 그의 포도그림이 실렸는데, 이에 대해 당대 서예의 대가 여초 김응현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세칭 오도자, 호를 같은이라 했고 포도와 대나무로 당세 제일인자였으며 많은 사람이 그의 그림 한 폭 얻기를 원했다고 한다 朝野諱譏. 지금까지 초유初有의 십이폭병 대작이다. 사임당 신부인 이래 황영곡, 이휴휴당, 홍호은, 심현재, 이고송 등 몇몇 명수들이 포도 그림을 남겼으나 이러한 대작은 볼 수 없다. 한 줄기의 포도가 연이어서 십이폭으로 뻗었는데 조금도 어색하거나 딱딱한 맛이 없다. 이만한 포도의 명수라면 다작이 분명하고 또 칠십 나이에 이만한 필력이 있었다면 그밖의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포치는 좌우 두 중심부를 두고 전반에서는 강한 한 줄기로서 변화를 주고 후반에서 두 줄기가 상하고 갈라지며 변화를 보인다. 필치의 유창하고 능숙함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고 포도알의 농담이나 잎사귀의 채색변화에 이르기까지 고루 조화를 미치고 있다. 같은은 지금까지의 포도그림 계보에서 조선 후기의 명수로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말미에는 ‘갈은칠십옹사葛隱七十翁寫’라 묵서 했는데 그 숨씨 또한 절속絶俗한 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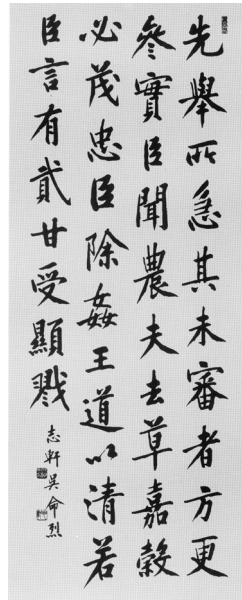


《목포도도 8폭 병풍》, 1823년, 지본수묵, 각 폭 374×80cm, 개인

오명렬 吳命烈

호 지헌 志軒 생몰년 1925~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오명렬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는 지헌志軒이다. 서예가 근원權園 구철우具哲禘를 사사하였다. 전남도전에서 입선 9회, 특선 1회를 하였고, 추천작가로 활동하였다. 국제서도미술전國際書道美術展에 제4회부터 제11회까지 출품하였다. 전국서도민전全國書道民展 초대작가, 국제성경서화대전國際聖經書畫大展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였다. 한국서도협회 전남지부장, 한국미협 광주지부 감사 및 이사, 근원 구철우 선생의 제자 모임인 근문회權文會 회장을 지냈다. 생업으로는 삼양건설에 근무하며 부사장을 지냈다.



〈해서 黃山谷范滂傳〉

오명로 吳命魯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오명로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보성이다. 문온공文溫公 동誦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전서篆書체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오순 吳珣

호 초전 焦田 생몰년 미상(조선후기)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오순은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이다. 전라북도 부안출생으로 호는 초전焦田이다. 정조, 순조년간에 활동한 화원화가로서 여러 차례 궁중행사에 차출되었다. 1805년에는 왕세자 책봉을 위한 책례도감文祖王世子冊禮都監에서 옥인玉印의 전서篆書 글자를 보획하는데 참여하였다. 1812년부터 1817년까지 규장각 차비대령화원으로 봉직하였으며, 녹취재 시험에 응하여 8차례 사과司果와 사정司正에 임명되었다.

궁중의 화사를 담당했던 그였지만 남아있는 작품은 〈운림산수도〉, 〈송계산수도〉, 〈하경산수도〉 등 산수화가 대부분이다. 그의 산수화는 잘 짜인 구도에 미점과 발목 등 수목을 잘 쓴 세련된 필법으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높다. 화순 규남박물관에 오순의 소장팔경도 7폭이 남아 있다.



〈산수도〉 종이에 수묵, 80.4×50.6cm, 국립중앙박물관

오억령 吳億齡

호 만취 晩翠 생몰년 1552~1618 분야 서예

오억령은 조선 중기 문신이다. 본관은 동복同福이며 자는 대년大年, 호는 만취晩翠이다. 사옹원직장司饔院直長 세현世賢의 아들이다. 1570년(선조 3) 사마시를 거쳐 158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전생서참봉典牲署參奉·예문관검열과 호조좌랑·이조좌랑 등을 지냈다. 그뒤 이조정랑을 거쳐 경상도안무사로 있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사간원집의·홍문관전한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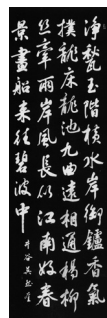
그뒤 병조참판·한성부판윤·대사헌·형조판서·우참찬·개성유수를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 인목대비를 폐하는 데 반대하자 대북파 정인홍鄭仁弘 등이 고부사告誥使의 일을 다시 들추며 탄핵하여,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다.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만취문집》이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오연규 吳然奎

호 정곡 井谷 생몰년 1926~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오연규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광주에서 활동하였으며 호는 정곡井谷이다. 1944년 정읍농업학교를 졸업하였고,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 1907~1987을 사사하였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 8회에 걸쳐 전남도전에 입선하였다. 부산에서 개인전을 3회 열었고, 1982년 전남미협회원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광주 송정리에서 정곡서예원을 운영하였다.



〈행서 정추옥계 (淨慈玉階)〉

오우선 吳禹善

호 우계 于溪 생몰년 1932~201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오우선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호는 우계于溪이다.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의 문하에 들어가 남종화를 익혔다.

1955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여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려 1964년 국전에 첫 입선을 하였다. 1968년 첫 개인전을 열었고, 이후 9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한국미협 회원, 연진회 회원으로서 여러 초대전에 출품하는 등 많은 전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77년 화집을 발간하였다.



〈솔바람소리〉, 종이에 수묵담채, 33×42cm, 의재미술관

오우선은 허백련 문하에서 단단한 기초교육을 받은 만큼 필치가 깔끔하면서도 구성에 안정감이 있다. 그의 산수화는 전형적인 남종산수화 구성으로 허백련의 설경산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설경〉과 담담하면서도 소박한 〈목란〉 등이 전한다.

오준 吳竣

호 죽남 竹南 생몰년 1587~166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오준은 17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본관은 동복同福이며, 자는 여완汝完 호는 죽남竹南이다. 이조참판을 지낸 오극권吳克權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사옹원직장司饔院直長 오세현吳世賢이다. 아버지는 이조참판 오백령吳百齡이며, 어머니는 증 참의贈參議 고경룡高慶龍의 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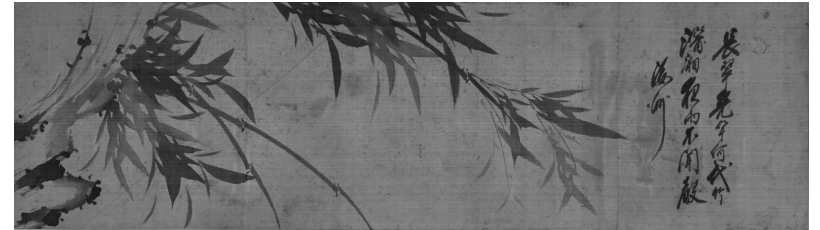
오준은 조선시대 대사헌, 좌참찬,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문장에 능하였고 글씨를 잘 써서 왕가의 길흉책문吉凶冊文과 삼전도비三田渡碑의 비문을 비롯한 수많은 공사公私의 비명을 썼다. 특히 왕희지체王羲之體를 따라 단아한 모양의 해서를 잘 썼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죽남당집』이 있다. 글씨로는 아산의 <충무공이순신비忠武公李舜臣碑>, 구례의 <화엄사 벽암대사비華嚴寺碧巖大師碑>, 회양淮陽의 <허백당명조대사비虛白堂明照大師碑>, <이판이현영모비吏判李顯英墓碑>, 광주光州의 <의창군광묘비義昌君珖墓碑>, 일본 닛코사日光寺의 <닛코산조선등로명日光山朝鮮燈爐銘>, 안성安城의 <대동균역만세불망비大同均役萬世不忘碑>, 죽산竹山 칠장사七長寺의 <벽응대사비碧應大師碑> 등의 비문이 있다. 『조선환여승람』 「필원筆苑」조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원용식 元容植

호 해주 海洲 생몰년 1898~1927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화

원용식은 20세기 초의 서화가이다. 제주도 추자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원주原州, 호는 해주海洲이다. 1919년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추자면 출신 1호 졸업생으로 기록된다. 원용식은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우에노미술학교上野美術學校를 수료했다. 이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인전을 가졌다고 하나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 우에노미술학교 졸업 후에 중국 봉천奉天으로 가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전남 장흥과 남해안 도서지방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했음이 확인된다. 1925년 추자도로 귀향하여 추자면에 있는 최영장군 사당에 참배하러 갔다가 마침 대보수 공사 중이어서 <최영대장신사>라는 편액을 써주었다. 그 편액이 오늘날에 전한다. 추자면의 최영장군 사당에는 원용식이 그린 소나무 그림이 현판 우측에 붙어 있었다고도 한다. 이후 원용식은 서울에서 활동했다. 산수, 사군자, 화조화에 능했고 특히 잉어를 화제로 한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작품 가운데는 개인 소장 <설

경>, <목매> 등이 알려져 있으며, 제주교육박물관에 <묵죽>, <난> 등이 소장되어 있다. <묵죽>은 빠른 붓놀림에 의해 즉흥적으로 그린 듯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데, 농묵과 발묵의 운용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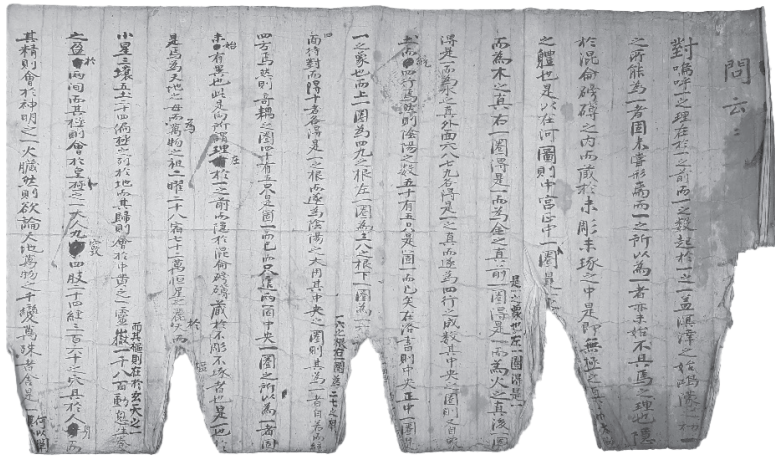
<묵죽도>, 종이에 먹, 30.0X102.0cm

위백규 魏伯珪

호 존재 存齋 생몰년 1727~179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위백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본관은 장흥이며 자는 자화子華, 호는 존재存齋·계항거사桂巷居士이다. ‘호남 4대 실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5세 이전에 4서 6경을 섭렵하고 20세 무렵에는 문중의 자제를 모아 가르쳤으며 25세 때 이미 거유巨儒로 이름이 높았다. 1751년(영조 27) 충청도 덕산까지 오가며 윤봉구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1764년(영조 40) 38세 때 동양삼국 및 세계지도와 지리지誌를 기술한 『환영지』와 『고금서古琴書』, 당시 사회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의 개혁방안을 제시한 『정현신보政弦新譜』를 지었다. 1767년 문중결사인 사강회를 결성하여 문중결속을 꾀했으며 가중사시회家中四時會라는 가족모임도 결성하여 성리학적 규범에 입각한 가정상을 세우고자 했다. 『사성록思成錄』 『자화가自悔歌』 『경서조대經書條對』 『독사차록讀史箴錄』 등 1백여권에 가까운 저술을 하였다. 1794년(정조 18) 그의 나이 68세 때 서영보徐榮輔의 천거를 받아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1796년(정조 20) 2월 그의 저술을 본 정조의 요청에 의해 백성의 실상과 그 해결책을 논한 「만언봉사萬言

封事」를 올렸으며, 옥과현감을 지냈다. 그의 묘지에는 어떤 글도 새기지 말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아무 글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가 세워졌다. 그가 남긴 저서 『존재집存齋集』은 경학, 지리, 역사, 의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24권 12책에 달한다. 1805년(순조 5) 향리 유생들의 발의로 죽천사竹川祠에 배향되었다. 그의 글씨는 단정한 해행서로 작성된 시권이 남아있다.



〈유백규(魏伯珪) 시권(試券)〉, 1763년, 종이에 먹, 48.5×320.4cm, 장흥 방촌 존재후손가

유공권 柳公權

생몰년 1132~119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유공권은 고려 후기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본관은 유주儒州, 文化이며 자는 정평正平이다. 1160년(의종 14) 5월 과거에 급제하여 청주목淸州牧의 서기書記로 3년간 있다가 익양부녹사翼陽府錄事가 되었다. 고려 후기 사문박사, 우산기상시한림학사, 동지추밀사, 정당문학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시문에 능하였다. 『조선환여승람』 「필원筆苑」조에 “초서와

예서를 잘 하였다.”고 전한다.

유근상 柳根相

호 동곡 東谷 생몰년 1909~1992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유근상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그의 호는 동곡東谷, 오석포백, 청곡靑谷, 장곡長谷이다. 근대기 서화가였던 유하柳下 유영완柳永完, 1892~1953의 아들이다.

아버지 유영완의 화풍을 이어받아 문인화에 두루 능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묵죽을 잘하였다. 그의 묵죽은 간결하면서도 맑아 부친의 스승이었던 석정 이정직에서 비롯하여 벽하 조주승과 심농 조기석, 그리고 유하 유영완을 거쳐 이어진 전라북도의 묵죽 전통을 상당히 현대화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부친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전북 서단에서는 부친 유영완과 더불어 이정직, 조주승 등의 전통적 묵죽화와 송성용의 묵죽화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묵죽도〉, 종이에 먹, 126.3×32.7cm, 국립전주박물관

유삼규 柳三圭

호 소재 小齋 생몰년 1923~1992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유삼규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는 소재小齋이다. 1942년 일본 오사카 마키노미술전문학교牧野美術專門學校를 졸업하고, 같은 해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다. 1946년 하지 군정사령관 초상화를 제작하여 하

지 중장의 감사패를 받았다. 1965년 을지문덕장군 살수대첩 전쟁단병풍, 아이젠하워 원수, 처칠경, 헤밍웨이 초상을 제작하여 미국 시카고 구라파 미술회관에 출품하였다. 1975년 총장공 익호 김덕령장군 영정을 그렸다. 1975년 보안군사령부 대형 군호도群虎圖를 제작하였고, 1984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개장 기념으로 <대호도大虎圖>를 제작하였다. 대작 <대호도>는 현재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86년 88올림픽을 상징하는 88마리 군호도를 문공부에서 지정받아 제작하였다. 한국서화작가협회 초대작가, 국제성경서화대전 초대작가, 전국문화예술대상전 초대작가, 한국미술공모 대상전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月下樓虎圖>, 종이에 채색, 88×74cm

유영묵 柳永默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유영묵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진사를 지냈고 절의節義로 이름난 삼석三錫의 조카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해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유영완 柳永完

호 유하 柳下 생몰년 1892~195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유영완은 근대기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호는 유하柳下이다. 11세에 석정石亭 이정직 李定稷, 1840~1910의 문하에 입문하였다. 이정직 만년에 이정직에게 그림과 글씨를 배웠으며 글씨는 구양순歐陽詢의 《구성궁예천명》으로 해서를 시작하고 명나라 동기창董其昌의 행서를 본받아 여러 서체에 능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정직이 소장한 수많은 서첩을 두루 섭렵하여 묵화를 배웠다. 유영완은 1928년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행서行書로, 1929년 제8회에서는 <기덕야풍其德世風>이라는 초서로 입선을 하였다.

그는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능하여 매, 란, 국, 죽, 석, 송에 능했는데 특히 묵난과 묵죽을 잘 하였다. 그는 이정직뿐만 아니라 청대淸代 판교板橋 정섭鄭燮, 1693~1765의 영향을 받아 가냘프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대나무를 잘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유영완 작품의 표현 효과는 이정직이 보인 질박함보다는 전문가로서의 기량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유영완의 화풍은 아들인 동곡東谷 유근상柳根相, 1909~1992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다. 유영완의 작품으로 《묵죽도십곡병》, 《사군자팔곡병》, <묵죽>, <풍죽>과 같은 사군자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묵죽팔곡병풍>, 19세기, 지본 묵화, 각 폭 125.0×33.0cm, 전북도립미술관

유용호 柳龍浩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유용호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흥이다. 관영灌榮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유일호 柳日浩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유일호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흥이다. 증 참판 충서忠愬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후남여승람』 「선필善筆」조에서도 “해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유재호 劉載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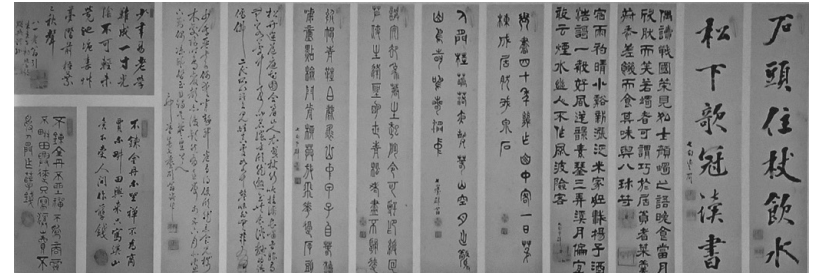
호 벽운 辟芸 생몰년 1870~195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유재호는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당시는 전라도였던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강릉으로, 자는 무경, 호는 벽운辟芸과 노벽老辟이다. 부친으로부터 글씨와 경서를 익혀 1887년 18세에 정8품 문관직인 통덕랑이 되었고 이어서 종5품 지방관인 북부도사가 되었다. 1905년에 정6품직인 승훈랑이 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병이 되자 사직하고 익산군 춘포면 오산리에 낙향하였다.

시골에 돌아와 살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인들에게 글씨를 써주며 소일하였는데, 전국을 다닐 때 춘포면에서 서당을 하던 한학자 소진우가 함께 동행하여 먹을 갈아주며 글씨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소진우의 제자 소병우에 의하면 소진우가 시골 훈장을 하면서 받는 수입보다 벽

운을 따라다니며 받는 수입이 더 많았고, 자녀들에게 벽운의 병풍 글씨를 나누어줘 후손들이 몇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당대에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행적이 남아있지 않으며, 남아있는 작품 또한 많지 않다.



《서예육곡병》, 종이에 먹, 각 폭 68×35cm, 개인

유정섭 柳廷燮

생몰년 1733~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유정섭은 18세기의 문인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 본관은 고흥이다.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생원 세광世光의 아들이다.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48세 때인 정조正祖 4년(1780) 경자庚子 식년시式年試에 생원3등三等으로 급제하였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의 문인이다. 경서의 뜻을 빨리 터득하였다. 생원이며, 유고遺稿가 있다.”고 하였다.

유종구 柳鍾九

호 눌헌 訥軒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유종구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흥이며, 호는 눌헌

諄軒이다. 송암松庵 순淳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서도 “해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유진혁 俞鎭赫

호 계암 戒菴 생몰년 1860~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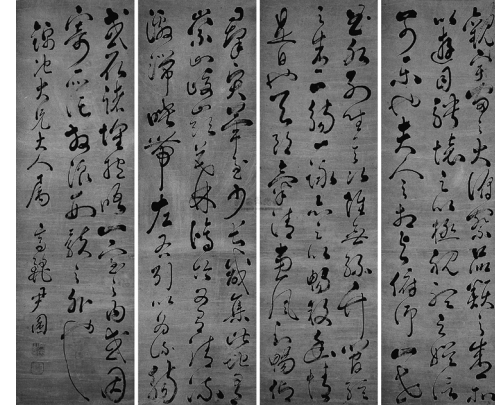
유진혁은 근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완주에서 활동하였다. 본관은 기계이며, 호는 계암戒菴이다. 부친은 직제학을 지낸 치면致冕이다. 유진혁은 음서로 판서를 지냈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와 그림을 잘 하였다.”고 전한다.

윤균 尹困

호 계석 溪石 생몰년 1850~1910 출생·활동지역 전북·중국 분야 서예

윤균은 구한말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파평이며 호는 계석溪石이다.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에 의하면, “호는 계석溪石, 본관은 파평坡平, 해외에 유학 가서 죽었다. 초서에 뛰어났으니, 초결가草訣歌와 천자문千字文을 써서 중국 광둥廣東에서 간행되었다.”고 하였다.

윤균은 1886년 중국에 건너갔으며 1887년부터 상하이 ‘신보申報’에 그의 행적이나 작품에 관한 광고가 자주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에서 ‘조선명필’ ‘조선명사’ ‘초성草聖’ ‘필성筆聖’ 등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명성을 쌓았다. 1896년 광저우 ‘성성취현당省城聚賢堂’이 발행한 윤계석의 ‘초천자문草千字文’은 그 당시 절동학파浙東學派 명사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중국 서예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영남의 유명 시인이자 서예가인 반비성潘飛聲이 윤균과 가장 가까웠는데, 그는 윤균에 대해 “그는 글씨



《초서4폭병풍》, 종이에 먹, 각 폭 134.5×39cm

를 팔아 영남을 유랑했고, 남양南洋과 강호江湖 사이를 왕래했다.”고 했다. 그는 인삼을 팔아가며 유랑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장사에 소질이 있었음에도 줄곧 서예의 길만을 고집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이 최근 중국 옥선에 올라와 있음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광저우廣州 옥선에 나온 《초서4폭병풍》에는 ‘금지대형대인속錦池大兄大人屬 고려윤균高麗尹困’이라는 관지가 있고, ‘윤균지인尹困之印’, ‘계석노인溪石老人’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금지대형대인에게 써준 것이며, 이를 쓴 사람은 ‘고려 윤균’이라 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활동하던 당시 쓴 것이라 생각된다.

《초서4폭병풍》과 같은 사이트에 소개된 <초서칠언대련>에는 ‘석군세형대인법정 계석제윤균碩君世兄大人法正 溪石弟尹困’이라는 관지가 있고, 인장에 ‘신윤균인臣尹困印’이라는 백문방인과 ‘계석거사溪石居士’라는 주문방인이 찍혀 있다. 자신의 이름 앞에 신臣이라 적은 것으로 보아 관직에 있었던 것 같다. 전해오는 그의 초서 작품들을 보면 굵고 가는 필획의 변화와 유려한 필치가 돋보인다.

윤덕희 尹德熙

호 낙서 駱西

생몰년 1685~176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윤덕희는 조선 후기의 서화가이다. 자는 경백敬伯, 호는 낙서駱西이나 녹우당이 있는 해남 연동의 마을 이름을 따서 연포蓮圃, 혹은 연옹蓮翁이라고도 하였다. 윤덕희는 공재 윤두서의 첫째 아들로 그 또한 윤두서처럼 집안의 경제적 예술적 기반 하에 크게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예술 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초년에 서울에 살면서 20세 이전에 부친 윤두서의 친구였던 옥동 이서에게 학문을 배웠으나 일찍부터 과거를 포기하고 시·서·화에 몰두하였다.

부친 윤두서가 해남에 낙향한 1713년 이후에는 그도 해남에 살았다. 1715년 부친이 돌아가시자 가전유물을 정리하고 틈틈이 서화를 수련하였다. 이후 47세 때 다시 상경하여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68세 때 다시 서울 살림을 큰아들 종에게 맡기고 해남에 낙향하여 82세까지 해남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윤두서가 선비화가로 화단에서는 업적을 내었지만 벼슬길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였던 반면, 윤덕희는 아버지의 명성을 배경으로 늦게나마 관리로 등용되었다. 나이 64세 때인 영조 24년(1748), 삼성진三聖鎭을 중수하고 숙종 어진을 모사할 때에 그림 그리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직책인 감동監董에 발탁되었다. 이것이 벼슬길에 오르는 계기가 되어, 이후 6품직인 사용원 주부, 정릉령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후에 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다.

윤덕희의 학문적 관심은 성리학은 물론, 불교, 도교 및 신선 사상, 양생술, 의약, 음악, 중국소설 등 실학적인 방향을 향했다. 『천공개물』과 같은 선진적인 과학 기술서를 섭렵하였고, 그가 읽은 128종의 중국소설 목록이 남아있기도 하여 그의 다양한 관심의 폭을 짐작할 수 있다. 유고로는 필사본 『수발집澗勃集』이 있다.

윤덕희의 회화는 산수화, 도석인물화, 풍속화, 동물화 등 다양하지만 특

히 ‘신선과 말을 잘 그렸다’는 화평에 걸맞게 중국적인 소재의 신선도나 도석인물을 잘 그렸다. <송하고사松下高士>, <기마미인騎馬美人> 등의 고사인물故事人物이나 고사의 내용을 담은 산수인물, 그리고 <기마인물>과 <말그림>들이 전한다.

산수화에 있어서는 특히 섬세한 묵법과 필법 등 윤두서에게서 전수받은 가전화풍을 보인다. 전

반적으로 안견파나 절파화풍 등 가전된 전통화풍을 이었지만 고사인물도의 전통적 화풍에 비하여 산수나 산수인물화에 있어서는 영조시대 화단의 유행에 동참하여 남종화풍의 수용이 비교적 깊게 느껴진다. 남종문인화풍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화풍으로 윤두서가 『고씨화보』 등 화보를 통해 남종문인화풍을 접하였던 것처럼 윤덕희도 부친의 작품과 화보를 통해 남종문인화풍을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

윤덕희가 활동하던 시기에 화단에는 진경산수화가 크게 유행했었는데, 그가 단양의 도담삼봉을 그린 <도담절경도>는 필력은 미흡하지만 그의 진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윤덕희의 작품 중 <공기놀이>에는 그의 풍속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다. <공기놀이>는 길가 나무 아래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두 아이와 바람개비를 들고 이를 구경하는 한 아이를 그린 것이다. 윤두서에 비해 풍속화가 지녀야 할 현실 감각은 훨씬 덜하나, 아이들의 놀이 장면을 그린 풍속화는 이후에도 많지 않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기놀이>, 비단에 수묵, 22×17.8cm, 국립중앙박물관

윤덕희는 대략 24세 무렵에 서화에 입문하여 82세까지 긴 생애동안 18 세기에 새롭게 유행한 도석인물화, 풍속화, 진경산수화, 남종화법, 서양 화법에도 관심을 갖고 이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그다 지 개성 있는 화풍을 이루지는 않았으나 전하는 것이 많은 편이다.

윤두서 尹斗緒

호 공재 恭齋 생몰년 1668~171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윤두서는 조선 후기의 문인 서화가이다. 그의 자는 효언孝彦, 호는 공재 恭齋이다. 본관은 해남으로 조선 중기의 유명한 시인 고산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증손이다. 그는 실제 사물을 관찰하여 스스로 체득한바 실득 實得에 의한 형사적形似的 전신傳神을 창작의 기본원리로 삼아 초상화, 산수화, 풍속화, 화조영모화, 도석화, 고사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가 추구한 문인화가의 상을 실천하였다. 사물의 참모습을 형상화하려는 태도로 자신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린 <자화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풍속화를 그려 한국 회화사에 있어서나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감평가들에 의해서도 '회화의 새 시대를 활짝 연 화가'로 평해진다.

윤두서가 서화 창작과 감평에 깊이 천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 내력 때문이었다. 집안의 예술적 분위기와 더불어 당쟁이 심한 상황에서 당대 주도적 정치세력에서 소외된 남인계열이었던 그는 숙종 9년(1693)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포기하고 시·서·화로 일생을 보냈다.

윤두서는 그림뿐 아니라 천문, 지리, 수학, 병법, 금석, 음악, 기예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유품 중에는 지도와 천문, 수학에 관한 서적도 전해온다. 그가 실학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의 주변 인물들이 당시 유명한 실학자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실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그의 처 증조부였으며, 이잠, 이서 등 조선 후기 실학의 거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 형제들과도

절친한 교분을 가졌다. 윤두서의 큰아들 낙서 윤덕희가 이서의 문하에서 학문을 하였던 것도 그러한 연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윤두서의 학식은 외증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강진에 유배를 온 정약용이 해남의 녹우당을 내왕하며 윤두서의 서화를 접하였고 녹우당에 소장된 방대한 장서를 저술의 토대로 삼았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특히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는 정약용 자신이 외증조부를 꼭 닮았다고 한 점은 흥미롭다.

윤두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국보 240호 <자화상>은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묘사하는 윤두서의 실학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은 화면이지만 일체를 다 생략하고 얼굴만을 정면에서 부각시킨 이 작품은 한국 초상화의 백미이다. 특히 생생한 눈동자나 가늘면서도 힘 있는 수염 처리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로 불린다.

섬세한 관찰을 통한 사실적인 묘사력은 말 그림에도 적용되어 대상의 실체를 정확히 묘사하는 사실적인 작품 태도를 보였다. <유하백마도>는 그가 길렀던 말들 중 가장 잘생긴 말을 모델로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기품 있는 백마를 그린 그림이다.

이러한 관찰과 사실적인 묘사력에 주변 현실에 대한 애정이 더해져 <짚신 삼기>에서는 나무 그늘 아래서 짚신을 삼고 있는 한 인물의 모습을, <나물 캐는 여인>에서는 들판에서 나물을 캐는 시골 아낙네를, <돌 깨기>에서는 돌 깨는 석공의 모습을 그리며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나물 캐는 여인이나 돌을 깨는 서민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윤두서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이다.

초상화나 풍속화에 있어서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지만 산수화에 있어서는 당시 새롭게 유행이 일기 시작한 진경산수화보다는 전반적으로 고식古式 화풍을 취하였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선비를 그린 <관수도>는 나무 아래 인물이 부각되어 있는 소경산수인물화 형식이다. 중국 원나라 궁중 화원들에서 시작되어 명대까지 변화를 보이며 이어온 형식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에 유행하였다.

산수화를 비롯한 회화 작품은 대체로 조선 중기 화풍을 바탕으로 전통성이 강한 화풍을 보여주지만 중국 남종화풍의 수용에 중요한 지침서인 『고씨역대명인화보 顧氏歷代名人畫譜』를 소장하고 참고하였던 점을 보면 그가 남종화풍과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윤두서는 한편으로는 서양화법을 통해 묘사



〈나물 캐는 여인〉, 비단에 수묵, 30.2x25cm, 녹우당

법을 개량하기도 하였고, 조선 후기화단에서 크게 유행한 남종화법을 선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후기 화단의 변화를 이끌었다.

윤두서의 작품들은 《해남윤씨가전고화첩 海南尹氏家傳古畫帖》으로 일괄하여 보물 4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서화첩은 《윤씨가보 尹氏家寶》라 쓰인 화첩 2권과 《가전유묵 家傳遺墨》이라고 꾸며진 서첩 3권 등이다.

윤두서는 타고난 재능에 옛 서적과 작품을 두루 섭렵하여 얻은 지식을 더하여 괄목할만한 예술적 업적을 이루었다. 해남에서 태어나 그곳에 본거지를 두었지만 주로 한양에서 생활하다가 1713년 봄 가족을 이끌고 낙향하였다. 그가 주로 살았던 곳은 해남 바닷가인 백포로 이곳에서 두어 해를 살다가 1715년 11월 26일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소는 백포의 그가 살던 집 앞에 있다.

윤애근 尹愛根

호 정산 鼎山

생몰년 1943~2010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윤애근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서울 출신으로 호는 정산 鼎山이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했다. 윤애근은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0년대 중반 광주에 내려와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작가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전통 수묵화가 지역 화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진한 채색과 과감한 형태변형, 부조같은 접지 각화법 등을 활용한 파격적인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空-흰벽당〉, 2000년, 점성지에 채색, 92x110cm, 개인

윤애근은 1969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국립공보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광주, 일본, 인도, 중국, 파리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전시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류전 등 단체전에도 끊임없이 참여했다. 창조회, 춘추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미국 텔라웨어대학에 국비파견교수로 다녀왔으며, 2007년 프랑스 파리의 씨떼 데 자르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작가로 석판화를 연구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한국화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지냈고,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과 예술연구소장을 지냈다. 정년퇴임 후 담양 작업실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다가 2010년 타계하였다.

윤영환 尹榮煥

호 죽파 竹坡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윤영환은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화가이다. 전라도 출신으로 호는 죽파 竹坡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 ‘윤영지인 尹榮之印’ 혹은 ‘윤영환인 尹榮煥印’이라 새긴 네모난 음각 도장과 ‘죽파 竹坡’라 새긴 양각도장을 함께 쓰고 ‘죽파 竹坡’라 쓴 산수화와 사군자, 영모화 작품이 상당수 있다. 그림의 격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나 숙달된 솜씨를 보인다. 남아있는 작품의 다양함이나 숙련도로 보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로 생각되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관자에 신미년 辛未年 이라는 간기가 적혀 있어 1931년 작으로 생각되는 《산수10폭병풍》을 보면 산수화를 그릴 때 쓰는 다양한 준법을 두루 활용하여 화보풍의 사계절 풍광을 그렸다. 긴 피마준을 주로 썼고 구도나 수목의 표현 등에서 화보를 보고 공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수화를 그린 솜씨도 뛰어나지만 이에 쓰인 화제 글씨의 유려함은 상당한 필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사군자 작품도 난을 그린 필선의 활달함이나 국화와 함께 그린 괴석의 형태감과 먹의 농담 등은 상당한 수준을 보인다.



《산수10폭병풍》, 비단에 수묵담채, 각 폭 103×31.6cm, 호남지방문헌연구소

윤용구 尹用求

호 석촌 石邨 생몰년 1853~1937 출생·활동지역 전남·서울 분야 서화

윤용구는 일제강점기 문신이자 서화가이다. 서울출신으로 본관은 해평 海平이며 자는 주빈 周賓이다. 호는 석촌 石邨·해관 海觀·수간 睡幹·장위산인 簞位山人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윤두수의 11대손이며 순조의 부마인 남녕 위 윤의선 尹宜善의 아들이다. 서울과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1871년(고종8) 직장 直長으로서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법무·탁지부·내무부 등 대신에 여러 번 명을 받았지만 전부 거절하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자오 自娛하며 세사를 멀리하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주로 썼으며 난과 대나무를 잘 그렸다. 산수화는 전형적인 남종문인화풍으로 그렸다. 금석문으로 과천의 <문간공한장석신도비 文簡公韓章錫神道碑>와 광주 廣州의 <선성군무생이공신도비 宣城君茂生李公神道碑>가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 降仙樓> 현판을 비롯해 전라남도 지역에 특히 글씨와 현판을 많이 남겼다. 윤용구의 회화작품으로는 대나무와 난그림이 주를 이룬다. 묵죽 마디를 강하게 그리고 잎은 날카롭게 그렸고 중국 청대 양주팔피의 한 사람인 화가 정섭 鄭燮, 1693~1765의 제화시를 담은 묵죽을 많이 그렸다. 그의 작품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묵죽도>는 독특한 구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화면 가운데 왼쪽으로 휘어있는 굵은 대나무를 가는 대나무로 교차시켜 중심을 잡았고 그 아래 농담을 달리하여 마디가 꺾인 가늘고 긴 대나무를 늘어놓아 짜임새 있는 공간감을 만들어 냈다.



《묵죽도》, 비단에 먹, 128.9×40.6cm, 국립중앙박물관

윤용 尹溶

호 청고 靑阜

생몰년 1708~174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윤용은 18세기에 활동한 문인화가이다. 해남 윤씨 공재 윤두서의 손자이자 윤덕희의 차남이다. 그의 자는 군열君悅, 호는 청고靑阜이다. 윤용은 할아버지 윤두서와 아버지로부터 화재畵才를 이어받음으로써 3대에 걸친 선비화가로 조선 후기의 명문화가 집안의 대를 이었다. 18세기의 문인 남태응南泰膺, 1687~1740은 『청죽화사』에서 당시 25세의 윤용을 “윤덕희의 아들 윤용 또한 재주가 빼어나 앞으로 나아감을 아직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다만 그 성공이 어떠한가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평하였다. 이미 20대부터 화명이 알려져 있었고 앞으로 화가로서 대성할 자질이 있어 기대된다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뜻을 다 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 당대 많은 이들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였다.

그는 기품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성질이 맑고 용모는 단정하였고, 풍류까지 겸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20대에 이미 과시科詩로 명성을 얻었으며, 시율과 시부를 잘 지어 연이어 과거에 합격하여 영조 11(1735)년 28세에 진사가 되었다.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짧은 생애 때문에 현존하는 유작이 많지 않으나 산수·도석인물·풍속 등 집안의 전통을 따라 그렸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남종화풍의 수용에 더욱 적극적인 면이 나타난다. 할아버지 윤두서의 화법을 이어 자세한 관찰과 정심精深한 묘사를 갖추었다. 이에 대하여 사촌 여동생의 아들인 다산 정약용은 윤용의 『취우첩翠羽帖』에 대한 화평에서 “화목花木, 영모翎毛, 곤충을 그렸는데 정말 실물을 닮았고, 그 묘리는 정세精細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 윤공은 나비와 잠자리를 잡아서 그 수염·턱·맵시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그 모습을 똑같이 그린 뒤에야 붓을 놓았다하니 그분의 정결精潔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所作花木翎毛蟲多之屬, 皆逼臻其妙, 森細活動. …… 尹公, 嘗取蛺蝶蜻之屬, 細視其鬚眉粉澤之微, 而描其形, 期於肖而後已, 卽此而其精深刻苦, 可知也.”라고 적고

있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권. 이 글을 통해서도 윤용이 윤두서의 위업에 접근할 만큼 빼어난 관찰력과 묘사력을 가졌음이 짐작된다.

윤용의 작품 가운데 시골 여인의 일하는 모습을 담은 <협룡채춘挾籠採春>(간송미술관 소장)에는 풍속화의 생동감이 담겨있다. 그 감각은 역시 할아버지 윤두서를 이은 것으로, 머릿수건을 쓴 채 등 돌린 여인을 포착한 공간감 등은 윤두서의 <나물 캐는 여인>을 연상케 한다. 부분적 미숙함도 없지는 않으나 호미를 쥔 다부진 손의 표현이나 그을린 피부표현 등은 오히려 윤두서의 풍속화보다 현실 인식이 짙다.

산수화에서는 윤두서에서 시작된 가전화풍의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면서도 당시 화단에 풍미하기 시작한 남종화풍의 체득으로 섬세한 감각이 눈에 띈다.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증산심청도蒸山深靑圖>에서 선비가 서있는 평평한 바위, 전경 정중앙에 위치한 언덕, 언덕 주변의 가는 대나무, 개자개字 모양의 점과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된 나뭇잎 등은 윤두서의 화풍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윤용의 작품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정완월도江亭觀月圖>는 강 건너편 마을에 한옥이 밀집되어 있어 한강 주변의 실경을 그린 것으로 짐작되는 실경산수화다. 윤용의 부친 윤덕희가 도석인물과 신선도를 잘 그렸던 것처럼 그 또한 가전화풍을 따른 도석인물화도 몇 점 전한다.

윤용은 화첩인 <취우첩>과 함께 몇 권의 유고가 있다고 전하나 현재는 모두 남아 있지 않다. 화훼, 초충, 영모화로 꾸며진 <취우첩> 4권은 조카 사위인 정약용이 강진으로 귀양 갔을 때 감상하고 발문을 남긴 것으로 보아 1800년 초까지는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증산심청>, 종이에 수묵, 26.7×17.7cm, 서울대학교박물관

윤용은 후손도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시 시서화로 교류했던 문인들의 문집에는 그의 짧은 생을 애도하는 많은 제문이 남아 있다.

윤정기 尹廷璣

호 방산 舫山 생몰년 1814~187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윤정기는 조선 말기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으로 본관은 해남海南이며 어머니 나주 정씨는 정약용丁若鏞의 딸이다. 자는 기옥奇玉, 경림景林이며, 호는 방산舫山, 한금寒琴이다. 어려서는 할아버지인 서유書有에게서 학문을 익히고 강진에 유배와 있던 외할아버지 정약용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아 당대에 문명을 날렸다. 그의 시를 본 연경의 학자 주당周棠은 “백흥白虹의 기상이 있다”고까지 극찬하였고 ‘방산’이라는 호까지 지어 보냈다. 당시의 거경·석학들이 그와 중유하기를 원하였는데, 권돈인權敦仁·이명적李明迪·한계원韓啓源·최우형崔遇亨·김병학金炳學·윤정현尹定鉉 등이 모두 그의 문우이다. 주위에서 여러 차례 벼슬에 나아가길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저서로는 『역전익속易傳翼續』, 『시경강의속집詩經講義續集』, 『동환록東寰錄』, 『물명고物名考』, 『방산유고舫山遺稿』 등이 있다. 그의 필적으로는 청대 풍전馮全, 1595~1672이 편찬한 『쾌설당법서快雪堂法書』를 임시書臨한 작품이 남아있다.

방산 윤정기의 작품으로 전하는 문인화 열두 폭 병풍 중 대나무를 괴석과 함께 그린 두 줄기 대나무는 죽간은 길고 덧잎은 소략하다. 괴석의 모양이나 대와 이루는 구도가 독특한데, 매화에서도 ‘V’자형을 이루는 구도나 잔가지를 나란히 배치하는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예서십곡병 隸書十曲屏》은 각 글씨는 팔분체라는 이름의 양옆으로 펼쳐진 듯한 예서체의 기본형을 변형하여 정사각형의 자형을 이루는 독특한 작품이다. 강진군과 예술의 전당이 협력하여 다산 정약용의 유물과 다산의 외손자인 방산 윤정기의 서화유물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2009년 예술

의전당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서는 윤정기의 서예작품과 묵화가 전시되었고, 도록으로 발간되었다.



《행서10폭병풍》, 각 폭 153.5×42cm, 다산박물관

윤제술 尹濟述

호 운재 芸齋 생몰년 1904~198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윤제술은 근·현대기 전라북도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호는 운재芸齋이다. 그는 7세에 천자문을 익히고 사자소학과 동몽선습을 배웠으며, 당시 근동에서 학문이 높은 강초산姜楚山에게 3년 동안 통감 11권을 통독하였다. 이후 윤제술은 완주 와동마을에서 전통 서예와 글을 가르치고 있던 심농心農 조기석趙錫錫, 1876~1935을 찾아가 2년간 그곳에서 글씨 공부를 하였다.

윤제술이 14세가 되던 해에 서예가 강암 송성용의 손위 종매인 송이순과 결혼면서 아내의 숙부이자 강암의 부친인 유재 송기면宋基冕, 1882~1956에게 학문과 글씨를 배웠다. 그의 호인 윤재는 스승인 송기면이 지어준 것이다. 15세에는 계화도에 있는 간재 전우 문하에 들어가 배웠다. 그 후 서울 중동학교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마치고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일본 중학교로 부임하였다가 모교인 중동학교로 옮겨 영어를 가르쳤다. 그 후 보성중학교를 거쳐 성남중학교에 부임하였고 해방 후 이

리 남성고 교장을 지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계에 진출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민주당에 입당하였고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1968년에는 국회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노년에는 정계를 떠나 많은 서예 작품을 남겼다.

그는 구양순 필첩과 황산곡첩을 주로 공부하였고, 국내의 창암 이삼만 글씨를 쓰면서 김정희와 성당 김돈희의 글씨도 배웠다. 1936년에는 제15회 서화협회전 서예부에 출품 입선하였다.

윤제술은 교육자로서 후진을 길러냈고, 정치인으로서 또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시문과 서화작품을 남겼다. 그의 묘비는 강암 송성용이 전면 서를 쓰고, 아산 송하영이 후면을 썼다.



《행서10곡병》, 각 폭 321×131.5cm, 개인

윤해 尹楷

호 치암 癡巖 생몰년 1632~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윤해는 17세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광주 출신이다. 본관은 함안으로 당시 현감이었던 수익壽益의 아들이다. 호는 치암癡巖이다. 효종8년(1657) 식년시에 진사 3등으로 급제하였다.

윤희상 尹喜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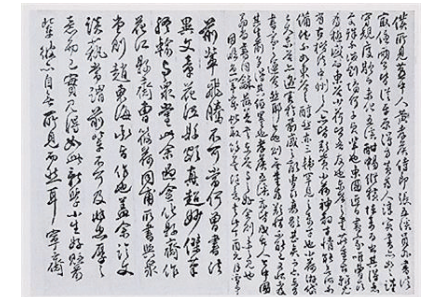
호 암수 巖叟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윤희상은 광주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함안이다. 호는 암수巖叟이다. 폐비 윤씨의 조카인 남촌南村 윤지화尹之和, 1476~1558의 후손이다. 윤지화는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연산군의 외척으로 전라남도 장흥에 유배되었고 해배후 1513년 광주 행암동에 자리잡아 함안윤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윤희상의 생애는 알려진 바 없으나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건창 李建昌

호 영재 寧齋 생몰년 1852~1898 출생·활동지역 전남·개성 분야 서예

이건창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 당호堂號는 명미당明美堂이다. 가학을 이어 양명학을 연구했으며, 조선시대 당쟁 연구에 필요한 『당의통략』을 지었다. 1874년 서장관으로 뽑혀 청



〈근묵〉,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소장

나라에 가서 청의 문장가인 서부徐邨, 황각黃奭, 장가양張家驥 등과 교유했으며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암행어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나 주위의 모함을 받아 여러 차례 옥사를 치렀다.

이건창은 1892년 보성으로 유배를 와 4년을 머물면서 이 지역의 문인·한학자들과 교류하는 한편 후학을 양성하여 학문과 서예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파 송명회와 설주 송운회도 이건창의 문하생이 되어 학문과 서예

관 형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설주 송운회는 18세에 이진창을 만나 학문과 서예의 틀을 갖추었고, 스승의 해배 후에도 강화까지 찾아가며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진창의 글씨는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행초서로 쓴 <근목>이 전한다.

이계원 李兌元

호 연당 蓮堂 생몰년 1944~201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이계원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호는 연당蓮堂이다.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한국화를 배웠다. 이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1968년부터 13회에 걸쳐 전남도전에 입선과 특선을 하였고, 백양회白陽會 공모전에 출품하여 제9회, 제10회, 제11회에 연이어 입선 및 특선을 하였다. 전남도전 초대 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광주와 서울, 대전 등에서 개인전과 초대전을 수차례 열었고, 1986년 연진회 회원전(일본 동경)을 비롯하여 이후 이어진 연진회 회원전에 꾸준히 출품하였다.

후진양성에도 힘썼는데, 연진미술원 전임강사와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제주향교, 육군사관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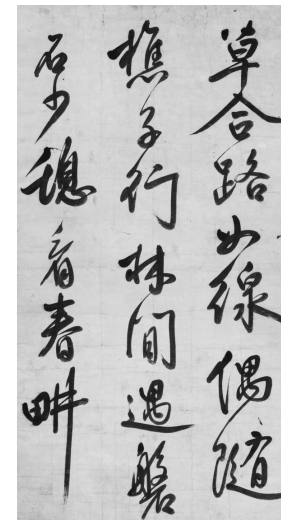
<문명의 근원>, 2006년, 혼합재료, 162.2×130.3cm, 개인

톨릭대학교에서 동양화 전공 부교수를 지냈다.

화조화와 산수화를 두루 잘 그렸다. 허백련 문하에서 배웠으나 말년의 그의 산수는 사실적인 묘사와 채색법 등에서 전통적인 남종문인화풍보다는 현대적 사생화풍을 보인다.

이광사 李匡師

호 원교 圓嶠 생몰년 1705~1777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대자 행서>, 종이에 먹, 국립중앙박물관

이광사는 조선 후기의 문인서화가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도보道甫, 호는 원교圓嶠, 수북壽北이다. 예조판서 이진검의 아들이며 이조참판 이진유의 조카이자 『연려실기술』의 저자 이공익의 아버지이다. 1755년 소론일파의 역모사건인 나주 벽서사건羅州壁書事件으로 큰아버지 진유興儒가 처벌될 때 연좌되어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후 함경도 부령에서 문인들에게 글과 글씨를 가르쳐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58세에 전라도 진도로 이배되었고 다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며 전라도 신지도로 이배되었다가 그곳에서 73세로 생을 마쳤다.

정제두鄭齊斗에게 양명학陽明學을 배웠고, 윤순尹淳에게서 필법을 익혔다. 동국진체는 윤순의 서법을 계승한 이광사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광사는 왕희지의 서첩들이 모두 오래되고 변모를 거듭했기 때문에 왕희지 본색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서·예서를 통해 심획을 얻은 후 다시 왕희지의 서법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다고 깨달았다. 이를 통해 조선 고유

의 서체인 동국진체를 완성시켰다. 해남 대흥사의 대웅보전, 구례 지리산의 천은사, 강진 백련사의 대웅보전, 고창 선운사의 천왕문, 장성 백양사의 대웅전, 부안 내소사의 대웅보전, 영암 월출산의 도갑사 등 전라도의 많은 사찰에는 이광사의 편액이 전해진다.

이광사는 시·서·화에 모두 능하였다. 그림에도 뛰어나 산수·인물·초충·화충을 잘 그렸고 소박한 문인 취향의 화풍을 이루었다. 문학작품으로는 단군 이래의 역사를 읊은 <동국악부東國樂府> 30수와, 귀양지 신지도의 풍속과 생활을 그린 <기속記俗> 등이 전하며, 서화 작품으로는 <고승간화도高僧看畫圖>·<산수도山水圖> 등이 전한다. 저서로 서예 이론서인 『원교서결圓峯書訣』, 『원교집선圓峯集選』 등이 있다.

이광열 李光烈

호 효산 曉山 생몰년 1885~196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이광열은 근현대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본관은 전주이며, 좌승지 우송友松 동식東植의 아들이다. 그의 호는 효산曉山, 수명루인水明樓人이다.

이광열은 사숙에서 한문과 서예를 익혔다. 전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04년에는 군청 서기로 근무하였으나 1910년 그만두고 함육학교函育學校에서 교편을 잡았다. 1913년 함육학교가 폐교되자 전주 제2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1919년에는 전라북도 학무위원을 지내며 서학동에 주유림株有林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주부사全州府史』를 편찬하였고, 전주향교의 전교典敎와 전주기령당全州耆寧堂 당장, 전주의 국궁정인 천양정사장穿楊亭射長 등을 역임하며 전주 문화계의 상징적 인물로 추앙받았다.

이광열은 일찍이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 1854~1903의 문하에서 서예와 문인화를 배웠다. 그의 서예와 문인화는 격조 있고 독창적이며, 예서와 전서는 웅건하면서도 필치가 고졸하였다. 1927년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에



〈묵죽도〉, 종이에 먹, 31×126cm, 전북도립미술관

서 <매화>로, 1928년 제7회 사군자부에서는 <묵죽>으로 각각 입선한 후, 1929년과 1930년 일본서도전람회에서 입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 이상 출품하지 않고 1935년 전주 다가동 자택에서 최규상, 김희순 등과 같이 한묵회韓墨會를 창설하여 후진을 지도하였다. 그때 한묵회에서 최상하, 박병연, 민윤식, 명대혁, 김용식, 원금홍, 송진주 등 서화인이 배출되었다. 또한 고암 이용로가 그의 문하에서 사군자를 익혀 죽사竹史라는 호를 얻었다. 목로 이용우도 6·25때 전주에 피난을 와 있는 동안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허백련, 김은호, 이상범 등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다. 1966년 전주시로부터 시민문화상을 받았다.

이광열은 서예에서 황산곡의 필법과 추사 김정희의 서법을 익혀 예서를 많이 남겼다. 순천 송광사를 비롯하여 전주 천양정穿楊亭, 학인당學忍堂, 승암사僧巖寺, 관성묘關聖廟 등의 편액이 있다. 금석문으로는 전주 기령당의 <전주기령당사적비全州耆寧堂事蹟碑>, <참봉박규흥기념비>, <의암인창섭송혜비>, 완산에 있는 <화수계장가선대부행동지돈령부사김창범기념비>의 글씨가 있으며,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훈련대장전공가재신도비명訓鍊大將全公嘉齋神道碑銘>이 있고, 전주 아중리 저수지부근에 있는 전주이씨 이기용李基鎔과 이해의李海儀 묘비의 글씨 등이 있다. 전각도 많이 남겨 《수명루인보水明樓印譜》가 있다.

사군자에서는 특히 매화를 잘 그려 매화 그림이 상당수 전한다. 그의 유묵은 전북대도서관, 전주교육대, 전북도립미술관 등 공공기관에 다수 소장되어 있고, 그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매화, 묵죽, 서예 병풍과 손수 필사한 다양한 분야의 서책이 전한다. 《사군자십이곡병풍》, <묵죽도>, <묵매

도> 등이 남아 있다. 이광열의 차남 영균(榮均)이 그의 뒤를 이어 인물화가
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광용 李光容

호 육서 六書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광용은 전라남도 담양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전주이며, 호는 육서
六書로, 성종대 문신으로 가사 낙지가(樂志歌)를 쓴 추성수(秋城守) 서(緒)의 후손이
다. 『조선희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귀호 李貴浩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귀호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교관(敎官)
익곤(益坤)의 손자이다. 『조선희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규진 李圭鎭

호 소남 素南 생몰년 1929~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규진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소남(素
南)이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남 의원을 운영하면서 서예를
시작하여 소전 손재형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서예를 공부하였다. 1965년
국전에 입선하였고, 1973년 제22회에서 30회까지 연 6회 특선을 하여
추천작가,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문예진
흥원 주최 한일서예교류전(예술의 전당) 초대작가를 하였다. 대한민국미

술문화대상전 운영위원 등 여러 미술대전의 심
사위원과 운영위원을 도맡아 다양한 행사에 참
여하며 지역 미술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대
한민국 원로 작가전에 초대되었다.

개인 소장으로 <선면묵란>, <묵란> 등 사군자 작
품이 남아있고, 글씨로는 해서 <성즉금석가천(誠
則金石可穿)>과 예서 <복성장공조(福星長拱照)> 외에 현
판 글씨로 임실군 지사면 관곡서원에 있는 경행문
景行門 편액과 무주 적상산 안국사의 <삼성각(三聖閣)>,
<청하루(淸霞樓)> 현판 등이 전한다.

저서로 번역서인 『중국서론정요(中國書論精要)』(미술
문화원, 2006년)가 있다.



<묵란>, 종이에 먹

이근화 李根華

호 창하 蒼何 생몰년 20세기 중반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이근화는 근대기에 활동하다 월북한 작가이다. 호는 창하(蒼何)이다. 전라북
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의 구체적인 생애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
지만, 일제강점기에 민족의식이 강했던 인물로, 한국 근대사가 낳은 불행
한 지식인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남아있는 작품의 수는 많지 않으나

사군자류와 함께 화조와 산수, 영모화 등 주제는 비교적 다양하다. 국립나주박물관 소장 〈학〉은 비교적 공필로 그린 것으로 이에 쓰여진 문구는 ‘淸月夢回三島去, 看雲思上九霄飛. 맑은 달 아래 삼도로 돌아갈 꿈을 꾸고, 구름을 보며 높고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려 하네.’로 중국 원대 유훈 1240~1319의 시다.



〈학〉, 종이에 수묵담채, 187×50cm, 국립나주박물관

이기봉 李琪奉

호 윤당 潤堂 생몰년 1923~199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이기봉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호는 윤당潤堂이다. 전주 화단에서 문인화로 유명했던 효산 嘯山 이광열 李光烈의 아들이자 인당仁堂 이영균 李榮均의 동생이다. 작품으로 기명절지도가 여러 점 전한다.



〈기명절지도〉, 1987년, 한지에 수묵담채, 30×120cm, 개인

이난제 李蘭濟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이난제는 전라북도 군산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전주이다. 부친은 국진 國鎭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남호 李南浩

호 금추 錦秋 생몰년 1908~200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이남호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경상북도 출신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호는 금추 錦秋이다. 중국 북경대학 北京大學 중국화과 中國畫科에서 수학한 후 이당 以堂 김은호 金殷鎬, 1892~1979에게 그림을 배웠다. 1940년대 후소회 後素會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대에는 김기창, 박래현, 김영기, 천경자 등과 함께 백양회 白陽會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효산 이광열, 묵로 이용우, 인당 이영균 등과 친분을 맺으면서 전주에서도 활동하였다. 전주, 군산, 익산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선전에 2회에 걸쳐 입선하였다. 1973년부터 약 20년간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면서 동양화연구소를 개설, 외국인에게 한국화를 지도하기도 하였다.

이남호는 인물 풍속화의 독자적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평가되며 한국인



〈고사인물 팔곡병〉, 1968년,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139×34cm, 전북도립미술관

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밝고 화려한 색채와 힘있고 자유분방한 필치로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또한 그의 풍속화는 실제 경험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실제로 그는 <탄금도>를 그리기 위해 직접 가야금을 배우거나 역사의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해 고증과 답사를 거칠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고사인물화는 현실의 충실한 재현뿐 아니라 해학성과 문학적성을 동시에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의 작품으로 풍속화인 《고사인물팔곡병》, <천렵>, <베짜는 여인> 등이 전한다.

이달재 李達才

호 월성 月城 생몰년 1937~200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이달재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월성 月城이다. 의재 허백련을 사사하여 1957년부터 연 2회 국전에 입선하고 여러 차례 개인전을 하였다. 능숙한 필치로 사군자를 잘 그렸다.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파초>는 여러 폭의 문인화 병풍 중 한 폭으로 생각되는데, 운묵으로 죽 뻗어 오른 줄기와 넓은 파초 잎을 시원하게 그리고 옆에는 작은 괴석도 하나 배치하였다.



<목죽>, 종이에 수묵, 32×23.5cm,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파초 잎을 잎맥에 따라 하나하나 떨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이 독특하다.

이달재의 <목죽>은 괴석, 영지와 함께 그린 것으로 풍죽을 그린 듯 바람을 받은 댓잎의 끝을 무디게 표현하였다, “청풍고절 淸風高節” 즉 맑은 바람에 높은 절개라는 화제와 함께 “월성인사 月城人寫”라는 관지가 있다.

이돈흥 李敦興

호 학정 鶴亭 생몰년 1947~202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돈흥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으로 본관은 영천 永川이며 호는 학정 鶴亭이다. 담양에서 출생했으나 교사였던 선친을 따라 나주, 목포, 무안, 고흥 등지로 학교를 옮겨 다녔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에 입학하던 만 20세에 아버지의 권유로 송곡 松谷 안규동 安圭東, 1907~1987을 찾아가 서예에 입문하였다.

이돈흥은 원교 이광사에서 송곡 안규동으로 이어지는 호남 서예계를 대표하는 21세기 한국 서예 10대가 중



<오미五美>, 천예 먹, 69×43.5cm, 개인, 2007년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전통 동국진체를 기반으로 ‘학정체’를 완성하고, 일평생 한국 서예계에 큰 영향을 끼치며 서예 발전에 힘썼다. 국제서예가협회를 창립해 국제학술행사를 여는 등 후학 양성과 서예 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친구이자 서예가인 박완규는 그의 서체를 보고 “자유분방하면서도 정감 있고, 또 흐드러진 꽃처럼 무르익은 솜씨”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가 지켜온 법고창신의 정신은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는데도 핵심을 이루었다. 그는 옛 법을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만 깊이가 느껴지고 품격과 발랄함이 어우러진 작품이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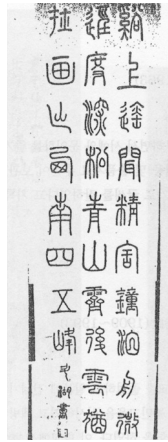
이돈흥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광주미협회장, 국전초대작가 등을 역임했다. 제84, 85, 86, 87, 89회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를 비롯하여 1975년부터 마흔세 차례 서예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진수회, 근역 서가회, 필진회 회원이며, 1975

년 학정서예연구원을 설립해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등 서예 작품 활동과 서단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문주 李文周

생몰년 1891~196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이문주는 근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진안 출신으로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서예와 문인화를 즐겨하여 1941년 대만중부서예전에 입선하였다. 1938년에 간행된 『동헌비고』 진안편 필원난에 “서예가로 글씨를 잘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인화도 잘 그렸다.



〈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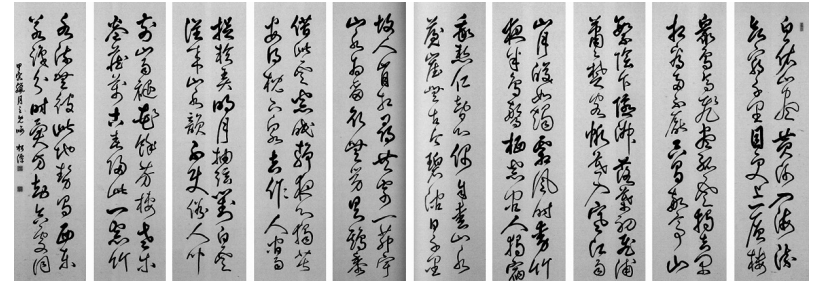
이백순 李栢淳

호 송담 松潭 생몰년 1927~201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백순은 현대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호는 송담松潭이다. 한학자 영천榮川 이교천李教川, 1882~1931의 손자로 21세까지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 1901~1960, 현곡 유영선, 양재 권순명, 현산 이현규 등 전국 명유名儒를 찾아다니며 유학을 공부하였다. 1975년 한중일 문화교류전에서 서예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선인들의 문집을 번역 교열하였다. 한국의 마지막 유학자로 불린다.

그는 64세였던 1993년 중국 복건성의 주희학술연구회에 국내의 저명한 학

자들과 참석해 강론과 서예 문장으로 국제적인 문명을 얻기도 했다. 이백순의 제자들이 ‘진수계進修契’라는 모임을 꾸려 선생의 학맥을 잇고 있다. 저서로는 『한문학대개漢文學大概』를 비롯해 오서 오경을 해석한 『소학해小學解』, 『춘추좌씨전해春秋左氏傳解』, 또 성리학의 이론서인 『근사록해近思錄解』와 『심경해心經解』, 논문으로 「변정록辨訂錄」을 저술했다. 이외에 『노사선생문집』, 『미암일기』 등 수많은 번역서가 남아있다. 2019년 3월 23일 그의 문집 35권 12책의 기념식과 출판기념회가 광주 향교에서 열렸다.



〈초서10폭병풍〉, 종이에 먹, 각 폭 121×32cm, 목포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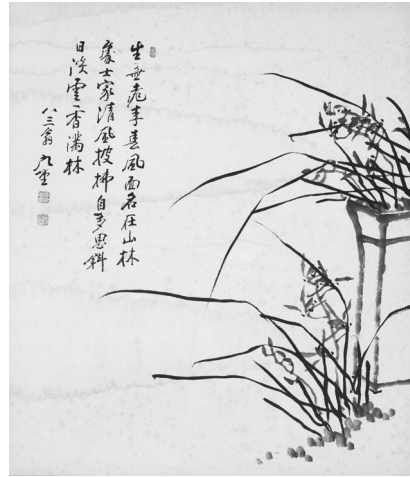
이범재 李範載

호 구당 九堂 생몰년 1910~199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이범재는 근현대의 문인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호는 구당九堂이다. 어렸을 때 광주로 올라와 살면서 의재 허백련으로부터 묵화를 배웠다. 1938년 허백련이 연진회鍊眞會를 창립할 당시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평생 허백련과 함께 하다가 1977년 허백련이 세상을 떠나자 연진회 회장을 맡았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인민위원회 보성읍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전쟁 때 전주 금암동에서 잠시 머무르다 다시 보성으로 귀향해 읍장을 하였다. 1961년 5·16이 일어나자 읍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가 1964년 제13

회 국전國展에서 서예 부문 특선을 하였으며, 1965년과 1966년 제14, 15회에 연 2회 입선을 끝으로 더 이상 출품하지 않았다. 1965년 전남도전 초대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현대미술 대상전 초대작가, 미술문화 대상전 심사위원,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예와 사군자를 두루 잘 하였는데, 문기 있는 서화가로 이름이 높았다.



〈묵란〉, 1992년, 종이에 먹, 69.5×60.5cm, 의재미술관

의재미술관 소장 〈묵란〉은 구당 이범재가 83세 때인 1992년에 그린 묵란화이다. 이범재가 1993년에 84세로 세상을 떠났으니 거의 만년 작이라 할 수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사각의 긴 분쑈에 담긴 난과 지면의 난 한 무더기를 배치하고 왼쪽에는 제시와 관지를 적었다. 난은 서툰 듯 구불거리는 필치로 고졸한 멋을 내어 제시를 쓴 필치와도 잘 어울린다.

이병무 李秉懋

호 백우 白愚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병무는 전라남도 광양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경주이며 호조판서 응회應會의 후손이다. 자는 성환性煥, 호는 백우白愚이며,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필세가 강건하고 특히 예서를 잘 써 원근에 칭송이 자자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삼만 李三晩

호 창암 蒼巖 생몰년 1770~1847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이삼만은 19세기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족보 이름은 규환奎煥인데 규환奎煥, 또는 규환奎桓으로 쓰기도 하였다. 자는 윤원允遠으로 윤원允元으로도 썼다. 호는 창암蒼巖, 강암強巖, 강재強齋, 剛齋 등이다. 널리 알려진 그의 이름 삼만三晩은 그가 학문이 늦고, 문우文友와 처를 늦게 얻어 보통 사람보다 세 가지가 늦었다하여 개명한 것이라 전한다.

이삼만은 글씨 공부를 왕희지의 법첩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글씨를 연마하였다고 한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20세기 초 오세창이 엮은 『근역서화징』에는 이삼만의 성품과 글씨 쓰게 된 내력을 알려주는 일화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이삼만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다. 일찍이 베를 빨아서 글씨를 쓰고 까맣게 되면 빨아서 다시 쓰곤 하였다. 비록 병든 때라도 날마다 천자씩을 쓰면서 말하기를, ‘만약 벼루 세 개를 뚫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원래 집이 부유했으나 글씨를 쓰면서 집안이 어렵게 되었다. 배우는 자가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한 점 한 획을 한 달씩 가르쳐 주었다. 우연히 부산의 장사꾼으로 전주에 와 있던 사람의 장부를 써 주었는데, 그 장사꾼이 그것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더니 감정하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이것은 명필이다’라고 하여 이 때문에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졌다고 하였다.

이삼만이 자신의 서체를 이루어간 내력에 대해서는 그의 유품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서법을 좋아하여 몇 해 동안 이 분야의 여러 서가들에게 드나들었으나 그 참된 경지를 얻지 못하여 늘 스스로 탄식하고 한스러워 했다. 그러던 중 중년에 충청도 지방에 노닐다가 우연히 진흥나라 사람인 주정

周旻이 비단 바탕에 쓴 목적을 얻었는데, 이것은 가히 당나라 때 제가들의 서예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또 서울에서 유공권柳公權의 진묵眞墨을 얻어 또한 고인의 붓을 다루는 본의를 알게 되었으며, 만년에는 신라시대 김생金生의 친필 글씨를 얻어 더욱 고인들의 심획心劃의 창건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세대가의 글씨를 밤낮으로 눈에서 떼지 않고 수만 번이나 써 보았으나, 재주가 모자라고 자질이 노둔하여 여전히 참된 경지를 얻지 못하였다.”(김익두, 류경호, 『창암 이삼만 선생 유묵첩』, 정음사·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

이후 이삼만은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구풍첩》을 보고 “자획이 튼튼하고 크며 기상이 웅장하고 빼어나 한번 보고도 가히 옛사람의 풍미를 생각해 한다. 내가 감히 나란히 하지 못할 것이나 비슷하게 몇 줄의 글씨를 써서 부족하나마 그 뒤를 잇고자 할 따름이다字劃建偉, 氣象雄逸, 一見可想昔人風味, 余非敢並駕肖寫數行聯, 以爲紹後耳.”라고 하며 이광사 글씨의 튼튼한 자획과 웅장한 기상을 닮고자 하였다.

이삼만이 19세기 전라북도 지역에서 글씨로 명성이 있었던 만큼 19세기 명필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의 연관성도 찾아볼 수 있다. 1833년에 세워진 광산김씨 묘표에 두 서예가의 글씨가 함께 새겨진 비문이 있고, “명

필완산창암이삼만지묘名筆完山蒼巖李三晩之墓”라는 묘표도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다.

이삼만은 각체를 두루 잘하였는데, 특히 행초서를 발전시킨 글씨인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는 듯한 ‘유수체流水體’를 쓰며 필명을 떨쳤다. 현재 구례 천은사와 화엄사, 금산의 보석사, 공주의 동학사, 강화의 전등사 등 전국 유명 사찰에 이삼만이 쓴 현판 글씨가 남아 있다.

『화동서법華東書法』은 이삼만이 1800년에 전주에서 간행한 서법 책이다. 1800년 전주의 계남산방에서 처음 찍었다고 하였는데, 이때 찍은 목판본은 음각본이었으며, 이후 다시 양각본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인쇄본과 더불어 목판이 함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화동서법』이라는 제목은 우리나라 서법이라는 뜻으로 서법 전수를 위해 인쇄하여 보급한 이삼만의 서결書訣이다. 서문은 왕희지의 「대당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教書」를 집자하여 썼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명필들에 대한 간단한 평을 담고 있다.

『화동서법』 이외에도 이삼만은 서법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후학들을 위하여 서첩을 다수 남겼다. <영자팔법>은 운필의 가장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법(측側, 륵勒, 노努, 적趯, 책策, 락掠, 탁啄, 췌磔)을 습득케 하는 방법을 쓴 다음 해서를 익힐 때 기본이 되는 글씨 50자를 쓴 것이다. 운필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의 해서체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삼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서예가로 호산湖山 서홍순徐弘淳, 1798~?, 기초箕樵 모수명牟受明, 생몰년 미상, 해사海士 김성근金成根, 1835~1919,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6 등이 있으며, 이들을 이어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8~1991, 호암湖岩 박문회朴文會 등이 등장하여 호남 서예의 맥을 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시로는 2010년 4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립전주 박물관에서 ‘조선의 명필 전북의 인물 창암 이삼만전’이 열렸고,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2011년 2월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대규모 전시회 ‘창암 이삼만전’이 열렸다.



『화동서법(華東書法)』, 1800년 이후, 목판본, 27.2×17.0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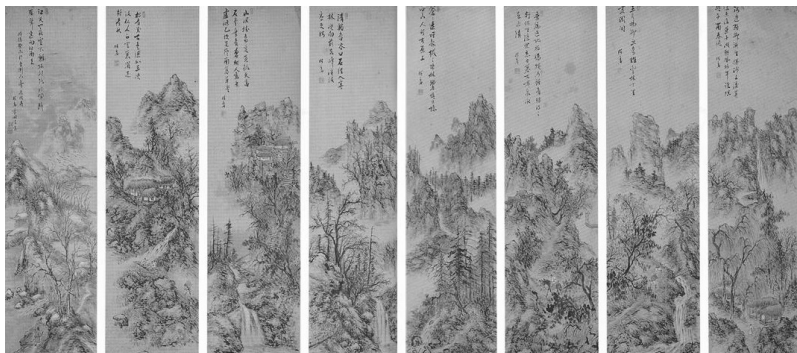
이상길 李相吉

호 소제 昭齊 생몰년 1901~195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이상길은 근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호는 소제昭齊이다. 전주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는 우석友石 황종하黃宗河, 1887~1952가 설립한 서화연구소1924~1936에서 그림을 배웠다. 산수화를 비롯해 화조화와 사군자, 호랑이 그림에 뛰어났다.

이상길의 호랑이 그림은 호랑이의 유연함과 얼룩무늬, 포효하는 얼굴과 수염의 묘사가 섬세하고 사실적이다. 잔잔한 털의 묘사나 적절한 빛의 효과, 유연한 담채의 활용으로 호랑이의 특징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산수화의 경우 전통 한국화의 관념적인 특성 위에 사생을 통하여 근대적인 시각을 조화시킴으로써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창출하였으며 전환기의 한국회화 상황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금강산도팔곡병》, 1943년,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95×30cm, 전북도립미술관

이상순 李商純

호 서옹 西翁 생몰년 1912~200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상순은 승려이자 현대의 서예가이다. 법명은 석호石虎이며 호는 서옹西翁

이다.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와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계씨는 백양사의 만암蔓峯에게 받았다. 일본 교토 임제대학을 졸업하고 1944년까지 일본 임제종 본산 묘심사妙心寺 선원에서 수행하였다. 귀국 후 백양사 선원 부산 선암사 선방에서 수행에 전념해 1967년 백양사 쌍계루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1995년 참사랑 운동을 시작해서 백양사에서 40여 차례 ‘참사랑 수련회’를 주재하고 참사랑 수행법을 정립하였다. 90세에 고령에도 선방 수좌들의 공부를 일대일로 점검해 주어 조계종 간화선의 종풍을 살렸다. 197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정으로 추대되었고, 1978년 이후 백양사의 방장으로 후학을 이끌었다.

2002년에 쓴 초서 족자는 그의 분방한 필법을 보여준다. “到處作主(가는 곳마다 주인이다)”는 내용도 불교 승려다운 글귀이다.



〈초서족자〉, 2022년, 종이에 먹, 144×36cm, 목포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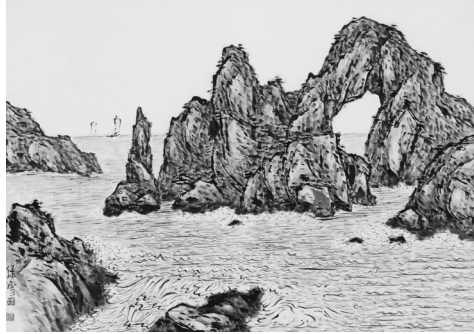
이상재 李常宰

호 녹설 綠雪 생몰년 1930~1989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회화

이상재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임실 출신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였다. 호는 녹설綠雪이다. 1952년 국민대학교 2년을 수료했고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을 사사했다. 연진회 회원이었으며, 1956년부터 1979년까지 매년 국전國展에 작품을 출품하여 2회 특선 및 20회 입선하였다. 1962년에 김옥진, 천경자 등과 함께 청사회靑士會를 만들어 활동했다. 1980년에 국전 추천작가로 활동하였고 1984년에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일곱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현대 한국화전에 참여했고 1982년부터 1987년까지 4회에 걸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

품하였다. 목포대, 전남대 등에서 강의하였다. 1999년 4월에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녹설 이상재 10주기 추모전이 열린 바 있다.

이상재는 스승인 허백련에게 배운 남종화풍을 주로 구사하였으며, 전통적인 화풍을 바탕으로 산수화를 비롯해 화조화 등 개성 있는 자기 세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홍도풍경》, 1973년, 종이에 옅은 색, 41.5×59.5cm, 개인

이석안 李錫安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석안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의사義士 매곡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석중 李奭鍾

호 원산 圓山 생몰년 19세기 말~20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이석중은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청주이며, 호는 원산 圓山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체결되자 이견석李建奭, 1852~1906, 조재명趙載明 등과 함께 13도유약소十三道儒約所를 설치하고 6차례에 걸쳐 토역·항일·복권에 관한 소를 올렸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형 李壽馨

호 동양 東陽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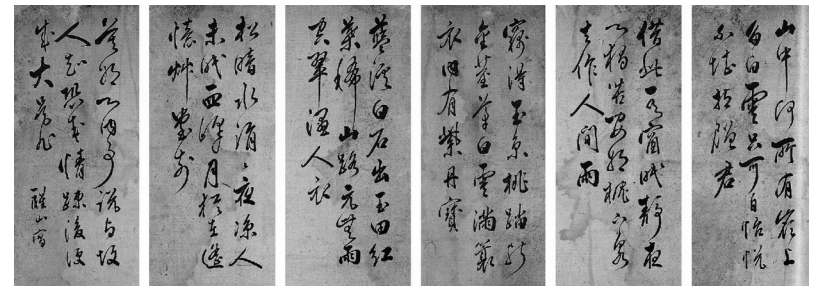
이수형은 전라북도 남원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재령이다. 호는 동양 東陽으로, 고려말 충신 모은茅隱 오후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순재 李舜載

호 성산 醒山 생몰년 1869~194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이순재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문인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완주 출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유학자 이용의李容儀의 아들이다. 자는 효윤孝允, 호는 성산醒山이다. 어려서부터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경서와 글씨를 익히며 많은 법첩을 섭렵하여 전·예·해·행·초서 오체의 서법에 능하였다. 그 중에서도 구양순체의 골법과 육조의 글씨를 연마하였다. 1913년 45세에 고향을 떠나 전주 교동으로 이주하였다. 전주에서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시문과 서예 활동을 하였다.

그의 글씨는 고풍이 있으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있고 간결한 선비 글씨라는 평을 들었으나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않다. 다만 그의



《행서6곡병》, 종이에 먹, 각 폭 87×3cm, 개인

손자인 서양화가 이복수李福洙, 미상~2005와 역시 서양화가인 증손자 이영태로 이어진 그의 작품과 행적이 다소 전한다.

손자 이복수에 의하면 “조부는 늘상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끝은 자세로 생활하였고, 형편이 좋았던 어릴 적에는 향교에 다니며 글씨도 가르치고 하다가 가세가 기울어지자 바깥 출입은 거의 안하셨으나 아침마다 의관을 정갈히 갖추고 시 한 수씩을 지었다.”고 회상하였다.

이순재는 전주에 정착한 후 효산 이광열과 각별한 우의를 다졌다. 설송 최규상, 유재 송기면, 유당 김희순 등과도 자주 교류하였다. 저명한 서화가들뿐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과도 교류하며 시문과 필적을 남겼고 때로는 후학들에게 서예를 지도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1996년 강암서예관에서 있었던 전북도제 백주년기념 ‘전북서예 어제와 오늘’ 전시에 출품된 《행서10곡병》과 전주 향교 명륜당에 문묘중수기 편역이 전하며, 몇몇 금석문들이 있다. 문집으로 『성산심화齋山心畵』를 남겼고, 글씨 공부를 할 때 보았던 여러 법첩들이 후손이 간직한 유품으로 전한다.

이승정 李承鼎

호 화암 華庵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승정은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능주, 지금의 화순 출신으로 본관은 광산이다. 호는 화암華庵이며, 언규彦規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여림 李汝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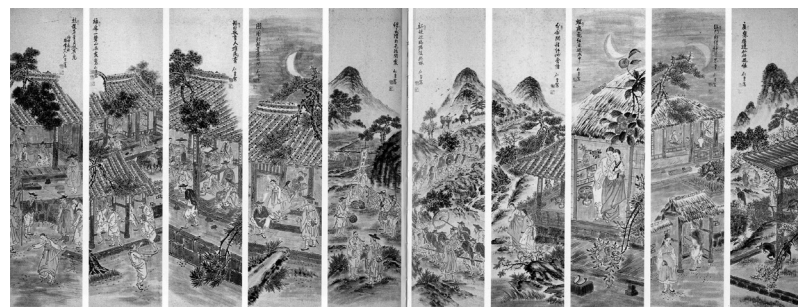
생몰년 18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여림은 18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함평출신으로 본관은 함평이다. 진사 순지舜枝의 아들이다. 소과에 합격하여 생원을 지냈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영균 李榮均

호 인당 仁堂 생몰년 1912~200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이영균은 근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전라북도에서 활동하였다.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인당仁堂이다. 효산曉山 이광열李光烈, 1885~1966의 아들로,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서화를 배웠다. 그는 부친의 필치를 이어받아 빼어난 기량을 보이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고, 금추錦秋 이남호李南浩, 1908~2001에게 그림을 배우기도 했다. 이영균은 특히 인물화를 잘 그려 전통 풍속화의 맥을 현대에 계승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산수화와 신선도, 잉어를 소재로 한 그림도 즐겨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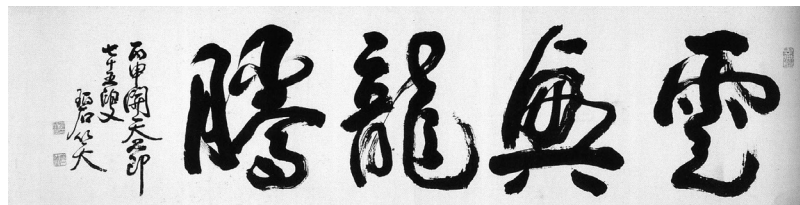


《춘향도 10곡병풍》, 종이에 채색

이영민 李榮珉

호 벽소 碧笑 생몰년 1881~196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영민은 근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호는 벽소碧笑이다. 전주의 효산 이광열에게서 서예와 한문을 배웠다. 한성사범학교에 진학하였고 순천남초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20년 동아일보 순천주재 기자로 활약하였으며, 순천지역의 소작투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1923년 남선농민연맹회의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1925년에는 조선민중운동노동자대회의 준비위원, 조선공산당의 결성에도 가담하여 1928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그 이후 서예에 전념하여 국제서도전에 3회 입선하고 중국 만주, 일본의 묵객들과 교류하였다. 해방직후에는 순천지역 민주주의 민족전선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서예에 매진하여 이삼만의 필치를 발전시킨 '벽소체'라는 고유의 서체를 남겼다.



〈행서횡역-운룡용등〉, 1956년, 종이에 먹, 33×128cm, 목포대학교박물관

이영우 李英雨

호 화강 華岡 생몰년 1931~200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이영우는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곡성 출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호는 화강華岡이다. 석전 이희순을 사사했으며 고사 인물을 비롯해, 화조, 군접도 등을 주로 그렸다. 이영우는 비국전파였으며 일본 아세아현대미술초대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국내에서도 전국서화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면서 미도파백화점 초대 동양화 20인전, 서울 백송갤러리 동양화 3인전 등에 초대되었으며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서울과 대전, 부산에서도 1회씩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한국 서화가협회 이사를 지냈다.

이영우의 그림은 인물과 꽃, 화접도 등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특히 그는 나비 작가로 알려질 정도로 나비모사가 뛰어났는데, 백 마리의 나비와 백 송이의 꽃을 그린 1982년 작 《백접도8폭병풍》은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또한 모란이나 독수리 같은 작품도 남기고 있다.



〈화조도〉, 종이에 수묵담채, 32.4×107.8cm, 남가람미술관(e-museum)

이왕재 李旺載

호 매천 梅泉 생몰년 1928~200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노안도〉, 종이에 채색, 68.5×42.5cm, 개인

이왕재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매천梅泉이다. 남정南丁 최정균崔正均, 1924~2001을 사사하였다. 제26회, 제27회, 제29회 국전에서 입선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한국현대미술대상전에서 추천작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서화가협회 사무국장, 한·일 문화교류전

운영위원, 한국문화국제교류회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동 서예대전의 사군자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노안도>를 비롯한 화조화를 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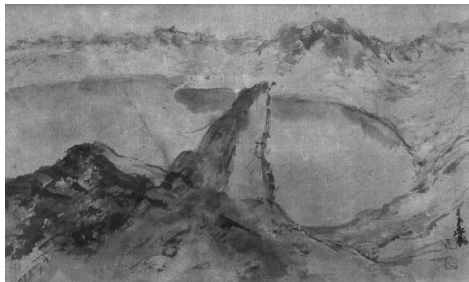
이용우 李用雨

호 묵로 墨鷲 생몰년 1902~1952 출생·활동지역 서울·전북 분야 회화

이용우는 근대기 한국화가이다.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경주, 호는 묵로 墨鷲·춘전 春田이다.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였으나 6·25전쟁때 전주에 피난하여 벽천 나상목을 지도하였고, 전주에서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전주에서 사망하였다.

이용우는 1911년 서화미술원 1기생으로 입학하여 심전 안중식과 소림 조석진으로부터 전통화법을 배웠다. 이때 받은 호는 춘전 春田이다. 1918년 서화가들의 첫 미술단체인 서화협회가 창립되었을 때 16세의 최연소자로 정회원이 되었다.

1920년 서화미술회 동기생인 정재 鼎齋 오일영 吳一泳과 합작으로 창덕궁 대조전에 <봉황도> 벽화를 제작하였다. 1921년에는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과 함께 동양 전통화법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연구모임인 동연사 同研社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고정화된 전통화법을 답습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실주의 서양화법과 일본화의 새로운 양상에 자극을 받은 사생



<백두산 천지>, 종이에 담채

풍의 산야 또는 농가풍경을 그렸다.

1928년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에는 <제7작품>이라는 제목의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

는 독자적인 묵법과 필법을 구사하면서 안정된 자기양식을 구축하고 정적인 깊은 산의 풍경을 환상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1940년 전후에는 친근한 한국의 농촌풍경을 포함한 향토적 정경을 경쾌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같은 화법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는 화조화도 많이 남겼다. 1940년에는 조선미술관에서 열린 10명가산수풍경화전에 참여하였다. 1942년 부민관 중앙강당에서 <군어도> 등 109점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1944년에는 강릉으로 거처를 옮겨 강릉여고와 강릉사범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하였다. 1946년과 1948년 개인전을 가졌고,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동양화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다.

6.25전쟁 때 전주로 피난을 와 효산 이광열의 주선으로 거처를 마련하였고, 이곳의 미술인들과 교류하면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전주에서 그린 그림으로 부산에서 개인전을 가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던 중 1952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봉황도>, <시골풍경>, 마지막 남긴 작품인 <백두산천지> 등이 있다. 특히 <백두산천지>는 전주로 피난 내려와 작품활동을 하면서 이용우가 동해바다와 백두산 천지를 그리고 효산 이광열이 애국가를 써서 전주에 있는 여러 학교에 기증하였던 그림 중 하나이다.

이인헌 李麟憲

호 일당 逸堂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이인헌은 조선시대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본관은 함평이다. 호는 일당 逸堂이며 진사 대옥 大玉, 1680~미상의 후손이다. 알려진 작품은 없으나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서화를 잘 하였다.”고 전한다.

이지원 李子遠

호 설초 雪樵 생몰년 1855~192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이지원은 구한말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호는 설초雪樵이다. 그는 19세기 남종 문인화가 소치 허련의 문인으로 시·서·화에 능한 선비화가였다. 이지원의 화풍은 스승 소치 허련을 계승한 것으로, 아들 송파松坡 이청흠李清欽, 1882~1937에게 전했�으며 종손자인 매정梅汀 이창주李昌柱, 1932~2024에서 꽃을 피웠고, 고손자 이동환 또한 한국화가로 활동 중이다.

이지원의 작품으로 전하는 <묵매>는 화면 좌측에서 가지가 구불거리며 올라간 구도나 드물게 핀 매화의 모습 등 소치 허련의 묵매도와 유사한 화풍을 보인다.



<묵매>, 1920년, 종이에 수묵

이정직 李定稷

호 석정 石亭 생몰년 1841~191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이정직은 19세기 문인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자는 형오馨五이며, 호는 석정石亭, 석정산인石亭山人, 또는 연석燕石이라고도 하였다. 본관은 신평新平, 현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으로, 그의 집안은 본래 경기도 김포에 세거하였으나 아버지 계환 대에 김제에 내려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통감』, 『주역』을 읽고, 13세 때 전라북도 금구에 있던 처사 안정봉의 문하에서 『중용』과 『대학』, 그리고 산학算學 등을 배웠다. 이정직은 사서오경四書五經 등 정통 학문 이외에도 음양陰陽, 복서卜筮, 성력星曆, 율리律呂, 산학算學, 명물名物, 기계機械, 도화圖畫 등 거의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가졌던 실학자였다. 더구나 서양철학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칸트 Kant와 베이컨Bacon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근대적 철학자이기도 하다. 이정직은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1869년 그의 나이 28세 때 청나라 연경에 다녀온 후 그의 사상적 기반과 학문, 예술은 더욱 풍부해졌다.

이정직은 몇 년간 과거시험에 전념하기도 하였으나, 그만두고 중국을 다녀온 후에는 지리산 근처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여 ‘이효자’라 불렸다. 모친이 돌아가신 후 전주로 이주하였고 약국을 경영하여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았으나, 54세 때인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 전주의 집과 그동안의 저축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김제 요교 마을에 은거한 후 농사를 지으며 학문과 후학 지도에 전념하였다. 『조선창극사』를 쓴 정노식鄭魯湜, 1891~1965, 강동희姜東曦, 1886~1964와 교우하며 도움을 받았다.

이정직의 서예는 “구양순의 해서에 미불과 동기창의 행서를, 때로는 안진경의 해서와 행서를 접목시켜 또 다른 행초의 세계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직은 사군자와 괴석뿐 아니라 기명절지 등 문인화의 다양한 소재를 두루 다루었다. 개인 소장 <사군자>는 간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서예적인 힘이 있어 문인화로서의 품격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석정石亭’이라는



<사군자>, 25×43.1cm, 개인

호가 말해주듯이 이정직은 돌을 좋아하여 여러 점의 괴석 작품이 남아있다. 그 화격 또한 높아 가히 괴석도의 으뜸이라 할 만큼 특별한 작품들이 많다. 이정직은 사군자와 괴석 이외에도 모란이나 파초, 연 등 여러 화초와 나무를 즐겨 그렸으나 필치는 빼어나나 대체로 유사한 구도와 표현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분히 사의적인 표현에 중점을 둔 듯하다.

이정직의 서화는 당대뿐 아니라 이후 전북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사의를 중시하는 전북화단에 문인화의 흐름을 형성했다. 이정직의 문회에서 서화를 함께하여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서화가로는 벽하(裨下) 조주승(趙周昇), 표원(表園) 박규환(朴奎畵), 유하(柳下) 유영완(柳永完),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서화풍은 다시 조주승의 아들인 심농(心農) 조기석(趙沂錫), 제자인 효산(曉山) 이광열(李光烈), 송기면의 아들인 강암(剛庵) 송성용(宋成鏞) 등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전북화단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정직은 『석정이정직유고(石亭李定稷遺藁)』라는 방대한 문집을 남길 만큼 시문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글씨와 그림에서도 일가를 이룬 이른바 시서화 삼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 해학(海鶴) 이기(李沂, 1848~1908)와 더불어 '한말 호남의 삼절'이라 불릴 만큼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실학적인 학문, 서예와 더불어 문인들의 의취가 담긴 담박한 화풍으로 19~20세기 전북 화단을 고아한 문인화의 세계로 이끌었다는 평을 듣는다.

이종득 李鍾得

호 국재 菊齋 생몰년 1940~2002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이종득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호는 국재(菊齋)이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1960년대에 소정 변관식을 사사하였다. 1973년 한국미술협회전에 초대 출품하였고,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목포 등에서 8회에 걸쳐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979년 일본 차비현(千葉縣) 초대 전과 1979년 광주 40대 작가 3인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였고 1983년 조선조 명장인 최희량(崔希亮) 영정을 모사하였다. 여러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북경자수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했으며, 세계 예술명인 영예칭호를 받기도 했다. 한중일 문화교류협회 광주시 지부장, 북경 제백석(齊白石) 선생 탄신 130주년 기념 서화전 한국대표, 북경박물관 작품 영구 소장 작가이며, 북경 노년서화연구원 창작회원이기도 하다. 안성시 문화상과 광주광역시 미술공로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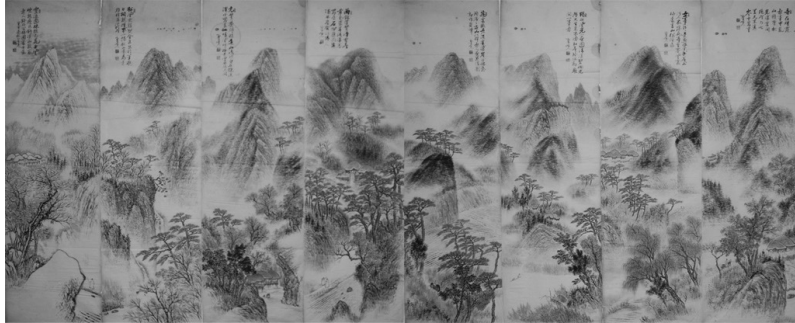
〈봄 나들이〉, 종이에 수묵담채, 51.5×65cm

산수화뿐 아니라 인물화와 풍속화 등에 능하였다. 대표작으로 〈안성옛장터〉와 무숙공(武肅公) 최희량(崔希亮, 1560~1652) 장군을 그린 〈최희량영정〉 등이 있다.

이종원 李鍾元

호 취봉 翠峰 생몰년 1910~1971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이종원은 근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신안 출신으로 호는 취봉(翠峰)이다. 목포지역에서 활동했다.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1897~1972)을 사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34년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강촌만조(江村晩眺)〉로 입선하였다. 이후 1939년 제18회에는 〈맥랑(麥浪)〉, 1940년 제19회에는 〈만하(晩霞)〉로 입선을 하였다. 이종원은 임인(林人) 허림(許林)과 교류하면서 이상범의 영향을 받아 실경을 통한 근대성을 모색하며 새로운 화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한때 남농(南農) 허견(許健)과 함께 목포지역 미술계를 주도했다고 알려졌으며, 해방 직후 만



《산수팔폭》, 1944년,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137×39.8cm, 개인

들어진 목포미술연맹 동양화부에서 허건과 함께 시민미술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는 여수와 군산에서 미술교사를 지냈다. 그는 남종화 계통의 산수에 능하였으나 해방 이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 현재 남아있는 작품 수는 많지 않다.

《산수팔폭》은 이종원의 화풍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근경, 중경, 원경의 전통적인 구도를 사용하였으며 미점과 피마준을 사용하고 있다. 화면에 쓰인 푸른색과 황색, 붉은색의 담채와 운무雲霧의 표현은 일본화풍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먹의 선염과 푸른 담채가 어우러진 간결한 산수화와 화려한 원색으로 설채한 장식적인 화조화도 남기고 있다.

이지순 李之詢

호 진암 眞菴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이지순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인백 仁白, 호는 진암眞菴이다. 고려말기 문신이자 무신인 양도공 養度公 천우 天祐의 후손이다. 학문에 나아가 문리가 날로 성장하였고, 예서를 잘 썼다. 필력이 굳세었다. 당나라 안진경의 서법을 모방하여 그의 필명이 『조선환여』

승람』 「선필善筆」조에 등재되어 있다.

이진섭 李鎭燮

호 동천 東泉 생몰년 1918~2001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이진섭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는 동천東泉이다. 일본대학교 문예부를 졸업하였다. 1971년 한국미술대상전을 시작으로 국내외 많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였고 전남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고대와 현대》, 1982년, 35×33.5cm

이진섭의 작품 중 〈설경〉을 보면 먹이 맑고 담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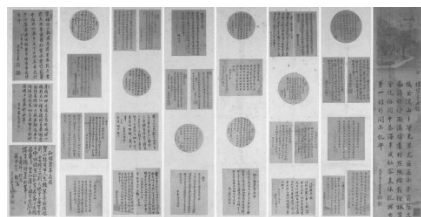
문인화풍을 볼 수 있다. 1982년 작 〈고대와 현대〉는 섬세한 발묵 撥墨법으로 밝고 맑은 유리잔과 그 그림자 같은 효과를 낸 작품으로 제목처럼 고전적인 기법에 현대적 느낌이 난다.

또한 소송 김정현, 천경자와 함께 합작한 작품도 전한다. 이진섭은 비파를 그렸고, 김정현은 이파리가 풍성한 무를, 천경자는 보리 이삭 두 줄기를 그렸다. 관지는 이진섭이 썼으며 1958년 류하 柳夏, 즉 석류꽃 피는 5월에 그렸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이진섭의 교류의 폭과 1950년대 화가들이 합작을 하며 교류하였던 화단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집천 李集天

호 하당 荷堂 생몰년 1900~195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이집천은 근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이다.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하당荷堂이다.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19년 일본대학 법학과 전문부를 졸업하였다. 1926



《서벽정원운 8폭 병풍》, 1926년

년 함라산 기슭에 서벽정樓碧亭을 짓고 전국의 서화가를 초대하여 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참가한 서화가 300여 명의 작품을 엮어 1929년 10월 7일 『서벽정시고樓碧亭詩稿』를 발간하였다. 이때 제작한 《서벽정원도 8폭병풍》이 남아있다. 병풍에는 1926년에 그려진 <서벽전경>과 당시 시인·묵객들의 시가 병풍으로 꾸며져 있다. 서예에 뛰어나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 서예부문에서 입선하였다. 해방 이후 함열중학원장(현 함열중학교)과 이리농대 설립위원장을 맡았고, 전주방직회사 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유묵으로 서울 개운사, 익산 건덕정 등의 현판을 제자題字하였고, 현재 옹포면 송림사의 현판이 남아 있다.

이창주 李昌柱

호 매정 梅汀 생몰년 1932~202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이창주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본관은 인천이며, 호는 매정梅汀이다. 그의 증증조부 설초雪蕉 이자원李子遠, 1855~1923과 조부 송파松坡 이청흠李清欽, 1902~1937 또한 문인화가로 당대 미술계에서 활약하던 선조들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릴 결심을 했다고 한다.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1학년 학생이었던 1955년, 의재 허백련 문하에 들

어가 학교 수업과 연진회에서 남종화 수업을 받았다.

1959년 전남여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8회 국전에 <우후雨後>로 입선하였다. 이후 거의 매년 국전 동양화부에 출품하여 14차례 입선하였고, 1983년, 1984년, 1985년 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초대전에 출품하였다. 조선일보사 후원 서울 개인전 외 8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



《秋峽》, 1974년, 종이에 수묵담채, 65×62cm

다. 한국현대작가 공경전에 초대 출품東京 日動畫廊하였으며, 전남도전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광주광역시 문화위원회,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교수를 역임하였다.

이창주는 남종문인화가로서 초기에는 농촌문화와 정서를 반영하여 전통적 취향에 충실한 작품을 선보였다. 1990년대에는 전통 회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조형미의 새로운 한국화를 시도했다.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거침없는 필치와 화사한 색채의 산수화는 작가의 특징이다.

2015년 6월 16일부터 8월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초대전에서 이 전시를 개최한 미술관 관계자는 이창주 화백에 대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남종문인화 형식으로 풀어낸 원로작가”라고 소개하였다.

이창헌 李昌憲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창헌은 함평출신의 문인 서예가이다. 자는 선기善基이며, 본관은 함평으로, 엄대嚴臺 수온壽溫의 후손이다. 재주와 기예가 뛰어나 7세때 경전을 상고하는데 능통하였으며, 풍양 조씨 조오상趙迺相의 문하에 나아가 공부하였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글씨로 이름을 얻었다.”라고 전한다.

이청흠 李清欽

호 송파 松坡 생몰년 1882~1937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이청흠은 근대기에 활동한 문인화가이다. 전라남도 장흥 출생으로 호는 송파松坡이다. 소치 허련의 문인이었던 중숙인 설초雪蕉 이자원李子遠, 1855~1923을 사사하여 허련의 남종문인화법을 전수받았다. 또한 중국 당송대의 문인화가였던 송설 조맹부와 소동파의 화법과 품격을 탐구하여 그만의 독특한 화법을 창출하였다.

1922년 40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 정착하여 서화활동을 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30여 회나 개최하여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 <노죽대월도露竹帶月圖>가 있으며 그밖에 산수화, 사군자, 인물화, 서예 작품 등 문기 어린 작품을 남기고 있다.



<대나무>, 한지에 수목, 75×40cm, 남포미술관

이치 李瑤

생몰년 1677~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이치는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가이다. 자호, 가계, 사승이나 교유관계 등이 모두 알려지지 않았으나 18세기 전반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화가로 초상화를 잘 그렸다. 서울 관상감현觀象監峴에 살았으나 연산에 거주하며 활동하

였다고 하였다. 연산은 지금은 충청남도 논산이지만 당시에는 호남에 속했기 때문에 이치를 호남의 화사로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1713년 숙종어진 제작과 1735년 세조어진 모사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에 자세한 기록이 있어 당시 화가로서의 명성과 성격, 활동상 등이 파악된다. 생년은 1677년으로 이는 이치가 1735년 세조 어진을 주관화사로 모사할 때 영조에게 59세라고 한 데서 알 수 있게 되었다.

1713년 숙종의 어용도사 관련 일로 도화서 화원과 방외화사를 뽑는 일에 당시 제조였던 김진규金鎭圭, 1658~1716와 도제조였던 이이명李爾命에게 이치를 추천받았다. 이때 이치의 나이는 37세로, 김진규는 ‘방외화사인 이치의 화격이 상당히 높고 사대부들의 초상화를 잘 그린 적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숙종 어용도사도감에는 화원 진재해가 주관화사로, 김진여, 장태흥, 장득만, 진재기, 허숙 등이 참여하였고 이치는 참여하지 않았다. 1735년 세조의 『영정모사도감의궤』때 도제조였던 김흥경金興慶, 1677~1750은 일찍이 이치가 화상을 잘 그린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를 추천하여 어진도사에 다시 한번 참여하였다. 화원 박동보, 장득만, 양기성, 양희명, 신영申瑩 등과 함께 시재試才를 치른 후 양기성과 다시 시재를 치르는데 이때 늦게 올라온 김익주도 함께 했다. 이 결과를 두고 영조를 비롯한 주변의 대신들이 이치를 택하여 주관화사로 삼고 김익주는 동참화사가 되었다. 모사가 끝난 후 이치는 가자되었다. 이치의 성품은 차분하고 성실했으며 정밀하고도 숙련된 화법으로 영조로부터 인정받아 “필시 장래 유명해질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치의 작품은 남아있는 수가 많지 않은데 기록으로 전하는 작품 가운데 신정하申靖夏, 1680~1715의 『서암집愾菴集』에 중국 명나라의 화가 구영仇英의 <도원도>를 모사하여 병풍으로 제작한 이치의 작품이 가장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신정하는 이 그림에 시 4수를 지었으며, 이치가 원화原畵의 정교함을 잘 살렸다고 만족하며 가보로 소장하였다. 이치는 정교한 필선의 채색산수인물화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치가 그린 작품으로 1724년에 그린 <권섭초상>이 알려져 있다. 권섭權

變, 1671~1759은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문예가이자 회화애호가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향촌에서 시와 그림에 열중하였던 인물이다. 이치가 그린 권섭의 초상에는 '백취옹오십사세진百趣翁五十四歲眞'이라는 제목과 누상자찬陋像自贊이 있는데 글씨는 권섭의 아우 권영權瑩, 1678~1745이 썼다. 평상복을 입은 54세 권섭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모습에서 이치의 초상화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이 잘 드러난다.



〈권섭초상(權蓑肖像)〉, 1724년, 비단에 채색, 67×41cm, 문경옛길박물관

권섭은 초상화 이외에도 이치의 작품을 다수 소장했던 것으로 확인된

다. 그의 문집에는 이치가 모사한 《황산기유첩》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황산기유첩》은 송시열이 여러 선비들과 황산에서 회동한 것을 기념하여 권상하가 이징李澄, 1581~미상에게 그림을 맡겨 꾸민 것이다. 현재 이 작품이 현존하는지 알 수 없으며 원본인 이징의 것도 현존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화풍상의 특징이나 그의 다른 작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치의 화명이 높았고 초상화를 비롯해 산수화에 뛰어난 지방의 화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형립 李亨立

생몰년 1604~166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형립은 17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함평 출신으로, 본관은 함평이며, 효우당孝友堂 습懼의 후손이다. 1648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조선

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이형의 李滢儀

호 매촌 梅村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형의는 전라남도 광양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완산이다. 호는 매촌梅村이며, 의갈재義葛齋 근구根求의 손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남아있는 작품은 없다.

이홍직 李弘稷

호 개석 介石 생몰년 1705~179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이홍직은 18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함평 출신으로 본관도 함평이며, 조부는 대순大純, 부친은 진사 준림俊林이다. 자는 계장季長, 호는 개석介石이다. 1735년 진사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예조와 병조의 낭관을 거쳐 경상우도와 충청도의 도사를 지냈다. 1746년 장령, 1751년 헌납, 1761년 사간을 지내다 낙향하였다. 1771년 다시 사간으로 재직하였고, 1776년 다시 함평에 은거하였다. 1785년 노인직 중추부사가 된 뒤, 승정대부에 승계되었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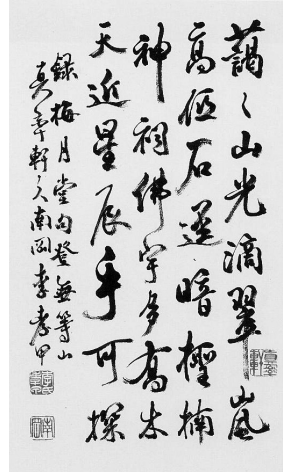
이효갑 李孝甲

호 남강 南崗 생몰년 1927~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서예

이효갑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출생하였고, 호는 남강南崗

이다.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 1913~1999과 효당孝堂 김문옥金玉, 1901~1960을 사사하였다. 국전에서 서예와 사군자로 각각 입선 3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 6회, 전라남도 도전에서 서예 7회, 사군자 2회 입선, 특선 3회를 하였고, 1987년 추천작가로 활동하였다. 전남매일대상전에서 묵죽으로 특선을 하였으며, '한·중 이문二門 연의전聯誼展'에 출품하였다. 1984년 남도 예술회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강암 송성용 제자들의 모임인 연묵회研墨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업으로는 조선대학교 부속 병원 원무과장을 지냈다.

이효갑의 작품으로는 1974년에 새로 지은 강진 무위사의 일주문 편액 〈月出山無爲寺〉, 나주 덕룡산 불회사의 〈德龍山佛會寺〉 편액 글씨 등이 있다.



〈행서 매월당구〉

이희순 李喜淳

호 석전 石田 생몰년 1894~195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이희순은 근현대기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자는 광숙光叔, 호는 석전石田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 1864~1951의 외조부이다. 기우만의 문하에서 공부했던 부친과 조부 아래서 학문의 기초와 서예를 배웠다. 당대 사군자와 나비 그림을 잘 그렸던 문인화가 사호沙湖 송수면宋修勉, 1847~1916을 사사했다.

이희순은 사군자를 비롯해 나비 그림으로 특히 유명했는데, 여러 종류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 꽃에 앉은 모습 등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여 세필細筆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렸다. 꽃은 구름전채법(형태의 윤곽을 선

으로 그린 다음 그 안을 채색으로 메꾸는 기법)으로 그렸고, 바위 난초 등은 수묵화 기법의 활달한 필치로 그렸다.

이희순의 제자로는 전라남도 곡성 출신의 화강華岡 이영우李英雨와 보성의 최필남崔筆男 등이 있다. 이희순의 작품으로 《군자도10폭병풍》, 《화접도8폭병풍》 등이 남아 있다.



《화접도8폭병풍》중 일부, 종이에 수묵, 개인

임득명 林得明

호 송월헌 松月軒 생몰년 1767~1822 분야 서화

임득명은 18~19세기 여항 문인 서화가이다. 본관은 나주, 회진이며, 자는 자도子道, 호는 송월헌松月軒이다. 조부는 임성원林聲遠, 부친은 임필창林必昌으로 누대에 걸쳐 여항 문인을 배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규장각 서리를 지냈으며 여항 문인들의 시사인 옥계시사玉溪詩社, 일명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시사에서 함께 활동한 여항 문인 화가 단계丹溪 김영면金永冕과 교류하면서 화풍에 영향을 주었고, 청나라를 여러 차례 왕래한 옥계시사의 중추적 인물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나 사대부 이광문李光文·김조순金祖淳과 교류하면서 서화에 대한 지식을 넓혔다. 회화 활동 또한 중인들의 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임득명이 1786

년 옥계사 결성 때 제작한 시화첩인 《옥계십이승첩玉溪十二勝帖》과 5년 후인 1791년에 제작한 《옥계십경첩玉溪十景帖》, 그리고 낱장으로 전해지는 여러 그림들도 대부분 시회 장면을 그렸거나 이 때 지어진 시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다. 옥계동 계곡을 배경으로 한 시 모임을 그린 <登高賞華圖>, 집안에서 있었던 모임을 그린 <옥류전학도玉流全壑圖>와 <가목번음도嘉木繁陰圖> 등에서 당시 유행하였던 정선 진경산수화풍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산사유약도山寺幽約圖>, <반동전포도半洞田圃圖> 같은 작품에서 중국 화보 중의 미법산수도와 예찬의 <죽수계정도竹樹溪亭圖> 등의 영향도 눈에 띈다. 임득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1813년 제작 《서행일천리도西行一千里圖》는 관서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 지방의 풍물을 읊은 시와 실경을 그린 것으로, 이에 그려진 산수도 7폭은 장년기의 무르익은 필치를 보여준다. 그가 관서 지방의 실경산수도를 그린 것은 규장각 서리였던 그가 이 지역의 둔전 감독을 위해 간 공무 여행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그림은 구도, 수지법 등에서 이인문·김홍도 화풍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임득명은 여항 문인으로서 시사詩社 활동을 하였고, 그 산물인 시를 주제로 회화 세계를 펼쳤다. 화풍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풍과 남종화풍을 두루 수용하여 자기화시킴으로써 시·서·화를 겸비한 여항문인화가로서 특색 있는 경지를 개척하였다. 『송월만록松月漫錄』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와 그림을 잘 하였다.”고 전한다.



《서행일천리도》중 〈파주도중도〉, 1813년, 종이에 담채, 28×61cm, 개인

임래형 朴來衡

호 소산 歙山 생몰년 19세기~20세기 초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임래형은 20세기 초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무주 출신으로 본관은 밀성密城이며, 호는 소산歙山이다. 좌의정을 지낸 인익仁翼의 후손이다. 1935년에 발간된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전, 예, 초,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임래형의 작품으로는 무주 제월정霽月亭 글씨가 전하며, 덕수궁의 대한문大韓門과 창덕궁의 어수문魚水門 등도 그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제월정〉, 무주군 안성면 사전마을 입구

임백령 林百齡

호 희재 希齋 생몰년 1498~154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임백령은 16세기에 활동한 문신이며 서예가이다. 본관은 선산이며, 자는 인순仁順, 호는 희재希齋이다. 시인 석천 임억령의 동생이다. 형 임억령과 함께 박상朴祥에게 수업하였다.

1516년(중종 11)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9년(중종 14) 식년 문과에 급제해 상서원직장을 시작으로 공조·병조·이조의 참판을 두루 지냈다. 사은사謝恩使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형조참판을 거쳐 경기도관찰사, 한성부의 우윤·좌윤,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지냈다.

이조판서 역임 시 윤원형尹元衡·이기李訥 등과 모의해 을사사화를 일으켰고, 이 사건을 주도한 공로로 정난위사공신定難衛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승선군崇善君에 봉해졌으며, 자품은 보국숭록대부에 올랐다. 그 해 우찬성의 지위로 사은사에 선발되어 다시 명나라에 갔으나, 1546년(명종 1) 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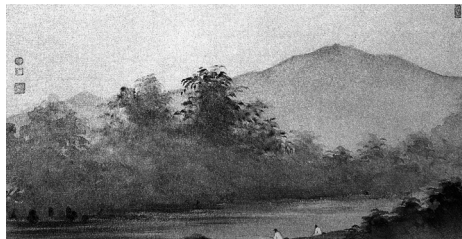
를 마치고 귀국 도중 영평부永平府에서 돌연 병사하였다. 시호를 처음에는 공소恭昭라 했다가 후에 충헌忠憲으로 고쳤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임병성 林炳星

호 우호 又湖 생몰년 1930~2012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임병성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는 우호又湖이다. 100야전사 종군기자, 종군화가로 다녀왔으며, 신문소설 삽화를 20여년 연재하였다. 미술 NOTE, 임병성 약화전집略畵全集 등을 발간하였다.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여러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였고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무등〉, 종이에 수묵, 21×40cm

그의 작품 중 〈무등〉은 수묵 산수화로, 옅은 먹으로 실루엣만을 그린 듯 표현한 무등산의 넉넉한 선과 수풀, 그리고 잔잔한 계곡물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둘이 물가에 앉아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 한가롭다.

임삼현 任三鉉

호 호석 湖石 생몰년 1874~194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임삼현은 구한말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호

석湖石이다. 16세 때 소치 허련의 문하에 입문하여 그림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허련이 세상을 떠난 1893년에 임삼현의 나이는 20세였으므로 제자로서 수련 기간은 짧았지만 스승의 유언에 따라 허련이 타계한 뒤에도 1914년 41세로 운림산방을 떠날 때까지 26년간 운림산방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운림산방을 관리



〈노송〉

하면서 허련이 해남 일지암에서 가져온 일지매라 불리던 고매를 그가 키웠고, 1911년 운림산방에서 태어난 임삼현의 아들 임순재1911~2001도 그 매화를 보고 자랐다. 그런데 1912년 허련의 아들 미산 허형이 강진으로 이주한 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운림산방의 일지매를 의신 주재소(지금의 파출소) 소장 엔도遷藤가 욕심을 내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자 임순재가 아버지가 키운 것이라며 읍내 자기 집으로 옮기는 기지를 발휘하여 지켰다고 한다. 매화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만 허련의 제자로 알려졌던 임삼현의 허련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어 흥미롭다. 임삼현은 글씨와 그림의 재주가 출중하였고, 사군자도 잘 그렸다. 남아있는 작품도 사군자를 비롯한 문인묵화류이다. 난을 치는 필치나 괴석의 묵법뿐 아니라 화제 글씨에서도 스승 허련의 영향이 보인다. 짧은 기간 수련하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승수 林升洙

호 창교 蒼嶠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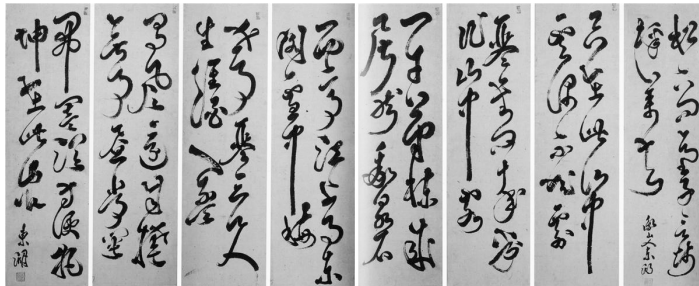
임승수는 서예가이다. 본관은 나주이며, 호는 창교蒼嶠이다. 몽촌夢村 타래

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는 “글씨가 정묘하다.”라고 전한다.

임승직 林承稷

호 동호 東湖 생몰년 20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경북 분야 서예

임승직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구례 출신으로 호는 동호東湖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서화가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 1862~1936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남시서화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초서8폭병풍》은 중국의 유명한 한시 네 수를 초서로 쓴 것으로 두툼하면서도 힘 있는 필획의 변화가 자연스럽다.



《초서8폭병풍》, 종이에 먹, 각 폭 98.5×29.5cm, 목포대학교박물관

임신 林愼

호 서운 栖雲 생몰년 1907~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임신은 근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순창 출신으로 호는 서운栖雲, 대조자大條子, 자연自然, 子然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6·25 전쟁 중 월북했다. 정읍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유

학하여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1937년 일본에서 귀국한 그는 남종문인화를 배우기 위해 허백련 문하에 들어갔다. 1938년에 연진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통적인 남종문인화를 익혔다. 이후 필법이나 구도, 소재에서 전통적 화법의 산수화로 화풍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선미술전람회에 6번을 입선하면서 높은 격조와 표현기량으로 주목을 받았다. 금강산을 위시하여 전국의 명소를 유람하면서 그림으로 남겼다. 연진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작한 1934년 조선미술전람회 13회 출품작 <구룡연>은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직접 보고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흑백도판으로 확인되는 이 작품은 실경에 가까운 사실적인 묘사와 구룡폭포의 기다란 물길의 느낌을 세로로 긴 화면에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구도와 표현법은 그가 서양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외에도 많은 금강산 그림을 남기고 있으며, 대체로 대상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여 자연스러운 대비와 조화를 보여준다. 1936년 제15회에서는 <유향청하도>로 입선하였다.

임신의 작품 중 《산수도10곡병》은 근경, 중경, 원경의 3단 구도를 사용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그린 것으로, 갈필의 붓으로 까칠하고 마른 느낌을 강하게 주는 작품이다. 필치는 앞서 금강산 그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는 뒤늦게 배운 남종문인화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화풍의 산수화가 《산수팔곡병풍》을 비롯해 여러 점 남아 있다. 1940년 제19회 선전에서 <사양>이라는 작품으로 입선하였으며 이후 제



《산수도10곡병(山水圖十曲屏)》,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128×30cm, 전북도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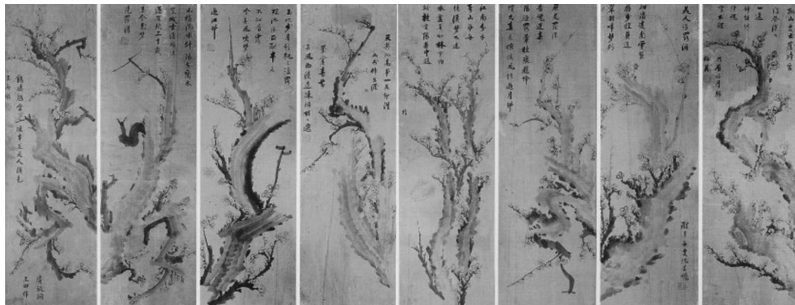
20회, 제23회 선전에 입선하였다.

입신은 해방 후 1945년부터 이리여고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되었는데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평양미술대학 조선화 강좌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정중여와 함께 전통적인 민족미술 형식에 기초한 조선화 개척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채색화를 위주로 한 조선화 개발이라는 북한의 현실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북한 미술계에서는 예술의 인민성을 구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임양재 林樑材

호 옥전 玉田 생몰년 1848~191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임양재는 구한말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호는 옥전玉田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1872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합격한 후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당상관堂上官 내금부장內禁府將으로 재직 중 을미사변乙未事變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였다고 전한다. 조선 말기 문신 여규형呂圭亨의 1923년에 간행된 『하정집荷亭集』에 의하면 소치小癡 허련許鍊에게 화법을 배워 묵매와 묵란에 뛰어났으며 문장에도 능하여 보성으로 귀양을 왔던 당대의 문장가 영재寧齋 이진창李建昌, 1852~1898과 교류하고 여규형呂圭亨, 1849~1922과도 시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노매도팔폭병풍(老梅圖八幅屏風)》, 종이에 먹, 각 폭 96.6×30.0cm, 순천대학교박물관

그의 작품으로는 심하게 구불거리는 형태의 매화를 그린 <노매도老梅圖>(순천대학교박물관)가 전한다. 물기 많은 담묵을 위주로 하면서 농묵으로 악센트를 준 굵은 줄기는 살아 꿈틀대듯 힘있게 표현되었고, 농묵으로 날카롭게 그은 가지 끝에 핀 꽃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꽃은 담묵의 윤곽선으로 형태를 그리는 기법으로 그렸는데 약간 두껍고 부드러운 반면, 꽃술은 가늘고 길게 그렸으며 특히 양쪽의 꽃술을 유난히 길게 그린 모습은 조선중기 매화도 화풍을 보이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모습도 생동감이 있지만 줄기나 가지의 부분 부분을 농묵으로 재치 있게 그려냈다.

임억령 林億齡

호 석천 石川 생몰년 1496~156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임억령은 16세기 문인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16세기 병조참지, 담양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선산이며, 자는 대수大樹. 호는 석천石川이다. 놀재 박상朴祥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 11) 진사가 되었고, 1525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뒤 부교리·사헌부지평·홍문관교리·사간·전한·세자시강원설서 등 여러 직위에 임명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금산군수로 있었는데, 동생인 임백령林百齡이 소윤 일파에 가담하여 대운의 많은 선비들을 추방하자, 자책을 느끼고 벼슬을 사퇴하였다. 그 뒤 임백령이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錄券을 보내오자 격분하여 이를 불태우고 해남에 은거하였다.

후에 다시 등용되어 1552년 동부승지·병조참지를 역임하고, 이듬해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1557년 담양부사가 되었다. 그는 도량이 넓고 청렴결백하며, 시문을 좋아하고 사장詞章에 탁월하여 존경을 받았으나 관직을 수행하는데는 적당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 전라남도 동북의 도원서원道源書院, 해남의 석천사石川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석천집』이 있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초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임춘양 林春養

호 근고재 近古齋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임춘양은 전라남도 나주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나주이다. 호는 근고재 近古齋이며, 『조선희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임희 林檜

호 관해 觀海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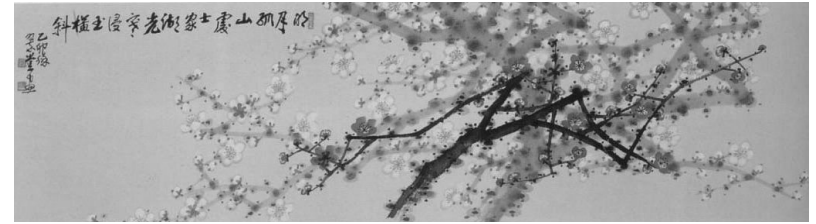
임희는 전라남도 나주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평택이며, 호는 관해 觀海이다. 『조선희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장덕 張德

호 취당 翠堂 생몰년 1910~197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장덕은 근현대 한국화가이다. 서울 출신으로 목포에서 활동하였다. 호는 취당 翠堂이며 초명은 장운봉 張雲鳳으로 해방 후에 장덕 張德으로 개명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이당 以堂 김은호 金殷鎬의 화숙인 낙청헌 洛淸軒에서 그림을 배웠으며 1935년 낙청헌 제자들이 조직한 후소회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36년 태평로 조선실업구락부에서 열린 제1회 후소회전을 시작으로 1941년까지 참여하였다.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야포 野圃>로 입선한 후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여 3년간 그림을 배웠으며 귀국한 후 1936년 선전에 <교외만추 郊外晩秋>로 입선하는 등 총 6번 입선하였다. 이와 함께 1931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휘문고보 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서화협회전에서 <어린양>으로 특선을 해 주목을 받았다.



<매화도(梅花圖)>, 1975년, 종이에 수묵채색, 32×124cm, 개인

해방 이후 목포에 정착하면서 1946년 한국예술협회 목포지부 창설에 참여하였고, 1950년 대한미술협회 창설회원, 1951년에는 백양회 창립회원으로 추대되었다. 1962년에 서울 동화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후 1966년 예총 목포지부장을 지냈다. 1960년에 전남문화상과 1972년 목포시민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장덕은 전통화법의 수묵 담채로 화훼 등 소품 위주의 작품 활동을 펼쳤다. 그는 특히 독특한 화풍의 매화, 파초 등 화조와 절지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사계군방 팔폭병풍》은 소나무와 매화, 모란, 국화, 장미, 비파, 감나무, 갈대 등 사계절에 볼 수 있는 여러 식물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 것으로, 다양한 묘법과 채색으로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색과 먹의 변화가 다채롭다. 매화, 버드나무, 연꽃, 석류와 제비, 해오라기, 참새와 같은 꽃과 새를 함께 그린 《화조화십폭병풍》은 거침없는 자유로운 필선과 담박한 채색으로 그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다. 현당 玄堂 김한영 金漢永, 1914~1988이 그에게 배웠다.

장봉균 張奉均

호 인당 仁堂 생몰년 1922~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장봉균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여수 출신으로 호는 인당 仁堂이다.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48년 무렵부터 여수시 중앙동에

서 장한의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이기도 하다. 서예를 배운 이력은 알 수 없지만 1970년부터 전남도전에 제9회, 제10회, 제11회 연속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974년 제11회 한국미협전, 1975년 제24회 국전에서도 입선하였다. 주로 여수에서 활동하면서 여수서도회 회장을 맡아 여수서도회창립회원전을 시작으로 15회에 걸쳐 회원전을 열었다. 여수미협전 5회, 한국서예문화교류전 출품 5회 등 서예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제3대 한국예총여수지부장, 1983년 한국미협전남지부 고문을 역임하였다. 여수문화계의 핵심인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장용호 張容浩

호 소암 紹庵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장용호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인동이며 호는 소암 紹庵이다. 두암 斗庵 필선 必善의 증손자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효행으로도 이름났다.

장의순 張意恂

호 초의 草衣 생몰년 1786~186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장의순은 조선 후기~말기에 활동한 승려이자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무안 출신으로 법명은 의순 意恂, 법호는 초의 草衣이다. 속세의 성은 장 張이고, 본관은 흥덕 興德으로, 자는 중부 中孚, 아명은 우순 宇恂이다.

15세에 남평 운흥사 雲興寺에서 민성을 은사로 삼아 출가하였다. 해남 대흥사의 완호 玩虎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고 법맥을 이었으며, 초의라는 법호를 받은 후 운수행각으로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정진하여 경 經, 율 律, 론 論에 깊이 통달하였다.



〈백운동도〉. 종이에 수묵담채, 50×36cm, 개인

22세 때 잠시 화순 쌍봉사로 옮겨 금담 金潭 선사로부터 선禪을 배우며 토굴에서 정진 수행하다가 다시 대흥사로 돌아와 연담선사를 스승으로 모셨다. 24세에는 주역에 깊이 심취하였으며, 아암 兒庵 혜장선사의 주선으로 강진에 유배 온 다산 정약용과 교유하였다. 다산과 함께 백운동에 들어가 월출산의 비경을 화폭에 담아 〈백운동도〉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초의는 정약용에게 다선 茶禪의 진미를 더해 주었으며 다산은 『동다기 東茶記』를 쓰고 초의는 『동다송 東茶頌』을 지어 차를 통한 깊이 있는 교유를 하였다.

26세에는 대둔사 천불전 불사 중 완호스님의 명으로 〈천불전상량문〉을 썼다. 30세에 당대의 선지식으로 이름난 해봉스님의 거처에서 추사 김정희를 만났고, 이 첫 대면 후 평생을 교유하였다. 김정희를 통해 홍현주, 신위, 김명희, 정학연, 정학유, 신관호, 권돈인 등 당대의 문인 사대부들과도 교분을 쌓았다.

김정희와의 각별한 교류도 유명한데, 김정희와의 관계로 진도의 소치 허련을 김정희에게 소개하여 그의 수제자로서 19세기 화단을 풍미하게 하였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시 초의는 손수 법제한 차를 허련 편에 보냈고, 김정희는 초의에게 글을 써 보내기도 하였다. 1856년 김정희가 세상

을 떠나자 「완당김공제문」을 지어 올리고 일지암에 돌아와 쓸쓸히 만년을 보내다 1866년 81세로 입적하였다.

시서화에도 뛰어났던 초의선사는 1819년에는 현정賢正의 지도로 대흥사의 <천수관음보살도千手觀音菩薩圖>를 그렸다. 글씨는 범어를 즐겨 써 몇 점의 목적이 남아있다. 전·예·해·행·초서에 두루 뛰어나 필획마다 강건하고 온화한 풍취가 있으며 탈속한 선필의 경지를 보인다.

저서로는 시집인 『일지암시고一枝齋詩稿』와 그의 여러 글을 모은 『일지암문집一枝齋文集』, 『초의선과草衣禪課』, 『이선래의二禪來儀』 1권, 『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考』 1권,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 차의 전문서인 『동다송東茶頌』, 차 생활에 필요한 차의 지침서인 『다신전茶神傳』 등이 있다.

장탁노 張鐸魯

호 국촌 菊村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장탁노는 전라남도 구례 출신의 문인 서예가이다. 자는 찬모贊模, 호는 국촌菊村이다. 이름난 신하 악嶽의 후손이며 통정 장규張圭의 아들이다. 필법이 정세하고 명가의 비문과 갈礪명 주련 액자 등 다수가 그의 손에서 나왔다.

장필선 張必善

호 두암 斗岩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장필선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인동이며, 호는 두암斗岩이다, 국파菊坡 이관以寬의 아들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서도 “해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전기규 田琪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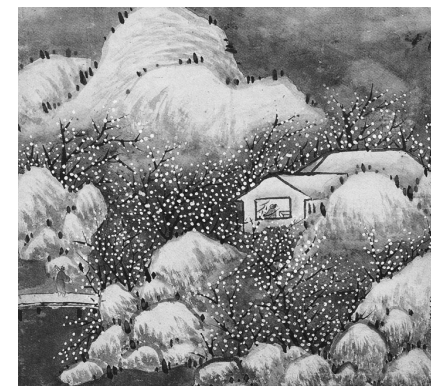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전기규는 전라북도 옥구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담양이며, 자는 사문士文이다. 유학자 광합光合의 손자이다. 재주와 기예가 뛰어났으며, 필법과 자체를 깊이 연구하여 해정유첩楷正遺帖이 전한다. 효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이름을 올렸다.

전기 田琦

호 고람 古藍 생몰년 1825~1854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전기는 19세기 여항문인 서화가이다. 자는 이견而見·위공瓚公·기옥奇玉이며, 호는 고람古藍이다. 전라북도 옥구 임피에 살았다고 전한다.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에는 ‘개성인’이라고 되어 있다. 19세기 여항문인들의 시사인 벽오사碧梧社의 일원으로, 약포藥圃를 경영했다고 한다.



〈매화서옥도〉, 종이에 열린 채색, 29.4×33.3cm,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여항문인인 나기羅岐의 만사晩詞에 “후사도 없이 노친과 약처를 둔 외로운 인물”로 묘사되었다. 30살의 나이에 요절하였으며, 1857년에 간행된 여항인들의 시집인 『풍요삼선風謠三選』에 몇 편의 유고가 실렸다. 그의 그림은 산수, 사군자, 화훼, 인물, 괴석 등 다양하다. 예찬식 구도에 간결한 갈필과 세필의 <계산포무도>(1849), 분방한 필치의 <매화서옥도>가 유명하다. 글씨에도 뛰어나 전서·예서·행서·해서를 두루 잘 썼고, 시·서·화

삼절三絶이라 일컬어졌다.

전우 田愚

호 간재 良齋 생몰년 1841~192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전우는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본관은 담양이다. 초명은 경륜慶倫, 경길慶佺, 자는 자명子明이며 호는 간재良齋, 추담秋潭, 구산白山이다.

전우는 14세에 부친을 따라 전주에서 서울로 이주했다. 21세에 당시의 거유 신응조申應朝, 1804~1899의 권유로 아산의 임헌희任憲暉, 1811~1876의 문하에 들어갔다. 1882년(고종 19)에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 강원도도사江原道都司, 1894년 사헌부장령司憲府將令, 이듬해에는 순흥부사·중추원찬의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소疏를 올려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제자들과 상의하여 “마침내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공자의 뜻을 취해 섬으로 들어갔다. 지금의 부안, 군산 등을 옮겨 다니면서 강학 하였으며 72세에 부안 앞바다의 작은 섬에 정착하여 섬 이름을 중화를 짓는다는 의미인 계화도繼華島라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곳을 찾은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6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학문적 성향은 스승인 임헌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임헌희는 낙론洛論 계열의 학자로 전우는 이이李珣의 기가 먼저 발동하면 이가 기에 올라탄다는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을 계승하여 이이의 심위기주心爲氣主를 확대하여 심본성心本性, 심학성心學性을 주장하고 성존심비性尊心卑, 성사심제性師心弟 등 새로운 성리학 용어를 많이 제창했다.

전우는 낙론계의 학설을 한층 발전시킨 미발기질체청설未發氣質體淸說을 창안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유학사상을 그대로 실현시키고자 했던 점에서 조선 최후의 유학자로서 추앙받았다. 다만, 나라가 망해도 의병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고 파리장서巴里長書에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자신의 문집인 『추담별집秋潭別集』에서 국치國恥에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학문을 이루어 도로써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권을 회복한다고 외세와 손을 잡으면 나라를 회복하기 이전에 내 몸이 먼저 이적이 되는 것이라는 논지로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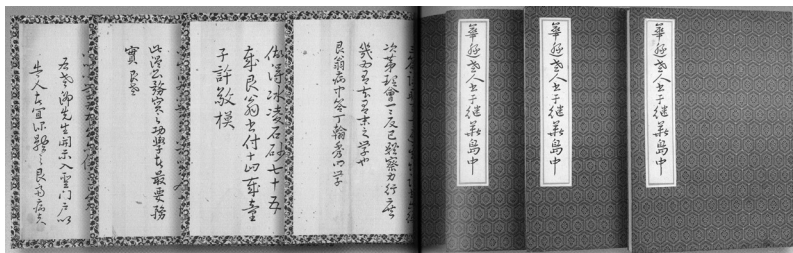
그의 제자로 오진영吳震泳, 최병심崔秉心, 이병은李炳殷, 송기면宋基冕, 권순명權純命, 유영선柳永善 등 3,000여 명에 이른다. 계화도 계양사繼陽祠, 의령 의산사宜山祠, 고창 용암사龍巖祠, 정읍 태산사台山祠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간재집良齋集』·『간재사고良齋私稿』·『추담별집』 등이 있다.

글씨를 잘 썼는데, 초서로 쓴 간찰의 글씨는 강한 필획을 구사하여 강건하고 골기가 있는 필체를 보여준다.

전지활 全識活

호 놀암 訥庵 생몰년 1752~183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전지활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승려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호는 놀암訥庵, 속성은 전씨全氏, 이름은 지활이다. 7세 때인 1768년 선암사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여러 산을 돌아다니며 불교 이론을 깊



《서간 서첩》, 종이에 묵서, 46.×32cm, 개인

이 연구하였다. 그 후 묘향산 법왕봉法王峰에 들어가 법당을 세웠으며 이때 강원도감찰사 윤사국尹師國, 1728~1809의 귀의를 얻었다. 1788년 정조의 명으로 선암사에서 왕세자의



〈호남제일선원〉, 순천 선암사

탄생을 기원하는 백일기도회를 열었으며, 1790년 세자 손조가 태어나자 ‘국일도대선사 대각등계홍제존자國一都大禪師 大覺登階弘濟尊者’라는 법호와 자수를 놓은 가사袈裟, 금병풍金屏風 등을 하사받았다. 아울러 세자가 쓴 〈대북전〉 세 글자와 향폐다약香幣茶藥 등의 진품을 하사받았다.

전지활은 글씨에 뛰어나 필법이 힘차고 왕희지의 서풍을 따랐다고 하였다. 선암사 고대루古大樓·만세루萬歲樓·응진당應眞堂·달마전達磨殿의 편액을 썼다고 전해지지만 낙관이 없어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 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적으로는 〈호남제일선원湖南第一禪院〉이라고 새긴 현판이 전해온다. 필세나 자획이 굳세고 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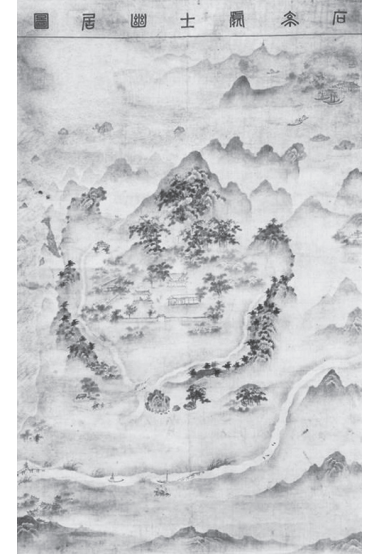
한편 전지활 영정인 〈놀암당대화상진영誦庵堂大和尚眞影〉이 순천대 박물관에 전하는데, 화면에 2마리의 호랑이와 비둘기가 등장한다. 놀암 지활이 출가 후 금강산과 묘향산에서 호랑이의 수호를 받으며 수행한 것과 선암사에서 설법할 때 비둘기가 날아와 고개를 숙였다는 일화가 반영되었다. 진영 속의 놀암당의 모습은 녹색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쳤다. 장삼은 색의 농담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였고 가사는 형식화된 선으로만 묘사하였다.

전충효 全忠孝

호 목호 墨豪 생몰년 미상(17세기 활동) 출생·활동지역 전라도 분야 회화

전충효는 17세기에 활동한 화가이다. 호남지역에서 활동하였다. 호는 목호墨毫이다. 구체적인 생몰년은 알려져있지 않다. 오세창의 『근역서화징』

에 “호는 목호이고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신과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유계俞榮, 1607~1664의 『시남집市南集』에 자신이 전라도 나주의 무안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1646~1648 화사 전충효로 하여금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이 금성, 즉 무안으로 만나러 오는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고 한 기록이 있다. 하천 김하천金廈樅, 1621~1677의 『삼매당집三梅堂集』에는 호남에 목호자墨豪子라는 화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는데 장사(지금의 전라북도 고창)에 와서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충효는 주로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곳에 부임한 지방관들이나 지역유지의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리던 직업 화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석정처사유거도〉, 17세기 후반, 비단에 얹은 색, 128.4×81.3cm, 개인

전충효가 제작한 〈석정처사유거도石亭處士幽居圖〉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에 있는 석정처사石亭處士 김한명金漢鳴, 1651~1718의 은거지를 그린 작품이다. 전통적인 회화식 지도의 표현 방식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당시 지방에 은거하던 문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17세기에 그려진 호남의 실경산수도이며, 목호 전충효가 호남에서 활동하였던 화가라는 기록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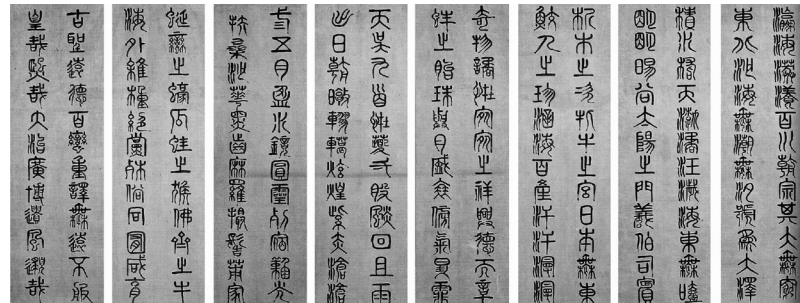
현재 전하는 전충효의 작품들은 많지 않지만 〈석정처사유거도〉 외에 〈소상팔경도〉 2점과 〈괴석초충도〉 2폭, 그리고 최근 전충효 작품으로 네 폭의 《영모도 병풍》이 소개되었다. 전충효는 산수·화조·영모·초충 등 다양한 화목에 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화풍은 대체로 조선 중기에 유행했던 소재와 양식을 따르고 있다. 《영모도 병풍》은 백로와 물소, 원숭이 그림 두

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영모도 화풍을 보여준다. 전충효는 호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화사로 그의 작품과 행적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전학순 全鶴淳

호 두호 斗湖 생몰년 1897~1967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전학순은 근현대기 전라북도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천안天安이다. 자는 내규乃圭, 호는 두호斗湖 또는 일곡逸谷이라 하였다. 전학순은 유학자인 부친으로부터 천자문과 글씨를 배웠으며, 주위에 명필로 소문이 났다. 전학순의 동생 장순彰淳 역시 글씨를 잘 썼고 일본 유학을 하여 신학문도 배웠다. 해강海剛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의 문하에서 지도를 받아 전, 예, 해, 행, 초와 문인화에 능한 서화가로 성장하였다. 1923년에 발간된 『임실군지』 「필원편筆苑篇」에서 “그의 자는 내규요, 호는 두호로 천안인 전적 유경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법첩을 익히며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종이가 궁핍하자 모래나 돌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글씨는 용사가 하늘을 오르듯 힘이 있었으며 또한 묵화도 잘 그렸다.”라고 하였다. 임실군지가 만들어진 1923년이면 그는 26세로 이미 글씨와 묵화로 이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0년에 간행된



《전서팔곡병》, 종이에 먹, 각 폭 101×31.5cm, 개인

『조선환여승람』 임실편 「선필善筆」 조에는 군지의 내용에 더해 “해강 김규진의 제자”라는 기록이 있다. 아마도 20대 후반에 해강 문하에 들어 새로운 서풍을 접하면서 서화가로 이름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유묵으로는 청웅면 천안 전씨 제실에 세워진 비문이 있고, 후손들이 포도 병풍을 소장하고 있으며, 개인 소장의 작품 몇 점이 전한다.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전에 《전서팔곡병풍》이 출품되어 그간 잊혀져 온 그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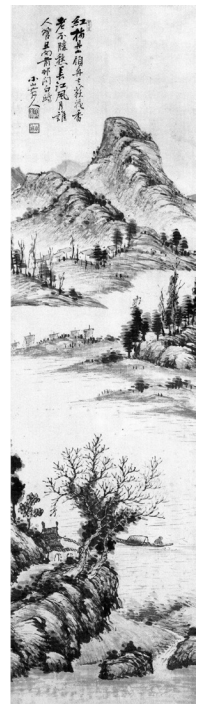
정규원 丁圭原

호 소산 小山 생몰년 1899~1942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회화

정규원은 20세기 초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이며 호는 소산小山이다. 남농 허건의 이종형이다. 어려서 미산米山 허형許滢, 1862~1938에게 그림을 배웠으며, 1928년 제7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고정孤亭>, 1929년 제8회 <추경산수秋景山水>, 1930년 제9회 <무림심수茂林深秀>가 각각 입선하였다. 광주로 이주한 후에는 허백련의 문하에서 활동하였다. 의재 허백련이 1938년에 창립한 연진회練眞會 회원이다.

전남대학교박물관 소장 <산수>는 주산을 화면의 2/3 부분에 두고 갈지리 형태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구성이다. 강가에는 돛단배가 여러 척 정박해 있고 주산과 언덕은 피마준과 태점으로 형태감을 나타내었다. 근경 언덕에는 길을 따라 담장이 둘러쳐진 기와집이 있는 가을 강가 마을 풍경이다. 이외에도 37세에 제작한 <묵죽>이 전한다.

40대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자신의 화



종이에 수묵담채, 119×32cm, 전남대학교박물관

풍을 미처 이루지 못하였던 듯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않고 화풍도 미산 허형과 의재 허백련의 전형적인 남중문인화풍을 충실히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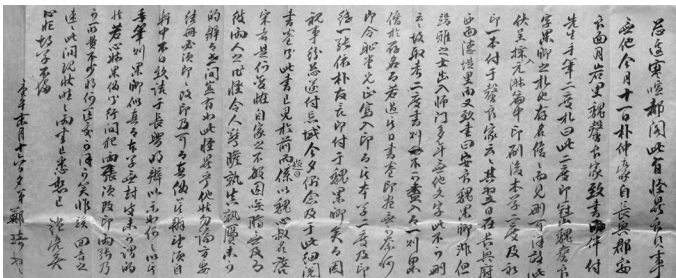
정기 鄭琦

호 율계 栗溪 생몰년 1878~195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기는 한말의 학자이며 항일운동가이자 서예가이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경희景晦, 호는 율계栗溪이다. 이명은 정재혁鄭在赫이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활동하였다. 1899년(광무 3)에 주리론主理論을 주창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계승한 노백헌老柏軒 정재규鄭載圭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면암 최익현을 도와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1914년 합천 무산武山에 정사精舍를 짓고 학문에 몰두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1921년 만주와 간도를 세 차례 오가며 빼앗긴 국권회복에 힘썼으나 왜세가 더욱 거세어지자 금강산·두류산 등을 주유하며 망국의 한을 달랬다. 1927년 제자들과 구례로 이거하여 강학당인 오원재五爰齋와 덕천정德川亭을 짓고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제자로는 3당이라 일컫는 효당 김문옥, 고당 김규태, 하당 정하중 등이 있다. 1967년 덕천사德川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율계집栗溪集』이 있다.

그의 글씨로 행서로 쓴 〈서간〉이 남아있는데 단정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를 구사하였다.



〈서간〉, 종이에 먹, 27.3×69cm, 장성 고산서원

정만현 丁萬鉉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만현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영광이다. 찰방 정준복丁俊復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같은 책 행의편에는 “경전과 역사를 널리 잘 알았으나 일찍이 과거시험을 폐하고 전원 속에 자취를 감추었으며, 옛 현인들과 벗하였다”라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해서와 전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정문표 鄭文豹

생몰년 1605~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문표는 전라남도 화순 출신의 문인 서예가이다. 자는 병炳이며, 경이景怡의 아들이다. 집안의 가르침을 잘 받아 문필이 풍부하고 넉넉하였다. 대성전 동서 처마와 명륜당 액자를 썼다. 그의 필명이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등재되어 있다.

정복연 鄭復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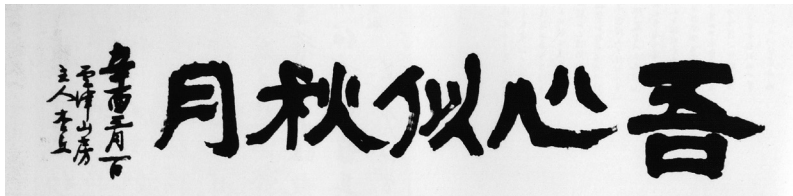
호 운정 雲汀 생몰년 1910~198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정복연은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옥구로 이주하여 살았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호는 운정雲汀, 행구杏丘, 남전南田, 묵림자墨林子 등이다. 집안은 본래 한의원을 하였다.

미산美山 황용하黃庸河, 1899~미상가 운영하던 ‘군산서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우고, 나중에는 황용하의 소개로 석하石下 김우범金禹範, 1880~1930을 사사하였다고 한다. 서화의 기초를 배우고 난 후 일본에서 간행된 강의록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임피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사군자와 화조화, 영모화 그리고 산수화에 능하였는데, 전통적인 묵화에는 문기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통화법을 벗어나 일본화법을 보이는 작품도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화조화가로 명성이 높았다. 그의 큰아들 건교(建教)와 4남 연교(連教), 손자 의주(義洲) 등 3대에 걸쳐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 소장 <오심사추월(吾心似秋月)>은 1981년에 쓴 호방한 예서 작품이다.



<오심사추월>, 종이에 먹, 35×125cm, 개인

정사일 鄭仕一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정사일은 전라북도 임실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세종대 대제학을 지낸 문신 지년(知年)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서화를 잘 하였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일찍이 필명을 드러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상호 鄭相浩

호 지봉(智峰) 생몰년 1899~197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정상호는 현대의 문인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지봉(智峰)

이다. 1929년 일본 큐슈(九州) 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교육자로서 활동하였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학장과 전라남도 농부국장을 역임하였다. 의재 허백련과 친구처럼 지내며 허백련이 1938년 창립한 연진회 회원으로서 허백련에게 사군자를 배웠다. 뿐만 아니라 농대 교수로서 허백련이 운영하였던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허백련의 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정상호는 본격적인 화가로서 활동하지는 않아 많은 작품이 남아있지는 않다. 대폭의 화면에 매화 한 그루를 대담하게 그린 전남대학교 박물관 소장<묵매>가 전한다.

이 매화 작품 이외에도 남아있는 작품은 대부분 사군자류이다. 개인 소장 <묵매>, <묵죽>을 보면 ‘S’자 모양으로 휘어져 올라간 매화 줄기의 모양이나 줄기에서 새로 난 마들가리가 올라간 모양 등 허백련을 비롯한 연진회 회원들의 묵매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보인다.



<오심사추월>, 종이에 먹, 35×125cm, 개인

정서진 丁西鎭

호 우산 又山 생몰년 1929~198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정서진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우산(又山)이다. 소산(小山) 정규원(丁圭原, 1899~1942)을 사사하였고, 이어 남농 허건을 사사하였다. 1963년과 1967년 국전에 입선하였고, 전남도전 추천작가를 지냈다. 1977~1981년 대한미술원전, 1980년 한일문화교류전, 1981년 한·중·일문화교류전, 1982년 도불전(세종문화회관) 등 여러 전시에 참여하였다. 1972년 내무부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문화미술대상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1981년 전주 백제화랑 개인전 등 13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추경산수도〉, 1983년, 20.5×123.4cm, 종이에 수묵담채,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정수홍 鄭壽洪

호 학고 鶴皋 생몰년 19세기 말~20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수홍은 전라남도 남평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진주이며 향북당(向北堂) 준일(遵一)의 후손이다. 호는 학고(鶴皋)이며, 개화기 유학자인 현외(弦窩) 고광선(高光善, 1855~1910)의 문인이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필법이 정묘하고 진체(晉體)를 잘 썼다.”라고 하였다.

정식록 丁式祿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식록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찰방 준(俊)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정약용 丁若鏞

호 다산 茶山 생몰년 1762~183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화가이다.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叅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 등이다. 근기(衞) 출신으로, 진주목사를 역임한 정재원(丁載遠)과 해남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經義進士)가 되어 어전에서 증용을 강의하고, 1784년 이벽(李穡)에게서 서학(西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희릉직장(禧陵直長)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이후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예문관검열,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 홍문관수찬, 경기암행어사, 사간원사간, 동부승지·좌부승지, 곡산부사, 병조참지, 부호군, 형조참의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舟橋)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난 1801년(순조 1) 신유교난(辛酉教難)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그곳에서 다산(茶山) 기슭에 있는 윤박(尹博)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하였다.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체계는 유형원(柳馨遠)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박지원(朴趾源)을 대표



〈산수도〉, 종이에 수묵담채, 22.5×36.6cm, 서강대학교박물관

로 하는 북학파北學派의 기술 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그의 개혁안은 『경세유표』·『흠흠신서』·『목민심서』의 일표이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저서는 유학의 경전인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와 사회개혁안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약용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저서는 연구서들을 비롯해 경집에 해당하는 것이 232권, 문집이 260여 권에 이른다고 한다. 그 대부분이 유배기에 쓰여졌다.

어릴 때부터 시재詩才에 뛰어났으며, 한국의 역사·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고, 합리주의적 과학 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1910년(융희 4) 규장각제학提學에 추증되었고, 1959년 정다산기념사업회에 의해 마현馬峴 묘前墓前에 비가 건립되었다.

그의 서화로는 강진 유배 시절에 그린 〈산수도〉(동아대학교박물관), 〈매화병제도〉(고려대학교박물관) 등이 남아 있다.

정영서 丁永書

호 두남 斗南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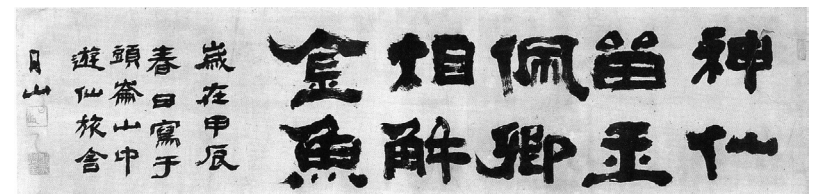
정영서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영광이다. 호는 두남斗南이며, 불우헌 극인克仁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서화를 잘 하였다.”고 전한다.

정영철 鄭永哲

호 월산 月山 생몰년 1895~196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영철은 근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여천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월산月山이다.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에게 서예를 배웠다. 1920년대 후반 중국에 건너가 상해, 소주, 항주 등에 머물며 서예를 연구하였다. 1949년에는 여수중·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여수 중학교 교가를 작사하기도 하였다. 1956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연 8회에 걸쳐 입선하였다. 1965년과 1966년 전라남도 도전 제1회와 제2회 서예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해남과 순천 등지에서 1963년과 1965년도에 개인전을 2회 가졌다.

만년에는 광주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의재 허백련을 비롯한 남도의 서화가들과 교류하였다. 특히 허백련과 매우 가까워 허백련의 화실이라는 〈의재화실毅齋畫室〉을 써 주기도 하였다. 거친 듯 대담한 필획의 예서



〈예서횡액〉, 1964년, 종이에 먹, 30×116cm, 목포대학교박물관

글씨는 추사의 예서 작품을 보는 듯하다. 뼈대만 남은 필선의 강건함과 구성의 예술성이 매우 뛰어남을 볼 수 있다. 같은 예서로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예서형액>은 그의 만년인 1964년 작품이다. 필획이 짜임새가 있고 단단하면서도 여유로운 작품이다. 필획이 두툼하고 여유로우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행서육곡병》이 전한다.

정용구 鄭容球

호 송여 松余 생몰년 1895~1966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용구는 전라남도 광양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진주이며, 공대공 恭戴公 처 陟의 후손으로, 재화 在和의 아들이다. 호는 송여 松余이다. 『조선환여승람』 「선필 善筆」조에 “필법이 정묘하고 예서와 해서, 초서를 잘 하였다. 왕희지의 필법을 배워 얻었으며, 겸하여 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정우종 鄭祐宗

호 일정 一丁 생몰년 1938~1993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정우종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여수 출생으로 호는 일정 一丁이다.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1963~1973년 여수소년 직업보도원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지냈다. 1968~1975년 국제 복지학원 학원장을 하기도 하였다.



<망해루>, 여수 진남관

서예가로서 정우종은 여수의 서예가 석우 石友 김상현 金象絃, 1854~1916의 문하

생인 추수 秋水 김종호 金仲祐를 사사하였다. 1971~1974년 전남미술대전 서예 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1973~1978년 국전에 출품하여 입선과 특선을 하였다. 1974년부터 꾸준히 전시회를 열었다. 1982~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현대미술초대전을 비롯해 많은 초대전 등에도 출품하였다. 대한민국 사회교육유공자상을 수상하였고, 한국미협 회원, 한국서예가 연합회 회원, 근역서가회 회원, 동연회 同硯會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89~1993년 한국예총 여수지부장을 지냈다. 여수에서 일정서예학원을 운영하였다.

그의 작품은 여수 진남관 <망해루 望海樓> 현판이 있으며, 진남문예회관 준공기념비 글씨도 정우종의 작품이다.

정운면 鄭雲勉

호 효언 孝彦 생몰년 1906~1948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정운면은 근대기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으로 본관은 연일 延日이며, 호는 효언 孝彦, 동강 東岡, 동강산인 東岡散人이다. 송강 松江 정철 鄭澈의 12대손이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했다. 어려서부터 한학과 사군자를 배우고 서법을 익혔다. 1927년 정운면은 조선미술전람회에 <묵매 墨梅>로 입선을 하면서 화가로서 이름을 알렸다. 1920년대 후반에 광주에 잠시 내려와 있던 소정 小亭 변관식 卞寬植, 1899~1976에게 사사를 받아 그의 영향으로 짙은 농묵의 필선과 묵점 墨點을 사용하는 산수화를 제작하였다. 1929년 제8회 선전에 <만애 晩靄>라는 제목의 산수화로 입선을 하면서 서화 단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30년대 초 정운면은 서울을 자주 왕래하면서 1935년과 36년 서화협회에 출품하기도 하였으며, 탄월 灘月 김경원 金景源, 1901~1967, 제당 齊堂 배렴 裵濂, 1911~1968, 고암 顧菴 이응노 李應魯, 1904~1989 등과 교분을 쌓았다.

1938년 광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정운면은 허백련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연진회에 정회원으로 참가하였다. 정운면은 같은 연진회 회원이었던 동년배인 목재木齋 허행면許行晷, 1906~1964, 근원權園 구철우具哲祐, 1905~1989와도 친분을 쌓았다. 정운면은 변관식의 영향 하에서 화단의 신경향을 흡수하면서도 연진회 회원으로서 전통적인 남종문인화풍을 그렸다. 이때 그린 것으로 《사시팔경도팔곡병풍》과 같은 작품을 꼽을 수 있는데, 사계절을 두 폭씩 전통 남종 화법으로 그려낸 것이다. 화제시는 당시唐詩를 주로 쓰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 허백련의 산수화에도 같은 화제가 발견된다. 하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남종 화풍과 채색화풍을 함께 구사하면서 화풍의 변화를 피하였다.



〈신록의 계류〉, 1942년, 제6회 문부성전람회

1942년 정운면은 일본 신문전新文展에 〈신록의 계류新綠の溪流〉라는 작품으로 입선하였다. 문전에 입선한 산수는 선이 부드럽고 섬세하며 밝고 화사한 채색이 사용되어 일본화의 느낌이 물씬 난다. 그의 화풍은 이 작품 이후 산수화법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앞의 작품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추경산수〉에서도 변화된 화풍을 엿볼 수 있다. 종래의 짙은 적묵법과 남종 화풍을 사용한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먹보다는 채색을 위주로 하였으며 대체로 묘사기법을 사용하였다. 그해 11월 광주상업은행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43년 일본에서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에게 직접 그림을 배우고 난 후에는 전통화풍에 온화한 느낌의 간결하고 부드러운 화법을 구사하였다. 1943년 22회 선전에는 〈춘난春暖〉으로,

1944년 23회 선전에는 〈녹엽의 계綠葉ノ溪〉를 출품하여 각각 입선했다. 사생화풍부터 일본채색화까지 다양한 화풍을 보여준 정운면은 전통화풍을 중시하던 허백련과는 관계가 멀어지며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 허백련과는 달리 시대적인 표현의식을 지닌 정운면은 작품에 그것을 투영하려고 하였다. 변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통남종화풍을 섭렵하고 거기에다 새로운 일본화풍의 감성을 더하면서 개성적인 화풍을 확립했던 정운면의 작품은 ‘동강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큼 색다른 신감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화풍은 같은 시기 활동했던 목재 허행면이나 소송 김정현, 남농 허건, 허림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정운면은 묵매화와 산수화, 화조화 등 다양한 화목에 능했으며, 특히 매화도로 이름이 있었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매화도팔곡병풍梅花圖八幅屏風》(개인), 《묵매도십곡병풍》(순천대박물관), 〈죽림청우竹林淸雨〉(부국문화재단) 등이 전한다.

정유달 鄭惟達

생몰년 16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유달은 조선 선조때의 문인 서예가로 전라남도 화순 출신이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는 “홍무정음체로써 어려서부터 필명이 높았다. 선조때 사마시의 어람용 시험시권에 ‘제일필第一筆’이라 칭해졌다.”고 하였다.

정익상 丁翼相

생몰년 1867~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정익상은 19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진안 출신으로 본관은 의성이며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 영손令孫, 1327~1398의 후손이다. 『조선호남』

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필법이 정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이 鄭怡

호 우재 憂齋 생몰년 1568~162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이는 17세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자는 경보敬甫, 호는 우재憂齋로 학행學行으로 유명한 여해汝諧의 현손이며, 주부 천구天球의 아들이다. 당대의 문필가로 알려져 있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 등재되어 있으며 “능성관綾城館과 죽수절제아문竹樹節制衙門의 편액, 능성 관아 객사의 상량문 등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능주 객관인 녹의당의 정문 ‘죽수절제아문竹樹節制衙門’ 현판 글씨가 현전한다.



〈죽수절제아문 현판글씨〉

정재명 丁載明

생몰년 16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정재명은 16세기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본관은 창원이다. 16세기 문신 유헌游軒 황橫의 현손玄孫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해서와 전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같은 책 학행편에서는 “행동과 의론이 고결

하고 문장과 말이 겸손하고 막힘이 없었으며 해서와 전서를 잘 하였다”고 하였다.

정재현 鄭宰賢

호 각암 覺庵 생몰년 1900~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재현은 20세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각암覺庵이다. 보성전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목포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1965년 7월 23일부터 26일 정재현은 서예개인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제시된 팜플릿의 약력에는 1920년 일본 제전에서 입선을 했고, 1923년에는 일본서도회 심사위원을 했다고 하였다. 더불어 1936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인물화 〈춘교春郊〉로 입선했다고 하는데, 『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고아원을 운영한 사실도 있다.

정창모 鄭昌謨

호 효원 曉園 생몰년 1931~2010 출생·활동지역 전북·평양 분야 회화

정창모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생으로, 호는 효원曉園이다. 전주 화단에서 문인화로 유명했던 효산曉山 이광열李光烈의 외손자이다. 외할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것으로 보고 자라 어릴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전주북중(지금의 전주고등학교) 5학년이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인민의용군에 입대하여 북한으로 가 1956년까지 복무하였다. 제대 후에는 개성시 설계연구소에서 일하였고, 1957년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하여 월북화가 김장한과 이석호·정종녀의 지도를 받았다. 1963년 평양미술대학 졸업 후 평양교원대학 교원으로 일하면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후 정창모는 조선 미술가동맹 현역 미술가를 거쳐 만수대창작사 조선회창작단 풍경화실 실장(1975), 공훈예술가(1977),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1980), 국가작



〈금강산가을경치〉, 종이에 수묵담채, 63×129cm

품심의위원회 조선회 부문 심의위원(1980)을 지냈고, 1989년부터 북한의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국가영예 칭호인 인민예술가로 활동하였다.

정창모는 화조화·인물화·풍경화·정물화 등 조선화의 각 장르를 잘 하였는데 몰골화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업적을 보였고, 미술 이론에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3,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 국보로 평가되어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100여 점, 국보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되는 작품이 400여 점에 이른다. 그의 작품은 부드럽고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회화 기법으로 묘사되었으며, 세부표현도 빈틈없어 친근감과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8월 14일 이산가족 상봉 때 1차 상봉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으며, 2004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북녘의 4대 화가전'을 통해 국내 미술 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또한 2005년 10월에는 중국에서 열린 '제8차 베이징 국제미술제'에서 〈남강의 겨울〉로 선우영과 함께 나란히 금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주요 작품에 〈금강산계곡〉(1970), 〈만경대의 봄〉(1972), 〈비봉폭포의 가을〉(1976), 〈백두산의 봄〉(1977), 〈금부리의 가을〉(1984), 〈분계선의 옛 집터〉(1985) 등이 있다.

정채균 丁采均

호 술재 述齋

생몰년 1929~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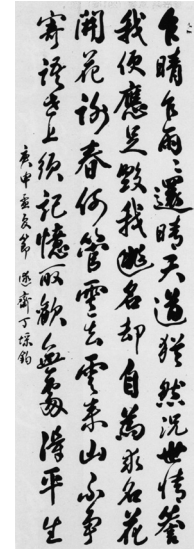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채균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본관은 나주이며 호는 술재 述齋이다. 원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한학자인 만취 晩翠 위계도 魏啓道, 1926~1999의 문하생으로 한학과 서예에 조예가 깊었다. 1975년 제24회 국전을 시작으로 제26회, 제28회에서 입선을 하였다. 전남도전에서는 4회 입선과 4회 특선을 하였다. 1980년 전남도전 추천작가가 되었고, 광주서예연구원 필진회 회장을 지냈다. 서예 뿐 아니라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정채균은 전남도청 총무과장을 거쳐 강진군수를 역임하였다. 재임 중 다산유적지 성역화, 청자 재현, 김영랑 생가 복원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이후 광주부시장 재임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하였다.

그의 작품으로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산서마을에 있는 경주 이씨 삼산사 三山祠 세장비 世莊碑의 근찬 謹撰 전서 前書가 있다.



〈행서 매월당시 乍晴乍雨〉

정학면 丁學勉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정학면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영광이다. 생원 익조 翊祚의 손자이다. 『조선희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 善筆」조에도 “해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하였다.

조기동 曹基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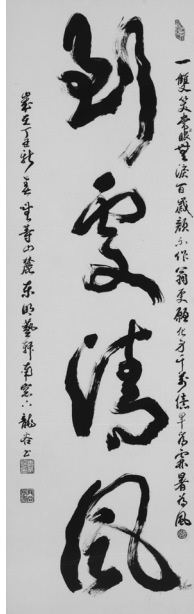
호 용곡 龍谷 생몰년 1929~201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조기동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났다. 호는 용곡龍谷이다. 1960년 펜글씨학원을 경영하면서 서예에 집중하였고, 취죽 송태학의 한문서당을 다니는 한편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을 만나 서예를 배우게 되었다. 이후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전남도전과 국전에서 입선 및 특선을 하며 서예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여러 법첩을 익혔지만 그 중에서도 당나라 손과정서보孫過庭書譜를 많이 공부했고 그 후 송나라 황정견黃庭堅의 서체를 익혀 행초서에 능했다.

1960년 전라남도 나주 남평읍에 용곡서예원을 설립하여 4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서예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교본으로 『한자 서예 기본서법』, 『서예 신지도법 교본』, 『유공권 서법첩』 등을 발간하며 전통적인 서법을 계승 전수하였다. 문화공보부장관상(74년)을 비롯한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초대전에 출품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조기동의 서예는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힘 있는 필선을 특징으로 한다. 전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처청풍到處淸風>은 '이르는 곳곳에 맑은 바람이 불어라.'라는 뜻으로 그가 즐겨 쓰는 글귀이다. 1997년 봄 그의 서재인 동명예현에서 쓴 글씨이다.

조기동의 장남 조재호는 전남도립대학교 도예차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도예가, 장녀 조정아씨는 한국화가, 차녀 조영랑씨는 서예가, 4녀 조성옥씨는 동양화가와 도예가, 차남 조진호씨는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조기동을 중심으로 예술 가족 전시인 '용



<도처청풍>, 전남대학교박물관

곡예가전'을 개최한 바 있다.

조기석 趙沂錫

호 심농 心農 생몰년 1876~193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조기석은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에서 활동한 서화가이다. 호는 심농心農이며 이명은 조우종趙友鐘이다. 당대 명필로 알려진 벽하벽하 조주승趙周昇, 1854~1903의 아들로,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해서楷書와 행서行書에 뛰어났으며, 사군자에도 능하였다. 1931년 제 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죽竹>이라는 제목으로 입선한 기록이 있다.

조기석의 묵죽화는 당시 김제를 중심으로 한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과 송기면宋基冕·박규환朴奎院·조주승趙周昇 등이 그렸던 양식으로, 대나무 잎이 반복적으로 중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정직이나 조주승에 비해 잎 모양은 더 날카롭고, 잎이나 죽간을 표현할 때 시작하는 붓에 힘을 주어 빠르게 운필함으로써 강한 느낌을 준다. 구도에 밀도가 없고 한산한 것이 흠으로 지적되나 사대부적 절개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에 <묵란죽도육곡병>, <묵죽도>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서예 작품으로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청학루 현판과 덕진구德津區 덕진연못의 취향정醉香亭, 백양사의 운문암雲門菴 현판이 있다. 이 외에 다수의 병풍, 족자, 서첩 등이 전한다.



<墨竹圖> 종이에 수묵, 133.5×31.5cm, 개인

조방원 趙邦元

호 아산 雅山 생몰년 1926~201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조방원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무안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아산 雅山이다. 19세까지는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으며, 20세 때 남농 南農 허견 許樵 문하에서 남종화의 전통기법을 익혔다. 그는 허견에게 배운 남종화풍에 바탕을 두면서도 투박하고 거칠면서도 어리숙한 그만의 독특한 화법을 발전시켰다. 그는 미술뿐 아니라 국악과 고문헌에도 두루 관심이 많은 예술가이다.

허견의 문하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한지 8년 후인 1953년 제2회 국전에 <욕우 欲雨>로 입선을 하였으며, 4년 후인 1957년 제6회 국전에 <연燐>을 출품하여 특선을 하였다. 1959년 제8회 국전에 추천작가로 출품한 <세우 細雨>는 비안개에 싸여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조방원은 1960년대 중반 40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원경의 산수를 대담하게 펼치는 색다른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갔다. 제14회 국전에 추천작가로 출품한 <산운 山雲>이나 제15회 추천작가로 출품한 <우후 雨後>에서는 50~60대까지 이어진 그만의 특징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조방원은 선종화가 禪宗畫家인 양해 梁楷, 1140~1210와 옥간 玉澗의 그림과 같은 선종화의 감필법 減筆法이나 발묵법 潑墨法과 파묵법 破墨法을 즐겨 사용하였다. 사상면에서는 노장 老莊의 '무위자연 無爲自然'과 함께 '탐심을 버려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과 작품에 임하였다.

1980년대 50대 후반 이후 조방원의 수묵산수는 화폭 안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거나 간략히 처리함으로써 산수 전체의 기운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조방원은 먹 산수에 치중하였는데, 먹이 옅고 물기가 많으며 발묵법을 써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다.

조방원은 1968년 남도국악원을 설립하여 국악인들을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숙 묵노 墨奴軒를 지어 후진을 양성하였다. 젊어서부터 남다른



<산중문담>, 1980~1990년대 초, 종이에 옅은 색, 120×190cm, 개인

열정을 쏟아 수집했던 서화와 선인들의 간찰 등 귀한 소장품들은 아산미술문화재단에 기증하였다. 묵로헌을 통해 조방원의 문하에서는 고운 古雲 박광식 朴光植, 목운 木雲 오견규 吳鉞奎, 석동 石童 조광익 趙光翼, 동곡 東谷 조광섭 趙光燮, 청곡 靑谷 윤의중 尹毅中 외 수많은 화가들이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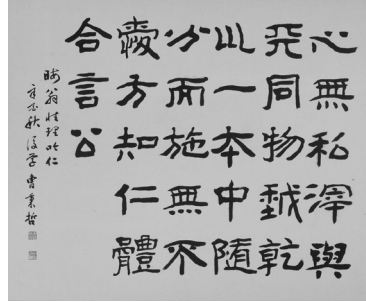
조병철 曹秉哲

호 모헌 慕軒 생몰년 1921~200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조병철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옥구 출생으로 본관은 창녕이며 호는 모헌 慕軒이다. 전라북도 도청에 근무하면서 하촌 夏村 류인식 柳寅植을 사사하며 서예를 연마하여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74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10여 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행초서에 능하였으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그의 작품으로 1968년 <대학서문 大學序文 단축>이 있다. 작은 글씨로 쓴

단축 또한 횡으로 긴 종이에 작은 행서로 쓴 것으로 굵고 가는 글씨의 변화가 자유로움을 볼 수 있다. 1986년에 쓴 개인소장 <행서 육방응시>를 보면 필체가 유연하고 여유가 있다.



<에서_모현>, 78×65cm, 전주대학교박물관

조병헌 趙秉憲

호 이당 彝堂 생몰년 1876~1938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조병헌은 근대기 문인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호는 이당 彝堂이다. 석정 이정직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서예와 사군자, 그 중에서도 묵죽에 특징이 있었다. 『김제조씨족보』에 의하면, “1894년에 성균생원에 등과하였으며, 1902년 조경모 참봉에 제수되었다.

어릴 때 서울에 가서 그림으로 함께 뜻이 맞는 윤용구 尹用求, 1853~1939, 조병세 趙秉世, 1827~1905 등과 사귀었으며, 대각 臺閣에 계신 분들과도 한묵 翰墨으로 교류하였다.”고 한다. 조병헌의 부친 조병순과 스승인 이정직의 묘비명을 모두 윤용구가 썼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귀를 짐작할 수 있다.

조병헌의 글씨와 사군자 작품 또한 조병헌의 집안에 여러 점이 전한다. 부친 조방순, 아들 조승 모두 서화로 이름이 있다. 조병헌의 작품으로는



<묵죽도 10폭 병풍>, 41.8×150.5cm, 종이에 수묵,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묵죽도 12폭 병풍》, 《묵죽도 6폭 병풍》, 선면 <묵죽도> 외에 해강 김규진과 대련으로 그린 <묵죽도>, 김태석, 박일현, 김필형 등과 합작한 <합작도>, 박일현, 유명완과 합작한 <합작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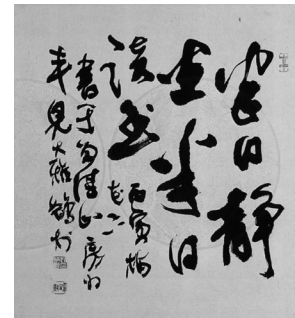
조병희 趙炳喜

호 작촌 鵲村 생몰년 1910~2002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현대의 서예가이자 시조시인, 한학자, 향토사학자이다. 충청남도 논산 출신으로 전주에서 활동하였다. 호는 작촌 鵲村이다. 전주고등보통학교(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행정직원으로 서무과장을 지냈다. 개화기 지사였던 추인 정교와 외삼촌인 가람 이병기의 가르침을 받아 1978년 시조문학에 등단하였다. 1989년 첫 시조집 「새벽녘 까치소리」를 펴내고, 향토자료집 「완산고을의 맥박」을 발간하였다.

전라북도문화재위원으로서 서화 감정위원, 전북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을 지냈다. 전북예총 고문 등을 지내면서 1981년 전주시문화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다. 향토사학자로서 서화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글씨는 행초서가 주류를 이루는데 법에 구속됨이 없는 유연하면서도 청량한 필치를 구사하였다.



<칠언시 2폭>, 종이에 먹, 40×30cm, 개인

조복순 曹福淳

호 남계 南溪 생몰년 1921~1981 출생·활동지역 광주·서울 분야 회화

조복순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화순 출신으로 광주와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호는 남계南溪, 혹은 소향素鄉이다. 초기에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그림 공부를 하였으며 1938년 연진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44년 제23회 선전鮮展에 <맥추麥秋>라는 제목으로 입선한 후 일본미술학교 미술과에 유학하면서 채색화를 익혔다. 이후 광주사범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중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으로 옮겨 교수를 지냈다. 1952년에서 1960년까지 개인전을 5회 개최하였으며, 1963년부터 81년까지 '청토회'전에 5회 출품하였다. 1975~81년 춘추회전春秋會展에 참가하였고 홍익대 교수로서 후진을 지도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 <여추餘秋>나 <화조도> 등이 있으며 치밀한 채색과 선묘의 화조와 낙엽을 잘 그렸다.

조선대학교미술관 소장 <여추>는 화조와 낙엽을 잘 그렸다는 그의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치밀한 채색과 선묘로 이파리를 그려 가을날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게 한다.



<여추>, 1978년, 화선지에 채색, 조선대학교미술관

조송 趙崧

호 일농 一農 생몰년 1895~197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조송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자는 영심永心, 호는 일농一農 또는 일악一嶽이다. 서예와 묵죽에 이름났던 이당彝堂 조병헌趙秉憲,

1876~1938의 둘째 아들이다. 그의 다른 이름은 조이태趙履兌이다. 『김제조씨족보』에 의하면, “1946년 성균직원成均直員, 1957년 성균전교成均典敎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름인 ‘崧’은 한자 음이 송이지만 집안에서 송으로 불렸다고 한다. 부친의 서화취미가 조송에게 이어졌고 국립전주박물관에는 조송의 서화 수백점이 전한다. 이들 대부분은 서예와 <묵죽>, <묵란> 등 사군자류이다.



<묵죽도>, 129×33cm, 국립전주박물관

조승현 曹勝鉉

호 송곡 松谷 생몰년 20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묵죽>, 종이에 먹, 108.5×64.5cm, 의재미술관

조승현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호는 송곡松谷이다.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문인화를 배웠으나 본격적인 화가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의재미술관 소장 <묵죽>은 그가 의재 문하에서 사군자를 배울 때 그렸던 것으로 춘설현 장지문에 함께 그림을 배웠던 용자 묵국, 근원 난, 지봉 매화와 함께 붙여져 있었던 것이다. 세 그루의 대나무가 괴석과 함께 서 있는 구성으로 의재 묵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성과 구도를 따랐다. 괴석은 담묵의 절대

준으로 간단하게 그렸고 대나무는 농묵과 담묵이 어울려 변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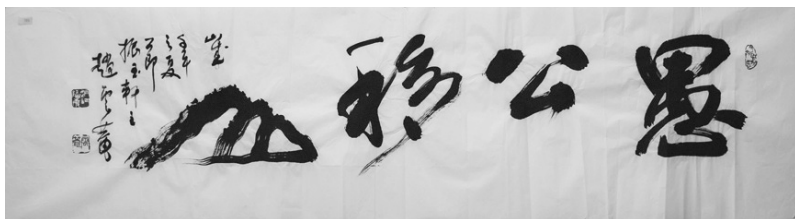
조용민 趙鏞敏

호 운암 雲菴 생몰년 1926~2017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조용민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함안이며, 호는 운암雲菴 또는 통명산인通明山人이다. 전남대학교를 수료하고 독학으로 서예를 배우다 45세에 송곡 안규동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본격적인 서예 공부를 시작했다. 각 체를 두루 연마하였으나 행초서의 대가로 평가받는다. 운암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 정신을 실천했으며, 행서로 쓴 <우공이산> 작품도 다수 남겼다.

조용민은 <고려태조비왕후오씨유적비高麗太祖妃王后吳氏遺蹟碑>, <정절공조려선생사적비貞節公趙旅先生史蹟碑>, <장흥위씨시조회주군사적비長興魏氏始祖懷州君史蹟碑>, <진각국사유적비眞覺國師遺蹟碑>, <도갑사사적비>, <경복궁현판 응지당膺社堂>, 백양사와 도갑사 <일주문> 등 전국 각지에 굽직한 비와 현판에 글씨를 남겨 현대 한국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섰다.

조용민은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를 비롯하여 광주시전, 전남도전 등 각종 공모전의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무릉대학 명예교수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전라남도 문화상, 곡성군 문화상, 남도서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서예 100년전, 88올림픽 기념전, 광주 비엔날레 기념전 등 여러 초대전에 참여



<우공이산>, 종이에 먹, 35×135cm,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하여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 여러 서체를 구사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고, 통명산인이라는 호를 사용하여 화조, 사군자 등의 작품도 남겼다.

조용민에 대해 서예가 김병기金炳基 교수는 “운암선생은 전·예·해·행·초 오체를 두루 잘 쓴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려한 행·초서가 좋다. 조용민의 서예의 세계는 전통에 바탕을 두며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과감하지만 지나치지 않고 물 흐르듯 필획을 구사하지만 협곡과 폭포를 이루는 듯 조금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없이 자유분방하다. 마치 동국진체를 이룬 원교 이광사의 목적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운암서예원을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하다 서예원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진옥헌振玉軒에서 만년을 보냈다. 운암서예원 제자들로 구성된 일묵회一墨會를 통해 매일당 김효순을 비롯하여 국전과 시전, 도전 등에서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매년 일묵회전을 열어 조용민의 서맥을 이어가고 있다.

조정규 趙定奎

호 백양 伯陽 생몰년 1892~1966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조정규는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다. 호는 백양伯陽이다. 1919년 향리에서 3·1운동 배후자로 지목되어 수차례 투옥되었고, 전국을 유랑하다가 나이 40이 넘어 금강산에서 요양하던 중 한 스님과의 인연으로 사군자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에 광주에 머물며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남종화를 배웠고, 허백련이 1938년에 창립한 연진회鍊眞會의 창립회원이 되었다. 1939년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호산청하>로 입선하였고, 이후에도 <춘산백운> 등 문인정신을 담은 산수화를 많이 남겼다.

그의 작품은 산수화, 사군자화, 화조화 등이 주를 이루며 화풍은 전통적인 남종문인화풍을 보인다. 2010년 그의 삶과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기 위

해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조정규趙定奎 화백 유작전을 개최한 바 있다.

그의 작품 <심산유곡>은 웅장한 산들이 이어진 깊은 산과 계곡이 있는 풍광으로 그림의 상단 여백에는 경남의 대표 서예가 유당惟堂 정현복鄭鉉輔, 1909~1973 선생이 쓴 화제가 적혀있어 의미를 더한다.



<심산유곡>, 1912년, 한지에 수묵, 130×66cm

조주승 趙周昇

호 벽하 碧下 생몰년 1854~190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조주승은 19세기 문인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자는 장일章日, 호는 벽하碧下이다. 조주승은 어려서부터 서예를 즐겨하여, 진, 당, 송의 여러 대가들의 서체 중 특히 왕대령王大令의 낙신부洛神賦와 안노공顔魯公의 가묘비家廟碑의 진수를 터득하였다. 이후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穰의 문하에 들어가 10여 년간 시문과 난죽뿐 아니라 시조창과 거문고 등 음률에 이르기까지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분야를 고루 수련하였다. 이 기간 중에 이정직이 연경에서 구해 온 많은 서책과 희귀한 서화첩을 보고 청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전문을 넓혔다. 글씨는 부드러운 운치가 스승인 이정직 보다 낫고, 죽은 자하紫霞 신위申緯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음률音律에도 뛰어나 시서화와 더불어 '사절四絶'이라는 세평을 얻었다.

일찍이 중국 북경과 남경에서 3년간 지내면서 당대의 학자와 서예가들과 교류하였고, 희귀한 서화와 고서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돌아와 제자들 교육에 힘썼다.

조주승은 <묵죽> 수 점과 함께 속리산 법주사 일주문의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 현액, 전주의 <추천대秋川臺>, 금강산 유점사 <대웅전大雄殿> 대액, 전주 남고산성 <관성묘關聖廟> 현액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몽인 정학교는 그의 글씨를 중국 당나라 때의 서예가 구양순歐陽詢에 비겼고, 한말의 학자 매천梅泉 황현黃玹은 조주승을 송재松齋 송일중宋日中,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과 더불어 세 사람의 빼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정족鼎足이라고 칭송하였다.

조주승의 묵죽은 가늘고 유연한 줄기나 줄기에 비해 큰 잎의 날카로운 모양을 특징으로 한다.

조주승의 제자로 장남 심농心農 조기석趙沂錫, 1876~1935이 가학을 이어 묵죽을 잘 그렸다. 효산 이광열李光烈, 1885~1966은 그의 시서화의 맥을 이어 금석문과 서화 작품을 남겼다.



<靈竹圖八曲屏>, 종이에 수묵, 각 폭 58×31.5cm, 개인

조중태 趙重泰

호 우당 又堂 생몰년 1902~197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조중태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으로 호는 우당又堂이다. 전주에서 활동하였다. 정읍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이사한 후 초기에는 추당秋堂 박호병朴好秉, 1878~1942에게 배웠으며 이후 묵로墨鷲 이



《매작도 팔폭병풍》,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106×31.5cm, 국립전주박물관

용우李用雨, 1902~1953가 한국전쟁으로 전주에 있는 동안 그에게서 그림 지도를 받았다. 산수, 신선, 사군자, 화조 등에 능하였으며, 특히 화조화와 금붕어 그림을 잘 그렸다. 조중태는 1964년 국전에 입선한 뒤 공모전에는 더 이상 출품하지 않고 전주에서 후진지도에 역점을 두었다. 이후 각종 미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른 지방 작가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다. 조중태의 《금강산도金剛山圖병풍》은 바위를 표현함에 있어서 윤곽을 생략하여 육중한 느낌을 주며 상부의 골짜기는 운무雲霧를 통해 깊이감과 공간감을 창출하고 있다. 대체로 먹을 아껴가면서 간략하지만 질서정연한 선묘에 의하여 사물들을 표현해내고 있다. 그 외에 그의 작품으로는 개인 소장 《매작도팔폭병풍》, 〈노안도〉 등이 전한다.

조철수 趙澈琇

호 경암 敬庵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조철수는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서예가이다. 호는 경암敬庵이며 문양공文良公 간簡의 후손이다. 알려진 작품은 없으나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효석 趙孝錫

호 일관 一觀 생몰년 1922~199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조효석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하였고, 호는 일관一觀이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종군기자로 활약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국방부 정보부장, 9·28 수복 후로는 전남일보, 호남일보에서 편집부장과 주필을 역임했다. 1957년부터 목포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지금은 보편화된 ‘예향’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미술제에 입선하였고, 한국미술문화대상전에서 특선하는 등 여러 미술대전에서 입상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국내외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자신의 서화세계를 넓혀갔다. 탐진회 제1, 2, 4대 회장, 일본 원오미술연맹 회원, 한국예술 '83미술대제전 추천작가를 지냈다. 보국포장, 성육문화상 언론부문대상을 수상하였다.



추림(秋林), 종이에 수묵담채, 100×130cm

주행복 朱幸福

호 도전 島田 생몰년 1946~198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주행복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도전島田이다. 남농 허건과 도촌 신영복을 사사했다. 제25회, 제26회, 제28회 국전에 입선하였고, 1987년 대한민국 미술대에 입선하였다. 전남매일미술대상전에 입선하였고, 전라남도전에 제13회, 제16회에서 입선하였다. 단원예술제 초대작가, 전통예술대상전 초대작가, 서울 미술제 초대작가를 지냈다. 미협회원, 남인회 회원을 지냈다. <전가>와 같은 향토미와 서정미가 넘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전가(田家), 종이에 수묵담채, 141×111cm

지영규 池永奎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지영규는 광주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충주이며, 충성군忠城君 계관繼灌의 후손이다. 『조선후남지』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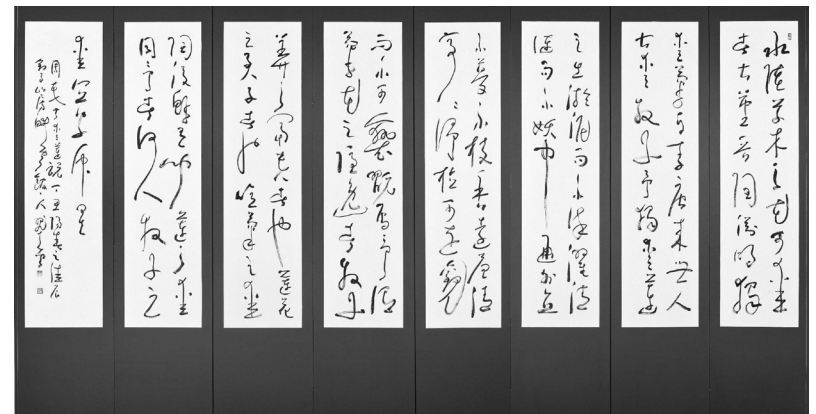
진학중 陳學鐘

호 취운 翠雲 생몰년 1924~201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진학중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하였고, 호는 취운翠雲이다. 그는 17대 국무총리 1983.10~1985.2를 지냈던 진의종陳懿鍾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악필握筆 초서로 유명한데 60여 년 동안 고집스럽게 초서에 몰두해왔으며 병풍과 전각 액자 등 1백여 점을 모아 대형작품집 ‘취운 초서 병풍첩’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 개인전을 가진 것을 포함, 다양한 미술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진학중은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에 실린 글귀를 악필握筆로 썼으며 ‘동양 3국 최후의 초서 대가’란 말을 들었다. “초서를 쓰기 위해선 붓을 한 번 먹에 적시면 한 번에 써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훤히 암기돼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라며 “수만 번 연습한 결과, 2백10자나 되는 글원의 ‘어부사’를 단 25분 만에 써내려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취운 초서 병풍첩』이 있으며 고창군 아산면 선운초서문학관은 2010년에 개관하여 진학중의 작품 서예병풍과 족자, 액자 등을 전시하고 있다.



《초서 애련설》, 종이에 먹, 44cm×8폭, 영인문학관

차부진 車富鎭

호 효암 曉菴 생몰년 1901~199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차부진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출생하였고, 호는 효암 曉菴이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강진군 공무원으로서 강진의 거의 모든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으로 거론된다.

10대 후반이었던 1919년 3·1운동 직후 김영랑, 김현구, 김길수 등 당시 강진의 문학청년들과 함께 ‘청구’라는 문학동인회를 만들었고, 동인지를 발간함으로써 강진 문학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해방 후 차부진은 영랑 김윤식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뛰어들어, 1945년 8월 건국준비위원회 강진지부의 대표적 우익인사가 되었다. 전쟁 후 1952년 제1대 도의원 이 되었고,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노년에는 문학과 서예, 집필활동에 전념하였다. 특히 지역사에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하였다. 강진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릉유방金陵遺芳』(1970), 『강진 3·1운동사』(1976)와 『강진 기독교 50년사』를 펴냈고, 『강진 군지』, 『강진 향토지』 등의 제작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73년 3월에는 그를 중심으로 ‘강진문원’이라는 문학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1978년 ‘모란춘문학동인회’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까지도 그 활동을 이어온다.



〈행서〉, 종이에 먹

채경묵 蔡敬默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채경묵은 전라북도 임실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평강이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채규영 蔡奎榮

호 우석 又石 생몰년 1912~194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채규영은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초상화가이다. 전라북도 출신으로 호는 우석 又石 또는 춘강 春崗이며, 채용신의 손자이다. 채규영은 조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초상화를 그렸으며, 채용신의 영향과 함께 사진과 같은 표현기법을 사용하였다. 채규영은 86세의 할아버지 채용신과 합작한 〈황장길초상黃長吉肖像〉을 24세 때 제작하였다.



〈현곡선생초상화〉, 종이에 채색, 170×66.2cm,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채규영이 그린 〈현곡선생 초상〉이 전한다. 현곡 玄谷 유영선 柳永善, 1893~1961

은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유학을 배웠고, 1924년 고향에 돌아와 현곡정사를 건립하여 후진 교육에 전념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육리문의 표현이나 인물의 자세, 바닥에 깔 화문석 등 표현양식에서 채용신과 양식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다만 채용신이 육리문 표현을 위해 안면에 짧은 선을 잇대어 표현한데 비하여 채규영은 채용신의 붓선보다 길고 좀 더 굵은 선을 사용하였다. 또한 의복의 옷선과 옷주름 및 무릎을 꿇은 부분과 그 주변에 퍼진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은 매우 단조로우며 도식화된 듯한 느낌을 준다. 얼굴은 매우 사실적이며, 입체적이나 얼굴

표현에 비해 몸의 형태는 부자연스럽다. 이 외에 채규영의 작품으로 <정중업 鄭鐘燁, 1885~1940 초상>이 전한다.

채상묵 蔡尙默

생몰년 1889~1951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 분야 회화

채상묵은 20세기 전반에 초상화가와 사진가로 활동했다. 활동지역은 전라도와 서울이다. 채용신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 채용신의 화풍을 이어받았으며 그가 남긴 초상화로는 <홍경하 洪景夏, 1883~1949 초상>이 있다. 1920년 조선일보 기사에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초상화를 전문으로 연습했으며 1913년에 일본 유학을 갔다가 1918년에 귀국하여 초상화가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출장을 통해 의뢰인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가지고 초상화를 제작했다고 하였다. 1920년대 경성사진관에서 촬영한 한 여성의 사진에는 '채상묵 심사제 蔡尙默 審査濟'라는 표기가 있는데, 경성 인사동에서 경성사진관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채상묵의 부인은 이홍경 李弘敬으로 한국인으로 두 번째 여성사진사로 활동했다.

채상묵은 아버지 채용신과 함께 순암 홍순학 洪淳學, 1866~1946과 홍경하를 각각 초상으로 제작했다. 홍순학 부자의 초상화를 채용신 부자가 제작한 것이다. 채용신의 경우 전통 초상화 기법으로 제작하였지만 채상묵이 그린 초상화는 서양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얼굴과 옷의 표현에서 양감을 살리기 위한 표현기법을 보여준다.



<홍경하 초상>, 1941년, 비단에 색, 91×58cm, 개인

채용신 蔡龍臣

호 석지 石芝 생몰년 1850~194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채용신은 근대의 초상화가이다. 자는 대유 大有, 호는 석지 石芝, 석강 石江, 정산 定山 등이다. 원래 이름은 동근 東根이고, 아명은 용덕 龍德으로, 용신이라는 이름은 1886년 그가 무과에 응시하면서 사용한 이름이다. 본관은 평강 平康이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직을 역임한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본래 전주에서 살았으나 조부 때 서울 삼청동으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초상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진을 그린 51세 이전 생의 전반기에는 무관으로서의 직무를 두루 역임하였다. 37세 때인 1886년 뒤늦게 무과에 급제하여 정6품 사과 司果에, 5년 후인 1891년에는 정5품 의금부 도사를 거쳐 1893년에는 종3품인 부산진수군검절제사에 오르게 된다. 1896년 돌산진 수군검절제사에 보임되어 1899년까지 재임을 하고 무관직에서 물러났다.

관직에서 물러난 채용신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향리인 전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900년 새로 건립한 선원전 璿源殿에 봉안할 태조 영정을 그릴 때 소림 小琳 조석진 趙錫晉, 1853~1920과 함께 주관화사로 발탁되어 태조의 어진을 모사하였다. 그 공로로 문관직인 칠곡도호부 사 漆谷都護府使를 제수받았으며, 어진을 모사한 화사라는 명예는 훗날 화가로서 살아가는 데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

이후 수차례 어진과 왕실 인물들의 어진을 그려 명성을 떨쳤고, 고종으로부터 '석강'이라는 호를 받았다. 1904년에는 총리대신 윤용선의 천거로 정산군수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905년에는 종2품 가선대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당상관이 된 채용신은 후에 그림에 쓴 관지 款識에 '종2품전부사', '전정산군수' 등의 사인을 남기며 다른 화원들과는 신분이 다른 화가임을 자랑스러워하였다. 그의 나이 57세 때인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를 계기로 관직을 사임하고 향리인 전주에 내려가 칩거하면서



〈최익현상〉, 1905년, 비단에 채색, 51.5×41.5cm, 국립중앙박물관

작품 활동에 몰입하였다. 채용신은 산수화나 화조화도 그렸지만 가장 많이 그렸고 또 잘 그린 것은 단연 인물 초상화였다. 그의 인물 초상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왕명에 의해 그린 어진(御眞) 즉 임금님의 초상이다. 그는 상당히 여러 왕의 초상을 그렸으나 조석진과 함께 모사한 〈영조어진〉과 〈고종어진〉 등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궁중의 화재로 소실

되었다. 다만 그때 그린 고종 어진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여러 점의 고종 어진을 그린 것이 전한다.

두 번째는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우국지사 및 도학자의 초상이다. 조선 말기 유학자이자 항일 의병장인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7, 전주 출신의 항일 운동가였던 간재(艮齋) 전우(全愚, 1841~1922, 애국지사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을 비롯하여 주로 전라도 일대의 항일운동가나 이들 조상들의 초상화로 대단히 많은 수가 남아 있다.

그중 〈황현상〉은 황현이 세상을 떠나기 두 해 전인 190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관인 천연당 사진관에서 미리 찍어 두었던 사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사진과 초상화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주문을 받고 제작한 그림들로, 그림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신분을 불문하고 그려주었다. 초상화 중에는 부부를 함께 그린 경우도 있고, 부부 각각의 초상을 그린 경우도 있다.

채용신은 초상화 외에도 산수·화조·영모 등 여러 화목(畵目)을 두루 섭렵하며 화가로서의 다채로운 재능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는 만년에는 아들, 제자들과 함께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畫所)라는 공방을 운영하며 대량의 주문에도 응하였다. 이 공방에서는 초상화뿐 아니라 산수화 병풍이나 화조화

병풍 등의 주문도 받았는데, 그의 작품 중에 격이 떨어지는 작품이 간혹 보이는 것은 공방에서 대량 생산한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어진화가 채용신은 조선시대 초상화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서양화법이나 사진술로부터 필요한 요소를 수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이루어 내었다.

채한영 蔡漢永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채한영은 전라북도 군산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평강이다. 조선 중기 판서 담(澹)의 후손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초서와 해서를 잘 썼다.”고 전한다.

천경자 千鏡子

호 옥사 玉史 생몰년 1924~2015 출생·활동지역 광주·서울 분야 회화

천경자는 근현대기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옥자(玉子)였다. 호는 옥사(玉史) 또는 연사(蓮史)이다. 외조부가 외손녀를 유별나게 아꼈으며 옥자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 원래 이름 옥자를 후에 스스로 경자로 바꿨다. 천경자는 외조부에게 천자문을 배웠고, 외조부가 밤마다 들려주는 심청전, 흥부전 등 옛 소설들을 들었으며, 창도 배웠다.

고흥에서 보통학교 졸업 후 광주공립여자보통학교(현 전남여고)를 다녔다. 이때 미술교사 김임년(金壬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을 지도받았고, 미술 공부를 위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0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지금의 동경여자미술대학)에 진학하였다. 동경에서 그는 인물화가인

고바야가와 기요시(小川清)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인물화 단체전인 청금회(靑金會)전에서 입상하여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동경 유학 중이던 1943년 외조부를 모델로 한 〈조부〉로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고, 1944년에는 외조모를 모델로 한 졸업 작품 〈노부〉로 마지막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였다.

1946년 전남여고 미술 교사가 되었고, 학교 강당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1948년 광주여고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진 후, 광주사범학교로 잠시 이직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고 동생 옥희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결혼과 파경, 동생 옥희의 죽음, 그리고 첫 개인전에서 만났던 당시 신문기자 김 씨와의 인연이 천경자의 삶과 작품세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때 시대의 한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고뇌를 뱀을 그린 〈생태〉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생태〉는 뛰어난 묘사력과 조형성으로 천경자라는 화가를 세상에 알리는 출세작이 되었다. 뱀은 여러 면에서 그의 화가 역정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는 인생의 전환기마다 뱀 작품을 그렸다. 195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임명되어 서울로 올라가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천경자의 작품세계에서 중심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꽃과 여인이다. 일상생활 혹은 여행을 통해 만난 실제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린 인물화들도 많지만, 천경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인들은 바로 작가 자신의 분신(分身)과도 같은 일종의 ‘자화상(自畫像)과 같은 인물화’이다. 〈길레언니〉(1973), 자화상 격인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 여인의 머리 위에 꽃이 비처럼 쏟아지는 〈황금의 비〉(1982)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머리에는 꽃을 꽂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우아한 모습이지만 눈동자는 우수에 차 있고, 꼭 다문 입술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1970년대 이후 그는 이국적 풍물을 소재로 독특한 색감과 형태미를 보이는 그림을 그렸다. 여행을 통해 제작한 ‘풍물화’들이다. 46세이던 1969년부터 28년 동안 열두 차례 해외 스케치 기행에 나섰다. 유럽과 남태평양, 아프리카, 미국 등지의 이색적인 자연과 풍물들을 꼼꼼히 스케치하였고,



〈황금의 비〉, 1982년, 종이에 채색, 34×46cm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당시의 감흥을 되살리며 치밀하고도 독특한 채색작업으로 완성시켰다. 아프리카 풍광을 한장의 그림으로 그린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초원〉, 〈그라나다 풍경〉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여행을 통해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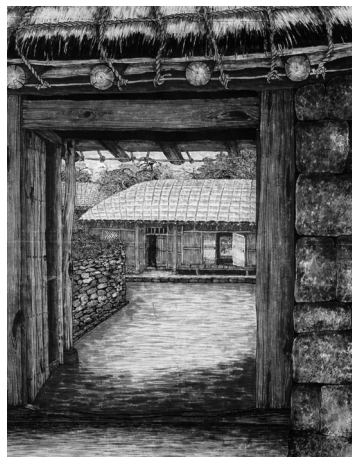
천경자는 1991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었다.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긴 채 큰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렇게 떠난 미국에서 그는 2003년 뇌일혈로 쓰러져 2015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정열적인 삶은 그의 작품과 함께 열한 권의 수필집에 담겨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2층에는 그가 1998년에 기증한 93점의 작품과 화구들로 특별전시실이 꾸며져 있다.

천현혹 千炫鶴

호 현정 玄汀 생몰년 1934~201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천현혹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신안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현정玄汀이다. 1954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69년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던 취당 장덕을 찾아가 그림을 배웠고, 같은 시기 남농 허건을 사사하였다. 이후 1979년에는 남농의 제자 아산 조방원을 사사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초가〉, 종이에 채색, 144×111.5cm

1979년 목포황실다실에서 제1회

현정 천현혹 발표전을 가진 후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1980년 제2회 한국현대미술대상전에서 특선을 비롯해 미술대전에서 다수 입선과 수상을 했다.

여러 미술 단체에서도 활동하여 한국미협회원, 묵노회 회원, 한국서화작가협회 부회장, 현대미술협회 지도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작품은 향토적인 자연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수묵을 비롯해 채색을 써 정취를 더한 작품을 남겼다.

최광익 崔光益

호 설산 雪山 생몰년 1891~197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최광익은 근현대기의 초상화가이자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호는 설산雪山이다.

최광익은 일본 동경미술학교(현 도쿄예술대학)를 다녔으며, 초상화가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사진술의 발달로 초상화의 수요가 줄어들자 동양화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최인호의 소설 『할』, 『길 없는 길』에도 이름이 등장하며 당대 동양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최광익의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최광익의 대표작으로는 〈경봉당 익운 진영〉(1917년), 〈경허선사 초상화〉(1936년), 〈해남 단군영정〉(1963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인물화와 산수화가 전한다. 〈경봉당 익운 진영〉은 1917년 순천 선암사의 경봉당 익운 선사를 그린 것이다. 경봉당 익운의 인물 사진을 참고하여 그린 것으로 상반신의 아랫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기법을 썼으며 사실적인 표현이 인상적이다. 〈경허선사 초상화〉는 1936년 12월 경허鏡虛 선사를 그린 것으로, 제자인 만공滿空의 구술만으로 그려졌다. 현재 이 작품은 충청남도 예산군 정혜사 금선대의 진영각에 보존되어 있고, 진본은 비공개이나 이를 모사한 그림이 전국의 여러 절에 안치되어 있다. 최광익 초상화의 특징은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섬세한 붓 터치와 입체감 있는 묘사가 특징이다.

해남단군성조영모회에 모셔져 있는 〈해남 단군어영〉 또한 최광익의 작품인데, 백운白雲 이종철李鍾轍, 1879~1938이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가져온 단군 영정의 모사본이다.

최광익에 관한 전시는 2013년 전북도립미술관의 '역사 속에 살다: 초상, 시대의 거울' 전시회에서 "변혁, 근대의 초상" 섹션에 최광익이 춘곡春谷 고희동高叢東,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鏞 같은 당대의 손꼽히는 대가들과 함께 꾸며졌다.



〈오병남초상〉, 1928년, 비단에 채색, 127×66cm, 케이옥션

최규상 崔圭祥

호 설송 雪松 생몰년 1891~1956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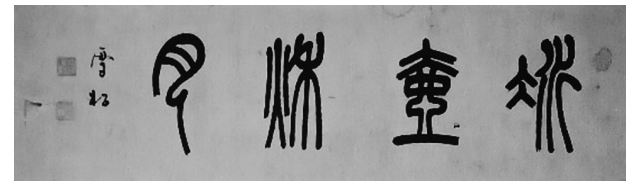
최규상은 근대기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김제출신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자는 백심伯心이며 호는 춘곡春谷, 설송雪松, 설하雪霞이다. 초명은 규하圭夏였으나 후에 보근輔根이라 부르다가 규상이라 하였다. 호는 처음에는 춘곡春谷으로 불렀다가 전주로 이거하며 설송으로 불렀고, 말년에는 설하雪霞라 하였다. 당호는 노하당주인老霞堂主人 또는 취묵헌주인醉墨軒主人이다.

부친 최보열은 도학과 문장으로 이름난 당대의 유학자로 최규상은 일찍이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0~1910의 문하에서 학문과 서도를 연마하였다. 서예 공부는 초년에는 구양순체歐陽詢體에 기초를 두었으나 안진경체顔眞卿體를 체득하였고 한예漢隸의 금석탁본으로 예서를 연마하여 해서·행서·초서·예서에서 독창적 경지에 이르렀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 군산 측량 학교에서 신학문을 익힌 뒤, 김제 군청에 잠시 근무하다 30세에 사표를 내고 향리로 돌아와 글씨 공부에만 열중하였다. 이때 이미 서예가로 이름이 있어 호남 일대 각지에서 현판이나 비문 등의 주문이 쇄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작품을 남겼다.

1923년에는 백산면 석교에 석교학교를 설립하여 교육목표를 덕행과 실천에 두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34세인 1926년에는 백산 면장에 추대되었는데 일제식민통치가 강화되자 관직을 내던지고 1930년 전주로 이거하였다. 전주에서 대화정大和町 옛 중앙국민학교 정문 부근 근처 해동여관을 경영하였다. 당시 전서의 제1인자로 꼽힌 성재惺齋 김태석金台錫이 그곳에 들렀을 때 만나 그에게 전서篆書와 예서篆書 및 전각을 배웠다. 최규상이 특히 전서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김태석의 영향이 크다.

1931년에는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서부書部에 예서로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이 무렵 전주의 효산曉山 이광열李光烈, 유당 김희순과 함께 한묵회를 창립하였다. 한묵회는 도내 서예학원의 효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기반으로 열심히 활동하였다. 이곳에서 학정鶴汀 백홍기白洪基 등이 배



〈전서 병호추월〉, 지본 묵서, 45×139cm, 전북대학교박물관

출되었다. 의재 허백련이 이곳을 방문하여 젊은이들의 활동 모습을 보고 1938년 광주에서 연진회를 창립하였다고 자신의 신문연재 회고록인 「나의 이력서」에서 밝힌 바 있다.

최규상은 전국의 많은 저명인사들과 두루 교류하며 전국 서화가들의 전주 전람회와 휘호회를 주선하였다. 또한 이당 김은호의 이묵회以墨會와 김태석이 회장인 대동한묵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후인 1954년에는 학술원과 예술원의 추천회원이 되었다. 1955년에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현대미술 상시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최규상의 서예 작품은 경향 각지의 각종 기념비문과 묘비·주련柱聯·현액懸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문장에도 능하여 서한과 기문에서 그의 우아한 문필을 볼 수 있다. 전북도립미술관 및 강암서예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주의 기령당과 완주 소양 주덕재 등에 편액扁額이 남아 있다.

최덕인 崔德寅

호 우헌 愚軒 생몰년 1944~2024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회화

최덕인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호는 우헌愚軒이다.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16세 때인 1959년 광주로 이주하여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1950년대에 의재 허백련이 1938년에 창립한 서화인들의 모임인 연진회鍊眞會는 광주 완벽당 화랑에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완벽당 화랑의 주인인 영사靈沙 최원택崔元澤이 최덕인의 큰아버지이다. 이

곳에서 최덕인은 의재 허백련을 비롯한 여러 서화동호인들의 서화작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서화에 입문하게 되었다.

최덕인은 1964년 국전 입선을 시작으로 국전과 전남도전, 부산미전 등에서 십여회에 걸쳐 입선과 특선을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강사와 연진미술원 강사를 하였다

(1982). 성균관대학교 전국 초·중·고 휘호대회 심사위원(1980~1982)을 역임하고 의재문화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2017~2021)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

최덕인은 전통 화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특히 발묵의 효과를 살린 대담한 실경산수화와 화조화를 주로 그렸다. 그의 산수화는 여행을 통한 실경의 사생으로 현장감 있는 풍경을 구사하였다.



〈폭포〉, 종이에 수묵담채, 69×67.5cm, 개인

최명룡 崔命龍

호 석계 石溪 생몰년 1561~162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최명룡은 조선 중기의 문인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여운汝允, 호는 석계石溪이다. 산수 인물과 신선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985년에 간행된 『호남 한국화 300년』 도록에서는 최명룡에 대하여 1624년에 출생하고 1700년에 사망했다고 기록하였으나, 이용엽은 2007년 전북역사문화학회에서 간행한 『전북미술약사』에서 주변 인물들의 그

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1561년 출생으로 추정했다.

최명룡의 출생 연도와도 관련이 있는 주변 인물들로는 이정기, 신중경, 김장생 등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최명룡은 “인품이 크고 문장이 유려하여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왕을 호종하였다”고 한다. 김장생이 익산 군수로 부임하자 그 문하에 나아가 사사하였는데, 김장생은 최명룡을 일러 “나는 모래 같고, 너는 돌 같다.”고 하였으며, 최명룡의 제문에 “내가 그대의 스승이 아니라 그대



〈무학도〉, 비단에 담채, 143×87.6cm, 국립중앙박물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며 애도하였다. 어려서 이정기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그 후 신중경 문하에서 수학한 후 변산의 절에 들어가 10년 동안 사서를 비롯하여 음양, 천문, 지리, 도교, 불교, 산학算學 등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는 〈무학도〉는 절벽 아래 네 명의 선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는 산수인물도이다. 이들은 중국식 도복을 입고 있으며 정두묘법丁頭描法의 두터운 필선으로 옷 주름을 표현하였다. 현애懸崖와 큰 나무로 인해 마련된 공간 아래 인물을 크게 그려 넣는 구도나, 대비가 심한 묵법, 그리고 준법 등 조선 중기에 유행하였던 ‘절파浙派’ 화풍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오른쪽 상단에 ‘석계石溪’라는 관서款署가 있다. 이 작품은 1934년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제14권에 처음 게재되었고,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미공개회화 특별전에 출품되어 일반에 공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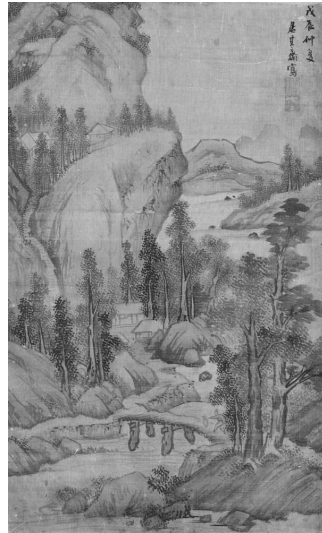
최명룡의 유작이 많지 않고 그의 화가로서의 이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화단에서의 위치나 끼친 영향 등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한 폭의 작품을 통해서도 최명룡이 상당한 필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최북 崔北

호 호생관 毫生館 생몰년 1712~1786 출생·활동지역 서울 분야 서화

최북은 조선 후기 화가이다. 전라북도 무주 출신으로, 초명은 식埴, 자는 성기聖器·유용有用, 호는 성재星齋·칠칠七七·기암箕庵·거기재居其齋·삼기재三奇齋·호생관毫生館·좌은坐隱·반월半月·기옹奇翁이다. 이중 호생관이 가장 많고 칠칠, 거기재, 삼기재 등의 순서로 사용하였다. 뒤에 최북崔北으로 개명하였다. 그의 가계에 대해서는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은 본관을 경주라고 하였으며 조병유趙秉瑜의 『적성지』,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의 『진학속고震彙續考』, 『일사유사逸士遺事』,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근역서화징』 등에는 무주 최씨로 나온다. 그런데 무주 최씨는 주계 최씨로도 불렸으며, 주계 최씨는 경주 최씨에서 분적하였으므로, 넓게 보면 경주 최씨, 좁게 보면 무주 최씨로 볼 수도 있다.

최북은 조선 영조 때 활동하였다. 최북의 생년에 대해서 1712년으로 보는 설, 1720년과 1738년으로 보는 설 등이 있다. 이가환은 『동패낙송輿輶洛誦』에서 숙종 임진생(1712)이라고 하였다. 몰년에 대해서도 49세로 보는 설과 60세를 넘겼다는 설 등이 있다. 49세에 죽었다는 설은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의 『호산외사壺山外史』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광하申光河가 최북의 죽음을 애도한 조시〈최북가崔北歌〉를 1786년에 썼고, 최북의 작품인 〈송음관폭도松蔭觀瀑圖〉가 176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최북은 1712년부터 1786년경까지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최북은 1748년(영조 24) 조선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왔다. 화원이 아니



〈산수〉, 61.5×37cm, 비단에 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었으므로 화원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니고 정사正使나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의 개인 수행원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호 이익李瀾, 1681~1763의 〈최칠칠의 일본행에 부친 시送崔七七之日本三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수화山水畵에 뛰어나 최산수崔山水라고도 불렸으며, 한 눈이 멀어서 항상 반안경半眼鏡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성질이 괴상하여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으며, 술을 즐겨 하루에 보통 5~6되나 마셨다고 한다. 그림을 팔아 가며 전국을 주유周遊하다가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에서 천하의 명인이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며 몸을 던졌으나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최북은 시詩에도 뛰어났다.

작품으로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추경산수도秋景山水圖〉, 〈월하산수도月夜山水圖〉, 〈미법산수도米法山水圖〉, 〈매하쌍치도梅下雙雉圖〉, 〈표훈사도表訓寺圖〉, 〈산거도山居圖〉, 〈단구승유도丹丘勝遊圖〉, 〈송음관폭도〉, 〈한강조어도漢江釣魚圖〉(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조어도釣魚圖〉(개인 소장), 〈풍설야귀도風雪夜歸圖〉, 〈공산무인도空山無人圖〉, 〈누각산수도樓閣山水圖〉 등이 있다.

최석환 崔奭煥

호 낭곡 浪谷 생몰년 1808~1889 이후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최석환은 19세기에 활동한 화가이다. 포도 그림으로 유명했다. 수많은 작품이 전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호는 낭곡浪谷이며, 임피에 살았고, 포도를 잘 그렸다”고 적힌 오세창吳世昌의 『근역서화징檣域書畫徵』 기록만이 전한다. 현재는 군산시로 편입된 전라북도 임피에 살았으며, 그의 몰년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기축년丑’이라는 간기가 있는 작품이 전하여 1889년, 81세까지도 활동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낭곡이라는 호와 함께 고봉산인古峰散人이라는 호를 쓰기도 하였다.

최석환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활동하며 다작을 했던 듯 많은 작품이 전한다. 남아있는 그의 작품을 보면 포도뿐 아니라 산수

화, 사군자 등 다양한 화목을 두루 다룬 것으로 확인된다. 문인들이 즐겨 그렸던 포도나 사군자 등을 잘 그려 문인화가라 보기도 하며, 향간에서는 그가 화원화가였다고도 하나 화원이었던 기록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다만 포도 그림에서는 빼어난 화면 운용력과 묘사력을 보이지만 산수화나 사군자 등 다른 작품에서는 그다지 빼어난 솜씨를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아마도 그가 살던 지역에서 이름을 얻어 활동하던 화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석환의 포도 그림은 병풍에 연폭連幅으로 그린 것, 각 폭에 나누어 그린 것, 작은 화폭에 한 줄기를 그린 것 등 다양하다. 작품마다 다소 편차는 있으나 포도 그림에서만큼은 일가를 이루었다 할 만큼 빼어난 작품들이 전한다.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목포도십폭병풍》은 굵은 줄기를 농묵의 한 붓으로 이어 그려 줄기의 흐름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 힘이 넘친다. 이러한 박진감과 대조적으로 잔가지와 넝쿨손은 담묵으로 부드럽게 처리하여 먹의 자유자재로 운용하였던 그의 기량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그의 나이 71세 때인 1879년에 그린 것으로, 이후 연대가 알려진 작품에서도 유사한 구도와 동세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이러한 화풍을 완성하여 만년에까지 즐겨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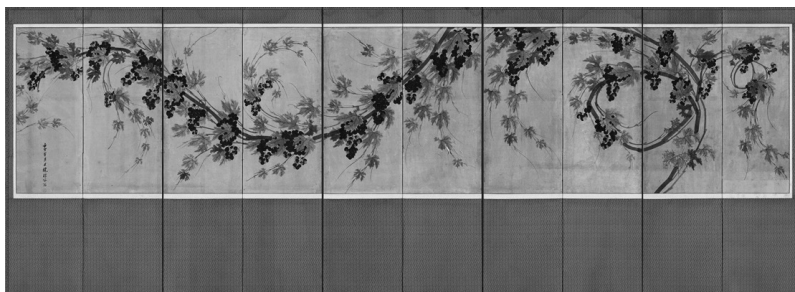
반면 그의 현전 작품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라 할 수 있는 57세 때 그린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목포도팔폭병풍》은 앞의 《목포도십폭병풍》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목포

도팔폭병풍》은 팔 폭의 화면을 두 폭씩 나누어 포도 한두 줄기가 휘감겨 내려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크고 작은 잎은 정면을 향해 납작하게 펼쳐져 있다. 이 작품처럼 최석환은 초기에는 줄기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리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한 붓으로 굵고 힘차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석환 포도 그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화면 전체를 장악하는 줄기의 힘찬 동세와 먹의 운용을 들 수 있다. 한두 개의 줄기가 원을 그리듯 휘돌아 꿈틀거리며 펼쳐지고, 먹은 담묵, 중묵, 농묵을 잘 사용하여 양감과 질감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목포도도에서 보여준 활달한 필치와는 달리 산수화나 사군자화 등은 기량에서 차이가 보인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산수화 중에는 민화에 가까운 소박한 작품이 있고, 괴석이나 구불거리는 매화 가지를 반복적인 구성하기도 하여 포도 그림에서와 같이 화면 전반을 장악하는 특유의 역동적인 힘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그의 기량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화가의 작품이 그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석환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알려진 화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포도 그림에 있어서는 당대 대단히 유명하였고, 작품도 명성에 손색이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11년 가을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낭곡 최석환 특별전이 열린 바 있다.



《목포도도 10곡병》, 종이에 수묵, 85cm×39.5cm, 전북대학교박물관

최순모 崔純模

호 후운 後雲 생몰년 미상(1886-1910)~194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최순모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근대기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백효伯效, 호는 후운後雲이다. 최순모는 일찍이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또 소남少

南 이희수李喜秀에게 서화를 배워 글씨가 정묘하였고 그림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그는 산수화와 화훼를 잘 그렸고, 특히 일지송一枝松과 일지매一枝梅로 그린 병풍 그림이 유명하다. 노년에 고창 성송면에 일로당逸老堂을 지어 훈장으로서 후진을 가르치고 시문과 서화를 즐겼다. 정영원鄭寧源, 1853~1940 등 지인 15인이 일로시단逸老詩壇을 만들었고, 송계松桂 정휴복鄭休復과 무송無松 유세현庾世鉉이 기문을 썼으며, 최순모가 현판을 썼다. 전하는 작품 중에는 사군자와 기명절지도 많다. 작품은 붓을 씌에 속기가 없고 활달하여 상당한 기량을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산수도십폭병풍》, 종이에 채색, 각 폭 118.0×32.0cm, 개인

최정균 崔正均

호 남정 南丁 생몰년 1924~2000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최정균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임실 출신으로 호는 남정南丁이다. 1956년에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까지 원광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1958년 국전에 입선하였고 1960년부터 15년 동안 소전素筌 손재형孫在馨, 1903~1981에게 서예를 사사했다. 1961년 이후 국전에 6차례 특선을 하고, 국전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원광대학교 서예과를 창설하고 퇴임 후에는 모든 장서와 서화, 소장품

및 작품 일체를 원광대에 기증하였다.

그의 제자로 우관 김중범, 아석 소병순, 근암 송병석, 남천 정연고 등이 서예가로 활동하였다. 최정균은 산수화와 화조화, 사군자 등을 주로 그렸으며, 사군자 중에서도 매화도를 즐겨 그렸다. 그의 작품 중 상당수는 원광대학교박물관과 전북도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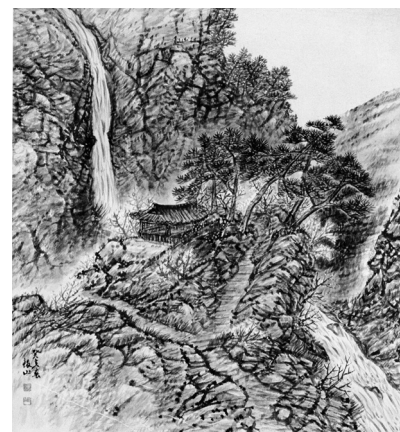
《사연대련》, 종이에 먹, 120×28cm, 개인

최종인 崔宗寅

호 치산 致山 생몰년 1932~2022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최종인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다. 호는 치산致山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사에 근무하였다.



《송하누각》, 종이에 담채, 68×65cm

대한민국미술대전과 신인예술대상전에서 특선 및 입선을 13회 하였으며, 국제선면전(도교) 대상 수상 및 운영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여러 상을 수상했다. 치산서화연구소를 운영하였다. 21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초대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전주대학교

예체능대학 미술학과 교수, 박물관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치산 최종인 미수*壽'전이 열렸다.

최종인은 시, 서, 화를 아우르는 작품을 제작했으며 말년에 그린 다양한 색을 품은 철쭉 작품 중에서도 기암절벽 사이로 피어난 철쭉의 향기는 작가의 심오한 철학과 맞물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진태 崔鎭泰

호 한사 寒史 생몰년 20세기 초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최진태는 20세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호는 한사寒史이다. 1909년 10월 전라남도 광주경찰서 순사 신분으로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남한 토벌대 작전에 참가했다. 최진태는 일본군과 공동으로 펼친 이 토벌작전에서 보성군의 의병장 임창모와 그의 장남 입학규를 포함한 무장 의병들을 몰살시키는 등 공을 세웠다. 2006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매국행위자로 분류되었다.



〈목매〉, 종이에 수묵, 130×62cm

최한영 崔漢泳

호 목정 牧丁 생몰년 1902~1988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최한영은 근현대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이다. 광주 출생으로 호는 목정牧丁이다. 최한영은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준비하고 태극기 등을 제작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광주의 중심인물이다.



〈인애공검〉, 종이에 먹, 32×118cm, 순천대학교박물관

이때 일본 경찰에 붙잡혀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2년부터 신간회 등 여러 단체의 임원을 역임하며 항일운동 및 민족운동을 펼쳤다. 이후 형 최남립과 함께 고무신 상회를 경영하였고, 이 무렵 서예에 정진하였다. 1930년대에는 총장로를 중심으로 광주 상인들과 함께 '광주실업청년구락부'라는 광주 최초의 한국 상인조직을 이끌었다. 1954년에는 호남동에 신선유업사를 창업하여 '아이스케키'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가이자 서예가로 활동한 그는 1938년 의재 허백련이 창립한 연진회鍊眞會에 통상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허백련과 평생 교유하였다. 〈인애공검〉 네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서풍은 둥글고 원만하여 의재 허백련과 닮았다. 1990년 세상을 떠난 최한영의 장례는 광주시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이후 건국훈장애족장(제2570호)에 추서되었다.

추교영 秋敎榮

호 추경 秋耕 생몰년 1921~199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회화

추교영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북도 군산 출신으로 호는 추경秋耕이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추교영은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북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섬세한 묘사력을 바탕으로 주로 호랑이, 원숭이 등의 영모화를 그렸으며 산수화에도 뛰어났다. 그는 특히 호랑이 그림으로 이름이 났는데, 전라북도 지역에서 영모화를 즐겨

그린 황종하 문하의 이상길, 서병갑의 호랑이 그림과 비교되기도 한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추광신, 추교성 등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교영의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원숭이를 비롯한 영모화와 호랑이 그림, 그리고 산수화로 전주의 한벽루, 풍남문 등을 극사실로 그린 실경 작품이 전한다. 추교영의 이름은 2005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전북미술의 맥-근현대작고작가전》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알려졌다.

추교영의 〈원숭이〉는 근경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원숭이를 담묵을 사용해 섬세한 필선으로 묘사하였으며, 이와 대비되게 바위는 농묵의 갈필로 거친 표면의 느낌을 잘 살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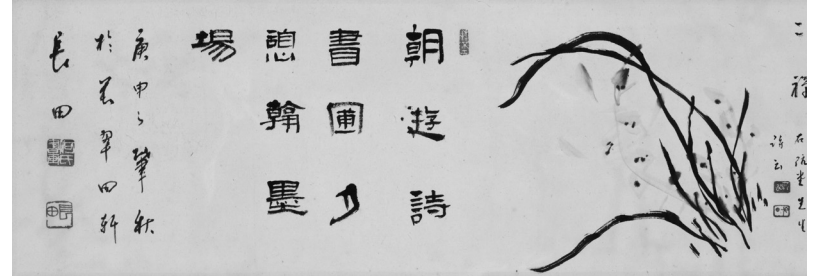


원숭이, 1971년, 비단에 수묵 담채, 90×31cm, 개인

하남호 河南鎬

호 장전 長田 생몰년 1926~2007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하남호는 현대의 서예가이자 교육자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장전長田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했다. 소전素筌 손재형孫在馨, 1903~1981에게 배웠으며, 예서와 행서에 뛰어났다.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하남호는 방조인 한학자 자천紫泉 하낙춘河洛春에게 한학과 서법을 익힌 뒤 30세 때 손재형 문하에 들어가 글씨를 배웠다. 국전에 연속으로 입선과 특선을 하면서 추천작가에 올랐고,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전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분과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하남호는 서예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활동했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전남도교육위원, 전남대 예술대학 강사 등을 거쳐 광주예술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10년 동안 재직했다.



〈시군자〉, 종이에 먹, 전남대학교박물관

하남호는 서예 5체에 모두 능했으나 특히 전서와 예서에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당시 특선작들도 모두 예서로 당나라 등완백의 서법을 이어받은 걸작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대표작으로 19회 국전 문공부장관 수상작인 〈예서대련〉과 〈난중일기〉, 진중황제의 〈근학문勤學文〉 등이 있으며 대전 순국선열 충혼탑을 비롯 돌산대교탑문, 완도 이충무공 대비, 중국 산둥성 신라방 장보고 장군 공적비, 판문점 자유의 집 현판 등 많은 비문과 탑문을 남겼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의 진도 고향집에 남진미술관을 건립했다. 이 미술관에는 그가 평생 모은 서예 400점, 도자기 150점과 동서양화를 전시하였다. 하남호의 예맥은 자녀들에게 이어져 큰딸 하국자는 서가협회 문인화 초대작가, 아들 하영생은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응선 河應善

호 송암 松岩 생몰년 20세기 후반 출생·활동지역 광주 분야 서예

하응선은 현대의 서예가이다. 광주에서 활동하였으며 호는 송암松岩이다. 전남도전과 광주시전, 대한민국서예대전의 초대작가로 활동했으며, 어등산서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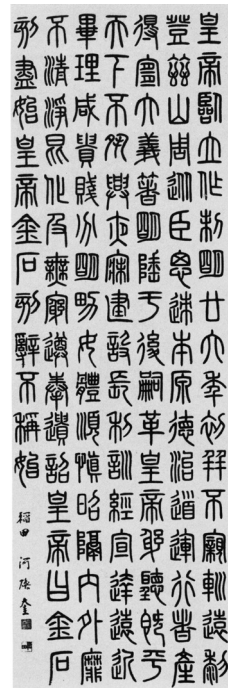
〈행서팔폭병풍〉, 종이에 수묵, 각 폭 103.5×28.5cm

전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 대한민국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의 작품 중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전하는 《행서팔폭병풍》은 중국 명시를 행서로 쓴 것으로 작품에 쓰인 '세기해중춘歲己亥仲春'이라는 간기로 보아 1959년 작품이다. 굵고 가는 비수肥瘦의 변화가 크고 고졸한 맛이 있다.

하환규 河煥圭

호 도전 稻田 생몰년 1921~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하환규는 현대의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도전稻田이다. 전남도전 서예 부문에서 8회 입선과 특선을 하였고, 사군자 부문에서 4회 입선하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과 전국무등미술대전 등에서 입선하였다. 1982년 연진미술원을 수료하였다. 1986년 한국미술공모 대상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서예 대전에 입상하는 등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서로 쓴 〈태산각석〉 등의 작품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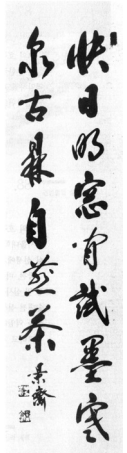
〈태산각석〉

한승희 韓承熙

호 경재 景齋 생몰년 1923~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한승희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장수 출생으로 전주에서 활동하였

다. 본관은 청주이며, 호는 경재景齋이다. 동경에 있는 일본예술학교를 다녔다. 일찍이 서예와 그림을 시작하여 국전에 2회 입선하였고, 일본 아세아미술선발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하였으며, 아세아예술상을 수상하였다. 일본, 자유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순회전시를 하였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행서〉

한명호 韓永浩

생몰년 19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한명호는 19세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출신으로 본관은 청주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명나라 황실의 외척인 양절공襄節公 晁確, 1400~1456의 후손이다. 그의 형 영식永湜은 문장으로 이름났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조선환여승람』 「선필善筆」조에도 “글씨로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한창교 韓昌敎

호 성암 星庵 생몰년 미상~1979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한창교는 현대의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성암星庵이다. 일본 간사이대학關西大學을 수료하였으며, 소전 손재형에게 서예를 배웠다. 성암이라는 호 이외에 옥정玉井이라는 호를 쓰기도 하였는데, 옥정은 고향집 앞에 있는 아주 좋은 물이 솟는 우물과 마을 이름이라고 한다. 1974~1979년 국전에 3회 입선하였다. 전남도전 초대작가이며, 대한민

국미술전람회, 한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맡았고, 간사이대학 서예 교수를 맡기도 하였다.

광주교육대학교박물관 소장 <학연후지부족>은 배우고 난 후에야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행초서 작품이다. 즉 ‘교연후지곤 教然後知困 : 가르쳐 본 다음에야 그 어려움을 안다’이라는 구절과 대를 이루는 글이다. 행초서로 분방하게 흘러 썼지만 부드럽고 두툼하면서도 몽툰한 느낌은 스승인 소전 손재형으로부터 배운 서풍이 남아있다.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고체한글예서죽자>는 고려시대 문신인 이조년의 시조 <이화에 월백하고>를 쓴 것으로 한자와 한글을 섞어 써 그의 한글 서체를 볼 수 있다. 이 또한 등글등글하면서도 단정하게 쓴 형태에서 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고체한글예서>, 종이에 먹, 112×27.5cm, 목포대학교박물관

허건 許健

호 남농 南農 생몰년 1907~1987 출생·활동지역 목포 분야 회화

허건은 현대 한국화가이다. 진도에서 출생하여 목포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미산 米山 허형 許瀼, 1862~1938의 넷째 아들로 조부 소치 小癡 허련 許鍊, 1808~1892과 허형을 통해 전해 내려온 전통화풍을 토대로 새로 유입된 사생풍 寫生風 산수화를 재해석하여 자기화함으로써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허건은 집안의 서화 전통과 함께 화가 지망생들이 찾아와 그림을 배우던 운림산방의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그림을 가까이하며 자랐다. 어려서는 부친으로부터 한문 초학인 천자문, 동몽선습, 사략, 통감 등을 공부하였다. 13세 때인 1920년 부친을 따라 강진으로 이주하여 보통학교를 다녔

고, 1923년 다시 목포로 이주하여 상업학교를 다녔으며 이후 평생 그곳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허건이 그림에 뜻을 둔 것은 목포 북교보통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미술대회에서 입상을 하여 두각을 나타내면서부터이다. 이후 꾸준히 그림을 그리던 그는 1930년 스물셋의 나이로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화단에 등단하였다. 해방 전까지 꾸준히 선전을 통하여 작품 활동을 하던 그는 1944년에는 마지막 선전에서 특선을 하여 ‘조선총독상’을 받았다. 선전 외에 해방 전 일본의 ‘남종원전 南宗院展’이나 ‘문부성전람회 文部省展覽會’에 참가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도 하였다. 일본인 심사위원들이 주도하던 선전에 꾸준히 출품하여 특선에 오르는 동안 자연스레 일본식 남화풍과 채색산수화풍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신남화풍’을 형성해 갔다.

1940년대 시작한 담채 수묵산수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이 1942년작 <목포교외>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낮은 산과 밭, 초가집 등 농촌의 한가로운 봄 풍경은 주변의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린 사생화이다. 공필 工筆과 채색을 쓴 이러한 화풍은 당시 선전 심사위원들이 요구한 향토색 짙은 화재와 화풍이기도 하다.

허건은 20대 중반인 1930년대에 광주 무등산과 해남 대흥사를 비롯한 남도 곳곳을, 1938년 10월에는 금강산을 여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직접 보고 느낀 감동을 그린 작품을 허건은 ‘신남화’라 부르며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한국적인 남화”로 “한국의 산수를 사생하여 한국의 정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라 하였다. 전통적인 산수의 이상경이 아닌 주변의 산천 풍경을 그린다는 의미이다. 금강산 여행과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금강산보덕굴>, <묘길상 妙吉祥> 등 1940년대 작품은 허건 회화의 새로운 면모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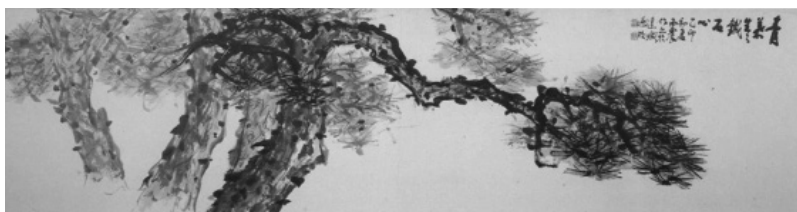
1950년대 이후로는 붓을 종횡으로 속도감 있게 휘둘러 자연의 경물을 그려냈으며, 대담한 수묵의 농담과 설채 設彩로 개성 있는 화면을 연출하였다. 얇은 채색과 빠른 필치의 갈필 渴筆을 쓴 산수화에서는 그만의 개성이 보인다.

허건은 1970년대 들어서 소나무 그림을 많이 그렸다. 허건의 소나무 그림은 줄기의 중간 부분을 부각하여 한 두 가닥 뻗어 내린 가지를 독특하게 구성하고 솔잎은 한 쪽 방향으로 바람에 날리는 듯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소나무 그림은 흔히 '남농식 송수법松樹法'이라 일컬어지며 그의 또 하나의 특색으로 자리 잡았다.

허건의 화풍은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의 필법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한 작품은 개성미와 회화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전통을 탈피한 현대적 감흥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화재의 고착으로 인한 단조로운 면도 있었다.

허건은 해방 후에는 국전國展에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로서 참여하였고,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심사위원으로 추대되는 등 전국적으로도 굳건한 위치에 있었다. 1957년에 '백양회白洋會'의 창립회원이 되어 광주, 전주, 서울, 제주 및 전국 각지에서 개인전 혹은 초대전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해방 이듬해(1946)에 허건은 '남화연구원南畵研究院'을 개설하고 문하생을 받아 후진 양성에도 정성을 쏟았다. 활발한 활동과 화단에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제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 남도 화단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소나무〉, 1975년, 종이에 담채, 31×122cm, 남농기념관

허규 許圭

호 춘헌 春軒 생몰년 1913~1977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회화

허규는 근현대기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는 춘헌春軒 혹은 춘포春圃이다.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그림 공부를 하였다. 1963년 제12회 국전에서 특선을 하였고, 1974년, 1975년 지방작가 초대전, 전남도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 외에도 광주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그림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으나 광주에서만 활동하여 널리 이름을 내지는 못했다. 한때 허백련이 운영하던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 교감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갈필을 능숙하게 다룬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목포대학교박물관 소장 〈산수〉를 보면 필묵의 운용에 있어서 스승인 허백련의 영향이 뚜렷하다.



〈산수〉, 종이에 담채, 126×33.5cm, 목포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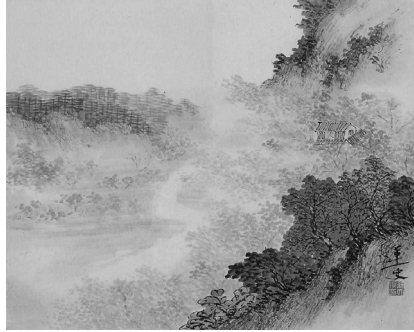
허대득 許大得

호 연사 蓮史 생몰년 1932~1993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회화

허대득은 현대에 활동한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연사蓮史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했다. 근대기 호남화단의 대표적인 화가인 의재 허백련의 조카이자, 목재木齋 허행면許行冕, 1906~1964의 첫째 아들이다. 실경에 근간을 두고 사생산수와 화조화에서 개성적인 면모를 보였던 아버지 허행면과 남종화의 대가인 숙부 의재 허백련에게서 그림을

배웠다.

전통적인 화법에 기반을 둔 허대득은 담담한 담채와 갈필의 먹을 중첩시킨 산수화를 주로 그렸으며, 대한민국전람회에도 수차례 입선하였다. 그의 화풍은 남화의 전통성을 강조한 의재 허백련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



〈산수〉, 1981년, 종이에 엮은 색, 35.5×28.5cm, 목포대학교박물관

의 작품 중 목포대박물관 소장 〈산수〉는 꽃이 만발한 봄 풍경을 그린 것으로 근경과 중경 사이를 연운으로 처리하여 공간감을 주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아들 허달용^{1964~}이 화업을 이어가고 있다.

허련 許練

호 소치 小癡 생몰년 1809~189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허련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남종 문인 서화가이다. 그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연만^{練萬}, 자는 마힐^{摩詰}, 호는 소치^{小癡}이며, 허유^{許維}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 그의 별명과 자호는 중국 당나라 때의 문인이자 수묵산수화가로도 유명한 왕유^{王維}, 699~759, 원나라 때의 문인 화가 황공망^{黃公望}, 1279~1368의 호 대치^{大痴}와 연관이 있으며, 훗날 낙향하여 진도에 지은 화실 이름인 운림산방^{雲林山房} 또한 원대의 문인화가 예찬의 호 운림과 연관이 있을 만큼 그의 자호에는 남종문인화가로서의 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였던 허련은 판각본인 『오륜행실도』의 산수 인물 형상을 보고 이를 모사하며 형상 표현법을 익혔다. 그러던 중 28세 때인 1835년에 대홍사 초의선사의 안내와 보증으로 해남 녹우당의

윤두서 화첩을 빌려 그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32세 때인 1839년 초 의선사는 허련을 자신의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문인서화가인 추사 김정희에게 소개하였다. 허련의 그림을 본 추사 김정희는 그의 그림 솜씨를 칭찬하며 빨리 서울로 올라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렇게 추사 김정희의 문하생이 된 허련은 김정희의 바깥사랑채에 머물면서 추사의 화품^{畵品}에 대한 논평을 경청하고 아울러 그의 필법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김정희의 사랑채에 드나드는 당대 명사들과도 교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40년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허련은 김정희가 해배된 1848년까지 세 차례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제주도를 왕래하며 스승을 모시고 그림 수업을 계속하였다.

1844년 유배 중이었음에도 김정희는 허련을 당시 전라우수사 신관호에게 소개하였다. 허련은 1846년 신관호를 따라 서울에 올라가 영의정 권돈인의 집에 머물며 궁에서 내려진 편본에 그림을 그려 헌종께 바쳤다. 41세 때인 1848년에는 헌종의 배려로 고부감시^{古阜監試}를 거쳐 친임회시무과에 급제하여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42세 때는 창덕궁에 입시하여 어전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 바치는 영광을 누렸다.

허련의 작품 중 리움박물관 소장 〈방석도산수도^{倣石澗山水圖}〉는 초기 김정희의 문하에서 그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다. 그림의 윗 공간에는 추사 김정희의 제발이 쓰여 있어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허련의 30~40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허련은 한양에서 화가로 활동하다가 스승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1856년 49세 때 고향인 진도로 낙향하였다. 침찰산 아래에 운림산방^{雲林山房}을 마련하고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을 근거로 각처를 유람하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서울과 진도를 왕래하며 그림을 그리며 생활하던 허련이 자신의 거처인 운림산방을 그린 것으로 생각되는 그림이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선면산수도〉이다. 그의 나이 59세 때인 1866년 여름에 그린 것으로 뾰족한 봉오리가 이어진 산 아래 두어 칸의 집과 키 큰 소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

리를 건너오는 한 인물을 그려 화가의 이상적인 은거처를 표현하였다. 붓끝이 갈라진 듯한 독필(獨筆)과 청색과 담홍색의 설채 효과에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허련은 김정희로부터 중국 복송 미불(米芾), 원나라 황공망(黃公望), 예찬(倪瓚), 청나라 석도(石濤) 등의 화법을 배웠다. 그리고 김정희의 서풍도 전수 받아 남종문인화의 필법과 정신을 익혀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여 19세기 김정희를 따랐던 많은 화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총애를 받으며 남종문인화풍을 토착화시켰다.

허련의 스승 김정희에 대한 존경은 그의 <방완당의산수도(倣阮堂意山水圖)>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방완당의산수도>는 이름 그대로 완당 김정희의 산수화를 방하여 그린 그림이다. 갈필(渴筆)로 소략하게 그려 마치 추사의 <세한도>를 보는 것 같은 이 작품에 허련은 '완당 선생의 화의를 본받아 그린다(倣阮堂意)'고 적었다.

허련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으로 추사의 초상화를 여러 점 제작하였다. 관복을 입은 초상화도 있지만 흥미를 끄는 작품이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이다. 삿갓 쓰고 평복을 입었으며 나막신을 신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김정희가 유배지인 제주도에서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널리 알려진 소동파가 삿갓 쓰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소동파입극도(蘇東坡笠屐圖)>와 인물의 자세나 차림새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소동파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림으로써 허련은 스승 김정희를 소동파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허련은 여러 점의 지두화도 남기고 있다. 허련의 지두화는 김정희도 절찬하였는데, 산수와 매화를 그린 그의 지두화에는 선비의 탈속한 문기(文氣)와 그것을 전제로 한 형식미가 잘 갖추어져 있다. 허련은 산수화뿐 아니라 사군자, 인물, 화훼 등 각 분야에서 독특한 필치를 구사한 화가이다. 허련의 사군자화는 그의 회화 중에서도 개성 있는 화목의 하나로 그가 추구하는 문인화의 지향점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묵매와 묵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또한 만년에는 '허

모란'으로 알려질 만큼 모란이나 소나무, 연 등 문인들이 즐겨 그린 화훼류에서도 개성 있는 작품을 남겼다. 진한 먹을 대담하고 능란하게 구사한 그의 묵모란도는 아들인 미산 허형에 의하여 가법으로 전수되어 허씨 집안 특유의 화풍으로 자리 잡았다.

허련의 저서로는 일명 소치실록(小癡實錄)이라 불리는 『몽연록(夢緣錄)』과 『운림잡저(雲林雜著)』, 『운림유록(雲林儒錄)』 등이 전한다. 허련이 생전에 살면서 그림을 그렸던 운림산방은 진도군 의신면 침찰산 자락에 위치하며,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허련의 화실로서만이 아닌 그의 제자와 후손들로 이어지는 화맥의 산실이다.

허련의 회화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인 미산 허형과 손자인 남농 허건, 임인(林人) 허림(許林, 1917~1942)을 비롯하여 허림의 아들 임전(林田) 허문(許文) 그리고 허건의 장손자인 허진 등 여러 후손들이 화업을 잇고 있다.

허련의 후손들 이외에도 허련에게 회화를 배운 화가는 진도 출신의 미방(米舫) 김익로(金益魯, 1845~1915)나 옥전(玉田) 임양재(林陽載, 1848~1912) 등 여럿이다. 남도 화가들 대부분은 소치 허련이나 미산 허형 등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으며 이어져 이들의 화풍이 호남화단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방석도산수도>, 종이에 수묵, 24.8x34cm, 리움미술관

허림 許林

호 임인 林人 생몰년 1918~1942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허림은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한 근대기 한국화가이다. 호남 남중문인화의 종조로 불리는 소치 허련의 손자이자, 미산 허형의 다섯째 아들이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임인林人이다. 진도에서 살던 허형이 운림산방을 처분하고 당시 상업이 활발하였던 강진으로 이주하여 1921년까지 10여 년간 살던 때이다.

강진에서 살던 허림은 6살 되던 해 가족이 목포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북교보통학교를 다녔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는데, 특히 미술 과목인 도화圖畵 성적이 뛰어났다. 허림은 이곳에서 전통 모필이 아닌 연필, 색연필, 물감 등으로 서양식 교육을 받았다. 이와 함께 어려서부터 아버지 미산에게서 사군자를 익혔는데, 화재가 일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대단했다고 한다. 북교보통학교 졸업 후 목포상공학원 3년을 마친 후에는 그림에 본격적으로 매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전통화법을 배웠지만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사생에 의한 스케치 위주의 방법으로 독학하였다.

1935년 허림은 18세의 나이로 제14회 선전에 출품하여 작품 〈조朝〉로 입선을 하였다. 다음 해 제15회 선전에서도 〈추림박모秋林薄暮〉와 〈우후계향雨後溪響〉으로 입선하였다. 1938년 일본 유학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940년 일본에 건너가 도쿄의 가와바타화학교川端畫學校에 들어갔다. 유학을 간 첫 해에 선전에서 〈금강산 묘길상〉으로 입선하였고, 다음 해인 1941년에는 일본의 문부성전람회(문전)에 입상할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보였다. 1942년 제5회 신문전新文展에서 〈6월 무렵六月の頃〉으로 다시 입선하는 등 일본 문전에 연거푸 입선하여 천재성을 떨쳤지만 허약한 체질에 과로가 더해져 1942년 11월 24일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화가로서 활동한 기간은 8년에 불과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문전 2회 연속 입선, 선전 5회 입선이라는 강렬한 족적을 남겼다.

허림이 선전에 출품하던 초기에는 당시 중앙화단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던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1897~1972 화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허림의 화풍은 청전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주변 풍경을 사생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제17회 조선미전에 출품한 〈전가田家〉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에 주목하여 사생을 통한 독자적인 화풍을 모색해 나간 대표적인 예이다.

허림의 작품은 수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재나 기법 면에서는 매우 다양하다. 산수화에서도 여러 화풍을 모색하였던 것처럼 인물화, 화조·영모화에서도 연필로 스케치한 인물화부터 채색화까지 폭넓게 그렸다. 그의 유작 중에는 남도의 현실에 눈을 돌려 실제 대상과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

〈농가풍정〉은 채색과 함께 점묘법이 조금씩 드러난 작품이다. 누르스름한 종이 위에 황색과 초록색, 약간의 붉은색으로 설채하여 마치 수채화 같은 느낌을 준다. 필치는 갈필을 부드럽고 세련되게 운용하였으며, 안개 처리는 더욱 오묘하고 안정된 구도에 정확한 묘사력을 보인다.

허림은 주변의 풍광을 소재로 채색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화풍을 형성해 나갔다. 〈목포 만호동 소견〉은 선이 흐리고 희미한 준법에 차분하고 온화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채색도 노란색에 청색을 섞은 듯 독특한 빛깔을 많이 써서 얼핏 보면 서양화에 가까운 색감을 풍긴다.

1940년 가와바타화학교에 입학한 후에 제작된 〈닭 파는 노인〉, 향토적인 소재로 소와 아이를 그린 〈목동〉 등 생동감 있는 현실을 묘사한 그의 작품은 사생을 기본으로 하고 수묵뿐 아니라 채색을 사용하였으며, 서양화법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현대적인 화풍을 보인다.

이외에도 허림이 일본 유학을 가기 전 생계를 위해 목포에 있는 요정에서 돈을 받고 그려준 화려한 화조화는 세밀한 표현과 채색으로 장식성을 더한 것으로, 요정에 자주 출입하는 일본인 부호와 관료들의 취향에 맞추어 다분히 일본화풍을 보인다. 그런 그림에 허림은 호를 철만鐵巒이라고 썼으



〈닭 파는 노인〉, 1940년, 종이에 수묵담채, 130.5x183.5cm, 남농기념관

며, 합작을 한 허건도 남농 대신 철산鐵山이라 썼다.

허림이 그림을 시작한 초기에는 선전에 먼저 입선한 형 허건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허림이 일본에서 배운 새로운 화풍은 형 허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화풍을 이은 제자는 없으나 그의 아들 임전林田 허문許文, 1941~이 아버지를 이어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허목 許穆

호 미수 眉叟 생몰년 1595~1682 출생·활동지역 전남·서울 분야 서화

허목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서화가이다.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문보 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대령노인臺嶺老人으로 나주에서 태어났다. 유학자儒學者로 등용되어 산림직인 성균관제주成均館祭酒를 비롯하여 이조참판·우참찬·이조판서 등을 거치고 우의정에 올랐다. 남인의 영수로서 17세기 후반 2차례의 예송禮訟을 이끌었으며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사상적으로 이황·정구鄭逵의 학통을 이어받아 성호 이익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기호 남인의 선구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전서篆書에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으며 삼척에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시흥에 〈이원익비李元翼碑〉, 그리고 파주에 〈이성중표문李誠中表文〉이 남아 있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의 글씨는 ‘미수체眉叟體’라 불리며 원형과 사각형 등 독특한 형상과 강약 변화가 큰 날카로운 필치로 개성을 드러낸 독창적인 서체이다.



〈척주동해비〉, 탁본

그림에서는 매화와 대나무를 잘 그렸는데, 전하는 주요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묵죽도墨竹圖〉와 간송미술관 소장 〈월야삼청月夜三淸〉이 있다. 저서로는 『방국왕조예邦國王朝禮』, 『경설經說』, 『미수기언眉叟記言』 등이 있다. 마진麻田의 미강서원溟江書院, 나주의 미산서원眉山書院, 창원의 회원서원檜原書院에 제향되었다.

허백련 許百鍊

호 의재 毅齋 생몰년 1890~1977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허백련은 20세기에 활동한 남종문인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행민行敏이고, 호는 의재毅齋로 시기에 따라 의재산인毅齋散人, 의도인毅道人이라 하였다. 19세기 진도 출신의 남종문인화가 소치 허련과는 한 집안이다. 임진왜란 때 진도에 내려온 입도조 허대許垸의 장남 득생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 순의 후손이 소치 허련이며, 셋째 아들 방의 후손이 허백련으로 허백련은 허련의 종고손이다. 어려서 소치 허련의 아들 미산米山 허형許滄, 1862~1938에게 묵화의 기초를 익혔고, 진도에 유배 중이던 무정戊亭 정만조鄭萬朝, 1858~1936에게 한문을 배웠다.

정만조는 허백련이 15세가 되자 “굳세고 튼튼하며 느린 것은 인에 가깝다(剛毅木訥近仁)”는 뜻의 『논어』 구절에서 ‘의毅’자를 따서 ‘의재毅齋’라는 호를 내려 주었다. 의재가 스스로 시를 지을 수 있는 근대기 몇 안 되는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정으로부터 배운 한학이 기초가 되었다. 더구나 법률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근대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스승 정만조의 영향이 컸다.

허백련은 일본에 건너가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법학 공부보다는 동경의 제실박물관에서 직접 본 옛 문인화가들의 그림에 흠뻑 빠져 화가로 전향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대표적 남화가였던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을 찾아가 그림 공부를 하면서 남종산수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허백련은 귀국 후 1922년에 열린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수상하며 화단에 널리 이름을 알렸다. 선전에서 이름을 내었지만 선전이 회를 거듭할수록 변모되어 가자 제6회에 목매로 특선을 한 후 더 이상 출품하지 않았다. 그리곤 전국을 주유하며 그림을 그리다 1937년 광주에 정착하였다. 이듬해인 1938년 1월 16일 서화동호인들과 서화가를 중심으로 전통서화 진작과 후진양성을 목표로 연진회(鍊眞會)를 발족시켰다.

광주에서 그는 증심사 계곡에 화실 ‘춘설헌(春雪軒)’을 마련하고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그림 제자들을 길러주고, 농업학교를 세워 농업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농업과 의식 계몽에도 힘썼다. 뿐만 아니라 춘설헌 근처에 있던 기존의 차밭을 인수하여 ‘삼애다원(三愛茶園)’을 만들어 시서화와 함께 독서와 차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허백련은 산수화와 사군자화, 화조화, 기명절지화 등 다양한 화목을 두루 잘 그렸다. 그 중에서도 산수를 특히 좋아하였고, 다른 어느 화목보다 산수화에서 자기화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의재’라는 호를 쓰던 시기는 40대 중반까지로, 이 시기에 그는 남종화풍을 익히고 금강산 여행 등 사생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남종화의 다양한 화풍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회화 세계를 형성해갔다. 초기에는 대체로 중국의 대가나 화보(畫譜)를 향한 형식주의적인 작품경향을 보이기도 하나 맑은 담채와 선염으로 시

적인 정경을 표현한 작품들도 있다.

‘의재산인’이라는 호를 주로 썼던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말까지는 이전 시기의 다양한 시도를 종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해 나갔다. 이 시기 작품 중에는 다양한 구도와 필법의 변화를 살려 사계절 풍광을 그린 작품이 많다. 역대 여러 명가의 화법을 두루 응용한 이상화된 산수화임에도 필치는 개성이 있다. 낮은 산과 계곡 그리고 언덕의 작은 집들이 어울린 경물들은 남도 지방 산야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친근한 느낌을 준다. 개인 소장 <사계산수도>는 이 시기 변화된 그의 화풍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준다.

허백련은 1951년 60세 회갑을 맞이하면서 ‘의도인(毅道人)’이라는 아호를 쓰기 시작했다. 산인(山人)이라는 겹어 대신 ‘의도인(毅道人)’이라는 호를 쓰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예인의 길에 대한 각오와 확신을 다진 것이다. 의도인으로 자호하던 60세 이후부터는 원숙한 화풍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구도와 준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나 화면은 훨씬 안정되고 까슬까슬한 필치에 운필은 막힘이 없으며, 맑고 담담한 설채가 조화롭다.



<대풍(待豊)>, 1976년, 종이에 수묵담채, 69×70.5cm, 의재미술관

춘설현에 머물며 농업학교를 세우고 평생 농업 운동에 힘썼던 허백련은 일종의 '농경도'인 밭가는 그림들을 그렸다. 1954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 기증한 <일출이작>과 의재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풍待豊>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이 전한다.

허백련은 산수화 이외에 사군자화나 화조화 등에서도 각 소재가 갖는 상징성을 살리면서 운치 있고 담담한 품격을 보여준다. 허백련의 화조·사군자화는 문인화가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소재를 즐겨 다루었고, 그 소재가 갖는 우의寓意와 상징성을 드러내는 화제를 함께 써 의미를 더하였다. 그림뿐 아니라 서예작품 또한 매우 많은데, 두툼하고 속기 없는 글씨 또한 일품이다.

허백련은 1949년에는 국전國展에 추천작가·초대작가로 추대되었고,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나 국전의 혼란상을 목도하고는 곧 그만두었다. 70세 때인 1960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되었고, 1962년에는 문화훈장 금관장을 받았다. 1966년에는 미술 부문에서 예술원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원로로서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1977년 2월 15일 세상을 떠난 허백련은 한시와 고전, 서법書法 등 시·서·화를 겸한 문인화가로서, 그림뿐 아니라 인품이나 사회적 활동 등에서도 존경을 받는 근·현대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이러한 허백련의 화풍과 회화정신은 연진회 회원들을 통해 호남의 현대화단으로 이어졌다.

허산옥 許山玉

호 행원 杏園 생몰년 1924~199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화

허산옥은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본명은 허귀옥이며 호는 행원杏園, 남전藍田이다. 16세에 남원권번에 입교하여 산옥山玉이라는 예명을 받았다. 소리와 서예, 사군자를 배웠고 화조화도 즐겨 그렸다. 남원 권번에 적을 두었지만 주로 전주에서 예능활동을 펼쳤다. 당시

전주 권번의 교장이 유당 김희순이었고, 효당 이광열, 설송 최규상 등 당대의 명필과 화가들이 교사로 활동했다.

동광미술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웠고, 광주의 의재 허백련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웠으며, 글씨는 강암 송성용을 사사하였다. 1950년 일제강점기에 전주를 대표하는 국악원이 있던 자리에 '행원齋園'이라는 고급 음식점을 열었는데, '행원'이라는 이름도 의재 허백련이 지어준 것이다. 행원은 유명 서화인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다. 허산옥은 행원을 운영하면서 6·25 전쟁으로 오갈 데 없는 국악인들과 미술인들을 후원하였다. 박초월, 김소희, 임방울 등 당대 명창 중에서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변상벽, 이상범, 김은호, 이용우 등의 화가들도 행원의 식객 노릇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 또한 수십 명에 이르러 '전주의 대모'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하였다.

허산옥은 국전에 14회나 입선하여 초대작가가 되었다.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수차례 개인전도 가졌다. 1993년 전북예술회관을 대관하여 개인전을 준비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1986년 전북문화상 全北文化賞을 수상하였다.

허산옥의 사군자는 윤기나는 먹의 농담을 잘 살려 정결하면서도 고고한 기품을 잘 표현하였다. 수묵의 사군자와 달리 채색 화조화에서는 "거리낌 없는 붓질의 흐드러진 꽃들", "거침없고 과감한 채색"으로 그를 평하기도 한다.

허산옥 탄신 90주년인 2014년에 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있었고, 발표된 연구 성과는 『인물미술사학』 2014년 제10호에 실렸다.



<석국(石菊)>, 종이에 수묵담채, 171.3×63.0cm, 개인

20세기 전라북도를 빛낸 여류미술가의 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아 2010년 허산옥의 일대기가 만화로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허산옥의 삶이 담긴 공간과 전주팔경을 무대로 음식과 노래가 한데 어울린 뮤지컬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허소 許炤

호 효봉 曉峰 생몰년 19~20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허소는 근현대기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남규南奎이며 호는 효봉曉峰이다. 만년에는 더벅머리 노인이라는 뜻의 담수髭叟라는 호를 즐겨 썼다. 보성과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허소는 증광진사를 지낸 근瑾의 증손으로 같은 보성 출신인 회봉擘峯 안규용安圭容, 1873~1959, 설주雪舟 송운회宋運會, 1874~1965, 소파小波 송명회宋明會, 1872~1953 등과 시와 그림, 글씨로 교류했다. 1930년대 초 서화협회전에 출품해서 입선, 특선을 하고 이후 대부분은 보성지역에서 서화가로 활동했다. 근현대 한국 서단에서 전서와 조적체鳥跡體 : 새의 발자국 모양 서체를 잘 썼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壽’자와 ‘복福’자를 여러 모양으로 도안하여 반복해서 구성한 백수백복百壽福 등이 유명하다.

허소의 백수백복도는 글씨를 회화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러한 백수백복도 병풍은 장수를 기념하는 잔치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장수를 바라는 의미로 주고받는 선물로 사용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백수백복도 10폭병풍》과 개인소장의 《백수백복도 10폭병풍》,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장《백수백복도 10폭병풍》 등 다수가 남아 있다. 마름모꼴 직사각형 틀에 맞춰 중형으로 열을 맞추어 수복 두 글자를 번갈아 써넣었는데, 글자를 다양한 형태로 도안화시켜 구성이 다채롭다. 허소 조적체의 연원은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체眉叟體’가 중심이다. 고전古篆을 바탕으로 하여 독특한 형상과 변화가 큰 날카로운 필치로 개성을 드러내었다.

허소는 허목의 〈척주동해비문〉을 임모하며 필법을 공부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허소의 《척주동해비 10폭병풍》은 허목의 글씨를 토대로 하면서도 살짝 떨리듯 비뚤비뚤 쓰거나 원형과 사각형 등의 다양한 도형 감각과 자형字形 변형으로 변화를 주어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낸 것이다. 허소에게서 글씨를 배운 이들로써 송곡松谷 안규동安圭東, 1907~1987과 설봉雪峰 양성운楊聖雲, 1925~2014이 있다. 안규동은 행초에 뛰어났는데 전서는 허소의 글씨를 임모하며 익혔으며, 양성운의 경우 허소의 서체를 연구하여 조적체를 비롯한 백수백복도 등을 남겼는데 허소의 글씨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허소의 회화는 《무이구곡도 10폭병풍》, 《사계산수10폭》, 〈수하인물도〉, 〈묵국〉을 비롯한 《군자팔폭병풍》 등이 남아 있다. 특별한 사승관계를 두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것으로 생각되며 화보 등을 통해 습득된 화법을 자기화하였다. 서예와 전통회화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허소는 1930~40년대 호남 전통 서화단에서 나름의 위치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무이구곡도 10폭병풍》, 1929년, 종이에 옅은 색, 각 폭 65.5×32.2cm, 개인(한국학호남진흥원기탁)

허은 許殷

호 대미산 大米山 생몰년 1831~1865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허은은 19세기 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는 대미산大米山이다. 19세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9~1892의 장남이다. 허련은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주가 있었던 큰아들 은을 자신의 화업을 이을 아

들로 생각하여 스승인 추사 김정희를 비롯하여 다산 정약용의 아들인 정학연 등 유명 문인들을 만날 때면 대동하여 인사를 시키곤 하였다.

허련이 제주도 유배 중인 김정희를 찾아 제주도에 갔을 때도 동행하였던 듯 1863년에 제주도에서 허은이 그린 초상화가 전한다. 허은의 <굴수소조橘叟小照>는 굴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찬찬한 작품이다. 이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존 가장 오래된 초상화로서 조선 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주도는 '굴수소조橘叟小照'를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3호로 2013년 10월 17일자로 지정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허은은 몇 년 동안을 앓다가 1865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허련은 몹시 슬퍼하였고, 1877년 큰아들의 호인 미산(米山)을 뒤늦게 화재를 알아본 넷째 아들 허형(許滄, 1862~1938)에게 주었다. 이에 미산 허형과 구분하기 위해 허은을 후대 사람들이 대미산(大米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해오는 허은의 작품 <산수화>는 남종문인화풍을 따르고 있으나 먹이 진하고 투박해 부친 허련 산수화의 거친 듯 답답한 화풍과는 차이가 있다.



<굴수소조(橘叟小照)>, 1863년, 비단에 채색, 68×35cm, 제주민속박물관

허의득 許義得

호 치련 穉蓮 생몰년 1934~1997 출생·활동지역 광주·전남 분야 회화

허의득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이다.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치련(穉蓮)이다.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과 허행면의 조카이다. 초·중·

고 4학년 때부터 광주로 올라와 백부 의재 허백련과 함께 생활하며 허백련이 세운 농업학교를 다녔다. 27세 때 허백련의 권유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연진회에서 활동하였다. 1963년 30세에 제12회 국전에 입선을 하였으며, 이어 제13회, 제14회 연속 입선하였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도전(道展)에 특선하였고, 1971년에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1972년에는 추천작가가 되었다. 연진미술원 창립 회원 및 이사를 지냈으며, 전남교육연구원 강사와 전남예술고등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광주와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12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허의득은 허백련을 이어 전통 남종문인 화풍을 구사하였다. 화면구성 방식이나 주제, 화법 등에서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맑고 담담한 필치를 보인다. 『치련 허의득 유묵집』에 그의 대표작이 실려 있다. <하경산수>, <산수>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의 산수화와 사군자화도 다수 남겼다.



<산수>, 1998, 종이에 수묵담채, 70×98cm, 함평근립미술관

허정두 許正斗

호 오산 午山 생몰년 1924~195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회화

허정두는 근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호를 초기에는

오산^{午山}이라 하다가 뒤에 성관^{星觀}으로 바꾸었다. 20세 무렵인 해방 직전 광주 의재 허백련을 찾아가 그림을 배웠다. 의재 문하에서 10여 년 동안 사군자를 익혀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문교부 장관상을, 1954년 국전에서는 <모란>으로 특선을 하였으나 그해 지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재포란>, 종이에 수묵담채, 의재미술관 소장

허정두는 젊은 시절부터 재기가 넘쳤다. 의재 문하에서 배웠지만 전통화보다는 일본화의 사생풍을 좋아해 그런 류의 작품을 남겼다. 개인 소장 <가을 풍경>은 실제 경치를 바탕으로 그린 듯 키 큰 나무들에서 안개 낀 지면을 지나 먼 산으로 이어지며 공간의 깊이감이 표현되어 있다. 작은 화면이지만 먼 곳까지의 넓은 풍경을 습윤한 담묵으로 능숙하게 표현하였다.

담채의 능숙한 표현은 의재미술관 소장 화조화인 <사재포란>에서도 볼 수 있다. 익어가는 배가 몇 개 달린 배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새 한 마리를 그린 것으로, 자연스러운 사선 구도에 새의 정교한 묘사나 나뭇잎의 자연스러운 표현에서 그의 뛰어난 기량을 볼 수 있다.

오산이라는 호를 쓰는 시기의 산수화 <욕우장일^{欲雨長日}>은 “무자사어연진정사^{戊子寫於鍊真精舍}”라는 관지가 있어 무자^{戊子}년(1948) 연진정사에서 그렸다고 하였다. 이 그림이 그려진 1948년 무렵, 허백련은 무등산 증심사 계곡의 춘설헌에 기거하며 농업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에 힘썼는데, 연진회 제자들 또한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성관 허정두도 이들 중 하나로 연진정사라 이름하며 당시 여름날 비 오기 전 춘설헌의 주변 풍광을 화폭에 담은 것이다.

허정렬 許政烈

호 취강 翠岡 생몰년 19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허정렬은 19세기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용담, 지금의 진안 출신으로 본관은 하양이다. 호는 취강^{翠岡}이며, 세종조 문신인 간숙공^{簡肅公} 주^周의 후손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라고 전한다. 1975년 간행된 허정렬의 회혼 맞이 시집인 취강회혼시^{翠岡回婚詩}가 알려져 있다.

허행면 許行冕

호 목재 木齋 생몰년 1906~1966 출생·활동지역 전남·광주 분야 회화

허행면은 현대의 한국화가이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다.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0~1977의 동생이다. 큰형인 허백련과는 16살 차이가 난다. 호는 목재^{木齋}로, 25세 무렵 형인 허백련으로부터 받았다.

허행면은 어려서는 학식이 높았던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익히기 시작하였고 8세 되던 해 진도읍 동외리 소재 서당에서 강재^{康齋} 박진원^{朴晉遠} 선생에게 본격적으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한 집안 어른이었던 미산^{米山} 허형^{許瀼}으로부터 서예와 사군자 등을 익혔다. 이는 의재 허백련의 초기 학업과 유사한 형태이다.

허행면은 1924년 18세에 광주서중의 전신인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일본인 도화^{圖畫}교사 오오모리^{大森} 선생의 눈에 띄어 석고 데생, 수채화, 유화 등을 접하고 서양화 이론을 배우면서 서양화에 눈을 뜨게 된다. 그가 남종화풍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사생을 중시하고 실경을 많이 그렸던 것은 이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 학생독립운동사건 가담 등의 이유로 3학년 을 중퇴한 후 21세 때 진도군청 서기로 취직하였다.

1935년에는 광주로 이주하면서 전남도청 관방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



〈채광〉, 종이에 채색, 187×163.3cm, 의재미술관

였다. 광주에 살면서는 대형 허백련이 주축이 되어 1938년 발족된 연진회(鍊眞會)에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다음해 조선미술전람회에 〈하경산수〉로 입선할 만큼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림에 열성이었다.

그러나 1941년 도청을 그만두고 광산채굴업과 제지사업에 손을 대었으나 연이어 실패하여 곤란을 겪었다. 제지사업은 몇 차례 실패와 시험을 거듭해 화선지 제품화에 성공하여 제품 생산 채비를 서둘렀으나 6·25 동란의 발발로 생산을 중지하였다.

광산업을 하던 무렵 광산에서의 채굴 장면을 그린 작품이 의재미술관 소장 〈채광〉이다. 사생에 의한 만큼 전통화법보다는 서양화풍이 강한 인상적인 작품이다. 조선미술전람회 도록에 보면 1943년 제22회 전람회에서 허행면이 〈자원개발(資源開發)〉로 입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광산 개발의 경험을 살려 그림의 소재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실패와 이어지는 6·25 동란 등으로 침체되었던 허행면은 1956년 5월

광주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를 위해 그린 작품 중의 하나가 각종 꽃을 그린 〈사계군방도(四季群芳圖)〉이다. 이 작품의 마른 붓질과 적묵법(積墨法)에서는 허백련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보다 경쾌한 맛이 나는 점은 그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사계군방도를 비롯한 그의 기명절지화는 서예적 필력, 수묵의 묵법, 구도의 공간감, 사의(寫意)적 표현력 등 호방한 성격만큼이나 자유로운 풍치가 있다.

허행면은 1957년 4월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전주와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광주, 제주, 부산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때 부산에 기거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1964년 다시 광주 적취산방으로 돌아와 후진 양성과 작품 활동에 전력하다 1966년 세상을 떠났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은 작가로서 표현의 자유이며, 전통만을 고수하고 실제로 현실과 삶에 무관한 형식화한 화풍은 가능성이 무한한 남도인의 정서를 새롭게 일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멀게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과 회화미를 강조하면서 자기 세계를 개척해나간 작가이다.

허형 許瀼

호 미산 米山 생몰년 1862~1938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허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19세기 남종문인화의 대가 소치(小癡) 허련(許練, 1809~1893)의 넷째 아들로 전주에서 태어났다. 허형의 생몰년은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족보의 기록이나 그의 작품에 명시된 ‘갑술유하칠십삼옹(甲戌榴夏七十三翁 미산사미山寫)’라는 낙관으로 미루어 1862년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형의 초명은 결욱(潔旭)이었으나 외자를 쓰는 전통에 따라 결이라 하였고, 어느 때부터인가 형(瀼)으로, 만년에는 준(準)으로도 썼다. 호는 미산(米山)이다. 남종문인화풍을 지향

했던 허련의 호가 황공망의 호인 대치에서 왔듯이 허형의 호 미산은 북송 대 문인화가 미불^{米芾}에서 따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허형은 15세 무렵인 1877년 어느 날 부친의 눈에 띄어 그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1881년 20세가 되던 해 이미 세상을 뜬 장형 은^灑의 호인 미산^{米山}을 물려받고 본격적인 화업에 들어갔다. 부친은 허형의 형 은을 매우 총애하여 김정희를 비롯한 여러 문인들을 만날 때 늘 데리고 다니며 화업을 잇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허은이 3년을 앓다가 1865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미산이라는 허은의 호를 허형에게 물려주고 화업을 잇게 한 것이다. 후에 세간에서는 둘을 대미산^{大米山}과 소미산^{小米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허형이 그림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허련은 이전에 큰아들 은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 지인들을 만날 때 허형과 동행하였고, 추사와 겸재의 산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허련은 허형에게 남종문인화의 근본정신을 깨우치기 위해 속기^{俗氣}를 벗어나 문기^{文氣}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것을 끊임없이 주문하였다.

허형의 화풍은 특별히 독창적이지는 않으나 아버지 허련의 재주를 이어 능숙한 필치를 구사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산수 및 사군자, 모란과 노승 등을 그렸으나 산수보다 사군자에 더 수작을 냈다. 부친으로부터 그림을 배우던 초기에는 중국식 화보와 부친의 작품을 토대로 옛 화가들의 화법을 익혔다. 그러나 허련이 얇은 먹에 갈필로 뽀뽀한 느낌을 주는 필치를 구사한 반면, 허형의 화풍은 화면 전체를 가득 메우는 부드러운 붓놀림과 수많은 미점^{米點}으로 명암과 양감을 잘 살려 포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는 그의 온화한 성품 때문이기도 하며, 당시 유행했던 세필산수화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화풍으로 그는 1923년 63세의 나이로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하경산수^{夏景山水}>를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전람회에 출품한 <하경산수>에 ‘준’이라 서명되어 있어 허형이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던 무렵 이름을 준이라 썼던 것으로 보인다. ‘허준^{許準}’이라는 인장은 전남대학교박물관 소

장 <산수도>에도 찍혀 있다.

허형은 사군자화도 상당수 남기고 있다. 그의 매화도는 허련에 비해 전반적으로 먹이 진하고 습윤한 느낌을 주며 꽃을 그리는 방식도 붓질이 차분하고 부드럽다. 허형의 매화도 중 홍백매 두 그루를 열두 폭 병풍에 펼쳐 그린 <매화도십이곡병풍>은 19세기 화가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었던 전수 식매화도병풍^{全樹式梅花圖屏風} 형식으로 대폭의 화면을 운용할 수 있는 기량을 보여준다.

매화도에서 보인, 먹이 강하고 습윤한 특징은 묵죽에서도 볼 수 있다. 허형이 가장 잘 그렸다는 모란화에서는 허련에 못지않은 화려함과 생동감이 나타난다.

소치 허련이 세상을 떠난 후 허형은 20년 동안 운림산방을 이어갔고, 운림산방은 진도 문화인들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진도에서의 생활은 근근히 생활을 이어갈 정도였다. 이후 51세 때인 1912년 운림산방을 팔고 강진군 병영으로 이사를 하였고 1921년에는 목포에 이주하여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다 1938년 타계하였다.

허형은 그 자신이 뚜렷한 화풍을 정립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화단을 지배하였던 세필산수 등에 관심을 갖고 부친과는 다른 회화 세계를 모색하려 하였다. 또한 가난 속에서도 화업을 이어 두 아들 남농 허건과 임인 허립 형제, 그리고 의재 허백련에게 전통화법을 이어줌으로써 호남 전통회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매화도십이곡병풍》, 종이에 수묵담채, 96.5×349.5cm, 전남대학교박물관

현열묵 玄烈默

호 계사 溪舍 생몰년 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현열묵은 전라남도 영암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성주이며, 호는 계사溪舍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현중화 玄中和

호 소암 素菴 생몰년 1907~1997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예

현중화는 근현대시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났다. 호는 소암素菴이다. 60세 이전에는 호를 제주도의 백록담에서 따 녹담鹿潭이라 하였다. 부친 슬하에서 한학과 서법의 기초를 익혔고 서예에 재능이 있었다.

17세에 서귀보통학교를 마치고 제주공립농업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다음 해에 일본으로 건너가 49세까지 일본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여러 직장을 다녔으며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운 것도 일본에서였다. 29세 때 일본 국회사무실과 광산회사 사무원 등을 하던 중 일본 서도書道の 대가 마츠모토호우수이松本芳翠 문하에서 3년간 수업했다. 3년 후 동경으로 옮겨 살게 되자 쓰지모토시유우辻本史邇 문하에서 8년간 사사하면서 육조의 비첩과 해행초전에 등 각체를 배웠다. 그 가운데서도 행서에 심취했다. 동경의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호인 녹담鹿潭을 써 녹담서도원을 운영했으며 일본 국내의 여러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차례 수상하고 심사위원도 역임했다.

49세 되던 1955년 제주도에 돌아와 남주고등학교 교장, 제주사범학교 교사를 하였고, 제주대학교에 출강도 하였다.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1967년 퇴임할 때까지 사회, 도덕, 한문도 가르쳤지만 어느 곳에서나 서예를 필수로 담당하였다.



〈춘설헌〉, 1968년, 목각, 30×110cm, 의재미술관

현중화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제6회 국전 서예부문에 〈십오야망월十五夜望月〉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그의 일본에서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제8회 국전에서부터는 추천작가로, 회갑을 맞은 1967년부터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국전에 참여하였다.

1965년 59세 때에 청탄聽灘 김광추金光秋와 함께 제주도의 옛 지명을 딴 영주연묵회瀛洲研墨會를 창립했다. 다음 해인 1966년 제자 박건주의 주선으로 목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이 무렵부터 호를 ‘소암素菴’이라 하였다. 두 번째 개인전은 회갑을 맞은 1967년 남농 허건의 초청으로 목포에서 열었다. 다음 해 세 번째 개인전은 박건복의 주선으로 광주에서 가졌다. 이때 의재 허백련을 만나 의재 허백련의 당호 춘설헌春雪軒과 소암의 당호 조범산방岫岫山房을 바꾸어 제호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제주와 여수, 광주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후에 그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인사들이 모여 제주에 제주소목회가 창립되었다. 제주 소목회에 이어 1977년에 서귀포소목회, 1980년 대구소목회, 1981년 광주소목회가 창립되었다. 소암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 소목회를 찾아가 글씨를 지도하였고 이러한 일은 85세 되던 1991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글씨는 인격을 함양하는 도구이므로 글씨를 쓰는 이는 인격부터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글씨의 내용도 중요하므로 서예 뿐만 아니라 한문 공부 또한 열심히 할 것도 강조하였다.

현중화는 1980년부터 국전 활동을 중단하고 ‘서귀소옹西歸素翁’으로 자호하면서 예술세계를 완성하였다. 그는 육조해와 행초서의 이질적 요소와 미감을 혼용시킨 독특한 예술세계를 완성시켜 우리나라 서단에 생명력과

다양성을 제공하였다.

1997년 3월 13일 서귀포소목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전이 열렸다.

홍경하 洪景夏

호 화운 華雲 생몰년 1888~1949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홍경하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완주 출신이다. 본관은 남양이며, 전주 팔과정의 주인공인 대사간 홍남립의 11세 손이다. 자는 경행敬行, 호는 화운華雲이다.

그는 6세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학문을 익혀 시문에 능하였다. 면우倓字 곽종석郭鍾錫, 1846~1919과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문인으로, 학문과 식견이 넓어 문명名이 높았다. 글씨에 특히 재능이 있어

금석문과 작품을 남겼다. 그의 금석문으로 선조인 홍남립의 묘비문 「화곡홍선생묘」가 있고, 시문집으로 『화운유고華雲遺稿』 2권이 있다.



「華谷洪先生墓」

홍신표 洪信杓

호 남주 南舟 생몰년 1921~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화

홍신표는 현대의 서화가이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호는 남주南舟, 또는 필강筆江이다. 동국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한때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국전에서 13회 입선하였고, 1974년과 1979년에 목축으로 특선을 하여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80년

국전 추천작가가 되었고, 1982년부터 현대미술관의 현대미술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의미대전 심사위원, 전남도전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전북도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맡았으며,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로 출강하며 후학을 지도하였다. 196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3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여러 전시에 초대되어 출품하였다. 서예와 전각, 사군자, 화조화 등 다양한 화목을 두루 잘 하였는데, 특히 사군자에 능했다.



〈석죽란〉

홍이장 洪以槩

호 광반와 廣胖窩 생몰년 18세기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홍이장은 18세기에 활동한 문인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전주출신으로 본관은 남양이며, 호는 광반와廣胖窩이다. 『조선호남지』에 “해서를 잘 썼다.”고 적혀있고, 같은 책 「學行」편에는 “화곡華谷 남립南立의 종손이며, 권수암遂菴의 문인으로 우암 송시열에 대한 변무상장辨誣上章을 복각伏閣하였고, 학행이 돈독하였다.”고 한다.

홍종시 洪鍾時

호 연농 研農 생몰년 1857~1938 출생·활동지역 제주도 분야 서화

홍종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서화가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로 본관은 남양이며, 자는 중립中立, 호는 연농研農이다. 별호는 도하초인桃下樵人, 노연老研, 연옹研翁을 함께 썼다.

1848년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에서 해배되어 돌아간 후 제주도에서는 향교와 서당을 중심으로 서예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서예의 맥이 이어졌다. 그중 한 사람이 홍중시이다. 그는 여러 대가의 서법론을 배웠고, 추사체에 심취하여 평생 추사만을 공부했다고 전하는데, 추사필법에 능했다.



홍중시가 쓴 표석 <明月臺>

홍중시는 1894년 제주부관찰부濟州府觀察部 주사主事를 시작으로 제주지방 재판소 판임관判任官으로 재직하다 광무 5년(1905)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자 관직을 그만두었다. 공직을 그만둔 후 제주 향교 도훈장導訓長이 되어 후학을 지도하면서 시·서·화를 즐겼다. 1919년 제주면장이었다가 1931년 제주면이 읍으로 승격하자 초대읍장이 되었다.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 제주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일기체 형식으로 쓴 「속음청사續音晴史」에 “제주의 홍중시는 집안에 좋은 글씨와 그림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니 풍류가 넘치는 문사文士이다.”라고 하였다.

국내 유명 서화가와 교유하였는데 그 중에는 몽인夢人 정학교丁學教, 석촌石邨 윤용구尹用求, 석운石雲 박기양朴箕陽, 미산米山 허형許滢,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등이다. 미산 허형과는 아주 친하여 이 우의로 두 사람이 모두 아들의 호를 남농南農이라 했다고 전한다. 허형의 아들 허건의 호가 남농이듯이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연농의 아들 홍순영洪淳英의 호도 남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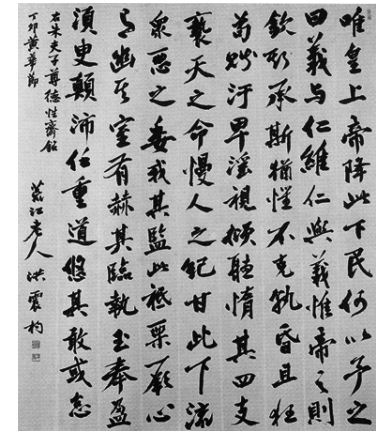
그의 필치는 정교한 필묵, 품위 있는 풍채 등으로 인해 ‘영주의 신선’이라 불렸다. 삼성사의 건시문乾始門 편액과 외도의 월대, 명월리의 명월대 등이 그의 작품이다.

79세에 쓴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복방독서>는 예서를 바탕으로 자체를 변형한 것으로 자유로운 멋과 예술적 재치가 엿보인다.

홍진표 洪震杓

호 월당月堂 생몰년 1905~199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홍진표는 근·현대기에 활동한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자는 기재起載, 호는 월당月堂, 산민山民이며 당호는 황강荒江, 고목재古木齋 주인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한문을 익혔고, 1926년 상경하여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 을 사사하면서 서예가이자 한학자이며 서화연구가로 활동하였다.



<행서>, 종이에 먹, 200×180cm, 개인

홍진표는 염재念齋 조희재趙熙濟,

1873~1938의 『염재야록』을 편집 교정하였다. 이 책은 1931년 발간되었는데,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9년 고종 승하까지 25년간의 사실을 다루고 있다. 조희재는 『염재야록』 저술로 인해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어 많은 고초를 겪다가 1938년 11월 18일 자결하였다.

홍진표는 서울에서 동방연서회와 단국대 등 여러 대학에서 한문을 강의하였다. 서예 활동으로는 동방연서회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한국현대서화전, 한국서예 100년전 등에 출품하였다.

서예가로서의 활동과 함께 서예지 『서통』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예론>, <묵지연원> 등의 글을 연재하였으며 저서로 『서법』 상·하, 『시문선詩文選』 등이 있다. 서예가이자 서예이론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는 않았다. 지난 2005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1주년 기념 '전북서예의 역사와 동향' 전시에 초대되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

황경하 黃敬河

호 청몽 淸夢 생몰년 1895~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 분야 서화

황경하는 근대기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개성 출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다. 자는 여직汝直이고 호는 청몽淸夢, 용암龍巖, 국인菊人, 국촌菊村이다. 개성과 전라북도,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황씨 4형제인 황종하黃宗河, 1887~1952, 황경하黃敬河, 1895~미상, 황용하黃庸河, 1899~미상 중 셋째로 글씨에 뛰어났다. 어려서 형제들과 함께 10여 년 동안 사숙을 통해 한학과 고전을 배웠다.



〈인삼도〉, 1920년대, 개인

1922년 12월 2일 황종하, 황성하, 황용하와 함께 고향인 개성의 동본정東本町 452번지에 송도서화연구회松都書畵研究會를 열고, 학생을 모집하여 서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12월 개성유지들이 고려미술공업진흥회를 조직하자 형제들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23년 3월 경성미술구락부에서 형제들과 함께 작품 백여 점을 모아 '황씨黃氏 사형제전四兄弟展'을 개최하였고, 1923년 4월에는 인천 산수정 공회당公會堂에서 '황씨 사형제전'을 개최하였다. 1925년에는 황용하와 함께 일본의 도쿄東京에 건너가 사무소를 두고 독특한 사군자를 각 방면 명사에게 팔았으며, 귀국한 뒤에도 군산, 마산 등에서 형제들과 함께 '황씨 사형제전'을 열었다.

황경하는 글씨에 능하였으며 송설체松雪體를 계승한 서예 작품을 많이 남겼다. 선전이나 공모전에 출품하기보다는 서예와 학문에 정진하며 자족하였다. 평소에도 과묵하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황경하는 형제들과 함께 일제의 창씨개명에 반대하여 곤욕을 당했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끝까지 불응하였다. 1950년 6.25 동란 중 형 황용하와 함께 개성에 거주하였는데 정전협정 이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황경하는 그림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으나 그의 작품으로 극세필로 인삼의 형태를 꼼꼼하고 정밀하게 묘사한 〈인삼도〉(1920년대, 개인 소장)가 남아 있다.

황문연 黃文淵

호 양천 養泉 생몰년 미상(조선시대) 분야 서예

황문연은 전라북도 무장 출신의 서예가이다. 본관은 창원이다. 호는 양천養泉이다. 효정공孝貞公 진繼의 후손이다. 『조선호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전하는 작품은 없다.

황성하 黃成河

호 우청 又淸 생몰년 1891~1965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 분야 서화

황성하는 근현대에 활동한 서화가이다. 개성 출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자는 은경殷卿이고, 호는 우청又淸, 혜백산인蕙百散人, 수월도인水月道人, 후치後痴이다. 개성과 전라북도,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황씨 4형제인 황종하, 황경하, 황용하 중 둘째이다.

황성하는 산수·인물·영모·신선도 등 다양한 화목을 두루 다루었으며 지두화指頭畵에 뛰어났다. 중국 역대 각 명가의 서체와 서풍을 독학으로 습득해 서예에도 뛰어났는데 조선미술전람회의 서예 부문에 입선하기도 하였다.

호랑이 그림으로 유명한 형 황중하와 함께 호랑이 그림도 남기고 있다. 1921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황씨4형제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1922년 제2회 문인서화전에 <고목죽석도>로 입선하였다. 개성 제1보통학교에서 수암(守巖) 김유택(金有鐸)과, 아우인 황용하와 함께 3인의 개성서화회전을 개최하였고, 이어서 인천에서 전시하였다. 같은 해 송도서화연구회 설립에 참여하였다. 1928년 제7회 선전에 <월조간송(月照間松)>이라는 제목의 지두화를 출품해 입선하였고, 일본 우에노공원 동경박물관 별관에서 문부성과 동경 신문사 후원으로 개최된 제4회 일본서도작진전람회(日本書道作進展覽會)에 출품하여 포상을 받았다. 한편 같은 해 경상남도 통영에서 시작되는 미술기행문과 한시로 된 『우청시고(又淸詩稿)』를 집필하였다. 또한 1929에는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저서인 『일성록(日星錄)』에 수록할 면암선생의 소영(小影)과 평생도(平生圖) 삽화를 제작하였다. 이후 많은 전시회와 작품전에 출품하였고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군산과 개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황해도 연안으로 거처를 옮긴 후 1945년 다시 개성에서 사형제가 모여 합작도 <총관임학도(總管林壑圖)>를 제작하였다. 1950년 6·25 동란 중 동생 황경하와 황용하는 개성에 있다가 정전협정과 함께 그 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황성하는 1954년에서 1965년까지 금난묵회에 참여하여 서예와 문인화를 지도하다가 1965년 타계하였다. 이화여대 주최로 ‘우청황성하유작전’이 열렸고, 1979년에도 그의 유작전이 개최되었다. 황성하의 유작으로는 《서화첩》(순천대박물관), 《산수10곡병》(전북도



《산수10곡병(山水十曲屏)》, 종이에 수묵담채, 각 폭 123×38cm, 전북도립미술관

립미술관), <호랑이>(국립현대미술관) 등이 남아 있다.

황용하 黃庸河

호 미산 美山 생몰년 1899~미상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개성 분야 서화

황용하는 근현대기 서화가이다. 개성 출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 자는 운중(允中)이며 호는 미산(美山), 등운(騰雲)이다. 개성과 전라북도,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황중하, 황성하, 황경하와 함께 화가로 활동한 그는 황씨 4형제 중 막내로 형제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형제들과 함께 송도서화연구회(松都書畵研究會)를 운영하였으며 ‘황씨사형제전’을 수차례 개최하였다. 황용하는 사군자 그림 중에서도 특히 국화로 유명하였다.

11세 때 이미 사군자 그리기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1924년 조선미술전람회 제3회부터 제12회까지 입선과 특선을 연달아 하였고, 1949년 국전(國展)에 추천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22년 형인 황용하와 함께 개성 제1보통학교에서 수암(守巖) 김유택(金有鐸)과 3인의 개성서화회전을 개최하였고, 이 무렵 황성하와 경상남도 진주의 부호인 유남(唯南) 박재표(朴在杓)의 후원으로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현재 그 일부가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후 개성과 군산 등에서 꾸준히 작품전에 출품하였으며 형제들이 함께 <총관임학도(總管林壑圖)>(1945, 개인 소장)와 같은 합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사형제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전에도 자주 참가하였고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926년 일본동경화족회관(日本東京華族會館)에서 개최된 미산황용하화백서화전에 석란(石蘭), 묵국(墨菊) 등 다수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1928년 일본 우에노공원 동경국립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된 일본서도작진전람회(日本書道作進展覽會)에 <석란도>를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929년에도 거듭 입선하였다. 이후 1930년대에는 동아일보의 휘호가로서 활동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개성에 거주하였던 황용하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황용하의 작품은 대체로 사군자화가 많이 남아 있다. 간략하면서도 자유로운 필치를 구사하여 사군자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체로 그의 묵란화는 경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난 잎은 가늘고 길게, 바위는 날카롭게 표현되는데, 이러한 표현은 소호 김응원(金應元, 1855~1921)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화면 왼쪽의 토파에서 비스듬하게 오른쪽 아래로 뻗은 가늘고 날렵한 난 잎과 농묵과 담묵을 적절히 혼용하여 그린 꽃은 그의 완숙한 경지의 솜씨를 보여준다. 대표작으로 <묵란도>(서울대학교박물관소장)와 <묵란도>(고려대학교소장), <추국도 秋菊圖> 등이 있다.



《사군자8폭병풍(四君子八幅屏風)》, 종이에 수묵, 각 폭 123.4×32.7cm, 순천대학교 박물관

황욱 黃旭

호 석전 石田 생몰년 1898~1993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황욱은 근·현대기 서예가이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하였다. 영조 때의 실학자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7대손이다. 호는 석전(石田), 금강산인(金剛山人), 백련산방, 평화노인, 칠봉거사, 모악산인 등 많은 호를 사용하였다.

그는 23세 때인 192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달래려고 금강산

에 들어가 왕희지와 조맹부의 글씨를 공부하였다. 처음에는 쌍구법으로 해서, 행서, 초서를 즐겨 썼다. 그러다 60대에 수전증이 심해져 손바닥으로 붓을 쥐고 쓰는 악필법(握筆法)으로 바꾸었다.

오른손 악필로 쓰다가 오른손마저 불편해지자 65세 무렵에는 왼손 악필로 작품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웅건(雄健)하면서도 괴석(怪石)처럼 꿈틀거리는 형상의 독창적인 서체를 구사했다. 다른 서예가와 달리 90세 이후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독특한 서풍으로 호남뿐 아니라 한국 서단에서도 독보적인 서예가로 평가된다.

1973년 결혼 60주년을 기념하여 첫 전시회를 연 이후 1974년 서울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의수전(依壽展), 1982년 부산일보 초대전, 1982~1992년 롯데미술관 초대전, 1985년 롯데미술관 초대 미수전(米壽展), 1987년 전북일보사 초대 모수전(耄壽展), 1988년 중앙일보사 초대로 호암갤러리에서 망백전(望百展), 그리고 그의 마지막 회고전이 1991년 동아일보사 초대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황욱 사후 아들인 황병근 성균관장 직무대행은 석전의 유품과 작품 5,000여 점을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하였고, 국립전주박물관에는 석전 기념실이 마련되어 그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전북대학교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써준 <一物觀萬物>은 '한 가지 사물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본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획마다 떨림이 있으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주는 그의 독특한 필치를 볼 수 있다.



《일물관만물》, 지본 묵서, 290×84.0cm, 전북대학교 박물관

황원 黃瑗

호 석전 石田 생몰년 1870~1944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황원은 구한말 문인이자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광양 출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계방季方, 호는 석전石田, 강호려인江湖旅人, 아세아일광부亞細亞一狂夫 등이다. 조선 말기 순국지사이자 시인, 문장가로 널리 알려진 매천梅泉 황현黃玗, 1855~1910의 동생이다.

형 황현에게 글을 배웠으며 그의 문하에서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다. 황현과 함께 1886년 광양에서 구례 만수동으로 이거하여 1902년 광의면 월곡으로 이사하기까지 구안실筍安室이라 명명한 서실에서 16년간 학문에 매진하였다. 황현은 『포슬록捕風錄』과 『부호고覆壺稿』를 비롯한 많은 시문詩文을 저술하였다.

1910년 8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통분하여 절명시 4수를 남기고 황현이 자결하자, 황원은 권봉수權鳳洙, 왕수환王粹煥, 박창현朴暢鉉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문을 보내고 중국 회남淮南에 망명 중이던 김택영에게 유고의 편집과 출판을 의뢰하였다. 『매천집』3권(1911)과 『매천속집』1권(1913)을 간행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3월 23일 조카인 황위현黃渭顯과 박경현, 박해훈 등으로 하여금 구례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게 하였으며,



〈覆壺稿〉, 1899년, 필사본, 종이에 먹, 23.8×21.5cm, 순천대박물관

1927년 신간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자 황위현에게 신간회 구례지회를 조직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다 1943년 음력 10월 황현처럼 아편을 먹고 자결을 시도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듬해 2월 17일 수은을 먹고 집 뒤에 있는 월곡저수지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그도 황현처럼 2수의 절명시를 남겼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부호고覆壺稿』는 1899년 8월에 쓰기 시작한 견문록이다. ‘부호고’란 향아리 덮개로나 사용되는 원고라는 뜻으로 자신의 원고를 검양해서 말한 것이다. 황원 역시 형 황현이 오하기문을 쓴 것처럼 잡다한 견문록을 많이 남겼다. 남아있는 그의 글씨는 정갈하며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황윤석 黃胤錫

호 이재 頤齋 생몰년 1729~1791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황윤석은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실학자이며 서예가이다. 글씨를 잘 썼다.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본관은 평해이다. 자는 영수永叟, 호는 이재頤齋, 서명산인西溟散人, 운포주인雲浦主人, 월송외사越松外史 등이다.



『친필일기이재년고』

1759년(영조 35) 진사시에 합격,

1766년에 은일隱逸로서 장릉참봉莊陵參奉에 임명되고, 뒤이어 사포서司圃署의 직장·별제를 거쳐 왕세자의 시위를 맡아보던 익위사翊衛司의 익찬이 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1779년(정조 3)에 목천현감이 되었다가 다음 해 사퇴하였고, 1786년 전생서典牲署의 주부를 거쳐 전의현감全義縣監이 되었다가 다음 해에 사퇴하였다.

황윤석은 운학韻學, 박물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실학을 바탕으로 처음에

는 이학^{理學} 공부에 힘쓰고 『주역』을 비롯한 경서의 연구도 하였으나, 당시 새로이 전래된 서구의 지식을 받아 이를 소개하였다. 또 종래의 이학과 서구의 새 지식과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저서로는 『이재유고^{頤齋遺稿}』·『이재속고^{頤齋續稿}』·『이수신편^{理數新編}』·『자지록^{恣知錄}』이 있다. 이 중 『이재유고』에 「자모변^{字母辨}」·「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등이 있어 국어학사의 연구대상이 되며, 『이수신편』에는 운학^{韻學}에 대한 연구가 실려 있다.

『조선후남지』 서화편에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한다.

황종하 黃宗河

호 우석^{友石} 생몰년 1887~1952 출생·활동지역 전북·서울·개성 분야 서화

황종하는 근현대기 서화가이다. 개성 출신으로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자는 동필^{東必}이고, 호는 우석^{友石}, 인왕산인^{仁王山人}이다. 개성과 전라북도,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여 호랑이 그림에 뛰어났다. 황종하, 황성하^{黃成河}, 황경하^{黃敬河}, 황용하^{黃肅河} 등 형제 4명이 모두 그림에 뛰어나 ‘황씨 사형제’라고 불렸다. 어려서 형제들과 함께 10여 년 동안 사숙을 통해 한학과 고전을 배웠고, 그림을 스스로 익혔으며 한시, 양금, 활쏘기도 하였다. 1922년 2회 문인협회 주최의 ‘문인서화전^{文人書畫展}’에 초서^{草書}가 입선되면서 서화가로 활동하였다. 1922년 12월 2일 동생들과 함께 고향인 개성의 동본정^{東本町} 452번지에서 송도서화연구회^{松都書畫硏究會}를 열고 학생을 모집하여 서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12월 개성유지들이 고려미술공업진흥회를 조직하자 동생들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24년에는 군산으로 내려가면서 송도서화연구회를 군산 개복동^{開福洞}으로 옮기고 명칭도 서화연구소^{書畫硏究所}로 바꾸어 운영하였다. 이 연구소에서 서병갑, 이상길, 정복연 등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이 군산화단을 이끌었다. 1926년 1월에는 군산 공회당에서 ‘황씨 사형제전’이 있었고, 12월

에는 마산에서 ‘사형제전’이 열렸다. 1927년 군산 공회당에서 ‘황씨사형제전람회’가 열렸다. 1928년 겨울부터 8년 동안 통영·진주·밀양·만주·중국 등지를 유람하면서 스케치 기행을 하였다. 1929년 8월 개성의 유지들이 수집한 당대^{當代} 개성 지역 명화가^{名畫家}의 작품과 고서화^{古書畫}를 진열한 ‘송도미술전람회^{松都美術展覽會}’에는 황종하, 황성하, 황용하의 작품 백여 점이 특별 전시되었고, 1936년 서울로 이주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호랑이 그림에 몰두하였다. 이후 그의 호랑이 그림은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았다. 1937년 7월, 개성 출신 동경 유학생들의 친목 모임인 송경^{松京} 학우회 주최로 개성 중앙회관 강당에서 열린 ‘향토미술전람회’에도 사형제가 함께 작품을 출품하였다. 1943년 황해도 연안으로 이주하여 6년을 거주하였으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둘째 동생 황성하와 함께 서울에 정착하였다.

황종하는 호랑이 그림을 잘 그려서 ‘황호랑이’라고 불렸으며 형제 중 가장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특히 위를 응시하며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의 용맹한 모습을 가는 필선으로 털을 세심하게 표현하여 사실성을 강조했다. 수염 하나하나까지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주로 비단에



〈호랑이〉, 비단에 수묵담채, 36×47cm, 조선미술박물관

그림을 그렸으며, 이렇게 그려진 그의 호랑이는 포효하는 느낌을 주며 생동감이 느껴진다.

황중하의 <호랑이>는 날카로운 두 눈, 으르렁거리는 입, 치켜세운 귀 등에서 호랑이의 용맹성과 함께 신령함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묘사는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심경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중혁 黃鐘赫

호 신석 臣錫 생몰년 1813~1865 출생·활동지역 전북 분야 서예

황중혁은 조선 후기의 서화가이다.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원昌原, 호는 신석臣錫이다. 벼슬은 감찰監察에 올랐으며, 무주 출신의 예술인으로 조정의 현관顯官들과 벗하였다. 또한 황중혁은 글과 그림, 그리고 가야금과 거문고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기교로 명성이 높아 조정의 부름을 받았다.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북고사北固寺 극락전極樂殿 현판의 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현 黃玿

호 매천 梅泉 생몰년 1855~1910 출생·활동지역 전남 분야 서예

황현은 구한말 학자이자 시인, 열사이며 서예가이다. 전라남도 광양 출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이며 자는 운경雲卿, 호는 매천梅泉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황시묵黃時默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특히 시와 문장에 능통하였다. 17세 때 순천영順天營의 백일장에 응시하여 문명을 떨쳤다. 21세인 1875년(고종 12) 서울에 가서 이건창李建昌에게 시를 추천받아 당시의 문장가이며 명사인 강위姜瑋·김택영金澤榮·정만조鄭萬朝 등



<절명시>, 종이에 먹, 후손 소장

과 교류하였다. 특히 이건창·김택영과는 그 후 스승과 친구 사이로 평생 동안 교류하며 지냈다. 1883년 특설보거과特設保舉科에 응시하여 초시初試에서 장원으로 뽑혔으나 시관試官 한장석韓章錫이 그가 시골 사람이라 하여 2등으로 내려놓자 회시會試·전시殿試를 보지 않고 귀향했다. 그 뒤 구례군 만수동萬壽洞으로 옮겨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1888년에 성균관 회시에 응시, 장원으로 뽑혀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 민씨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환멸을 느껴 관계 진출을 완전히 단념하고 1890년에 다시 귀향했다. 이후 만수산에 구안실荷安室을 짓고, 3,000여 권의 서적에 파묻혀 두문불출하며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만 전념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갑오경장, 청일전쟁이 연이어 일어나자 급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경험하거나 견문한 바를 기록하여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을 저술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체결하자 통분을 참지 못하고, 당시 중국에 있는 김택영과 함께 국권회복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자 비통함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결하였다.

저서로는 『매천집』, 『매천시집』, 『매천야록』, 『오하기문』, 『동비기략東匪紀略』

등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글씨가 다수 남아있으며, 그중 <명미당明美堂>은 황현이 벗이었던 이진창을 위해 쓴 현판이다. 현재 강화도 화도 이진창 생가에 걸려 있다. 글씨는 담박한 맛이 느껴지는 단정한 해서로 썼다.

호남 서화가 사전

부록

참고문헌

색인

참고문헌

이 참고문헌은 집필자들이 원고와 더불어 제출한 참고문헌 및 진흥원측에서 참고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문집류

기정진, 『노사집(蘆沙集)』
 金尙憲, 『淸陰集』
 김인후, 『하서집』
 정재규, 『노백헌문집(老柏軒文集)』
 李三晩, 『蒼巖書訣』
 李廷龜, 『月沙集』
 『명종실록』
 무주군지편찬위원회 편, 『무주 군지』, 신아 출판사, 2004.
 보성군사편찬위원회 편, 『보성군사』, 전라남도 보성군, 1995.
 보성군사편찬위원회 편, 『보성군사』, 전라남도 보성군, 2014.
 보성향교지편찬위원회 편, 『보성 향교지』, 전라남도 보성군.
 『산양삼강진속수지』, 1992.
 宋時烈, 『宋子大全』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申 欽, 『象村稿』
 申靖夏, 『恕菴集』
 윤종림, 『조선호남지』 신연활자본, 조선호남지발행소, 1935.
 이병연, 『조선환여승람』, 普文社, 1934.
 『익산인물지 2』 초고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11.
 위백규, 『존재집(存齋集)』
 『중종실록』
 『한포재집(寒圃齋集)』
 해남군지편찬위원회 편, 『해남군지』하, 해남문화원, 2015.
 許 穆, 『記言』
 『華東書法』,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黃胤錫, 『頤齋遺藁』

단행본

『광주전남 근현대미술총서』 I·II·III,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2007~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문화사 37 :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1.
 권 섭 저·이창희·장정수·최호석 편, 『玉所稿』 1-17, 다온샘, 2007.
 김병고,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 뉴스투데이, 2009.

김상업 저·소치연구회 간, 『소치 허련』, 학연문화사, 2002.
 김상업, 『소치 허련』, 돌베개, 2012.
 김영기, 『동양미술론』, 우일출판사, 1980.
 김영윤, 『한국서화가인명사전』, 예술춘추사, 1978.
 김영호 편역, 『소치실록』, 서문당, 1976.
 김창동, 『蒼石金昌東書展』, 창석서예원, 1981.
 문순태, 『의재 허백련』, 중앙일보 동양방송, 1977.
 박병술, 『역사속의 진도와 진도사람』, 학연문화사, 1999.
 박은순, 『시대를 앞서간 선비화가 윤투서』, 나무숲, 2014.
 박은순, 『공재 윤투서 : 조선 후기 선비 그림의 선구자』, 돌베개, 2010.
 박종석, 『부러진 대나무-양평손의 삶과 예술』, 개미사, 2003.
 박종석, 『사생취의(捨生取義)』, 예술인마을, 2022.
 박종석, 『세한(歲寒)을 기약하고-염재 송태희의 삶과 예술』, 굿디커뮤니케이션스, 2010.
 신항중, 『유산 민경갑의 조형세계』, 영남대학교출판부, 2021.
 심세중, 『의재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디자인하우스, 2001.
 안휘준, 박정혜 외 10명, 『한국의 미술가』, 사회평론, 2006.
 오광수, 『한국현대작가십인』, 열화당, 1977.
 오세창 편·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근역서화징』 상·하, 시공사, 1998.
 오세창, 『근역서화징(楮域書畫徵)』, 계명구락부, 1928.
 유홍준, 『화인 열전』 2, 역사비평사, 2001.
 이내옥, 『공재 윤투서』, 시공사, 2003.
 이선옥, 『호남의 감성으로 그리다-24인의 호남서화가 이야기』,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이용연 편저, 『전북미술약사』, 전북역사문화학회, 2007.
 이재철 편, 『소전 손재형』, 서림출판사, 1981.
 이창희 외 7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욕소 권섭』, 다온샘, 2007.
 장수길 책임편집, 『호남미술명감』, 한국교육출판공사, 1988.
 장수길 편·현대미술연구소 공편, 『벽천(碧川) 나상목(羅相沐)』, 미술공론사, 1991.
 장희정, 『조선 후기 불화와 화사연구』, 일지사, 2003.
 『전남미술사총서 1900-2015』, 전라남도미술협회, 2017.
 『전라 문화의 맥과 전북 인물』, 전북대학교-전라문화연구소, 1990.
 정중헌, 『천경자의 환상여행』, 나무와 숲, 2006.
 정현숙, 『수은 강항의 서예』, 『강항로드와 족적의 연구』 강항선생 K-학술대회, 2024.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4)』, 一志社, 1996.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8)』, 一志社, 2002.
 천경자, 『그림이 있는 나의 자서전』, 문학사상사, 1978.
 천경자, 『천경자-그 생애 아름다운 찬가』, 디자인하우스, 2007.
 최 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06.

『탱고가 흐르는 황혼 천경자』, 세종문고, 1995.

한국미술연구소 편, 『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 미술사논단 제8호 별책부록, 시공사, 1999.

한국미술연구소 편, 『한국미술사 논저목록 1890~1994』, 시공사, 1995.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현대미술가 100인』, 사문난적,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국역대서화가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학산책 - 옛 그림 이야기』, 스케치북, 2022.

허 건, 『남종회화사』, 서문당, 1994.

허 련 저·김영호 편역, 『소치실록』, 서문당, 1976.

허 유 저·진도문화원 편, 『박래호 역, 『운림수록』, 진도문화원, 1998.

허 유 저·진도문화원 편, 『진도군고전국역판 발간추진위원회 역, 『운림잡저』, 진도문화원, 1988.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호남미술연구소 편, 장수길 책임 편집, 『호남한국화선집』, 광주일보출판국, 1983.

호남미술연구소 편, 『호남미술전집』 동양화·서예편, 전남일보출판국, 1980.

호남미술연구소 편, 『호남미술전집』 서예·사군자편, 전일출판국, 1981.

『호남서화심포지엄』, 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논문류

강영주, 「장수와 복락, 다자의 고상한 염원 : 19세기 전북지역 목포도도 전문회화의 활약」, 『한국민화』 17호, 한국민화학회, 2022.

권윤희, 「간암 송성용 풍속화의 유가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동양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길소담, 「顧堂 金奎泰의 書藝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규선, 「吾堂 姜東曦의 실사적 삶과 시세계」, 『동양고전연구』 권 42호, 동양고전학회, 2011.

김기승, 「이건창의 생애에 나타난 책사와 개화의 갈등」,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6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김길환, 「허목의 학문과 사상」, 『한국학보』 18권, 1980.

김남형, 「蒼巖 李三晩의 書論 : 順自然의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3권호, 동양한문학 회, 2006.

김덕진, 「존재 위백규의 현실인식과 경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제27호, 한국실학학회, 2014.

김도영, 「소전(素筵) 손재형(孫在馨)의 서예미학(書藝美學) 고찰」, 『호남문화연구』 제64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김미란, 「풍곡 성재휴와 소송 김정현의 회화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3.

김병기, 「書法, 書道, 書藝,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서예학연구』 권 8호, 한국서예학회, 2006.

김상엽, 「소치 허련 관계 신자료의 회화사적 의미」, 『미술사학』 제16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2.

김상엽, 「소치 허련 회화의 형성 배경」, 『한국사상과 문화』 제16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김상엽, 「소치 허련의 《蔡氏孝行圖》 삽화」, 『미술사논단』 26호, 한국미술연구소, 2008.

김상엽, 「소치 허련의 《葫蘆帖》」, 『미술사논단』 13호, 한국미술연구소, 2001.

김상엽, 「소치 허련의 교우관계」, 『동양고전연구』 권 16호, 동양고전학회, 2002.

김상엽, 「『소치실록』의 구성과 내용」, 『소치연구』 창간호, 소치연구회, 2003.

김선희, 「近代 韓國畫의 흐름과 毅齋 許百鍊의 繪畫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성한, 「素筵 孫在馨 研究」,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김소연, 「람전 하산옥의 채색 문인화조화」, 『인물미술사학』 제10호, 인물미술사학회, 2014.

김소영, 「18세기 호남지역 방외화사 김익주 연구」, 『호남학』 Vol.7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4.

김소영, 「근대기 광주 전통화단의 형성과 전개」, 『호남학』 Vol.6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0.

김소영, 「동강 정문연의 생애와 회화세계」, 『호남문화연구』 제43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김소영, 「채용신평 송사기유만의 초상연구-고산서원본과 부국문화재단 소장본」, 『역사학연구』 94권, 호남사학회, 2024.

김소영, 「해방 이후 광주화단과 목재(木齋) 허행면(許行冕)」, 『호남문화연구』 제62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7.

김소영, 「효봉 허소(曉峰 許昭, 1882~1942)의 무이구곡도 연구」, 『남도문화연구』 권 47호,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2.

김승희, 「흥국사의 불교회화」, 『미술사학지』 1, 한국고미술연구소, 1993.

김영희, 「1730년 의경작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 - 조선 후기 백의관음신앙의 측면에서」, 『불교미술사학』 29권 호, 불교미술사학회, 2020.

김유정, 「한국 천불도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은영, 「毅齋 許百鍊과 鍊眞齋의 南宗畫 復興運動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재룡, 「裕齋 宋基冕의 文學과 書道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김정란, 「河西 金麟厚의 書藝美 研究」,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김정자, 「雪松 崔圭祥의 書藝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김진도, 「蒼巖 李三晩 書藝 研究」,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김현옥, 「米山 許滌의 生涯와 作品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남동신, 「『金石清玩』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4권, 한국중세사학회, 2012.

노금선, 「설주 송운회 서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도미자, 「남종 허건의 생애와 산수화」,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도미자, 「소치 허련의 산수화」, 『고고역사학지』 13-14합집,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8.

민길홍, 「이당 조병현(1876~1938) 집안 전래 회화」, 『대동문화연구』 115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2021.

박광근, 「石亭 李定穰의 書畫世界」,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박금규,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의 생애와 시(詩)」, 『한문교육논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박미숙, 「석정 남궁훈의 작품세계」, 원광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박수홍, 「남종 허건(1908~1987)의 실경산수화 연구 : 1960년대 이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

현대미술사학,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4.

박수홍, 「林人 許林(1918-1942)의 회화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박수희, 「조선 후기 개성 김씨 화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은순, 「조선 중기 성리학과 풍수적 실경산수화(석정차사유거도)를 중심으로」,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2007.

박해훈, 「조선시대 瀟湘八景圖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백계철, 「목재 허행연의 생애와 예술」,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변종필, 「채용신의 초상화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변혜원, 「호생관 최북(1712~1786년경)의 생애와 회화 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송미숙, 「후소회의 일제강점기 전람회 활동-후소회전과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문화유산』 제4집,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회, 2015.

송수현, 「창암 이상만 서예의 문화재적 가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송하경, 「素峯 孫在馨의 서예세계」, 『서예비평』, 한국서예비평학회, 2008.

송희경, 「20세기 전반 서화가의 아화와 서화합작-우정 황성하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권 51호, 동양고전학회, 2013.

송희경, 「서화가 황씨 사형제의 작품세계」, 『동양고전연구』 권 33호, 동양고전학회, 2008.

송희경, 「오당 안동숙(吾堂 安東淑, 1922-2016)의 1960-1970년대 '추상」, 『미술사논단』 54호, 2022.

심응섭, 「松谷 安圭老 書藝 研究」,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양진희, 「석지 채용신의 회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9.

오광석, 「石田 黃旭의 書藝 研究」,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오현숙, 「송월헌 임득명의 회화 연구」, 『미술사학 연구』 221 222, 한국미술사학회, 1999.

유숙미, 「毅齋 許百鍊의 山水畫 研究」,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유지복, 「1930년대 김태석의 서예-전각 활동과 그 영향:《남유인보》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42호, 미술사연구회, 2022.

유지복, 「김인후의 초서와 예술적 성취」, 『호남문화연구』 제58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5.

유지복, 「明代 法帖의 국내 전래와 수용 양상」, 『藏書閣』 권 2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유지복, 「조선 중기 黃耆老 草書風의 유행」, 『미술사학연구』 권 253호, 한국미술사학회, 2007.

유지복, 「하서 김인후의 서예」, 『서예학연구』 권 41호, 한국서예학회, 2022.

윤민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윤민용, 「18세기〈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3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윤범모, 「일제 강점하의 서예와 金瓊珉」, 『동양미술사학』 제9호, 동양미술사학회, 2008.

윤진영, 「육소 권삼(1671~1759)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정신문화연구』 30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이선옥, 「기묘사림의 예술감성과 호남화단」, 『호남문화연구』 제48호, 호남학연구원, 2010.

이선옥, 「문인화가 송태희(1872~1941)의 근대체험과 실경산수화의 근대적 요소」, 『지방사와 지방 문화』 제18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5.

이선옥, 「사호 송수면(1847~1916)의 회화세계」, 『미술사학보』 제28호, 미술사학연구회, 2007.

이선옥, 「석정 이정직의 회화세계와 전북화단」, 『전라문화총서』, 전라문화연구소, 2006.

이선옥, 「소치 허련과 호남의 매화도」, 『호남문화연구』 제32 33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3.

이선옥, 「소치 허련의 사군자화 연구」, 『호남문화연구』 제36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5.

이선옥, 「의재 허백련의 금강산도십폭병풍과 전통」, 『호남문화연구』 제59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이선옥, 「일제강점기 화가들의 갈등과 선택-호남 전통화가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이선옥,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선옥, 「호남 문인화의 역사와 회화사에서의 의미」, 『전주학연구』 창간호, 전주역사박물관, 2007.

이선옥, 「호남문화예술 연구의 성과와 전망」, 『호남문화연구』 제54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이승연, 「근대 전복서단의 흐름에 관한 고찰」, 『서예학연구』 권 27호, 한국서예학회, 2015.

이연숙, 「성재 김태석의 전각 연구」, 『서예학연구』 권 10호, 한국서예학회, 2007.

이영숙, 「채용신의 초상화」, 『배종무총장 퇴임기념 사학논총』, 목포대학교, 1994.

이영화, 「소치 허련의 회화」,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9.

이용엽, 「계암(戒庵) 유진혁(兪鎭赫)의 묘갈명(墓碣銘)」, 『전라금석문연구』 제14호, 전라금석문학회, 2009.

이용엽, 「金堤郡守로 金石學者이며 詩 書 畫 삼절인 창강 조숙」, 『전라금석문연구』 제6호, 전라금석문연구회, 2005.

이용엽, 「조선 후기 영남의 불화와 승려문중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은경, 「滄江 趙漣의 繪畫: 傳稱作을 통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이은혁, 「창암(蒼巖) 이상민(李三晩)의 학서연원(學書淵源)과 학고정신(學古精神)」, 『퇴계학논총』 Vol.30, 퇴계학부사연구회, 2017.

이태호, 「공재 윤두서-그의 회화론에 대하여」, 『전남지방인물사연구』, 전남지역개발협회연구자문위원회, 1983.

장영준, 「한국전통산수화의 현대적 계승과 그 계보에 관하여」, 『현대미술관연구』 제7집, 국립현대미술관, 1996.

전라금석문연구 편집부, 「名筆 宋日中の 글씨 발견」, 『전라금석문연구』 제2호, 전라금석문연구회, 2003.

전라금석문연구 편집부, 「송재 송일중이 쓴 300년 이상된 蓬山九老會帖」, 『전라금석문연구』 제18호, 전라금석문연구회, 2011.

전성덕, 「육산 김옥진의 회화사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정명희, 「1725년 의경화파의 송광사 불조전〈오삼삼불도〉」, 『미술자료』 95권, 국립중앙박물관, 2019.

정애리자, 「河西 金麟厚의 書藝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규희, 「소유지(所有地) 그림의 시각언어와 기능-〈석정차사유거도(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3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

조민환, 「蒼巖 李三晩 書藝作品的 道家美學의 考察」, 『서예학연구』 권 19호, 한국서예학회, 2011.

조인숙, 『蒼巖 李三晩 書藝術哲學 研究』, 원광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진준현, 「석정 이정직의 서화론과 작품」,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사회평론, 2006.
 진준현, 『肅宗代 御眞圖寫와 畫家들』, 『고문화』 권 46호,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5.
 차미애, 「공재 윤두서 일가의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차미애, 「낙서 윤덕희 회화 연구」, 『미술사학연구』 권 240호, 한국미술사학회, 2003.
 차미애, 「낙서 윤덕희의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최 열, 「남전 허산옥 행장」, 『인물미술사학』 제10호, 인물미술사학회, 2014.
 최경현, 「남전 허산옥의 팔군자도(八君子圖) 연구」, 『인물미술사학』 제10호, 인물미술사학회, 2014.
 崔銀淑, 『曉山 李光烈의 書畫世界』,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은하, 「남정 최정균의 문인화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최찬수, 「河西 金麟厚의 書藝精神과 作品世界」,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황정수, 「소치 허련의 <완당초상>에 관한 소견」, 『소치연구』 창간호, 소치연구회 2003.

도록

『2004~2007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전북도립미술관, 2008.
 『간송문화』 1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80.
 『간송문화』 38,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0.
 『간송문화』 64,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3.
 『간송문화』 82,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12.
 『剛菴 宋成鑣』 제4회 광주광역시 의재 허백련미술상 수상자 기념 초대전, 광주광역시, 1999.
 『강운 명품선』최승효 기증문화재, 순천대박물관, 2001.
 『고당선생 유묵전(遺墨展)』,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04.
 『광주 전남 미술 50년』, 조선대학교미술관, 1989.
 『光州』, 국립광주박물관, 2008.
 국립현대미술관, 『석지 채용신』, 삶과 꿈, 2001.
 『규남 허백련의 실화사상 전남 화순에서 꽃피우다』, 국립중앙도서관, 2016.
 『규남박물관 도록』, 규남박물관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사상연구원 화순군, 2016.
 『그리운 금강산』, 국립현대미술관, 2004.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 국립중앙박물관, 2019.
 『글씨의 아름다움』 강운 최승효 기증문화재8, 순천대학교박물관, 2008.
 『金龍斗翁 寄贈文化財』, 국립진주박물관, 1997.
 김상엽, 『남농 허건-藝道六十五年』, 남농미술문화재단, 2010.
 김화래, 『현대 문인화 오죽 김화래』, 2008.
 『남농 허건』, 광주시립미술관 부국문화재단, 2008.
 『南農 許榘』, 국립현대미술관, 2007.

『남농 허건』, 동아일보사, 1980.
 『남농기념관소장품선』, 남농기념관, 1999.
 『남도 예술에 스미다』, 전남대학교박물관, 2012.
 『남도목향 내일을 가다 100년의 전통과 정신』, 광주시립미술관, 2011.
 『남도문인화의 흐름을 찾아서』, 남포미술관, 2006.
 『남도미술 100년 그 뿌리를 찾아서』, 광주시립미술관, 2005.
 『남도미술-뿌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광주시립미술관, 2019.
 『남도서화 300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006.
 『남도의 서정』, 부국문화재단, 2019.
 『남정 최정균선생 유작 서화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07.
 『다산 학예, 방산에서 꽃피다』, 강진군-서울 예술의전당, 2009.
 『도촌 신영복 전』 2011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2011.
 『뜻이 도달하면 봄은 못 미쳐도-영 호남 선비들의 예술세계』, 한국국학진흥원, 2006.
 『만번 죽어도 번치 않는 마음』, 순천대학교박물관, 2009.
 『梅汀 李昌柱 畫集』, 광주일보사, 1997.
 『매천황현과 매천집』, 순천대학교박물관, 2006.
 『매향, 근원 구철우』, 광주시립미술관, 2017.
 『먹빛에 흐르는 정신』, 의재미술관, 2023.
 『먹의 미학 서화의 세계』, 전북도립미술관, 2010.
 『목재 50주기 기념특별전』, 의재미술관, 2016.
 『묵로 이용우 화집』, 동아일보사, 1982.
 『묵향과 채색의 마음전-석전 황욱 벽천 나상목의 서화』, 국립전주박물관, 1997.
 『문향-인연의 향기를 듣다』 의재미술관 개관 20주년기념전 도록, 의재미술관, 2021.
 『碧岡 金灏 書藝展』, 同德美術館, 1980.
 『사진으로 보는 북한 회화』,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07.
 『사호 송수면의 회화세계』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VIII, 국립광주박물관 부국문화재단, 2007.
 『산수화』하, 중앙일보사, 1984.
 『서예』 한국의 미 6, 중앙일보사, 1981.
 『서화와 고문서 - 녹정 김응배 기증』, 목포대학교박물관, 2005.
 『석지 채용신-봄으로 사람을 만나다』, 국립전주박물관, 2011.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 석정 이정직』, 국립전주박물관, 2019.
 『선인들의 풍류와 아취-문인화』, 순천대학교박물관, 2004.
 『성옥 이훈동기념관 소장품선』, 성옥문화재단, 2009.
 『세계유산 선암사』, 순천대학교박물관, 2023.
 『소암 현중화 서예전』, 삼화문화사, 1992.
 『소암 현중화선생의 삶과 예술』, 국립제주박물관, 2007.
 『소전 손재형』, 진도군, 2004.

『素荃孫在馨書畫集』, 동아일보사, 1997.
『소치일가사대화집』, 문화방송, 1990.
『소치정화전』, 우림화랑, 2007.
송성용, 『강암 송성용 서집』, 지식산업사, 1983.
『숨겨진 거장 小松 金正炫』, 영인군립하정웅미술관, 2022.
『시가 있는 옛 風景』, 순천대학교박물관, 2007.
『심연의 한 획-남도의 서화』, 전남대학교박물관, 2020.
『아산 조방원』, 광주시립미술관, 2017.
『옛문서로 만나는 선비의 세계』,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吾堂 安東淑』, 광주광역시, 2000.
『沃山 金玉振』 전시회도록, 동아일보사, 2006.
『우국지사 석전 황원을 만나다』, 순천대학교박물관, 2015.
『운림산방 화집』, 전남일보사, 1979.
『운림산방사대가전』, 전남매일신문사, 1979.
『운림산방화집』, 전남매일신문사, 1979.
유복렬 편, 『한국회화대관』, 문교원, 1979.
『이재 허백련-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광주시립미술관, 2015.
『이재 허백련』, 동아일보사, 1973.
『이재 허백련』, 중앙일보사, 1991.
『毅齋 許百鍊』, 호암갤러리, 1991.
『전남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전남대학교박물관, 2015.
『전남의 문화와 예술』, 전라남도, 1986.
『전라남도백주년기념미술전』, 한국미술협회, 1996.
『전북 서예의 역사와 동향』, 전북도립미술관, 2005.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2004-2007』, 전북도립미술관, 2008.
『전북미술의 맥-근현대작고작가전』, 전북도립미술관, 2005.
『전북서예의 역사와 동향』, 전북도립미술관, 2005.
『정재현鄭宰賢 서예개인전(7. 23-26) 팜플릿』, 1965.
『제 9회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 도록』, A옥션, 2009.
『제주를 품은 옛 그림과 글씨』,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유물도록 VIII, 제주대학교박물관, 2013.
『조선왕실의 현판』, 국립고궁박물관, 2022.
『창암 이삼만』, 국립전주박물관, 2010.
최광진, 『전경자 작가론』, 호암갤러리, 1980.
『추사글씨 탁본전-추사체의 진수, 과천시절』, 과천시 한국미술연구소, 2004.
『치련 허의득 유묵집』, 이화출판사, 2001.
『탐라순력도』, 국립제주박물관 기획특별전, 2020.
『탐매 -그림으로 피어난 매화』 한국박물관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광주박물관, 2009.

『편지-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학정 이돈홍』, 사회문화원, 2003.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5, 금성출판사, 1990.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7, 금성출판사, 1990.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9, 금성출판사, 1990.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10, 금성출판사, 1990.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11, 금성출판사, 1990.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13, 금성출판사, 1990.
『한국서예일백년(韓國書藝一百年)』, 예술의 전당, 1988.
『한국전통회화-서울대학교박물관소장』, 서울대학교박물관, 1993.
『한국현대미술사-동양화』, 국립현대미술관, 1976.
『한국현대미술전집』 1, 한국일보사, 1977.
『한국현대미술전집』 3, 한국일보사, 1978.
『허소치전』, 신세계백화점, 1981.
『호남 한국화 길을 묻다』, 전남대학교, 2020.
『호남의 전통회화』, 국립광주박물관, 1984.
『湖南의 傳統繪畫』, 국립광주박물관-광주박물관회, 1984.
『호남한국화삼백년』, 전라북도추진위원회, 1985.
『華東書法』,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화순출신 작고작가 특별전-다시 피어나는 예향의 꽃』, 화순군, 2012.
『효산 이광열-필묵의 흐름』, 전북도립미술관, 2014.
『希齋 文章浩 개관11주년 기념전』, 광주시립미술관, 2003.

신문 잡지

『계간미술』 35, 중앙일보사, 1985.
『과거에서 영원으로-시대의 사초, 초상화』, 『해럴드경제』(2013. 8. 13.)
『구례 화엄사, 고 김창동 서예가 특별전』, 『법보신문』(2020. 09. 04)
『“그림은 곧 마음을 표현한다” 치산 최종인 원로회백 별세출처』, 『전북도민일보』(2022. 8. 17.)
『〈나의 履歷書〉 제31회』, 『한국일보』(1975. 7. 15. ~ 9. 9.)
『노성태의 남도역사 이야기』 민족혼 일깨운 광주고보의 영원한 스승, 윤인 송홍, 『전남일보』(2021. 1. 14.)
『동이미술관 ‘월담 권영도, 예술인생전’』, 『새전북신문』(2014. 6. 29.)
『매일신보』(1918. 11. 5.)
『문림의향/예인(藝人)-화가 소천 김천두』, 『장흥투데이』(2021. 3. 24.)
『미래 평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조동희 미수전 다음달 1일까지 동구 갤러리D』, 『광주일보』(2019. 7. 26.)
『박광철 개인전 <생활속의 현대 문인화>』, 『경기문화예술신문』(2021. 7. 28.)
『辭令』, 『조선신문』(1930. 10. 16.)

「서난곡서화전(徐蘭谷書畵展)대성황리종료(大盛況裡終了)」, 『동아일보』(1932. 11. 9.)
 「서예가 故 우하 김정재의 생애사」, 『목포시민신문』(2019. 4. 3.)
 「신현조 화백, 예술은 창조성과 생명력이 담겨 있어야」, 『동아경제』(2022. 6. 22.)
 「〈藝〉에 산다 남도서화원 한혁동 원장」, 『굿뉴스피플』(2009. 6. 5.)
 「〈예인〉 강명구 한국화가」, 『빛가람신문』(2020. 12. 3.)
 「운봉 황산대첩과 윤균」, 『전북중앙신문』(2003. 6. 23.)
 「豊人宋鴻先生別世」, 『호남신문』(1949. 6. 21.)
 「전북 시사만화 1세대 작가 심곡 권경승 선생 우리 곁 떠나다」, 『전북일보』(2010. 6. 28.)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차산 최종인 미수(米壽)” 展」, 『데일리전북』(15.11.10.)
 「조선낙화회(朝鮮烙畵會)」, 『시대일보』(1924. 9. 7.)
 「조재환 화백 88세 맞아 ‘미수(米壽)전-24~30일 갤러리 D, 40여점 전시」, 『광주일보』(2019. 12. 23.)
 「창암 수제자 호산 서홍순」, 『전북중앙신문』(2002. 12. 16.)
 『창』,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09.
 「崔圭祥氏 書藝展」, 『朝鮮中央日報』(1936. 6. 18.)
 「히백련 허건 등과 교류...도문화상 상금으로 청탄상 제정」, 『제주일보』(2019. 1. 28.)

인터넷 자료

「e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국립중앙박물관
 가나액자화랑, 카카오토리(https://story.kakao.com/_B3yC76/eG6xp67lm0)
 광주미술문화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선일한국화화실 2020 남중문인화가 소천 김천두 난초 대나무 유천재 그림비」, 다음카페
 「김선일한국화화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인카이드 분류 동양화 소천 김천두01」, 다음카페
 「김지수[金地粹]」,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디지털익산문화대전
 미디어붐다
 미술관 솔
 서울역사박물관
 선암사성보박물관
 「소정 송수용 선생과 취운 이원우」, 다음카페
 에이옥션
 「우은 김인근 화백/ 가을을 화폭에 담고」, 네이버블로그
 유교넷
 「악산 인물지 초고」, 티스토리
 「작가와 미술현장-윤애근」,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전북도립미술관
 「자산 최장환작가 작품기증」, 사회복지정보센터
 김재욱, 카카오토리(https://story.kakao.com/_8FTW24/7JIXduxiHR7)
 「한국 호남남종화 맥 이어온 이창주 화백」, 다음카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옥선
 함평군립미술관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명 색인

ㄱ

강동희 姜東曦 68
 강명구 姜明求 68
 강봉훈 姜鳳薰 69
 강영봉 姜榮奉 70
 강용범 康用範 71
 강용자 姜龍子 72
 강항 姜杭 72
 고광은 高光殷 74
 고기임 高奇壬 74
 고석진 高錫震 75
 고수갑 高守甲 75
 고순흠 高順欽 75
 고운 高雲 76
 고인후 高因厚 78
 고재봉 高在烽 79
 고정흠 高廷欽 80
 괘국환 郭國煥 81
 괘권옥 郭權玉 81
 괘남배 郭楠培 82
 구서칠 具書七 83
 구철우 具哲祐 84
 권갑석 權甲石 85
 권경승 權景升 86
 권병렬 權炳烈 87
 권영도 權寧燾 88
 기대승 奇大升 89
 기삼연 奇參衍 90
 기우만 奇宇萬 91
 기정진 奇正鎭 92
 김강노 金康老 94
 김정희 金景熹 94
 김관옥 金瑄玉 95
 김광추 金光秋 95
 김교현 金敎鉉 97
 김규완 金圭浣 97
 김규태 金奎泰 98
 김기유 金基俞 99
 김남길 金南吉 99
 김남전 金藍田 100

김달석 金達錫 101
 김도숙 金道淑 102
 김동협 金東俠 103
 김명제 金明濟 104
 김문옥 金文鈺 106
 김병수 金柄洙 107
 김병용 金炳用 107
 김봉관 金奉官 108
 김삼수 金三洙 109
 김상필 金相筆 109
 김상현 金象絃 110
 김석근 金皙坤 110
 김석익 金錫翼 111
 김세길 金世吉 112
 김수 金澗 113
 김옥진 金玉振 114
 김용구 金容九 115
 김용태 金溶泰 116
 김용휴 金容休 116
 김윤길 金允吉 117
 김은섭 金殷燮 117
 김익로 金益魯 118
 김익주 金翊胄 119
 김인곤 金仁坤 120
 김인후 金麟厚 121
 김일 金闕 123
 김재봉 金宰琫 124
 김재욱 金在勗 125
 김정기 金正基 125
 김정재 金正財 126
 김정현 金正炫 127
 김정희 金正會 128
 김정희 金貞姬 129
 김종현 金鍾賢 130
 김중호 金仲祐 131
 김지수 金地粹 132
 김진민 金鎔珉 133
 김창동 金昌東 134
 김천두 金天斗 135
 김철수 金鏗洙 136
 김태석 金台錫 137

김한규 金翰圭 138
 김한영 金漢永 139
 김현장 金炫漳 140
 김형교 金炯峯 141
 김홍주 金洪柱 141
 김홍현 金泓炫 142
 김호 金灑 143
 김화래 金和來 144
 김환주 金煥柱 145
 김희순 金熙舜 145

ㄴ

나갑순 羅甲淳 147
 나상목 羅相沐 147
 나세찬 羅世釁 149
 남궁훈 南宮勳 150
 남한철 南漢哲 151

ㄷ

만공 滿空 151
 모수명 牟受明 153
 문맹종 文孟種 153
 문장호 文章浩 154
 문태석 文泰錫 155
 문흥록 文興錄 156
 민경갑 閔庚甲 156
 민윤식 閔胤植 157
 민일호 閔一鎬 158
 민제익 閔濟益 158
 민효식 閔孝植 159

ㄹ

박규환 朴奎晄 159
 박득봉 朴得鳳 160
 박래현 朴峽賢 161
 박문회 朴文會 163
 박병수 朴秉洙 163
 박상학 朴相鶴 164
 박성우 朴成宇 165
 박숙진 朴淑鎭 166

박영수 朴榮壽 166
 박윤부 朴允漣 166
 박윤수 朴尹秀 167
 박은용 朴銀容 167
 박익준 朴益俊 168
 박인혁 朴仁赫 169
 박장현 朴章炫 170
 박제환 朴濟煥 170
 박종만 朴鍾萬 170
 박중규 朴重龜 171
 박중래 朴重來 171
 박진수 朴鎭燧 171
 박진주 朴鎭注 172
 박창규 朴昌珪 173
 박춘희 朴春熙 174
 박호병 朴好秉 175
 박홍주 朴鴻周 175
 박호 朴瑚 176
 박희중 朴熙中 176
 배석린 裴錫麟 177
 배정례 裴貞禮 178
 백광훈 白光勳 179
 백상빈 白尙賓 180
 백상현 白尙賢 180
 백순기 白順基 180
 백진남 白振南 181
 백학기 白鶴起 181
 백형은 白亨垠 182
 백흥기 白洪基 183
 변치현 邊致賢 183

ㅅ

서경보 徐京保 184
 서병갑 徐炳甲 185
 서병우 徐丙于 186
 서영로 徐永魯 187
 서정민 徐廷珉 187
 서한주 徐漢周 188
 서홍순 徐弘淳 189
 서희환 徐喜煥 190
 선중수 宣重洙 191

설씨부인 薛氏夫人 191
 성재휴 成在休 192
 소세양 蘇世讓 193
 손권배 孫權培 194
 손재형 孫在馨 195
 손태현 孫泰鉉 198
 송계상 宋啓尙 198
 송기면 宋基冕 198
 송대회 宋大會 200
 송명석 宋明錫 201
 송성용 宋成鏞 201
 송세림 宋世琳 203
 송수면 宋修勉 203
 송수용 宋守鏞 206
 송영승 宋榮承 207
 송옥형 宋玉衡 207
 송운회 宋運會 207
 송운덕 宋潤德 210
 송인호 宋寅浩 210
 송일중 宋日中 210
 송주숙 宋柱璫 212
 송주환 宋柱煥 212
 송지의 宋志懿 212
 송진순 宋鎭順 213
 송태동 宋泰東 213
 송태회 宋泰會 213
 송표 宋杓 215
 송하영 宋河英 216
 송현 宋鉉 217
 송홍 宋鴻 217
 송후 宋候 218
 신공제 申公濟 218
 신명숙 申命涑 219
 신방우 申芳雨 219
 신성구 申性求 220
 신성록 申星祿 221
 신수목 申壽睦 221
 신시택 申時澤 221
 신영복 辛永卜 222
 신장 申樞 223
 신제모 申濟模 223

신직구 申直求 224
 신철휴 申喆休 224
 신현록 申見祿 224
 신희모 申曦模 225
 심상운 沈相允 225
 심은택 沈銀澤 226

ㅇ

안규동 安圭東 226
 안동숙 安東淑 227
 안방준 安邦俊 229
 안지 安止 230
 양계남 梁桂南 231
 양성운 楊聖雲 232
 양창보 梁昌普 232
 양평손 梁彭孫 233
 양희맹 梁希孟 234
 엄우섭 嚴于燮 235
 오기두 吳基斗 235
 오기주 吳箕柱 236
 오남운 吳南運 237
 오명렬 吳命烈 238
 오명로 吳命魯 239
 오순 吳珣 239
 오억령 吳億齡 240
 오연규 吳然奎 240
 오우선 吳禹善 241
 오준 吳竣 241
 원용식 元容植 242
 위백규 魏伯珪 243
 유공권 柳公權 244
 유근상 柳根相 245
 유삼규 柳三圭 245
 유영목 柳永默 246
 유영완 柳永完 247
 유용호 柳龍浩 248
 유일호 柳日浩 248
 유재호 劉載鎬 248
 유정섭 柳廷燮 249
 유중구 柳鍾九 249
 유진혁 兪鎭赫 250

윤균 尹困 250
 윤덕희 尹德熙 252
 윤두서 尹斗緒 254
 윤애근 尹愛根 257
 윤영환 尹榮煥 258
 윤용구 尹用求 259
 윤용 尹榕 260
 윤정기 尹廷璣 262
 윤제술 尹濟述 263
 윤해 尹楷 264
 윤희상 尹喜祥 265
 이건창 李建昌 265
 이계원 李燮元 266
 이광사 李匡師 267
 이광열 李光烈 268
 이광용 李光容 270
 이귀호 李貴浩 270
 이규진 李圭鎭 270
 이근화 李根華 271
 이기봉 李琪奉 272
 이난제 李蘭濟 273
 이남호 李南浩 273
 이달재 李達才 274
 이돈흥 李敦興 275
 이문주 李文周 276
 이백순 李栢淳 276
 이범재 李範載 277
 이병무 李秉懋 278
 이삼만 李三晩 279
 이상길 李相吉 282
 이상순 李商純 282
 이상재 李常宰 283
 이석안 李錫安 284
 이석중 李奭鍾 284
 이수형 李壽馨 285
 이순재 李舜載 285
 이승정 李承鼎 286
 이여립 李汝霖 287
 이영균 李榮均 287
 이영민 李榮珉 288

이영우 李英雨 288
 이왕재 李旺載 289
 이용우 李用雨 290
 이인현 李麟憲 291
 이자원 李子遠 292
 이정직 李定稷 292
 이종득 李鍾得 294
 이종원 李鍾元 295
 이지순 李之岫 296
 이진섭 李鎭燮 297
 이집천 李集阡 298
 이창주 李昌柱 298
 이창현 李昌憲 299
 이청흠 李清欽 300
 이치 李瑤 300
 이형립 李亨立 302
 이형의 李滢儀 303
 이홍직 李弘稷 303
 이효갑 李孝甲 303
 이희순 李喜淳 304
 임득명 林得明 305
 임래형 朴來衡 307
 임백령 林百齡 307
 임병성 林炳星 308
 임삼현 任三鉉 308
 임승수 林升洙 309
 임승직 林承稷 310
 임신 林慎 310
 임양재 林樑材 312
 임억령 林億齡 313
 임춘양 林春養 314
 임희 林檜 314

ㄹ

장덕 張德 314
 장봉균 張奉均 315
 장용호 張容浩 316
 장운봉 張雲鳳 314
 장의순 張意恂 316
 장탁노 張鐸魯 318

장필선 張必善 318
 전기규 田琪珪 319
 전기 田琦 319
 전우 田愚 320
 전지활 全識活 321
 전충효 全忠孝 322
 전학순 全鶴淳 324
 정규원 丁圭原 325
 정기 鄭琦 326
 정만현 丁萬鉉 327
 정문표 鄭文豹 327
 정복연 鄭復然 327
 정사일 鄭仕一 328
 정상호 鄭相浩 328
 정서진 丁西鎭 330
 정수홍 鄭壽洪 330
 정식록 丁式祿 331
 정약용 丁若鏞 331
 정영서 丁永書 333
 정영철 鄭永哲 333
 정용구 鄭容球 334
 정우중 鄭祐宗 334
 정운면 鄭雲麵 335
 정유달 鄭惟達 337
 정익상 丁翼相 337
 정이 鄭怡 338
 정재명 丁載明 338
 정재현 鄭宰賢 339
 정창모 鄭昌謨 339
 정채균 丁采均 341
 정학면 丁學勉 341
 조기동 曹基銅 342
 조기석 趙沂錫 343
 조방원 趙邦元 344
 조병철 曹秉哲 345
 조병현 趙秉憲 346
 조병희 趙炳喜 347
 조복순 曹福淳 348
 조송 趙崧 348
 조승현 曹勝鉉 349

조용민 趙鏞敏 350
 조정규 趙定奎 351
 조주승 趙周昇 352
 조중태 趙重泰 353
 조철수 趙澈琇 354
 조효석 趙孝錫 355
 주행복 朱幸福 356
 지영규 池永奎 356
 진학중 陳學鐘 357

ㄷ

차부진 車富鎭 358
 채경묵 蔡敬默 359
 채규영 蔡奎榮 359
 채상묵 蔡尙默 360
 채용신 蔡龍臣 361
 채한영 蔡漢永 363
 천경자 千鏡子 363
 천현혹 千炫鶴 366
 최광익 崔光益 366
 최규상 崔圭祥 368
 최덕인 崔德寅 369
 최명룡 崔命龍 370
 최북 崔北 372
 최석환 崔奭煥 373
 최순모 崔純模 375
 최정균 崔正均 376
 최종인 崔宗寅 377
 최진태 崔鎭泰 378
 최한영 崔漢泳 378
 추교영 秋敎榮 379

ㅎ

하남호 河南鎬 380
 하응선 河應善 381
 하환규 河煥圭 382
 한승희 韓承熙 382
 한영호 韓永浩 383
 한창교 韓昌敎 383
 허건 許健 384

허규 許圭 387
 허대득 許大得 387
 허련 許鍊 388
 허림 許林 392
 허목 許穆 394
 허백련 許百鍊 395
 허산옥 許山玉 398
 허소 許炤 400
 허은 許殷 401
 허의득 許義得 402
 허정두 許正斗 403
 허정렬 許政烈 405
 허행면 許行冕 405
 허형 許滢 407
 현열묵 玄烈默 410
 현중화 玄中和 410
 홍경하 洪景夏 412
 홍신표 洪信杓 412
 홍이장 洪以樞 413
 홍중시 洪鍾時 413
 홍진표 洪震杓 415
 황경하 黃敬河 416
 황문연 黃文淵 417
 황성하 黃成河 417
 황용하 黃庸河 419
 황욱 黃旭 420
 황원 黃瑗 422
 황윤석 黃胤錫 423
 황종하 黃宗河 424
 황종혁 黃鐘赫 426
 황현 黃玆 426

호 색인

ㄱ

가석 可石 102, 116, 225
 각암 覺庵 339
 각포 覺浦 103
 간재 良齋 320
 같은 葛隱 237
 강암 剛庵 201
 강암 強巖 279
 강재 強齋, 剛齋 279
 강호려인 江湖旅人 422
 개석 介石 303
 거기재 居其齋 372
 거암 居巖 108
 겸산 兼山 198
 겸재 謙齋 193
 경암 景岩 109
 경암 敬庵 354
 경암 鏡巖 119
 경은 耕隱 158
 경재 景齋 382
 계고 繼皐 75
 계사 溪舍 410
 계석 溪石 250
 계암 戒菴 250
 계원 桂苑 157, 174
 계항거사 桂巷居士 243
 고당 顧堂 98
 고람 古藍 319
 고봉 高峰 89
 고송 孤松 203
 고은 皐隱 230
 고은 孤股 203
 공계 恭齋 254
 관해 觀海 314
 광반와 廣胖窩 413
 구당 九堂 277
 구룡서실 九龍書室 134
 구산 白山 320
 국인 菊人 416
 국재 菊齋 294
 국촌 菊村 318, 416

근고재 近古齋 314
 근암 勤菴 201
 근원 謹園 84, 221
 금강산인 金剛山人 420
 금추 錦秋 273
 금파 錦波 68
 기산 崎山 198
 기산 箕山 153
 기암 箕庵 372
 기옹 奇翁 372
 기초 箕樵 153

ㄴ

낙서 駱西 252
 난곡 蘭谷 185
 난사 蘭史 125
 난원 蘭院 145
 난재 蘭齋 145
 난파 蘭波 109
 남강 南崗 303
 남계 嵐溪 172
 남계 南溪 348
 남곡 南谷 167
 남극재 南極齋 102
 남농 南農 384
 남룡 南龍 115
 남전 藍田 398
 남전 南田 327
 남정 南丁 376
 남주 南舟 412
 남한산인 南漢山人 134
 남호 南湖 102
 낭간 琅玕 173
 낭곡 浪谷 373
 노계 蘆溪 94
 노벽 老僻 248
 노봉 老峰 123
 노사 蘆沙 92
 노서 蘆西 176
 노암 魯庵 225
 노연 老研 414

노재 蘆齋 191
 녹설 綠雪 283
 농암 農巖 166
 눌암 訥庵 203, 321
 눌헌 訥軒 249

ㄷ

다산 茶山 331
 담재 湛齋 121
 대령노인 臺嶺老人 394
 대모헌 大母軒 134
 대미산 大米山 401
 대우암 大愚庵 229
 대조자 大條子 310
 도석 陶石 236
 도전 島田 356
 도전 稻田 382
 도촌 稻邨 222
 도하초인 桃下樵人 414
 도헌 圖軒 99
 동강산인 東岡散人 335
 동강 東岡 335
 동곡 東谷 245
 동양 東陽 285
 동천 東泉 297
 동초 東樵 110, 188
 동호 東湖 310
 두남 斗南 158, 333
 두암 斗岩 318
 두호 斗湖 324
 등운 騰雲 419

ㄹ

만경 晩耕 95
 만취 晩翠 240
 매사 梅沙 200
 매정 梅汀 298
 매천 梅泉 289, 426
 매촌 梅村 303
 매환옹 買還翁 229
 면당 勉堂 180

모악산인 420
 모현 慕軒 345
 목재 木齋 405
 목정 牧丁 378
 몽연 夢蓮 133
 무령거인 武靈居人 102
 무령선진조수 武靈仙津釣叟 102
 묵로 墨鷺 290
 묵림자 墨林子 327
 묵호 墨豪 322
 미방 米舫 118
 미산 眉山 118
 미산 美山 419
 미산 米山 407
 미수 眉叟 394
 민재 民齋 194

ㄴ

반월 半月 372
 방산 舫山 262
 방장고택 方丈古宅 134
 방장산인 方丈山人 98
 백강 百剛 98
 백련산방 420
 백양 伯陽 351
 백우 白愚 278
 백천당 百千堂 74
 백천 白川 112
 백포 白浦 82
 벽강 碧岡 143
 벽소 碧笑 288
 벽운 辟芸 248
 벽천 碧川 147
 벽하 碧下 352
 변산 邊山 117
 병암 屏巖 198
 병호 屏湖 223
 보정 普亭 128
 불하자 不暇子 133
 불하 不暇 133
 빙호자 氷壺子 229

ㄷ

사숙재 私淑齋 72
 사암 俟菴 331
 사호 沙湖 203
 산민 山民 415
 삼기재 三奇齋 372
 서명산인 西溟散人 423
 서옹 西翁 282
 서운 栖雲 310
 서진사 徐進士 189
 석강 石江 361
 석계 石溪 198, 370
 석당 石堂 79
 석로 石老 235
 석암 石庵 95
 석우 石友 110
 석전 石田 304, 420, 422
 석정산인 石亭山人 292
 석정 石丁 150
 석정 石亭 292
 석지 石芝 361
 석천 石川 313
 석촌 石邨 259
 석현 石峴 167
 석호 石湖 107
 설봉 雪峰 232
 설산 雪山 366
 설송 雪松 368
 설주 雪舟 207
 설초 雪樵 292
 설하 雪霞 368
 성관 星觀 404
 성산 醒山 285
 성암 誠庵 221
 성암 星庵 383
 성재 省齋 90
 성재 星齋 372
 성재 惺齋 137, 170
 세심 洗心 151
 소남 素南 270
 소련 小蓮 175

소방 小舫 141
 소산 小山 325
 소산 嘯山 165
 소산 獻山 307
 소석 小石 71
 소송 小松 127
 소암 紹庵 316
 소암 素菴 410
 소완 素阮 142
 소재 小齋 245
 소진 素筵 195
 소정 小汀 107
 소정 韶庭 206
 소제 昭齋 282
 소죽 小竹 140
 소천 小天 135
 소치 小癡 388
 소하 小荷 141
 소향 素鄉 348
 송곡 松谷 226, 349
 송농 松農 156
 송담 松潭 276
 송사 松沙 91
 송암 松岩 381
 송오 松塢 153
 송월헌 松月軒 305
 송재 松齋 149
 송재 宋齋 210
 송파 松坡 300
 송호 松湖 181
 수간 睡幹 259
 수명루인 水明樓人 268
 수북 壽北 267
 수산 遂山, 垂山 173
 수암 修庵 71
 수월도인 水月道人 417
 수은 睡隱 72
 숙당 淑堂 178
 술재 述齋 341
 시경 是耕 168
 신석 臣錫 426

심곡 心谷 86
 심농 心農 343
 심재 心齋 111
○
 아산 我山 216
 아산 雅山 344
 아세아일광부 亞細亞一狂夫 422
 암수 巖叟 265
 암현 巖軒 223
 야운 野雲 192
 야정 野丁 81
 양곡 陽谷 193
 양천 養泉 417
 양촌 陽村 124
 여산 如山 85
 여유당 與猶堂 331
 연농 研農 413
 연당 蓮堂 266
 연사 蓮史 387
 연석 燕石 292
 연옹 研翁 414
 연옹 蓮翁 252
 연포 蓮圃 252
 염재 念齋 213
 영재 寧齋 265
 예정 藝庭 165
 오당 吾堂 68, 227
 오산 午山 403
 오석 吾昔 245
 오죽헌 烏竹軒 144
 옥봉 玉峯 179
 옥산 沃山 114
 옥사 玉史 363
 옥전 玉田 312
 왓천거사 曰川居士 229
 외암 畏菴 166
 용곡 龍谷 342
 용암 龍巖 416
 우계 于溪 241
 우당 又堂 353

우당 迂堂 155
 우산병복 牛山病覆 229
 우산 牛山 229
 우산 又山 330
 우석 友石 424
 우석 又石 359
 우송 友松 159
 우운 又雲 187
 우은 又隱 120
 우재 憂齋 338
 우재 愚齋 116
 우창 愚儻 112
 우청 又淸 417
 우하 宇下 126
 우향 雨鄉 161
 우현 愚軒 369
 우호 又湖 308
 운곡 芸谷 216
 운곡 雲谷 171
 운당 雲塘 192
 운암 雲庵 212
 운암 雲菴 350
 운인 雲人 217
 운재 芸齋 263
 운정 雲汀 327
 운포주인 雲浦主人 423
 운포 雲浦 181
 운호 雲湖 125
 원교 圓嶠 267
 원산 圓山 284
 월담 月潭 88
 월당 月堂 415
 월산 月山 333
 월성 月城 274
 월송외사 越松外史 423
 월아 月娥 231
 월주 月洲 180
 월파 月坡 117
 위남 葦南 176
 위당 渭堂 112
 유당 酉堂 145

유산 西山 156
 유재 裕齋 198
 유하 柳下 247
 육서 六書 270
 윤당 潤堂 272
 율계 栗溪 326
 은봉암 隱峰菴 229
 은봉 隱峯 229
 의도인 毅道人 395
 의재산인 毅齋散人 395
 의재 毅齋 395
 이계 伊溪 218
 이고당 二顧堂 98
 이국당 以菊堂 212
 이당 彝堂 346
 이운 怡雲 147
 이재 頤齋 423
 인당 仁堂 287, 315
 인왕산인 仁王山人 424
 일곡 逸谷 80, 324
 일관 一觀 355
 일농 一聾 348
 일당 逸堂 291
 일봉 一鵬 184
 일정 一丁 334
 임인 林人 392

ㅈ

자연 自然, 子然 310
 작촌 鵲村 347
 장곡 長谷 245
 장석 丈石 83
 장위산인 獐位山人 259
 장전 長田 380
 정곡 井谷 240
 정산 晶山 257
 정산 定山 361
 정원 靜園 101
 정재 靜齋 219
 존재 存齋 89, 243
 좌은 坐隱 372

죽곡 竹谷 169
 죽남 竹南 241
 죽암 竹岩 75
 죽파 竹坡 258
 죽하 竹下 170
 지봉 智峰 328
 지산 芝山 169
 지운 遲耘, 芝雲 136
 지현 志軒 238
 진사 晋史 189
 진암 眞菴 296
 진재 晉齋 177

ㄷ

창교 蒼嶠 309
 창범 滄凡, 滄帆 235
 창봉 蒼峯 187
 창석 菖石 134
 창암 蒼巖 279
 창하 蒼何 271
 채산 菜山 331
 천마산인 天馬山人 227
 천송 泉松 180
 천태산인 天台山人 132
 청곡 靑谷 87, 245
 청고 靑阜 260
 청당 靑堂 104
 청몽 靑夢 416
 청심당 淸心堂 193
 청탄 聽灘 95
 청현 淸軒 226
 초산 蕉山 163
 초연재 超然齋 68
 초의 草衣 316
 초전 焦田 239
 추경 秋耕 379
 추담 秋潭 320
 추당 秋堂 175
 추수 秋水 131
 추운 秋雲 175
 춘강 春崗 359

춘곡 春谷 368
 춘사 春史 97
 춘파 春坡 69
 춘포 春圃 387
 춘헌 春軒 387
 취강 翠岡 405
 취당 翠堂 314
 취백당 翠栢堂 125
 취봉 翠峰 295
 취석 醉石 164
 취성 翠星 94
 취운 翠雲 357
 취은 醉隱 203
 치당 痴堂 97
 치련 穉蓮 402
 치산 致山 377
 치암 癡巖 264
 칠봉거사 420
 칠칠 七七 372
 태천 苔川 132
 태호 苔湖 132
 토림 士林 130
 통명산인 通明山人 350
 퇴휴당 退休堂 193
 평보 平步 190
 평화노인 420
 표원 表園 159
 풍곡 豊谷 192
 필강 筆江 412

ㅎ

하당 荷堂 298
 하서 河西 121
 하정 荷汀 138
 하천 霞川 76
 학고 鶴皋 330
 학봉 鶴峯 78
 학정 鶴汀 183
 학정 鶴亭 275
 학포 學圃 233
 학하 鶴下 166

함금 寒琴 262
 한사 寒史 378
 해관 海觀 259
 해주 海洲 242
 행구 杏丘 327
 행원 杏園 398
 향곡 香谷 107
 향산 香山 182
 현중주인 軒中主人 98
 현계 涇桂 129
 현당 玄堂 139
 현원 玄園 81
 현정 玄汀 366
 혜백산인 蕙百散人 417
 호남거사 湖南居士 227
 호당 浩堂 219
 호산 湖山 189
 호생관 毫生館 372
 호석 湖石 308
 호암 湖巖 163, 232
 호영 湖影 170
 호운 湖雲 186
 화강 華岡 288
 화암 華庵 286
 화운 華雲 412
 화화도인 火畵道人 173
 효강 曉崗 160
 효당 曉堂 106
 효봉 曉峰 400
 효산 曉山 268
 효암 曉菴 358
 효인 孝彦 335
 효원 曉園 339
 후운 後雲 375
 후치 後痴 417
 희재 希哉 154
 희재 希齋 307

서화자료총서 1

호남 서화가 사전

인쇄 2024. 11. 20

발행 2024. 11. 30

발행인 홍영기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603.9600 fax.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편저자 이선옥·김소영

편집·교정 김소영·송은수

편집·제작 (주)디자인포유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29번길 2, 2층 TEL 062.385.9395

〈비매품/무료〉

ISBN 979-11-94466-02-4 91000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1000

비매품/무료

9 791194 466024

ISBN 979-11-94466-02-4